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
- 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행 미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

- 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이 행 미

이행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

- 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당대 가족법과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근대법의 도입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법질서 안과 밖에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나갔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에 영향을 미친 가족법은 근대와 전통의 길항, 젠더불평등, 규율권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제도이다. 조선총독부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호적제도와 친족상속법을 통해 근대성과 통치성이라는 양면성을 바탕으로 한 조선 가족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지도했다. 한편 민족공동체의 주요 단위인 가족의 질서를 지배해왔던 관습적 규범은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근대법과 공모 또는 경합을 벌이며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국가법에 내재된 해방과 억압의 속성을 직시했고, 그 속에서 아직 제도화/규범화되지 않은 권리와 새로운 가족상을 서사적으로 구현해냈다. 가족법의 시행으로 발생했던 긴장과 충돌의 현상 속에서 생성된 물음이 당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핵심적인 매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II 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가족법의 전개 과정과, 그로 인해 달라진 가족 관계 및 위상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호적제도와 친족상속법이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가족법을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족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로 고정불변한 공동체이자 신성한 집단으로 여겨지던 가족 공동체는 계약을 통해 결합과 해체가 가능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변모해 나갔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가족법에 내포된 통치 전략과 전근대적 요인을 은폐한 채, 조선 가족의 문명화를 일관되게 법 개정의 목적으로 천명했다. 봉건적 질서 하에 억압받던 여성의 권리 신장을 특히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당대 가족 내 여성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가족법 도

입으로 가족질서가 동요되던 현실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가족 개혁을 위한 법의 유효성을 인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법이 가져다준 해방과 억압의 국면을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이들은 여성이 주체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다. 1910년대는 추상적 개인으로서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였다면, 일부일처제의 법제화 이후 1920-30년대는 이혼, 첩과 제2부인 문제 등과 같이 법의 그물망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이들의 삶에 결부된 구체적인 문제에 주목하였다. 일제말기 창씨개명 정책에 따른 여성의 개성(改姓)에 대해서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주체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두고서 논의되었다. 총독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법 제정의 목적과 정반대로, 이들 논의의 초점은 현행 법률의 경계 아래에서 구속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권리 부재 문제에 있었다. 이와 같이 당대 법의 전개와 그와 병행했던 담론장의 논의 속에서 형성된 법에 대한 감정과 의식은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의 문학적 글쓰기에 주요한 동력이자 자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예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론의 III-V 장은 공시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가족법의 문제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는 주제의식을 형성했음에 주목하여, 관습적 가족에서 법적 가족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적 국면을 부부, 가족, 민족의 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론의 III장에서는 법적으로 공인된 부부만을 인정하게 된 변화 속에서 결혼과 이혼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가족 내 여성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대 민법 도입으로 이전의 가족과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어낸 지점은 혼인 문제를 사적 계약으로 전환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근대적 의미의 가족을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지만, 한편으로 법의 내부와 외부를 선명하게 나누어 법의 그물망에서 배제되거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 었다.

법적으로 소외받았던 여성들의 발화가 작품 속에 의미 있게 기입되었던 현상은 당대 가족법의 전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1910년대는 법적인 이혼 관념이 등장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는 명문화되기 전이었고, 지식인 사이에서는 근대적 계약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했던 때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시기 이혼 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구여성 아내의 인권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1920년대 이르러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됨으로써

축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용인됐던 모순적 조항으로 인해 당대 첩이 된 여성은 상당했고, 그 사회적 비난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다. 이광수와 김명순의 문학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첩의 내면을 그리면서 주류담론의 일반적 이해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1930년대는 신가정 담론의 확산과 함께 아내의 시점에서 가족의 문제를 그리는 소설이 여러 편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문학은 가정 내 성역할을 고정해 나갔던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 가정이 불안한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계약개념에 대한 성찰과 재해석을 통해 가족법에 내포된 젠더불평등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문제제기를 보여주었다.

Ⅳ장에서는 가족 질서 및 가족 관계 형성에 국가법의 개입이 광범위해지는데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줬던 작품을 살펴보았다. 당대 가족법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의 하나였고, 가족의 자율적 질서를 구성했던 이른바 ‘가족의 법’은 체계적인 국가법으로 포괄되어야 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당시 작가들은 가족의 파탄과 해체되는 모습 혹은,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가족상을 형상화하여 국가법으로 수렴되지 않는 가족과 개인의 의미를 탐구해 나갔다.

먼저 국가법을 향한 비판이 전근대적 가족의 법인 관습적 규범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졌던 소설에 주목하여, 비제도적 공간으로 가족을 서사화하여 감정과 본능에 근거한 사적 징벌을 옹호하는 작품들의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한편 염상섭은 조선의 가족이 법을 매개로 통치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었던 현장을 포착하여, 근대법과 관습이 착종된 가족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작가이다. 특히 그는 재산상속 문제를 반복적으로 서사화했는데, 불안한 위치에 있는 가족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식민지 공권력에 포획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사건을 조망하는 개인의 위치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채만식과 심훈은 당대 수용되었던 베벨과 엥겔스의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의 영향 속에서, 식민지 조선 가정을 지탱하는 법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아가 대안적 가족상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당대 국가법에 귀속되지 않는 가족의 의미를 전달한다.

Ⅴ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지닌 자유와 평등의 한계를 표면화하는 민족 간 결합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주목하였다. 한일병합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내선결혼 문제는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 내포된 동화와 배제의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선결혼의 현실화의 어려움이 가적(家籍)을 자유롭게 이동

하지 못하는 호적제도에 있음에도, 일제말기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식민지 시기 가족은 민족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지표였다.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가족 관념은 민족 경계를 넘어 형성된 가족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근대문학은 이와 같은 근대법과 관습적 규범에서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형태에 내포된, 가족의 배타적 성격을 문제적으로 나타냈다. 본적과 혈통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고향의 의미를 형상화하거나, 남성과 달리 적(籍)의 이동이 용이했던 여성이 민족 경계를 넘어 행한 연애와 가족형성의 문제를 서사화했다. 여기에는 민족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유와 순혈주의적 전통가족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가족법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족과 국가 사이에서 개인의 삶과 권리의 문제를 법감정의 차원에서 폭넓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법을 매개로 가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찰하고 유의미한 문제의식을 생산했던 근대문학의 대응/응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학과 사회를 고찰하는 한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근대문학에 재현된 근대가족의 형성 문제는 협력과 저항, 전근대와 근대, 개인과 가족, 젠더불평등의 어느 한 틀만으로 살펴볼 수 없으며, 이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양상을 들여다볼 때 그 의미를 온전히 해명할 수 있다. 식민지 가족법이 해방 이후 계승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보여준 더 나은 삶을 향한 풍부한 가능성의 지표들은 문학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가족, 가족법, 법감정, 인권, 민법, 관습법, 호적제도, 조선민사령, 일부 일처제, 축첩, 이혼, 간통, 계약, 상속, 민족, 내선결혼

학 번 : 2011-30010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사 검토	1
2. 연구의 시각	13
II. 근대 민법의 도입으로 인한 가족 관계 재편 양상	27
1. 식민지 시기 가족법의 전개와 가족의 문명화	27
2. 가족의 탈신성화와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	49
III. 법률혼 정착의 이면과 여성 인권 문제의 대두	77
1. 이혼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과 희생자로서의 여성	77
2. 첩의 법적 지위 자각과 정신적 사랑의 추구	102
3. 계약 개념의 재해석과 일부일처제의 균열	123
IV. 국가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가족의 자율성 모색	149
1. 전근대적 윤리의 복권과 사적 처벌의 문제화	149
2. 법 현실을 통찰하는 개인과 재산상속의 의미	165
3. 계급의식을 내면화한 여성과 가족의 의미 재인식	177
V. 가족 구성의 경계 확장과 순혈주의에 대한 성찰	194
1. 내선결혼의 불가능성과 고향 개념의 재정립	194
2. 월경(越境)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시선	214
V. 결론	225
<참고문헌>	228

■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사 검토

가족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 단위이자 공동체의 원형이다.¹⁾ 그런 만큼 가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의 주요한 제재가 되어 왔다. 가족의 역사적 변천은 시대 구분과 조응하며 이루어졌고, 새로운 인물형과 사건, 주제의식의 등장은 변화된 가족을 매개로 소설 속에 구현되었다. 문학사의 시대구분의 주요한 준거로 가족제도와 가족의 의미 및 위상 변화를 참고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²⁾ 그러나 사회적 실체로서 가족은 시대의 지배적 이념과 상응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한편으로, 그 범주와 경계 안으로 수렴되지 않는 복수의 가족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테면 근대적 의미의 가족은 가부장

1) 국어사전에 따르면, '가족(家族)'은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친족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일컫고, '가정(家庭)'은 그 가족이 한 공간에서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가족 개념이 가족의 외연을 확정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가정은 특정한 주거생활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는 뜻이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적인 것'에 대한 규정은 두 개념 중에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는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전자는 혈연적 관계나 법적 관계 등과 같은 친족의 의미가, 후자는 가족이 성립된다고 여겨지는 의식적 요인이 핵심이 된다. 한편 용어의 유래를 엄밀히 따져볼 때, '가족'은 일본의 이에(家)에서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한국에서는 일제에 의해 호적제도의 일종인 민적법이 실시됨에 따라 공식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정선, 「가족사, 가장 오래된 새로운 역사」, 『역사비평』 104, 2013, 268면) 한편 '가정'은 페이지 시기 유입된 'home'의 번역어이다. 당시 이 용어는 서구 핵가족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기능이 강조되었고, 가족 개혁의 도달점으로서 이상적 형태로 여겨졌다. (上野千鶴子, 이미지문화연구소 역,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 당대, 2009, 130-134면; 千田有紀, 김복순 역, 『일본형 근대가족』, 논형, 2016, 55면) 근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가정'은 특별한 형태의 가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족과 가정 개념의 이러한 정의와 유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용할 것이다. '가족'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친족의 자격과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란 뜻에서, '가정'은 생활공동체라는 의미와, 신가정 담론과 같이 근대 핵가족을 특정할 때 쓸 것이다.

2) 이언 와트는 영국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가족제도 변화와 근대소설 발생의 긴밀한 관련성을 규명한 바 있다. 그는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 소가족으로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소설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Ian P. Watt, 강유나·고경하 역, 『소설의 발생』, 강, 2009, 5장 참조.

적 확대가족에서 부부 중심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와 같은 경향성에 합류하지 않는 수많은 이형태들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속에 공존하는 여러 가족들은 국가가 정한 정상가족과의 긴장과 경합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한국에서 근대가족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살펴볼 때, 일제의 가족 정책과 식민지 지배라는 조선의 특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근대 사상에 눈을 뜬 지식인들이 유교적 가족질서를 비판하며 개진했던 가족담론과 함께, 법치를 표방하며 새로운 가족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국가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식민지 시기 작가들에게 가족의 변화를 매개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 법과 도덕의 긴장을 사유하게 했고, 그에 대한 응답과 저항의 산물로서 문학적 글쓰기를 수행하게 했다.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가족으로 대변되는 사적 영역을 규율해나갔던 가족법³⁾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현행 법률의 질서를 넘어서는 삶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 근대법의 '보편성'과 일본의 가족제도 이식을 매개로 한 '통치성'이라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다. 이 시기 수행된 법적 가족으로의 전환은 전근대적 가족질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국가에 구속된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일

3) '가족법'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법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강기원, 「가족법의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본 한국 가족의 변화」, 하용출 편, 『한국 가족상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23-224면;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창비, 2011, 23면)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가족법'이란 용어는 법학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개념을 따른다. 한편 일본의 가족법을 다룬 한 저서에는, 가족법에 민법 규정 외 가족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예는 부동산 침탈에 해당하는 절도죄로 형법에 포함된다.) 또한 일본과 달리 구미에서는 상속법을 보통 가족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中川 淳・小川富之 編, 『家族法』, 法律文化社, 2013, 2면) 한편 가족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 기능이 있지만, 행위규범으로서의 상징적 기능이 보다 강한 법규이다. (이화숙,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법」, 박병호 외, 『가족법학총론』, 박영사, 1991, 10면) 따라서 시대에 따라 개정되는 가족법 조항들은 국가 주도로 정상가족의 범주와 경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개인은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확보하려고 한다. 가족법이 정하고 있는 경계에서 벗어난 가족'의식'을 정초하려 할 때는 대안 모색의 비판적 거점이 되기도 한다.

차적으로 이 논문은 작가들이 가족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 나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족과 국가라는 두 공동체 사이에서 개인의 삶과 권리를 확보하고자 했던 모색 양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법 제정으로 야기된 일상 변화가 문학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현행 법률과 현실의 간극을 성찰하는 작가 의식을 들여다볼 것이다.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와, 법적으로 제도화된 현실의 이면을 통찰하는 작가들의 글쓰기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대다수의 작가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가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겪었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번민을 소설 속에 투사하였다.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채만식, 조명희, 이기영, 심훈 등은 모두 조혼 풍습 아래 부모의 뜻에 따라 혼인했던 작가들이다. 이들은 한국 문학사에서 서로 다른 경향과 이념을 지닌 작가로 분류되지만, 공통적으로 억압적인 가족 제도 속에서의 경험과 심리를 작품 속에 담아냈다. 『무정』을 비롯하여 1910년대 전후 발표된 이광수의 작품에는 감정적 교류 없이 이루어진 혼인을 “일생에 큰 파란의 원인”⁴⁾으로 여겼던 작가의 내면 풍경이 드리워져 있다. 채만식의 『과도기』와 『인형의 집을 나와서』, 심훈의 『직녀성』은 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이르렀던 그들의 삶에서 솟아난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창작활동에는 물론 근대화라는 긴요한 과제 앞에 타파해야 할 폐습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그에 앞서 작가의 실제 삶을 무겁게 짓눌렀던 생활 속의 구체적인 문제의 반영이기도 했다. 조혼과 이혼, 재혼의 문제를 둘러싼 관습법과 근대 민법의 충돌 가운데 발생하는 딜레마 속에서, 작가들은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 작가에게 가족법 문제는 좀 더 직접적인 억압으로 다가왔다. 조혼한 남성과의 연애, 이혼, 처첩 갈등, 첩과 제2부인 개념의 긴장, 혼인 여성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는 관습과 민법 어느 한편으로 귀착되어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였다. 김일엽, 김명순, 나혜석, 최정희 등이 근대적 사랑과 연애, 개성과 자아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한 고민을 전개했음

4)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 전집』 6, 삼중당, 1971, 338면.

에도, 결국 가족과 결혼제도라는 범망을 넘어선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명순과 최정희는 구체적 성격과 그 정도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공인된 결혼제도에서 배제된 삶을 살았고, 나혜석은 이혼과정을 통해 기혼 여성이 법적으로 주변화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창작된 이들의 문학은 봉건적 유제로서의 가족과 근대적 개인의 갈등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식민지 시기 가족의 변화를 법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당대 가족 현실에 영향을 미쳤던 법이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그 자체로도 복합적 성격을 띤다.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호적법과 친족상속법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일본 민법의 차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으나, 일제말기 전까지는 조선인의 반감을 고려해 관습을 최대한 채택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는 일본 민법으로 대변되는 근대법과 관습법(공인된 관습)이 착종된 형태로 현실에 작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밖에도 공인되지 않은 형태지만 일상에서 여전히 법칙으로 유효하게 적용되던 관습과, 근대적 사상의 일환으로 소개된 서구의 법과 교회법 등은 식민지 시기 가족 질서와 그 의미를 동요시킨 다양한 법적 준거가 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이와 같이 여러 법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던 이른바 ‘가족법적 현실’⁵⁾ 속에서 형성된 문제의식을, 문학 속에서 ‘법감정’⁶⁾의 차원에서 폭넓게 나타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5)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족법적 현실’이라는 용어는 조선총독부 정책으로 제정된 ‘가족법’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조어다. 이는 당대 사회의 과도기적 특성상 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그 영향력이 완전하게 행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본문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족법적 현실’의 층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포된 조선민사령과 조선후적령 등의 근대적 법률 ② 조선 시대부터 식민지 조선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었던 관습법, ③ 교회법과 같이 개인에게 일종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법칙 ④ 현재 삶을 구성하는 법률과 비교대상으로 작동하는 잡지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된 외국의 법제.

6) ‘법의식’, ‘법감정’, ‘법문화’는 공통적으로 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법이념과 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유용하다. 통상적으로 ‘법의식’은 인지적 요소, ‘법감정’은 정서적 요소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법문화’는 법과 문화, 사회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 세 개념은 각각 역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지만, 선명하게 분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양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0, 250면 ; 임웅,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 연구

복합적인 법의 영향력 속에서 가족을 매개로 생겨나는 주체의식을 살피는 작업은, 전통과 근대 가족, 가족과 개인이라는 이항대립 구도로 수렴되지 않는 실제 가족의 복합성을 조명하게 해 준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 분야에서 가족을 중심에 두고 살펴본 연구 중 본격적으로 가족법에 천착한 경우는 드물다. 가족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살펴보고 있는 선행 연구의 성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족 서사가 나타나는 소설을 일정한 유형으로 개념 규정하고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논의,⁷⁾ 둘째, ‘가족로망스’라는 방법적 틀을 사용한 논의⁸⁾이다. 이 두

』 1, 1998, 87면;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26, 2013, 190면) 이 논문은 ‘법감정’을 방법적 시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서론은 2절 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7) 김진구, 「1940년 전후 가족서사의 정치적 상상력 연구: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의 『탐』,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성연, 「염상섭 가족사 소설 연구: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가족제도의 변화」,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류종렬,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박현호, 「30년대 후반 ‘가족사연대기’소설의 의미와 구조」, 『민족문화사연구』 4, 1993; 신상성, 「1930년대 한국 가족사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원은영, 「가족사연대기소설연구: 김남천의 『대하』, 이기영의 『봄』, 한설야의 『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재선, 「한국 가족사소설의 전개」, 『한국문학의 해석』, 한국학술정보, 2003; 이해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0, 2003; 임형모, 「가족사 연대기 소설에 나타난 저항성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 『어문논집』 49, 2012; 최은아, 「1930년대 가족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황국명, 「1930년대 가족사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8, 1994. 동아시아의 가족제도의 유사성을 근거삼아 중국과 일본의 가족사소설을 비교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분석 대상이 되는 소설은 염상섭의 『삼대』이다. (권미, 「20세기 초 한·중·일 가족사소설 비교사(比較史) 연구-『이에(家)』, 『삼대(三代)』, 『자(家)』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최계화, 『가족사소설과 근대성: 1930년대 한·중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호미, 「염상섭과 빠진(巴金)의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편 최시한은 한국 근대소설에서 발견되는 가족서사를 ‘가족사소설’이 아닌 ‘가정소설’의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고전문학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해명하고 있다.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8) 강유진, 「근대 주체로서의 성장과 가족로망스」, 『어문논집』 39, 2008;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김명인, 「한국 근현대소설과 가족로망스: 하나의 시론(試論)적 소묘」, 『민족문화사연구』 32, 2006; 김승민,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가족로망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 허병식, 『교양소설과 주체 확립의 동력학: 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경향에 속하는 연구는 주된 시각의 차이에도,⁹⁾ 식민지라는 역사적 현실의 대응 차원에서 가족을 민족공동체의 주요 단위로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첫 번째 경향에 속하는 연구로는, 서구의 가족사소설의 영향과 격변하는 사회적 현실이 결합하여 탄생한 가족사소설(또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유형은 가족의 운명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동의 축도를 그려냄으로써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의 상호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을 일컫는다.¹⁰⁾ 가족의 역사를 직선적 시간관을 바탕으로 형상화하면서 전통가족의 붕괴와 근대적 세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세대가 지닌 의미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김남천의 『대하』를 비롯하여 대체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창작된 소설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논자에 따라 그보다 앞서 창작된 염상섭의 『삼대』나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가족을 매개로 식민지 조선 사회의 근대성과 민족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이러한 소설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에 포함되는 분석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식민지 시기 문학 전반에 걸쳐 형상화된 가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접근 틀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¹¹⁾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2, 2001; _____, 「고아와 혼혈, 근대의 잔여(殘餘)들」, 『역사와 문화』 24, 2012.

9) 가족사소설은 인물의 성장 서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족로망스 이론을 적용해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적지 않다. 위의 인용한 강유진과 허병식의 논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김남천의 『대하』 분석에서 특히 그와 같은 분석적 시각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10) 가족사소설의 개념 규정과 분석 대상 선정은 논자에 따라 상이하다. 박헌호는 그 편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30년대 후반에 창작된 역사적 갈래로 한정할 것인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둘째, 당대 풍속론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박헌호, 앞의 글, 246면) 이재선은 서구 이론을 폭넓게 참조하여 가족사소설의 개념과 그 특징을 상세히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이 유형은 “가족소설(Familienroman)의 하위장르에 해당” 하며, “주로 가정문제나 가정생활 또는 관계의 평면관계를 중시” 하는 ‘가정소설(domestic novel)’과 구분된다. 한 가족의 세대적인 연대기를 서술하여 가족의 융성과 소멸을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의 운명을 통해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일종의 철학을 드러내는 장르이다. 이 유형은 가계소설 및 가문사소설과도 변별된다. (이재선, 앞의 글, 163-165면)

11) 가족사소설이라는 유형에 한정하여 식민지 시기 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볼 경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소설들은 가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 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이광수의 소설은 가족 문제를 심도 있게 다

가족주의로 보는 사회학적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여 가정소설의 변모과정을 추적한 최서한의 연구와, 1920년대 연애소설을 1930년대 가족사소설 창작을 가능하게 한 전단계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가족제도를 바라보는 작가인식의 연속성을 살펴본 김성연의 연구는 그 아쉬움을 보완하고 있어 주의를 끈다. 이 두 논의는 가족 문제와 식민지 현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밀도 있게 탐구한 여러 편의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한국문학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좀 더 폭넓게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논의 경향은 대체로 가족의 실제 현실보다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이론을 원용하여 상상적 구조로서의 가족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가족관계의 유비를 통해 피식민지인이 근대적 주체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발견되는 식민지적 무의식과 근대 한국의 정체성 탐색의 계보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고아적 무의식을 지닌 인물의 성장을 살펴봄으로써 서구와 구분되는 피식민주체의 근대소설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¹²⁾ 가족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당대 법제와 담론을 폭넓게 참고하면서 살피는 연구가 있다.¹³⁾ 접근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국과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가족과 국가, 개인의 관계가 형성되는 역동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론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인간의 사고와 심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비유적 의미로 나타나는 소설까지 분석의 외연이 확장될 여지가 있다.¹⁴⁾ 따라서 관념과 현실 두 차

루지 않은 반면, 염상섭과 채만식의 소설은 근대화 과정에서 붕괴된 전통가족을 그림으로써 사회적인 의미를 띠는 평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전제는 근대에 들어 전통가족이 붕괴함에 따라 통합적 가족이 파편화된 상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가족」, 하용출 편, 『한국 가족상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31-143면) 그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 논문은 관점을 달리하여, 그 파편화된 가족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12) 식민지 시기 문학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명인과 나병철의 연구가 있다. 김명인, 앞의 글, 337-341면; 나병철, 앞의 책.

13) 김승민, 앞의 글.

14) 최서한, 「가족 이데올로기와 문학 연구: 최서한의 「해돋이」를 예로」, 『돈암어문학』 19, 2006, 13-15면.

원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동요되고 재편되는 현실을 통찰했던 한국 근대 문학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그간의 연구는 근대와 전통을 대립구도로 전제하여 그 이행 과정을 살피는데 역점을 둠에 따라, 근대와 전근대 가족의 경합 속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갈등 국면은 다소 소홀히 다뤄진 경향이 있다. 결국 근대 지향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현실에서 가족을 규정하는 여러 맥락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대 작가들에게 있어 가족 문제에 대한 사유가 미시적 차원까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지 시기 가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방법적 틀이 요구된다. 사실상 유교 이념은 타파해야 할 악습으로 신랄하게 비판받았지만, 가족 내부의 규율로서 그 영향력은 크게 경감되지 않았다.¹⁵⁾ 조선 시대 가족 질서와 윤리의 토대였던 유교 이념이 '예(禮)'라는 보편법칙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대에 접어들어 가족에 행사되는 규율이 국가의 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적으로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가족을 둘러싼 사건들과, 이를 접한 작가들의 문제의식이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수직적 관계인 부자 문제에 천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법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부부 관계이다.¹⁶⁾ 그런 점에서 결혼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연애와 사랑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 논문과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 일찍이 김윤식은 부자관계와 부부관계 중심의 가족 구조에 결부된 가치관의 충돌이 '자유연애'라는 현상을 야기했다고 보았다.¹⁷⁾ 근대 초기 가족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임을 증명하듯, 연애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15) 유교 이념을 중심에 놓고 한국소설의 특수성을 살피고 있는 연구로는 최시한과 김승환의 논의가 있다. 김승환, 「염상섭소설에 나타난 가족중심의 인간상고(攷): 중기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앞의 책.

16) 일제말기에 있었던 개정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자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의 재정립을 가능케 하는 법률의 정비가 증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당대 가족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본론의 II장 1절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17) 일찍이 김윤식에 의해 언급되었으나 통속적인 소재로 여겨졌던 '연애'는, 문화·풍속사적 접근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연구자에게 비중 있게 다뤄졌다. '자유연애'는 '근대적 사랑', '낭만', '열정'과 같은 의미들과 결합하여, 부권(父權) 중심의 강압적인 봉건적 가족을 탈주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김윤식, 「한국 문학의 연속성 문제」, 김열규 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76. 135면.

보였다. 조선 시대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라는 허울 뒤에서 혈통의 계승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친족 집단의 거래로 맺어진 관계였다.¹⁸⁾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근대적 연애 또는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의사와 감정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어야 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근대적 사랑/연애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는, 풍속 문화적 탐구에 기초한 사상적 지형을 그리는 작업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국 문학의 근대성을 추적하는 연구로 대별된다.¹⁹⁾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 이론을 전제 삼아 작품 내에서 그 특징을 발견하거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귀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연애의 근대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되,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근대적 주체/자아를 발견하는 가능성으로 연애 문제를 살피는 연구들과 관점을 달리하여, 유교질서에서 벗어나 연애를 지향하는 인물이 또다시 근대적인 일부일처제, 이혼과 관련된 근대법의 구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현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1920년 전후 연애를 매개로 근대적 자아를 확인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에서 침묵하거나 비가시화된 존재로 재현되는 구여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²⁰⁾ 나아가 보편적인 근대 가족의 이념을 표상한다고 가정되는

18)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46면; Martina Deuchler,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324면.

19)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김미지,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 2001; _____,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사회』 14, 2001 봄;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출판, 2007;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정혜영, 『환영의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6;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근대문학 초기의 연애/사랑이 지닌 의미를 규명하는 이러한 연구는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끌었다.

20) 김지영은 동인지 문학에서 연애가 절대적 자아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보았다. (김지영, 위의 책) 그러나 『창조』창간호에 실린 최승만의 「황혼」과 전영택의 「혜선의 사」는 이러한 해석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기’를 확인하며 연애를 주장하는 인물들은 결국 괴로워하다가 죽음에 이르거나(「황혼」), 타인의 희생을 야기한다. (「혜선의 사」) 그와 같은 인물의 욕망과 행동은 봉건적 가족질서를 탈출한 주체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유보적이게 한다. 연애 또는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 특히 그 억압과 허울을 주관하는 핵심 기제인 법의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두 작품과 관련

가족법 또는 그 법규에 의해 특권화된 정상가족과의 갈등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배제된 ‘비’정상적인 존재와 그 흔적이 환기하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법의 도입으로 가족 질서가 재편되던 현실과 한국문학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한 편으로, 그 또한 신소설에 한정되어 나타난 편이다.²¹⁾ 근대소설과 법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논문은 신소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법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²²⁾ 이는 신소설에서 범죄 서사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²³⁾ 신소설은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권선징악을 주제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대법의 의미를 들여다봄으로써 선과 악, 정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가족의 정착과 관련된 민법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법과 관련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신소설 이후 전개된 근대소설에서다.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조선의 관습을 존중하다가 점차 근대적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²⁴⁾ 신소설에서 법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계몽의 차원에서 긍정된다면, 근대소설에 나타난 가족법은 좀 더 다양한 의미를 형성한다. 인물 간의 관계를 조율하거나 갈등과 사건의 잠재요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족과 개인을 규율하고자 하는 국가법과 대결의식을 보이는 양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고소설에서부터 신소설로 계승되어온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의 서사가 근대소설에 이르러 해체된 상태로 끝이 나거나 파국적 결말을 맞는 경우가

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본론의 III장 1절에서 다루고 있다.

21)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홍순애, 「법률이야기(legal story)의 정치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최찬식 신소설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8, 2014.

22) 김경수, 「근대법의 수용과 신소설」, 『서강인문논총』 43, 2015; 이지훈,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 연구: 근대 주체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형래, 「근대계몽기, 범죄와 신소설」,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진옥, 위의 글;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3)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76-84면.

24) 1912년 조선민사령 반포 당시 친족상속법은 종래의 관습에 의거하였다. 그 후 통첩과 칙령의 공포와 개정방침을 논의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1922년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으로 일본 민법의 공식적인 차용이 결정되었다. 이후 일제말기에 이르러 또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식민지 시기 가족법 전개에 관련된 내용은 본론의 II장 1절에서 다루고 있다.

많은 것은, 가족법의 도입으로 가족의 의미가 변화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²⁵⁾ 그런 의미에서 신소설이 근대 문물로서의 법이 수용되던 현실을 재현의 차원에서 다루는 편에 가깝다면, 근대소설은 좀 더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법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을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기에 걸쳐 창작된 근대문학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가족법 제정 이후 변화한 가족법적 현실에서, 여성은 권리 신장과 체계화된 불평등이라는 일견 양립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국면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작가의 성별을 막론하고 가족 문제를 그린 대부분의 소설에서 시련과 수난을 겪는 인물이 여성으로 설정된 데는 이러한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식민지 시기 여성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도 근대 가족의 형성과 여성 주체 문제는 비중 있게 검토되어 왔다.²⁶⁾ 그러나 가족법의 문제는 변화된 시대적 현실의 반영 차원에서 다뤄진 경향이 짙고, 그에 대한 의식적인 문학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논문은 드물다.²⁷⁾

따라서 근대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기 형성된 근대 가족제도 또는 가족법의 형성을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할 필

25) 신소설의 가족 화합 서사는 유교적 도덕 감정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송기섭, 『근대소설의 서사 윤리』, 태학사, 2008 참조) 그러나 가족 내 질서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설정 변화 등은 근대법 도입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권보드래, 「열정의 공공성과 個人性: 신소설에 나타난 '一夫一妻'와 '二妻'의 문제」, 『한국학보』 26-2, 2000; 이경림,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信義)”의 형상화 방식에 관하여」, 『인문논총』 73-2, 2016; 이재선, 앞의 책, 105-123면; 최진옥, 앞의 글, 132-180면; 홍순애, 「근대계몽기 윤리학적 사유와 식민지 법의 길항- 이해조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4, 2017.

26)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 표상』, 예음, 2009;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김명순·나혜석·김일엽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형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하신애, 「최정희 문학의 모성 주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허운, 「193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모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7) 최근 발표된 이와 같은 연구는 근대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윤정, 「식민지 시대 관습(慣習)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 2014; 이행미,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

요가 있다. 세부적인 논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가족 또는 가족법 자체가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한다거나, 식민지배에 의한 왜곡이라는 이항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구성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전통, 근대, 식민성, 젠더 문제가 착종된 공간으로서 가족제도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²⁸⁾ 이혼, 내선결혼, 사생아 등의 문제 속에 담긴 여러 이해의 역학 관계를 살피는 이와 같은 연구는 이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중 소현숙의 연구는 담론에서 개진된 근대적 가족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현장들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근대적 이혼제도의 정착이 일본 민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는 것은 다분히 일면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억압적 현실에 대응해나갔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규명하였다.²⁹⁾

또한 양현아는 식민지 시기 가족법의 중층성에 주목하면서, 가족법 자체가 법원의 분쟁수단이 되는 실정적인 규범체계를 넘어서 사회적 효과를 미치는 '상징체계'라고 의미부여한 바 있다.³⁰⁾ 이와 같은 접근은 당시 가족법에 대한 문학적 응전이 지닌 의미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문학이 '지금-여기'의 현실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갈망이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어 공동체에 더 나은 전망을 보여주는 양식임을 고려한다면,³¹⁾ 법에 의해 구축된 상징으로서의 가족을 '전복'하는 또 다른 상징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식민지인은 식민지의 일상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의 영향권 안에 놓인 객체이므로, 현실 속에서 문학은 법을 대신하여 '있어야 할 법'이 무

28) 양현아, 앞의 책;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31, 2014;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9) 소현숙, 위의 글.

30) 양현아, 앞의 책, 95면.

31) 제롬 브루너는 법과 문학이 공통적으로 허구적 성격을 띤다고 본다. 그러나 문학이 인간의 삶에서 대안적 세계라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면, 법은 그 가능성들에 한계를 부여한다. (Jerome Seymour Bruner, 강현석·김경수 역,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2010) 김경수는 한국 현대소설을 '문학법리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롬 브루너의 논의를 참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김경수,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38, 2008.

엇인지를 탐구하는 최적의 양식이 될 수 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생겨난 여러 갈등을 형상화하면서, 그 '경계'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이 그 경계를 정초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근대와 전통의 길항, 젠더 불평등, 통치를 위한 규율권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가족법의 속성들이 한국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유의미한 문제의식을 생산해내는 지점을 들여다보려 한다. 가족법이 시행되고 현실에서 적용되는 일상생활은, 관습법과 근대법이 경합하면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장이었다. 문학 속 가족의 문제는 두 법의 긴장 관계를 통해 사유되기도 하고, 또는 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각 생산하고자 했던 '정상가족' 모두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가족법에 담겨있는 해방과 억압의 속성을 활용하거나 비판하고, 또는 파괴하면서 새로운 가족상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갔던 한국 근대문학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을 매개로 법 너머의 삶을 회구하는 인물들을 통해 법 제정의 주체인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당대 거듭 탐구되었던 가족 구성 문제에 천착한 개인의 의식과 감정에 좀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2. 연구의 시각

가족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 양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매개로 여겨져 왔고, 그 위치 설정에 따라 국가정치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은 판이해졌다. 가령 플라톤은 사적 가족의 해체로 이루어진 통일적 정치공동체를 이상국가로 여겼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개인을 국가 구성원으로 결집시킬 매개로서 가족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복합체로서의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³²⁾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을 통해 시민 자격이 상속된다는 점에서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토대가 되는

32) Aristotle, 천병희 역, 『정치학』, 숲, 2009, 1-2장 참고.

가족의 기능을 강조했다. 이렇듯 근대 이전 서구 철학에서 개인은 가족에 속할 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계약론의 출현으로 개인은 가족의 유기적 구성원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³³⁾ 이처럼 서구 철학사에서 가족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의 관계 설정 속에서 그 의미가 달라져 왔고,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 문제와 맞물려 나타났다.³⁴⁾

이와 달리 유교문화권에서 개인, 가족,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회 전체를 관류하는 도덕 원리의 지배를 받았다. 특히 가족 질서는 유교 원리를 구현하는 모형으로서 모든 사회조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³⁵⁾ 한국의 전통 가족은 조선 시대 성리학을 국교로 삼으면서 유교적 가족관을 수용했다. 유교 사회에서 예(禮)는 우주의 질서와 일치하는 보편타당한 법이다. 국가법의 원천이자 토대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상위에 놓인 행위규범인 것이다.³⁶⁾ 이와 같은 사회는 법에 따른 공식적 제재보다 도덕관념의 내면화를 통한 비공식적 통제에 더욱 주력한다. 때문에 조선 시대 가족은 국가와 개인의 중간에 위치하여 사회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만큼 가족 질서는 엄격히 지켜져야 했고, 이를 위반했을 때 엄격한 법적 제재가 가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국법의 제재가 침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재량권이 허용된 공

33) 권용혁, 『한국 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 이학사, 2012, 153-154면.

34) 도시국가와 가족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로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아렌트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서구 사회에서 근대 이전의 가족은 공적 영역과 명백히 분리된 사적영역으로, 국가 원리와 변별되는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 이르러 사회가 등장했고, 사적 영역의 공적 영역화로 인해 진정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 공간은 사라지게 된다. (Hannah Arendt,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73-132면.) 서구에서 근대적 의미의 가족 변화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과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맞물려 나타났다. (조은 외,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3-14면)

35) 이숙인, 「유학의 가족사상」,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32-35면; 이태훈, 「유교적 가족관과 시민적 가족관」, 『사회사상과 문화』 2, 1999, 185-186면.

36) 최흥기,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4-39면.

간이었다.³⁷⁾ 이처럼 조선 시대 가족은 공적 영역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자족적인 질서가 인정되는 공간으로 가족의 특수성이 제거된 채 국가와 일체를 이루는 이른바 가족국가와는 변별된다.

한편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종법제도(宗法制度)가 수용되면서, 부계와 모계가 비등한 위치에서 공존했던 고려 시대까지의 가족제도가 부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³⁸⁾ 부계혈통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유지가 강조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은 가문의 명예와 영속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었다. 가문은 구성원의 결합이나 해소에도 바뀌지 않는 독자적 조직으로 개인에 앞서 존재했다.³⁹⁾ 그렇기에 조선의 가족에서 가부장의 권위는 그 무엇보다도 제사의 주재자라는 지위로 뒷받침되었다. 가장의 위치는 주로 장자를 통해 계승되었고, 부권(父權)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⁴⁰⁾ 혈통을 중시하여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불가능했고, 적통인 아들이 없을 경우 친척 내 혈손(血孫)을 입양하여 대를 이어갔다.

이와 같은 조선의 가족제도는 개화기에 접어들어 신분제가 폐지되고 개인주의 사상이 부상하는 흐름과 맞닿아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부터 이전사회를 총괄하던 질서인 '예(禮)'의 원리는 공적 영역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⁴¹⁾ 그런데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총독부를 중심으로 가족이 법치(法治)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가족 내에서 조선적 관습과 국가법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식민 당국이 법을 통해 조선 가족의 질적 전화를 꾀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본의 근대가족인 이에(家)제도의 이식이었다.

일본의 근대가족은 메이지 헌법에 의해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적합한 형태로 고안된 것이었다.⁴²⁾ 메이지 민법으로 만들어진 이에(家)는 실

37) 위의 책, 43-50면.

38)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앞의 책, 9-24면.

39)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1997, 163-166면.

40) 최재석,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83면, 145-148면.

41) 이원택, 「개화기 '禮治'로부터 '法治'로의 사상적 전환: 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와 그 성격」, 『정치사상연구』 14-2, 2008, 68면.

42) 우에노 치즈코는 일본의 근대 가족제도가 일본 고유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해서 봉건적 가족제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지역과 계급에 따라

제 현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상에 기록된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법률상의 가족이었다. 일본 국민은 반드시 이에(家)에 소속되어야 했다.⁴³⁾ “공법(公法)에 대응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으로서 가족의 자율성이 결여” 되었다는 우에노의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로부터 일본의 근대가족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 영역 개념이 부재한 집단이 되었다.⁴⁴⁾ 가족국가의 성격은 이에(家)의 대표자인 호주를 매개로 유지되었다. 법적으로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는 천황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가족을 국가의 부분집합으로 만들었다.⁴⁵⁾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지녔다. 효를 강조할 경우 국가보다 가족을 중시하게 되므로, 효와 충의 위계가 역전된 ‘충효’라는 개념을 만들어 국민적 일체감을 끌어내고자 했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결합하여 개인주의와 대결 구도를 설정했다.⁴⁶⁾

또한 일본의 근대가족은 조선의 가족제도와 달리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닌 호적상의 가(家)를 계승한다. 한국의 가족에서 성(姓)이 부계혈통의 표식으로서 영구히 변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씨(氏)는 가적(家籍)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구성원이 되는 조건으로 혈연은 절대적이지 않다. 혼인한 여성과 데릴사위로 양자가 된 이는 입적된 가(家)를 대표하는 호주의 씨(氏)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씨(氏)의 변경은 외부자를 정식으로

상이한 여러 관습이 존재함에도 일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채택했다는 점, 다른 관습에 비해 배타적 부계상속제가 문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더불어 메이지 민법의 가족법 부문이 긴 논쟁 끝에 명시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그 ‘정치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上野千鶴子, 앞의 책, 91-97면) 메이지 시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일본의 근대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견해는 센다 유키의 저서에서도 발견된다. 센다는 우에노의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에’의 다의성에 주목하여 ‘이에’와 ‘근대가족’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千田有紀, 앞의 책, 27-29면, 84-98면) 한편 니시카와는 일본의 근대가족이 현실에 나타나는 양상을 ‘이에(家)’와 ‘가테이(家庭)’의 길항과 교차로 설명한다. 전자는 메이지 민법으로 제정되었고 확대가족에 가깝다면, 후자는 핵가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메이지 시기 신문잡지에서 ‘이에(家)’의 대립개념으로 빈번히 등장했다. 西川祐子, 임미진 역, 『문학에 나타난 생활사』, 제이앤씨, 2012, 4-20면.

43) 谷口知平, 『民法要設』(全), 有斐閣, 1951, 123-124면.

44) 上野千鶴子, 앞의 책, 114-116면.

45) 김영선, 「결혼·가족담론을 통해 본 한국 식민지근대성의 구성 요소와 특징」, 『여성과 역사』 13, 2010, 145면.

46) 上野千鶴子, 앞의 책, 94-95면.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일본의 가족제도가 동아시아의 다른 제도보다 혈연을 강조하는 배타적 성격이 약하고 여성의 가족 내 지위 또한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⁴⁷⁾ 하지만 일본의 가족 제도에서 호주는 대체로 부계로 이어지며, 재산상속과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장남이 단독 상속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은 막강하다.⁴⁸⁾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를 근간에 둔 일본의 근대가족을 “부부가족제의 모습을 한 근대 가부장제”⁴⁹⁾라고 보는 평가는 적실하다.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가족정책의 법적 기반은 호주 중심 가족의 성립을 위한 호적제도였다. 가족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친족상속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 제11조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제와 조선총독부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서 모순이 없어야 할 두 법령을 함께 개정해 나갔다.⁵⁰⁾ 이 논문에서 다루는 가족법은 이 두 법령을 중심으로 한다. 더불어 민법에 포함되진 않지만 가족 관계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이혼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간통죄와 같은 형법 조항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가족법은 일상생활에 투입하여 전근대적 가족 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 법제의 정비 목적은 궁극적으로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대 가족의 성립에 있다. 가족법은 정상가족의 범주를 정하고서, 개인을 그 집합에 속하게 하고 그에 적절한 성향을 갖추게끔 유도한다. 법의 설립을 통해 형성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통해 국가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고자 했다.⁵¹⁾ 가족은 일상 속에서 개인의 (무)의식을 형성하는 기초 집단이므로,

47) 위의 책, 108면.

48) 후쿠자와는 「일본부인론」에서, 메이지 민법의 실시로 나타난 여성이 호주가 되거나 명의상 동산/부동산 소유가 허용될 수 있는 변화가 지닌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분간의 부채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기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福澤諭吉, 표세만의 역, 『후쿠자와 유키치의 젠더론』, 보고사, 2014, 26면.

49) 上野千鶴子, 앞의 책, 118면.

50) 호적제도는 가족 간의 경계를 설정한다면, 친족상속법은 가족 내부의 경계를 정한다. 가족구성원 자격의 획득과 상실의 경로를 제시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54면) 호적법과 친족상속법의 공포와 개정의 구체적 과정은 II장 1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식 가족 관습의 이식은 피식민지인을 일본 국민으로 동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 실시된 가족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근대법의 정신이 반영된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⁵²⁾ 따라서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조선의 전근대적 관습 질서로부터의 해방과 일본의 근대가족에 내재한 봉건성과 침략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 헌법은 표면상 유럽의 입헌정치를 풍토에 맞게 채용한다 했지만, 천황의 권위 아래 신민을 복속시켜 안정적으로 국가체제를 견고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체제였다.⁵³⁾ 그중 가족법 부분은 일본의 풍습과 습관을 수용한다는 명목 하에,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근대법과 전혀 다른 봉건적 성격을 고수했다.⁵⁴⁾ 이는 천황 중심의 가족국가에 복무하는 가족을 법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위였다. 근대성과 전근대성을 모두 지닌 메이지 민법은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며,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⁵⁵⁾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의 법률은 메이지 헌법에 모든 법률의 집행자이자 통치권을 지닌 존재로 명시된 천황에게 그 권리를 위임받은 조선총독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 법률사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공포했던 것이었다.⁵⁶⁾ 제국 헌법의 입헌적 요소인 '신민(臣民)의 권리'는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고, 따라

51) Louis Althusser, 이진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 백의, 1991 참조.

52)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80면.

53) 박광석, 「제국헌법'과 明治天皇」, 『일본역사연구』 26, 2007, 120-126면.

54) 일본 정부는 민법전 제정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의 법학자 보아소나드를 초빙하였다. 그런데 가족법은 '일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별도로 일본인 위원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처음 작성된 초안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서구 근대법을 계수하고자 했다. 이때 가족 관계를 철저히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받았다. 결국 논란 끝에 호주의 특권과 단독상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정중휴, 「日本民法典의 編纂」, 『법사학연구』 36, 2007, 110-114면.

55) 제령은 “조선총독이 내는 명령으로 내지(内地)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정책은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이나 조선총독부의 명령인 총독부령에 기초”로 이루어졌다. 김영달, 「창씨개명의 제도」, 宮田節子 외, 『창씨개명』, 학민사, 1994, 41-42면.

56) 한상범,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2001, 72면.

서 조선인은,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온전한 일본 국민은 될 수 없었다.⁵⁷⁾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구분되는 표식이 호적에 명기된 본적(本籍)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호적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였다. 호적은 '일본의 가(家)를 단위로 한 국민등록시스템'⁵⁸⁾이다. 일제 말기에 씨(氏)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식적 기반으로 일본 국민과 동등하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명분인 동시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자유로운 전적(轉籍)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본질적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예외지대로서의 피식민지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기제였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된 가족법은 일본의 근대가족제도를 이식하기 위한 기본 강령이자, 호적에 등록 여부를 통해 식민 당국의 원활한 인적 관리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수단이었다. 폭력적인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규율을 내면화함에 따라 순종적 신체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의 정책이다.⁵⁹⁾ 또한 가족법은 다른 법의 적용과 구분되게, 강제적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각자 나름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가족 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푸코의 규율권력에 대한 이론과 함께 통치와 정상화 문제를 사고했던 후기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에 있어서 부권(父權) 또는 부권(夫權)으로 대변되는

57) 김창록, 「법에 있어서의 '근대」, 『법학논총』 21, 2014, 82면.

58) 김영달, 앞의 글, 57면.

59) Mi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206면. 선행 연구에서 식민지 규율권력을 내면화한 주체의 형성을 다룬 대표적 저서는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1997)이다. 이 책에 수록된 가족과 관련된 논문은 김혜경의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이다. 어린이의 양육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수용이 전통적인 양육 관행을 어떻게 변화했는지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필자 스스로도 훈육적 주체의 생산 외에 다른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율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응하는 주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규율적인 근대주체가 생산되는 과정”(267면)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언급 또한 그러한 인상을 준다. 김진균·정균식 외,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호주와 구성원은 법적 권리 차원에서 전면적인 예속 관계를 형성한다. 사실상 법인격이 부여된 존재는 '호주'밖에 없으며, 구성원의 권리는 호주의 동의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인정되었다.⁶⁰⁾ 가족 질서의 유지는 각 구성원의 내부 위계를 수궁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맡길 때 견고해지는데, 이때 가족법은 호주 외의 구성원들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하도록 유도한다. 이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각 구성원들은 일종의 '품행'⁶¹⁾을 갖추도록 유도되며, 이는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등의 역할 속에서 일종의 '미덕'으로 각인된다. 가족법의 규범은 개인의 품행 안에 새겨진다는 점에서, 거기서 이탈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스스로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법에 따라 그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사회의 질서를 허물어트리는 '위험한 존재' 또는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첩,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생아 등은 가족법의 틀 내에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작동 방식은 일제말기에 이르러 가족국가 차원에서 피식민지인의 동화와 배제의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식민지 조선에 행해졌던 가족법은 비합법적 존재를 통해 현행 법률의 억압적 성격과 그 배후에 있는 권력의 본질을 드러낸

60)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1,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64면; 滄海, 「現代 法律과 女子의 地位」, 『신여성』 36, 1931.6, 24면; 玉滄海, 「現代 法律과 女性의 地位」(續), 『신여성』 40, 1931.10, 21-23면.

61) '품행'은 푸코의 후기 이론에 나오는 개념이다. 푸코는 통치성의 출발을 '인간의 품행을 대상이자 목표로 삼는 사목권력'에서 찾고 있다. 그리스의 '가정관리술(oikonomia)'이 사목과 더불어 영혼관리술의 차원으로 변화하고, 그리스도교 사목에 의해 '콩뒤트(conduite)'가 된다. 이 프랑스 어휘는 '품행'으로 번역되는데, 인도하는 행위와 인도되는 행위, 이 두 행위가 결합된 것의 영향 아래 처신하게 되는 상태, 이 세 가지 모두를 일컫는다. 품행의 내면화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순수한 복종상태에 이르게끔 기능한다. (265-268면) 푸코는 사법, 규율의 메커니즘과 구분되는 '안전장치'와 '통치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목권력을 통해 나타나는 '품행'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 논문은 가족법이 푸코가 제시한 '안전장치'와 동일하진 않으나, 규율권력에 대한 시각만으로는 현실에 효력이 발휘되는 가족법이 지닌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이 개념을 취합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인적 차원의 통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부분 인구의 관리를 통한 통치에 대해 논하는 푸코의 작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Michel Foucault, 오토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2 참고.

다. 그 '타자'로부터 촉발되는 사유는 현행 법률을 상회하는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데리다는 '정의로서의 법(Law)'과 '실정법으로서의 법들/법률(laws)'을 구분하면서, 법률을 초월한 정의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사유된다고 보았다.⁶²⁾ 이를 식민지 가족법에 유비적으로 대입해 볼 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첩과 사생아, 가족을 매개로 국민 자격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한 피식민지인들은 '내부에 있는 외부'로, 데리다가 말한 '유령'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온당한 권리를 누리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의 소수자로서 법망을 벗어난 이들의 행위와 내면을 형상화하는 문학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법성을 지닌 현행 법률의 부당함을 드러내어 법 너머에 있는 정의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질문하기 때문이다.⁶³⁾ 이처럼 문학은 정형화된 규범으로 제도화될 수 없는 정의의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⁶⁴⁾

법은 일종의 '수행문'이다. 법의 권위와 효력은 그 진술의 진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된 명령과 금지가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반복되고 내면화되는 정도에 따라 획득된다.⁶⁵⁾ 법의 의미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토대를 통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법률의 적법함에 개입하는 다른 '수행'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데리다의 관점은 버틀러의 행위 주체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으로 연결된다. 버틀러는, 주체는 법 밖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복종을 통해 규범이 재생산된다는 푸코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그와 변별적으로 권력의 규제를 벗어난 생산물을 긍정한다. 규범의 반복된 수행 속에서 그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재배치하고 재분배함으로써 균열을 일으킬 수 있

62) 데리다는 내부의 동일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호한 존재를 “결정 불가능한 것의 유령”으로 표현하면서, 그 '타자'로부터 촉발된 법률의 해체(déconstruction)를 통해서 '정의'와 '윤리'를 사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Jacques Derrida,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33-62면; 최진석, 「데리다와 (불)가능한 정치의 시간」, 『문화과학』 75, 2013.

63) 김혁기, 「해체의 법철학」,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법문사, 2012, 463-464면.

64) '법문학'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상돈은 문학의 언어는 “제도화가 불가능한 정의의 성찰매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상돈, 「법문학이란 무엇인가-법문학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 『고려법학』 48, 2007, 73-74면.

65) Jacques Derrida, 앞의 책, 28-33면.

다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권력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이를 전복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⁶⁶⁾ 버틀러의 이와 같은 시각은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현실화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형상화한 텍스트를 분석할 때 유효한 참조점이 된다. 견고한 규제적 법망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갈등, 인물의 발화와 행동에서 포착되는 법에 대한 비판은, 신념에 찬 저항이 아니라 그 균열 가능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문학적 글쓰기는 법을 통해 배제된 소수자의 삶을 문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현실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때 ‘법감정’은 이러한 문학 행위를 추동하는 동력이 된다. 예링(Rudolf von Jhering)에 따르면, ‘법의식’이 지식의 차원에서 법을 숙고하는 학문적 영역이라면, ‘법감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정서적 영역에 속한다.⁶⁷⁾ 그는 법감정이 법의 진보와 인간의 권리 신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한다. 일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경험적 감정이야말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문제의식을 깨닫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법감정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⁶⁸⁾ 또한 예링은 인간의

66) 버틀러는 젠더를 고정적이고 보편적 범주로 이해하는 그간의 페미니즘의 여러 논의들에 문제제기를 던진다. 여기에는 자아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서구의 근대적 주체에 대한 비판이 전제한다. 그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 구성물을 통해 생성되는 주체의 윤리성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주체야말로 그 내부에서 통합되지 않은 상태의 타자, 즉 타자 그 자체와 공존할 가능성을 지닌다. Judith Butler,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참고.

67) 전해정은 법감정과 법의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감정은 정서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며, 정의에 관한 도덕감정은 법감정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인다. 직관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간의 경험에 따른 인식이 축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법감정은 이성적 측면을 내포한다. (임웅, 앞의 글, 96면; 전해정, 앞의 글, 190-194면) 예링 또한 법감정과 법의식을 구분하고 있지만, 법감정에 인식적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즉각적 감정이 투쟁으로 이어질 때 ‘인식’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가 법감정을 강조한 것은 이론적 탐구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68) Rudolf von Jhering, 심재우·윤재왕 역, 『권리를 위한 투쟁: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새물결, 2016, 74-76면. 임웅의 정리에 따르면, 리츨러는 ‘법감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첫째, 현재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감정(실증적 법감정), 둘째,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이상적 법감정), 셋째, 법에 일치하는 것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보편적 법감정). 임웅은 여기에 더해,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감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임

권리 확장 욕망이 일상적인 법적 제도를 낳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의식 부재는 곧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역으로 권력이 법감정을 보호하지 않거나 그와 상치될 때,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이 공동체 존립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⁶⁹⁾ 법감정은 올바른 법의 정립과 발견에 기여하며, 직관적인 감정의 차원에서의 호소라는 점에서 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준다.⁷⁰⁾

권리에 대한 투쟁을 이끄는 법감정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이다.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표방하는 근대 민법의 성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당시 가족법의 시행은 근대적 인권의식의 확장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인다. 인권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권리라는 점에서 실정법의 차원을 넘어선다. 인권은 그 추상적 원리를 법적 권리로 변형하는 실천을 경유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⁷¹⁾ 문학에 나타난 '생성되지 않은 인권'⁷²⁾에 대한 감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고투를 서사화함으로써 현행법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 속에서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 법률에 대항하는 투쟁은 모두 더 나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법감정에 대한 이해는 문학과 법의 관계를 탐구하는 선행 연구의 전제가 되어왔다. 근대의 법이 문학과 마찬가지로 갈등 해결과 정의 구현의 기능을 지닌다는 안경환의 논의,⁷³⁾ 법이 공공선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가 되었을 때 법을 위반하는 문학의 의미를 강조한 김예리의 논의⁷⁴⁾는,

웅, 위의 글, 86-102면.

69) Rudolf von Jhering, 위의 책, 98-99면.

70) 임웅, 앞의 글, 99-102면.

71) 이재승,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비평』 103, 2013, 38-39면.

72) 이소영은 이상돈의 『인권법』에서 사용된 용어를 참고하여, 법문학비평이 기존인권담론을 끊임없이 의문시함으로써 '생성되지 않은 인권'을 길어올린다고 보았다. 이소영, 「법문학비평과 소수자의 내러티브-박민규, 윤성희, 김애란의 단편소설에 대한법문학비평-」, 『법철학연구』 14, 2010, 213면.

73)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까치, 1995, 16-23면.

74) 김예리는 법적 정의를 보완해 주는 문학적 공감의 능력을 강조한 누스바움의 견

근대법과 법적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인간의 권리 확장을 요청하며 법의 갱신을 촉발하는 법감정 차원에서는 점점을 형성한다. 한편 이상돈은 법과 문학의 관계를 여러 차원에서 살피면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문학은 이성적인 법의 언어로 담지 못하는 ‘감정’을 다룸으로써 새로운 법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전형적이고 규격화될 수 없는 정의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과 정치로는 포착될 수 없는 은밀한 억압을 문제화한다.⁷⁵⁾ 이와 같은 법과 문학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 연구의 성과에 이어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가족법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문학적 글쓰기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각 하에, 이 논문은 1910년대 중후반부터 일제말기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에 형상화된 가족을 법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고찰하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가족이 근대적 법률의 등장으로 어떤 질적 변화를 겪었고,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통찰했던 작가들이 어떠한 문학적 대응을 보였는지를 구명할 것이다. 우선, 본론의 II 장에서는 근대 민법의 도입으로 인해 조선 시대와 변별되는 속성을 지니게 된 가족의 의미와 변화된 위상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시기 가족의 변화를 유도했던 호적제도와 친족상속법의 전개 과정을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그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사건이 신문매체를 통해 재현된 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작

해를 비판적으로 재독하면서, 법의 비정상성에 대응하는 문학적 행위의 의미를 김지하의 필화 사건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김예리, 「법과 문학, 그리고 ‘위반’으로서의 시적 정의」,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

75) 이상돈, 「법문학이란 무엇인가- 법문학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 앞의 글, 71-74면; 이상돈·이소영, 「법문학비평의 개념, 방법, 이론, 실천」, 『안암 법학』 25, 2007, 410-479면; 이소영, 「법문학비평과 소수자의 내러티브-박민규, 윤성희, 김애란의 단편소설에 대한법문학비평-」, 앞의 글, 213-215면. 법학분야에서 도출된 ‘법문학’이란 개념에 대한 접근과 ‘감정’에 대한 관심은 누스바움이 말한 공감과 연민과 같은 감정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김예리의 논문에서도 제기되었지만, 누스바움이 강조한 문학적 상상력은 공공의 합리적 추론의 근본 토대로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다. 분별 있는 관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감은 현실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수렴되며, 그 현실을 구성하는 법질서를 전복시키는 데는 무기력하다. (Martha Craven Nussbaum,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 2013) 문학은 법제도 밖에 있는, 이성적 언어로 가시화될 수 없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담고 있고, 이는 독자에게도 감정적인 반응을 통한 공명으로 이어진다.

가와 지식인들이 잡지에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법의 변화와 나란히 등장한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이들의 이해가 대중적인 인식과 변별되는 지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배경적 고찰 하에, 이 논문의 III, IV, V 장은 공시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법이 실시된다고 해서 현실 세계가 그 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1910년대 초 시행된 가족법이 1920년 초에 개정된 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제말기에 이르러서야 개정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법적 가족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적 국면을 부부, 가족, 민족의 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조선인 간의 결합, 조선의 가족과 이를 규율하는 국가, 조선인과 비조선인의 가족 구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개인과 개인, 가족과 국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서사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III 장에서는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에 따라 달라진 부부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국면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근대적 민법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해방과 구속의 양면을 치열하게 들여다본 작가들의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의 합법화, 공인되지 못한 아내인 첩과 제2부인, 간통죄의 차별적 적용 등 현행 법률의 안과 밖을 고르게 조명하면서, 가족 내 여성 인권에 대해 어떻게 문제제기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을 법률을 매개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가족에 행사되는 법률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가족과 국가 사이에서 개인의 의미를 어떻게 추구해 나가고 있는지를 구명할 것이다. 가족공동체에 뿌리 내린 관습법과 국가법이 충돌과 긴장 관계를 보이는 양상을 통해 법률에 의해 포획되지 않는 가족의 자율성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고찰이 일제 강점 하 근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살펴보려 한다.

V 장은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 내재된 자유와 평등의 한계를 표면화하는 민족의 경계를 넘는 가족 구성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대상으로, 일제의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족법에 내포된 동화와 배제의 논리에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내선결혼과 창씨개명과 같은 정

책에 대한 저항으로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가족이 옹호되던 흐름과 다르게, 정상가족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II. 근대 민법의 도입으로 인한 가족 관계 재편 양상

1. 식민지 시기 가족법의 전개와 가족의 문명화

조선은 법치(法治) 보다 예치(禮治)에 방점을 둔 사회였다. 조선 시대 가족은 안팎으로 예(禮)에 기초한 수직적 위계질서 아래 유지되어왔다. 가족 내부에서는 가부장의 권위, 외부에서는 가문의 차이를 통해 가족의 지위와 위상이 결정되고 보존되었다. 이는 곧 개인의 부자유와 신분에 따른 불평등이 가족을 주축으로 삼아 견고한 사회윤리로 정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에 대한 의무체계만이 있을 뿐, 백성의 권리를 보증해 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⁷⁶⁾

근대 초기에 민법 제정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과정은, 가족에 근간을 둔 도덕을 대체할 새로운 법칙 수립에 대한 여망이 반영된 현상이었다. 개인의 권리,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증대되던 현상과 맞물려, 새로 유입된 가치들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법을 매개로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민법과 관련된 글이 거듭 실렸다. 그 논설들은 초점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족 질서와 결부된 도덕이 국가법으로 교체되고, 그에 따라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⁷⁷⁾ 성문화된 민법전 편찬은 제도적

76) 조선 시대는 법전을 지속적으로 편찬하면서 법치를 표방했던 국가였다. 조선왕조에서 간행된 대표적인 법전에는 『경국대전』(1485), 『속대전』(1746), 『대전통편』(1785), 『대전회통』(1865)이 있다. 이와 같은 법전에도 '예전(禮典)'과 같은 범주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 사회와 일상생활 전반을 규정했던 가장 강력한 상위법인 '예(禮)'에 기초한 것으로, 통치 수단으로 제정된 국가법과 명확히 구분된다. 정궁식에 따르면, 전통 법제는 공법과 사법이 구분되지 않고 혼효되어 있는 '육전체제(六典體制)'로, 민사에 속하는 내용은 백성의 권리가 아닌 국가에 대한 의무체제로 규정되어 있다.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5-6면.

77) '민법'에 대한 소개는 일찍이 「민법론」이란 제목으로 『독립신문』에 게재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종교와 도덕의 율법'과 '나라 정치의 율법'을 인류의 내외에 위치한 것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마음에 행하는 법'이고, 후자는 '행동을 규제하는 금지와 허용의 법'이다. 민법은 후자에 속한 법 중에서도, 공법과 달리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논하는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민법론

차원에서 개인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는 점에서,⁷⁸⁾ 그 무엇보다도 문명의 소산으로 이해되었다.⁷⁹⁾ 이처럼 근대 초기 지식인들은 개인의 자유의사 보장과 근대 국민국가 성립을 위한 필수 단계인 근대 민법 성립을 향한 기대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때 국가는 가족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고 보호해 줄 집단으로 긍정되었다.

두천생(荳泉生)의 「법률발생의 원인」은 가족과 국가, 그리고 개인을 이해하는 이 같은 이해 방식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관습과 법률, 사회와 국가를 대척 관계로 설정하고서,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개인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무질서 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성문화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견해는 공동체의 규율인 관습이 진실성과 도덕성에 의혹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하고,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행될 실정적 규범인 법이 제정되었다는 원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⁸⁰⁾ 그런데 필자는 논지를 전개하던 도중 관습이 통용되는 공간을 사회가 아닌 ‘가족’으로 한정한다.⁸¹⁾ 가장은 가족(家屬)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며, 심지어 생

」, 『독립신문』, 1899.8.12.) 『황성신문』에는 일본과 미국의 민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후 한말에 나온 잡지에는 조선 시대에 없었던 민법의 근대적 특질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예로 들 수 있다. 雲庭 尹孝定, 「刑法과 民法의 區別」,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5.25; 趙琬九, 「民法總論」, 『대한협회회보』 1, 1908.4.25; 安國善, 「民法과 商法」, 『대한협회회보』 4, 1908.7.25; 卞惠淵, 「法律이 斯世에 施行되는 理由」, 『대한협회회보』 5, 1908.8.25; 朴聖欽, 「民法講義의 概要」, 『서우』 7, 1907.6.1

78) 國家가 如何한 方法에 依하여 私法을 適用하는 問題는 民事訴訟의 立法主義如何를 因하여 不同하니 卽民事訴訟을 刑事訴訟과 如히 私權의 侵害者를 國家가 스스로 檢舉하는 主義도 理論上及歷史上에 認定한 바 | 不無하나 然이나 現今發達한 民事訴訟制度에 在하는 國家는 私인에게 對하여 一定한 條件下에 私法適用의 請求權을 認하고 私인이 其 保護를 請求함에 當하여 비로소 此를 保護할 뿐이오 國家가 自進하여 保護치 아니하니 換言하면 國家는 私權의 範圍에 自進하여 干涉치 아니하는 바 | 라 故로 刑事訴訟과 迥殊하여 國家가 스스로 當事者됨이 無하고 訴訟은 오직 私인과 私人間에 行하는 바오 國家는 不偏不倚하여 私權을 保護適用할 뿐이라. 「民事訴訟의 根本的 觀念」, 『대동학회월보』 6, 1908.7.25., 16-17면 (밑줄: 인용자); 「民法講義의 概要 (續)」, 『서우』 8, 1907.7.1.

79) 李鍾麟, 「民法總論 (二號續)」, 『대한협회회보』 9, 1908.12.25.

80) Roberto Mangabeira Unger, 김정오 역, 『근대사회에서의 법: 사회이론의 비판을 위하여』, 삼영사, 1994, 77-78면.

81) 가족은 실정법 체계의 등장 이후에도 관습법이 강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유지되는 집단 중의 하나이다. (위의 책, 70면) 필자가 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적 이해에 가족 중심의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慣習은 人類가 아즉 國家를 成立하기

사여탈권까지 쥐고서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전제적 권력을 가진 존재로 규정된다. 국가의 법률은 이에 대항하여 가장이라는 전제자의 군림 아래 있던 가족구성원을 해방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다.⁸²⁾ 이처럼 이 글은 가부장과 국가의 권력을 반비례 관계로 보면서, 가족에 통용되는 법인 관습을 ‘악습’으로 비판하고, 가족의 구성원이기만 했던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법이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염원은 국가 주도의 법전 정비 사업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과 가족에 대한 법령이 공포된 후, 1905년 대한제국은 민사규정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형법대전』을 제정하고서 바로 민법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법전은 편찬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근대 민법 제정의 기획은 통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이를 계승했다.⁸³⁾ 소유권 확립과 세제의 법제화 등을 위해 인사 관계의 법적 정비가 요청되었고, 이를 가능하게 할 기반으로 호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호적을 중심으로 인민을 등록하여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일본적인 근대 국민국가에 걸맞은 가족을 성립시키기 위한 토대이

以前에 發生한 者로 從來行使한 國家成立以後에 至한 安寧秩序와 生活方法에 妨害가 別無한 舊來의 狀況에 放任하고 又는 放任한 뿐 아니라 有時乎此에 屈從한 是는 慣習의 勢力이 大하 所以라 卽古代家長의 權力이 强盛한 時에 在한 家長은 其 家族을 財産과 如히 賣買하고 다만 賣買한 뿐 아니라 生殺의 權을 任意로 專行한 國家는 此를 禁止치 아니하고 反히 容認한 一家의 秩序를 保全케 한 바 러니 時勢의 變遷을 隨한 家長의 權力이 日衰하고 國家의 權力이 強大함에 至한 比로소 國家는 一家의 生活에 干涉한 家長의 對한 傳來의 惡習을 禁止하고 家族을 保護하며 教育한 義務를 負게 하고 其他公衆에게 對한 身體生命及財産의 互相間關係에 至한 概括的으로 命令한 是 卽法律發生의 一端이라 然이나 國家는 悉皆明言的으로 如斯히 命令함이 아니오 裁判과 其他方法에 因한 默示의 認諾으로 此意義를 人民의 道德上觀念에 照한 了知케 한 바 라. (밑줄: 인용자) 荳泉生, 「法律發生의 原因」, 『대동학회월보』 1, 1908.2.25, 49-50면.

82) 1920년 변호사 김우영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법률과의 관계를 좀 더 이론적으로 천착한 글을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법률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논의로는, 가족의 ‘가부권주의’를 비판하면서 확장되었다는 학설, 국가 군주의 소유권의 목적물이라는 학설,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설이 있다. 金雨英, 「國家存在의 理由」(三), 『동아일보』, 1920.4.3.

83) 정공식 편역, 『(國譯)慣習調査報告書』, 한국법제연구원, 1992, 7-8면. 이 책은 1908년 5월~1910년 9월까지 총독부가 한국의 민·상사관습을 조사하여 1910년, 1912년, 1913년에 간행한 『慣習調査報告書』를 번역한 것이다. (위의 책, 창간사 참고)

다.⁸⁴⁾ 1909년 공포된 민적법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민적에 기재하는 일종의 신분등록제도였다. 이로부터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혼인, 이혼, 호주 변경 등에 따라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 관리 통제 체계에 귀속됨을 뜻했다.⁸⁵⁾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개인의 법적 신분 부여가 '가족'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적제도의 도입은 문벌을 타파하여 모든 가(家)를 균등화한다는 점에서 신분제 해체라는 근대적 가치와 호응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가문의 차이를 무화하는 과정에는 일면 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도, 다른 일면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종족집단의 뿌리 깊은 유대감을 해체하여 국가의식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근대가족제도를 이식하려는 목적이 자리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신분 및 지위와 권리는 호주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보되었다. 합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호주는 '전제가'로 비판받았던 전시대의 가장에 비할 나위 없는 강한 영향력을 가족구성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⁸⁶⁾ 이처럼 근대 가족법의 불평등과 구속, 침략과 통치의 측면은 평등과 자유라는 근대법의 형식으로 발표되면서 은폐되었다. 근대 가족법은 근대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인 퇴행이 숨겨진 대표적인 제도였던 것이다.

조선의 가족이 법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호적제도 정착과 관련된 조선 호적령과 친족상속법에 속하는 조선민사령의 제11조 조항의 발포와 개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대략 조선의 가족 질서를 주관하는 관습이 법원(法源)으로 승인되는 정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일본의 메이지 민법의 의용(依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식민지 시기 호적법과 친족상속법은 크게 세 차례 개정되었는데, 공포 이전과 이후뿐만 아니라 법 개정 방향의 논의 과정까지도 언론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된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호적은 국민의 신분등록제도로서 법의 영역에 포함되었다.⁸⁷⁾ 이때부터

84) 임경택, 「일본가족의 근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가족」, 『일본사상』 9, 2005, 127-129면.

85)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23면.

86) 위의 글, 38-39면.

호적에 기록된 가(家)는 가옥을 단위로 한 동거자 중심에서 호주와 그 친족으로 구성된 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⁸⁸⁾ 한일병합 이후 1912년 3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민사령은 일본 민법의 의용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지만,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법령인 제11조 규정은 예외적으로 조선 관습을 법원(法源)으로 삼았다.⁸⁹⁾ 내지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통일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가족과 관련된 항목은 조선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관습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관습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갑작스러운 관습 변화로 조선인의 저항에 부딪혀 원활한 통치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었다.⁹⁰⁾

더구나 여기서 명시된 ‘관습’은 조선의 고유한 관습도, 동시대 사회에 나타났던 실제의 관습을 일컫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의 민법 체제 및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된 관습으로, 민법전 편찬을 위해 약 2년간 총독부의 주도로 조사된 내용이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지역이나 계층의 차이에 따라 형성된 상이한 관습이 폭넓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교적 질서를 고수했던 양반 중심 문화가 조선 전체의 관습으로 간주되었고, 당시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생활세계에서 싹트던 새로운 관습은 포함되지 않았다.⁹¹⁾ 이처럼 근대 민법 체계 아래

87) 『(대한제국) 관보』 제4318호, (발표기관: 內閣法制局官報課), 1909.3.6. 이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대조하여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음을 밝힌다. 『조선총독부관보』(<http://gb.nl.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원문DB; 이승일, 앞의 책;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앞의 글; 정광현, 『한국 가족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88) 「民籍法 發布」, 『대한매일신보』, 1908.12.10.; 「民籍의 發表」, 『황성신문』, 1908.12.17;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제도(戶籍制度)”의 변천 - “민적법(民籍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009, 287-302면.

89) 조선민사령은 1912년 3월 18일 제정되고,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① 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90) 「朝鮮民事令 요지」, 『매일신보』, 1912.4.18; 이상욱, 「일제 강점기 상속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민족문화논총』 33, 2006, 76-79면.

91) 가령 칠거지악 삼불출(七去之惡 三不出)이 이혼 부분에 있어서 ‘관습법’으로 확정되었다.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65-68면) 이순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유로 들면서 아내를 내쫓아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조선의 사회 운영의 핵

처음 등장한 친족상속법은 있는 그대로의 관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근대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확장은 이 시기 현행법인 관습을 넘어선 권리를 주장하게끔 했다. 또한 일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법 기관에서는 이미 개인의 권리가 주요한 기준으로 나타났고, 실제 판결에서도 일본 민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⁹²⁾

조선의 관습 아래 섞여 있던 일본 민법의 흔적이 구체적인 조문으로 명기되어 합법의 영역에 자리 잡은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조선민사령 제11조는 1921년 11월 14일 제령 제14호에 의한 1차 개정,⁹³⁾ 1922년 12월 17일 제령 제13호에 의한 2차 개정⁹⁴⁾이 이루어졌는데, 관습에 따른다는 조항은 일정 부분 일본 민법의 의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사실혼의 관행은 부정되고, 신고를 통해 공인된 법률혼 부부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일본 민법에 명시된 이혼 가능 사유가 적용되었다. 호적과 관련된 사항도 제11조의 2항~9항에 신설되었고, 그밖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⁹⁵⁾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 일본 민법을 따르는

심은 가족이기 때문으로, 국가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부부의 우호적 관계는 유지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1, 42-46면) 그러나 민사령 도입 이후 식민지 조선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관행에 대한 판례나 조례 등을 관계 당국이 승인할 경우, 이후 사례에서 관습으로 전거가 되었다. (양현아, 앞의 책, 122-124면)

92) 소현숙, 앞의 글;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위의 글, 82-85면.

93) 제11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친권·후견·보좌인 및 무능력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친족회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1922년 조선민사령 제2차 개정 당시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습에 의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두고 있지만, 세부적인 경우에는 일본 민법 의용을 채택한다는 내용을 두었다. 일본 민법을 중심으로 법제를 통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가·절가재흥(절가재흥)·혼인·협의이혼·결연 및 협의이혼은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5)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앞의 글, 318-319면.

방향으로 바뀌자, 곧이어 그 신분을 공증하는 호적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22년 12월 18일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후호적령이 공포되었고, 1923년 7월부터 일본과 동일한 호적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친족상속법이 관습을 따른다는 점에서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은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었던 만큼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되었다. 법 개정 전후의 사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부터 목적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기사가 실렸다.⁹⁶⁾ 이 기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법 개정을 통해 조선의 가족제도가 좀 더 ‘문명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공유한다.⁹⁷⁾ 이를테면 총독부 법무국 민사과장 미야모토(宮本)는 이번에 정착된 호적법이 일본 민법에 기초하되 조선 관습을 무시하지 않은 최선의 개정안이라고 자평하면서, 연신 구 제도보다 진보한 것임을 강조한다.⁹⁸⁾ 또한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의 이행과 일본의 이혼법 적용은 근대적인 변화로 소개되었다. 사실혼의 관행으로 많은 여성이 결혼 사기를 당했던 그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진단이 제출되었고, 새로운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법률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글이 몇 차례 연재되었다.⁹⁹⁾

한편 개정 전부터 조선 관습에 어긋나는 변경은 결단코 없으리라고 역설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성(姓)이 바뀌거나 데릴사위

96) 「民事令 中 改正」, 『동아일보』, 1921.11.14.; 「民事令 改正에 對하야」 (1)~(3), 『동아일보』, 1921.11.15-18; 「民事令 改正 全文」, 『동아일보』, 1922.12.7; 「改正된 民事令과 戶籍令의 要旨」(1)-(14), 『동아일보』, 1922.12.17-31.

97) 권태억은 식민지 시기 일제의 정책이 ‘문명화’라는 합리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표면상 ‘문명’을 내세우는 정책에는 일제의 국가적 목표에 따른 식민지 사회의 재편이라는 목적이 자리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대표적인 세 정책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가족 정책이야말로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통치 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된다. 권태억,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사」, 권태억 외, 『일제 강점 지배사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0, 21-29면.

98) 「改正된 戶籍制度 要點에 就하야」, 『동아일보』, 1923.6.29-7.3.; 「改正 戶籍法의 特色」, 『매일신보』, 1923.6.30. 조선에 적용되는 민법의 내용이 점차 ‘완성’되어간다는 기대를 표현하는 기사에서도 미야모토 법무과장과 동일한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능력 조항의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낸다. 법률 행위가 가능한 범주를 정함으로써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民事令 改正의 效果」, 『동아일보』, 1921.11.17.

99) 「婚姻과 變姓은 虛說」, 『동아일보』, 1922.11.8.; 「朝鮮民事令 改正과 婚姻豫約을 論함」(1)-(19), 『동아일보』, 1923.7.3-21.

가 그 집의 성을 따르는 것은 허설(虛說)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내용을 들 수 있다.¹⁰⁰⁾ 이는 조선의 가족제도를 지탱해온 관습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당대 사람들은 문명의 보편적 진보에 걸맞은 개정으로 여겨지는 부분에는 열렬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조선의 전통적 가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의 시행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법 개정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미야모토 법무과장이 언급한 개정의 목적 및 성과와 일치했다. 근대적 문물로서의 법의 의미는 강조되었고, 그 안에 내재된 봉건적 성격과 통치성의 목적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가족 정책의 토대가 되는 가족법의 그 다음 개정은 일제말기에 이르러서야 행해졌다. 1920년대에 있었던 개정이 결혼과 이혼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이때의 개정은 일본 가족제도 이식을 위한 예비적 작업이었다.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¹⁰¹⁾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1939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222호 「조선인의 씨명 변경에 관한 건」에 의해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사령 개정에 따라 1939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220호로

100) 「婚姻과 變姓은 虛說」, 위의 글. 그러나 일제말기에 이르러 실시된 '창씨개명' 정책은 일본 근대가족제도의 이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 도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결혼' 장려 문제」, 『일본학연보』 9, 2000, 15-16면.

101)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연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연조가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연조 또는 혼인의 취소, 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가·절가 재혼·혼인·협의 이혼·연조 및 협의 이연은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연조에 대해서는 그 제출은 양친이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씨는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제11조의2 ① 조선인 양자 연조에 있어서 양자는 양친과 '성'을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사후양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양자 연조는 양자 연조의 제출과 동시에 혼인 제출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서양자는 처의 가에 입적한다.

④ 서양자 연조 또는 연조 취소에 의하여 그 가를 떠나더라도 가녀의 직계비속은 그 가를 떠나지 아니하며, 태아가 생겼을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한다.

조선후적령 또한 개정되었다. 이 법령 제정 전과 구분하여 조선총독부는 성(姓)과 씨(氏)를 엄격히 구분하였고, 씨(氏)의 규정은 일본 민법을 따르게 했다.¹⁰²⁾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어 8월 10일까지 총 6개월 동안 호주로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원하는 씨를 정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성(姓)이 씨(氏)로 전환되었다.¹⁰³⁾ 창씨개명(創氏改名) 정책을 필두로 한 씨(氏)제도 이식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선의 가족에 이질적인 이성양자(異姓養子)와 서양자(婿養子)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미나미 총독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강제성이 없으며, 일본인과 동등한 이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선전했다.¹⁰⁴⁾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성(姓)이 바로 씨(氏)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총독의 연설과 달리 창씨개명은 강제적인 법률이었다.¹⁰⁵⁾

창씨개명의 강요는 조선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성과 이름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姓)은 호적상의 이동으로도 변하지 않는 부계혈통의 연원을 상징하는 표지인 반면, 일본의 씨(氏)는 법률상의 가(家)를 지칭하는 부호이다. 그에 따라 동일한 호적이면 동일한 ‘씨’를 가져야하므로 전적(轉

102) 이승일, 앞의 책, 286-287면.

103) 원하는 씨를 정해 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를 ‘설정 창씨’라 하고,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성을 씨로 전환하는 경우를 ‘법정 창씨’로 부른다. 이와 같은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당시 호적에 등재된 사람이라면 예외불문하고 창씨(創氏)를 하게 된 셈이라는 점이다. (水野直樹, 정선태 역, 『창씨개명』, 2008, 68-74면) 창씨개명과 관련된 주요한 법적 근거인 제령 제19호와 제령 제20호가 발포된 1939년 11월 10일에는 이 정책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과 지침이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다. 성(姓)과 다른 씨(氏)의 의미, 씨(氏) 설정 방법, 씨(氏)의 설정 제한, 개명(改名) 조건, 서양자제도의 의미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婿養子制度 實施와 出嫁하면 媳家姓」, 『매일신보』, 1939.11.10) 그밖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여기에는 법령 반포 이후 실제 시행에 앞서 재래의 관습과 구분되는 법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婿養子, 異姓養子: 氏制度等制定에 對하여」, 『매일신보』, 1939.11.10; 「『扈姓』을 『金氏』로 안되고 『朴李』가 氏·『順愛』가 名」, 『毎日申報』, 1939.11.11.; 「“氏”란 무엇요?」, 『매일신보』, 1939.12.2.

104) 「創氏改名의 機會줄 뿐 強制實施하지말라」, 『동아일보』, 1940.3.6.

105) 예를 들어, 창씨(創氏) 이전에는 남편이 성이 ‘이(李)’이고 아내의 성이 ‘김(金)’일 수 있다면, 창씨개명이 시행되면 아내는 남편의 씨(氏)인 ‘이(李)’로 변경된다. 동일한 호적에 올라와 있는 가(家)의 구성원은 모두 호주의 씨(氏)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달, 앞의 글, 52면 참고.

籍)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진다. 김영달이 적실하게 지적했듯, 창씨개명은 표면적으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만 친족구조 변화에 그 본질이 있으며, “정밀한 법적 메카니즘”¹⁰⁶⁾을 동반한 제도인 것이다.¹⁰⁷⁾

그러나 이전의 조항과 차이가 뚜렷한 정책으로 강제성이 더 심해졌음에도, 법 개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했다. 법적 합리성과 안정성을 갖춘 근대적인 변화로,¹⁰⁸⁾ 가족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도,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에서도 차별과 갈등을 없애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차원에서 개정의 의의가 강조되었다. 씨(氏) 제도를 통해 조선인과 내지인의 가족 관계 형성이 용이해져 민족 간의 차별이 무화된다는 점, 성(姓)이 같다는 이유로 타인에 가까운 이를 양자로 들이는 것보다는 사위를 양자로 삼는 것이 딸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처럼 일제 말기 이루어진 법 개정은 민족 간의 결합과 가족구성원의 권리 부문에서 평등의 가치를 좀 더 진전시켰다고 선전하면서 그 당위성을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유림세력 등 조선의 가족제도를 고수하는 이들은 서양자제도나 내선결혼과 같이 혈통의 경계를 무화하거나 흐릿하게 하는 정책을 완강하게 거부했다.¹⁰⁹⁾

지금까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가족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이 과정은 총독부의 식민 통치 방침과도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 병합 직후에는 식민 통치를 향한 거센 반감을 막기 위해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1920년대 초의 법 개정은 문화 통치라는 흐름에 발맞춰 혼인과 이혼에 개인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맥락에서 근대적 성격을 강조했다. 일제말기에는 전시체제에

106) 위의 글, 54면.

107) 위의 글, 45-50면.

108) 「異姓養子, 氏制度制定 家庭制度一部改正」, 『동아일보』, 1939.11.10.

109) 유교적 가치를 고수해 오던 유림 집단에게 창씨(創氏)는 부계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종족사회에 기반을 둔 민족의 계통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인도적 가치의 타락과 등가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다. (서동인, 「성주 사도실마울의 창씨 실태와 김창숙의 반대 논리」, 『한국 근현대사 연구』 70, 2014;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26, 2011)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유림들의 비판과 저항적 행위를 복고적인 의미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에 일견 동의하지만, (서동인, 위의 글, 128면) 부계혈통만을 선택적으로 긍정하고 순혈주의적인 민족을 강조하는 이들의 태도는 그 배타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옹호하기도 어렵다.

맞춰 조선인의 황민화와 인적 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씨(氏)제도에 간간을 둔 일본의 가족제도를 본격적으로 이식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는 일관되게 이와 같은 개정 과정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점차 실현해나가 더 발전된 근대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중에서도 여성의 권리 신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부분이었다. 조선의 가족제도 속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 인권이 회복되리라는 기대는 식민 체제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질 교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동등권과 같은 부분은 보편적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체로서, 가정 내 양처현모의 역할의 강조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여성을 호명했다.¹¹⁰⁾ 한편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가족제도의 가부장적 성격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또한 조선에 시행된 법은 일본 내에서 여성 해방운동의 성과로 개정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¹¹¹⁾ 이와 같은 선택적 적용은 가족의 문명화와 민족의 동화를 선전했던 총독부의 민낯을 날 낱이 보여준다. 따라서 당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인권의식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 내포된 근대성의 실체를 고찰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근대 사회로의 진입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었다. 김영민은 근대 초기 신문에 나타난 여성담론이 천부인권의 실현에서 풍속 개량으로 그 초점이 이동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여성 문제는 미개한 조선의 표상으로 나타날 뿐, 소수자로서의 여성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¹¹²⁾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면에 수록된 가족 관련 기사에서는 풍속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공권력의 입장으로 수렴되지 않는, 가정 내 권리

110) 전은경은 일제 말기 발간된 총독부 기관지 『총동원』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내걸면서 창씨개명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끔 유도하여 억압적인 면을 은폐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통치 전략을 분석한 바 있다. 전은경, 「‘창씨개명’과 『총동원』의 모성담론의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 366-373면.

111) 그 대표적인 것이 축첩과 이혼에 대한 조항이다. 일본 민법 813조에 명시된 이혼가능한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 대한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와 중대한 모욕’이라는 항목에는 축첩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관습을 이유로 축첩은 본처에 대한 모욕으로 판정되지 않았다. 정광현, 앞의 책, 106-110면.

112) 김영민,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근대 초기 신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5, 2016.

의식 확장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병합 이전부터 성 문제와 결혼생활의 비정상성이 강조되면서, 조선의 가족은 풍속 개량의 차원에서 빈번히 논의되었다. 소수자에 해당하는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일련의 기사들은 사적 영역에서 식민 통치 논리를 정당화하는 면이 있다.¹¹³⁾ 이러한 경향은 1910년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족 문제는 주로 소송과 재판, 추문, 범죄와 같은 내용과 결합되어 다뤄졌다. 기사 속 가족은 국가권력의 실행기관인 사법기관과 경찰, 행정기관에 의해 교정되거나 정치되어야 할, 무질서한 조선 사회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그중 일부 사건이 법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사건 기사에서는 이혼 청구와 소송 관련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합과 해체가 용이해진 법적 가족으로의 전환 속에서 사회의 중추로서 신성시되었던 가족의 의미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바람이 강하게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법은 소외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안의 부재를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라는 공적 영역으로 수렴되지 않는 개인의 목소리에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기제가 된다. 그리고 이는 사회 질서와 풍속 개량의 문제로 가정을 바라보는 식민 통치의 논리를 넘어선 의미를 형성한다.

당시 이혼과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었던 일차적 원인은 조선 시대와 달리 개인의 의지에 따라 법적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민적법 실시로 이혼이 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로 가능해 짐에 따라 이혼에 대한 관념적 장벽이 완화되었던 것이다.¹¹⁴⁾ 1912년 제정된 조선

113) 최기숙, 「『사건화』된 일상과 ‘활자화’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2014.

114) 이혼과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가 법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09년 3월 법률 제 8호로 시행된 민적법에 의해서다. 이혼이 발생할 경우 10일이 넘지 않은 한에서 본적지의 면장에게 호주가 신고해야 했다. 이는 동거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던 대한제국 시기의 호적에서 혈연관계에 기초한 법률상 ‘가(家)’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민적법에서 이혼의 방식 및 이혼의 적법성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1922년 12월 7일 제령 제13호로 조선민사령 제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야 재판

민사령의 친족 규정은 관습에 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혼과 관련된 세부적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¹¹⁵⁾ 그러나 이른바 관습법시대라 불리는 이때에도 이혼재판 소송에서는 일본 민법이 판단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었다.¹¹⁶⁾ 예를 들어 『고등법원판결록』에 남아 있는 판례를 보면, 1915년 4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친정 모친에 대한 학대와 모욕을 이유로 청구된 이혼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가 있다.¹¹⁷⁾ 아내가 제기한 사유는 인권의 보장이라는 근대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자, 일본 민법에서 제시하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열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¹¹⁸⁾ 이는 권리의

상 이혼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한편 대한제국 말기 법에 대한 글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중 이혼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東初生, 「離婚法制定의 必要」, 『서우』 17, 1908.5.1.

115) 권보드래는 『매일신보』의 기사를 일별한 저서에서, 당시 이혼과 관련된 기사가 많은 것이 “1912년 4월 조선민사령 공포 후 이혼이 합법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조선민사령 11조는 관습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고, 법정에서는 이 관습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혼에 접근해야 했다. 이와 같은 당대법의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본다면, 법적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매일신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의 사회·문화 키워드』, 앞의 책, 192면.

116)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82-85면.

117) “配偶者の直系尊屬에 對한 虐待侮辱을 理由로 妻가 離婚을 請求한 事件이 大正 4年(1915年) 4月 2日 京城覆審法源判決에 나타나 있다. 즉 親庭母親을 毆打하여 負傷시킨 夫를 相對로 妻가 離婚을 請求한 것을 認定하였다. 夫는 이에 不服上告하여 「朝鮮의 慣習上 女子는 一旦 出家한 以上 如何한 事實이 있든지 夫에 對하여 離婚을 請求할 수 없는 特異한 典禮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妻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虐待 또는 重大한 侮辱을 加하였다는 것만을 理由로 判決한 것은 條理上 適當치 않으며 또 慣習과 典禮를 無視한 判決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高等法院은 大正 4年 7月 6日 「朝鮮人 間에 있어서도 離婚을 請求할 수 있는 正當한 原因이 있는 때에는 婦도 亦 夫에 對하여 이를 請求할 權利가 있는 것은 本院이 是認하여 온 바이다」라고 判示하였다.”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 216면) 그 밖에 재판상 이혼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기각된 사례로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夫가 妻를 상대로 이혼 청구’ (1917.6.19), ‘夫의 인장을 남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처에 대한 청구’ (1920.9.9), ‘처가 부의 去勢를 이유로 이혼 청구’ (1921.2.9) 등이 있었다. 『고등법원판결록』의 내용은, 정광현, 앞의 책, 100-102면에서 재인용.

118) 일본민법 제813조에 규정된 사항만이 이혼의 조건이 되었다. 이혼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총 10개의 항목이 있다. “1) 배우자가 중혼을 하였을 때, 2) 처가 간통하였을 때, 3) 남편이 간음죄에 의해 형에 처하였을 때, 4) 배우자가 偽造, 賄賂, 猥褻, 竊盜, 強盜, 欺詐取財, 愛寄物消費, 贓物에 관한 죄 또는 형법 제175조, 제260조에 걸린 죄로 인하여 輕罪 이상의 형에 처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죄로 인

정당성을 보장하는 토대로 근대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효력이 발휘되고 있던 현실을 보여준다.¹¹⁹⁾ 한편 남편은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조선 관습상 아내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습적 사고의 일환인 동시에 조선민사령에 적시된 내용에 따른 이의제기였다. 이처럼 근대적 법은 가정 내 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고, 기존의 관습과 대결하고 이를 타파하는 동력이 되었다. 당시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²⁰⁾ 전근대적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들의 열망은 법을 매개 삼아 분출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법은 가족 내 관계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매일신보』에 게재된 이혼 관련 기사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난의 논조에 가까웠다. 여성 인권 신장과 같은 근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간주되지 않았다. 기사들은 대체로 그

하여 中禁錮 3년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때, 5) 배우자로부터 동거할 수 없는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했을 때, 6) 배우자로부터 악의로서 유기 당하였을 때, 7)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 8)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혹은 그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하였을 때, 9)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10) 서양자 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이연이 있을 때 또는 양자가 家女와 혼인을 하는 경우에 이연 혹은 결연의 취소가 있을 때” (소현숙, 앞의 글, 40-41면) 민사령 발포 후 이혼에 대해서 일본민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조선인 아내에게 권리가 생겼다는 진술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도 이혼이 가능한 열가지 항목을 전부 소개하고 있다. 辯護士 康巨福, 「戀愛讀本・結婚教科書(第2輯): 結婚할 수 잇는 男女와 업는 男女」, 『별건곤』 11, 1928.2, 145면.

119) 소현숙은 1910년대 여성의 이혼 청구에 대한 판결이 관습주의를 표방한다는 정책에 맞춰, 부분적으로 일본 민법을 의용하면서도 이를 ‘관습’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14년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이혼을 청구한 박숙양에 대해, 재판부는 조선의 관습은 ‘효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당한 원인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조선 관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조선 관습에는 여성의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에 상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소현숙은 이와 같은 판결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본 민법의 적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당시 여성의 요구가 빚발쳐 관습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억누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 여성들의 이혼 청구 사유는 일본 민법의 규정한 원인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소현숙, 위의 글, 119-121, 155-156면) 이와 같은 소현숙의 견해는 이 논문의 많은 참조점이 되었다.

120) 당대 여성들의 이혼 청구 사유는 일본 민법의 규정한 원인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위의 글, 48면.

책임을 여성 개인의 품행의 문제로 돌리면서, 여성들의 무자각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¹²¹⁾ 예를 들어 「부정 이혼의 폐해, 부당한 이혼의 폐단」에는 무분별하게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의 행위를 법관이 잘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부와 함께, 이혼 법률이 부부 유별(夫婦有別)에 따른 예절을 사상시키는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타난다.¹²²⁾ 이 글은 이혼 법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이러한 법률을 제도화하는 공권력의 조정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법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반역이나 중혼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국가에 의해 이혼은 용납되지 않았다.¹²³⁾ 혼인과 기처(棄妻)¹²⁴⁾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가족의 소관으로, 그 절차는 국가가 간여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병합 이후 이혼과 혼인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국가가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의지가 조절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요컨대 근대적 법은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가족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속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에 귀속되었다.

가족이 법을 매개로 국가의 인적 관리 체계에 포획되던 현실은, 부청 민적계에서 호적상의 변화 내역을 알리는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16년 7월 26일에 실린 「혼인과 이혼 수: 경성부 민적계의 성적」은

121) 익명의 재판관은 여성에 의해 제기된 소송 대부분이 기각됨에 따라 이혼청구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離婚訴訟의 趨勢: 과도리혼, 기도리혼, 근리에는 점점 감소소」, 『매일신보』, 1914.11.12. 이혼 문제가 유행하는 것은 여성이 무분별하게 이혼을 청구하기 때문이며, 법관은 이를 잘 분별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당부가 담긴 글도 실렸다. 「不正離婚의 弊害, 부당한 이혼의 폐단」, 『매일신보』, 1912.7.12.

122) 「不正離婚의 弊害, 부당한 이혼의 폐단」, 『매일신보』, 1912.7.12.

123) 『경국대전』에는 이혼에 대한 조항으로 중혼에 관한 처벌만이 존재했고, 배우자 중의 한 명이 이혼을 요청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법적 이혼'은 없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태영에 대한 유정기의 이혼 요청으로, 여러 번의 논전에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의 여성 주체의 대응으로 이 사건을 읽는 논의로는 강명관,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휴머니스트, 2016 참고.

124) 이혼은 기처(棄妻) 또는 소박과 다르다.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쫓아난다고 해도 정처이자 친모로서 갖게 되는 지위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신태영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위의 책 참고.

전달인 6월간 취합된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고지한다. 이주,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개명 신청, 호주 변경, 분가 신고, 일가 창립, 폐가와 입가 등에 해당하는 신고서가 부청에 접수된 수(數)를 제시한다. 이러한 보고 형식의 글이 지면에 반복적으로 실리는 것은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인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항목별로 분류하여 양적으로 제시되는 가족, 익명적이고 계량화된 가족이 반복적으로 전시되는 데 있다. 국가 통치 하에 복속된 가족의 이미지에 익숙해짐에 따라 가족 내 자율적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경성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과 같이 사건을 주관하는 법원의 존재와 피고와 원고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의 신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정보의 나열은 법적 집행 절차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법원이 가족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와 신뢰감을 갖게 한다.¹²⁵⁾ 경찰서에 찾아가 이혼을 시켜 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당대 현실을 잘 보여준다.¹²⁶⁾ 이렇듯 가족에 행사되는 법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비례하여 억압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이미지는 더욱 부각되었다.

가정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가정의 문제는 가정 밖에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을 통해 해결되리라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거의 매일 등장하다시피 했던 가족 내 폭력과 살해 사건과 같은 범죄 기사이다. 처음에 가족 내 범죄는 인륜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으나,¹²⁷⁾ 얼마 후부터는 자극적인 내용에 가벼운 논조가 더해져 일종의 사회적 유행처럼 다루어졌다.¹²⁸⁾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들 다수는 ‘이혼’을 둘러싼 이해관계

125) 그런데 이와 같은 기사의 특징은 근대 법의 특성과 유사하다. 어떤 특정한 신념으로 분석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근대법의 자율성은 사법적 판단과 법원이라는 전문화된 기관, 변호사라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보장된다. Roberto Mangabeira Unger, 앞의 책, 67면.

126) 「鳴冤蕩夫: 리혼을 식혀주던지 징계를 하야주던지」, 『매일신보』, 1914.7.24.

127) 1912년 1월 18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人倫之大變也」에는, 33세가 된 남성이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부친에게 원한을 품어 살해한 사건이 소개된다. 기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사건은 ‘인륜’을 깨뜨리는 극악한 참사로 보도된다.

128) 「독약으로 본부 살히」, 『매일신보』, 1914.8.1; 「妻의 嫗母를 慘殺: 늙고병들고

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본부(本夫) 살해를 다룬 한 기사를 살펴보면, 남편이 이혼을 해 주지 않아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지만 패소하게 된 아내가 최후 수단으로 간부(姦夫)와 공모하여 살해를 시도했다고 적혀있다.¹²⁹⁾ 그런데 그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게 된 까닭을 비롯하여 그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이 여성이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필자의 평가가 거듭 강조될 뿐이다. 가족 개량을 주장하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부부 관계의 파탄 책임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던 것이다. 유교적 도덕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 인류의 덕목의 실행자는 주로 여성으로 호명되었다.¹³⁰⁾

이처럼 기사 속 이혼 청구와 가족 내 범죄 사건의 주체는 주로 여성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혼 문제는 관습뿐만 아니라 근대 법체계 내에서도 부부 사이의 조율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다. 1914년 4월 17일에 게재된 「이혼동의를 청구, 이혼에도장을 찍어 달라니까 시아비는 허락할 수 없다고」라는 기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경성남부형제동(兄弟洞)륙십스통오호에사는김성녀(金姓女)당년이십이세된자는,경성남부대평동(大平洞)륙십스통오호에사는주괴석부되는민학호(閔學鎬)를, 피소건을, 경성지방법원 민스부(民事部)에대출흔바, 그내용은피고의아달민영대(閔泳大)와, 결혼동거흔지, 거금삼년전에, 영대가, 전귀김성녀를무단히쫓차닌바되여, 작년셋달십일경에,영대와셔로협의하고, 드디여리혼승락서를만드려주는동시경찰서민적신고엿스지도장을찍어주엇스나, 전귀피고가, 호쥬된식둑으로, 리혼의동의결츠를, 청구하야도, 맞잡너불응함으로, 괴소흔다하얏스나, 피고되는민학호의, 답변흔바를듯건디, 원고는, 피고에디하야리혼의동의를청구하나, 절디덕반디 하느바는, ... (중략) ... 조선유리습관상그부모의동의가업스면그아들이능히리혼을승락하느일이업스며또원고의청구원인중삼년전피고와영대가원고를축출하얏다하나영대는그제식

의탁도 업는 처의 식모를 참혹히 살히», 『매일신보』, 1914.11.29; 「姦夫의 父를 살해: 헛투기에 살인」, 『매일신보』, 1914.12.3; 「駭心 綱常의 大變: 강상대죄가 계속하야 발싱」, 『매일신보』, 1915.10.27; 「五十老婆 本夫를 殺害: 이십이세된 젊은 정부와 공모하야」, 『매일신보』, 1917.1.12.

129) 「虎列刺菌으로 本夫殺害: 슬인하느 수단으로는 발달된 방법」, 『매일신보』, 1916.11.29.

130) 소현숙, 앞의 글, 173-174면.

골을가서아지못호엿고, 원고의친모되느, 류쇼스가췌여셔, 친정으로간일이, 한두번이안이다
 …(중략)… 그동리사는조명준이라는자와간통을호후, 지금췌지동거호는중, 전괴와긔치, 무수
 호협박과유인으로써, 역제로승락을엇은것인즉, 결코피고는, 동의호, 의무(義務)가업슬줄로,
 답변호지리, 이에죄판소에서느, 그스건에디호야, 그동안총독부취도국(總督府取調局)으로조
 회를호고, 리혼동의슈속의유무를, 신문호결과, 취도국에서, 조선에디호야느, 협의리혼(協議
 議婚)이라는관습(慣習)이잇지안코, 협의리혼에, 부모의동의(同意)를, 엿느다호에디호야느, 조
 선의그러호, 관습을보지못호엿다느, 답조회가, 잇느고로, 동원에서느법리상스세를짜라, 취조
 호고심리호엿다더라¹³¹⁾ (밑줄: 인용자)

위의 내용은 민적법 실시 이후 이혼에 따른 민적 변경 신고와 협의이혼
 과 관련된 상황을 살피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사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김성녀는 삼년 전 남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다. 이후 남편 민영대와
 협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고서 경찰서에 민적 신고까지 한다. 하지만 시부
 (岳父)인 민학호가 이혼 동의를 거부하여 김성녀가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건
 다. 민학호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 조선의 관습상
 부모의 동의가 없는 아들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원고가 이혼 청구 사유로
 제시한 집에서 축출되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며
 느리가 간통을 하고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아들의 동의도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한다.

위 글에서 당시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것은 이혼 문제에
 서의 ‘호주’의 역할이다.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편 쪽 부모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을
 강요할 수 있다. 반면 아내와 친정의 부모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
 다.¹³²⁾ 민학호의 주장은 총독부가 조사한 관습의 내용과 일치한다. 물론 결
 혼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약으로 이해되고, 과거와 달리 부모는 혼
 인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가 결혼과 이혼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한
 편 민적 신고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인용문의 상황은 조선의 관습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민적법의 제2조 3항에 따르면 혼인

131) 「離婚同意를 請求: 리혼에 도장을 찍어달나커니, 식아비느허락호수가업다고」, 『
 매일신보』, 1914.4.17.

132) 정궁식 편역, 앞의 책, 355면.

과 이혼의 경우 민적 변동의 신고의무자는 ‘혼가(婚家)의 호주’이다. 이에 따라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호주의 승낙이 없다면 여성은 적(籍)을 바꿀 수 없어 재혼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호적제도의 도입에 따라 집안의 모든 법적 권한이 호주에게 모이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한편 재판소는 판결을 위해 조선총독부 취조국에 조회를 요청하는데, 조선에 협의 이혼이라는 관습이 없다는 답변이 온다.¹³³⁾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이상 근본적으로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여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은 취조국에서 답변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리상 심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결국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독부의 입장이 부모의 권한이 비대한 조선 관습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일본의 민법 체계 내에서 호주의 법적 권리가 상당하다는 문제는 부각되지 않는다. 요컨대,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수평적 부부 관계로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유교적 전통과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적 질서만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신문 매체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사생아, 첩, 가족 내 여성 등의 지위는 당시 제정된 가족법이 적용됨에 따라 보다 비참하게 전락하게 된 것임에도, 그 비난은 온전히 조선의 전통 가족제도를 향해 있었다.¹³⁴⁾ 이는 총독부가 조선의 관습을 다루는 태도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 민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133) 1914년 정부총람 회답에서는, 조선의 관습에서 아내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관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경성북심법원장의 조회에 대한 정부총람 회답에는 이를 번복하여 협의이혼 관습을 인정한다고 했다. 1918년 4월 11일 왜정경성북심법권판결에서는 남편의 부모의 동의가 전제될 때 협의이혼이 관습상 가능하다고 보았다. 1921년 8월 6일 국관급제도조사위원회에는 한국의 관습상 이혼은 아내를 축출하는 경우만 의미하나,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를 관습으로 용인한다. (이태영, 「한국여성의 법적 지위」, 『한국여성사』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2, 142-143면) 이와 같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당시 협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34)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학사』 9, 2008; 홍양희,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앞의 글.

조사된 관습은 조선 시대 고유의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가 다른 두 법이 착종된 형태였다. 가족법에 국한하여 본다면 조선조 유교질서 내의 가부장제는 법적으로 정당화됨에 따라 ‘만들어진 전통’으로 재생산되었던 것이다.¹³⁵⁾

이처럼 가족법의 도입으로 인해 가족 질서가 동요되던 현실의 중심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과 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측면이 동시에 자리했다. 기사 속 여성들의 행위는 전근대적 가족을 주관하는 관습의 비인도성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을 기민하게 받아들인 것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 투쟁의 의미는 부각되지 않은 채 여성은 가족 파탄의 주범으로 비난받았다.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이혼 청구에 대한 우호적 시선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적 사상이 담론장에서 확장되어 가는 현상과 궤를 같이했다.¹³⁶⁾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이혼법 도입에 대한 총독부의 법 개정 관련 논의와도 상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가 정비되기 전 이혼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가족 질서를 부정했던 여성들은, 법질서를 ‘넘어선’ 권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치 체계를 교란시킬지 모를 위험한 대상이므로 더욱 비판받았던 것이다.

1910년대 『매일신보』가 주로 가정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조선 여성 전반을 가족 질서의 파괴자로 규정했다면, 1920년대 이후 그 자리는 첩인 여성으로 좁혀져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¹³⁷⁾ 『매일신보』에서 다뤄진 이혼 소송은 대체로 줄곧 가정 내부에 있던 구여성에 의해 청구되었고, 부부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졌던 범죄는 본부(本夫) 살해였다. 그러나 1920-30년대는 첩과 관련된 범죄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범죄를 저지른 이가 첩이거나 첩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첩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도 그 죄의 원인은 첩에 있는 것으로 적시되었다.¹³⁸⁾ 이러한 사정

135) 양현아, 앞의 책, 169-176면.

136) 소현숙, 앞의 글, 175면.

137) 물론 1910년대 이후에도 여성의 이혼 청구를 다루는 기사가 비판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성의 이혼 청구 행위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비판으로 그 초점이 옮겨졌다. 또한 남성의 이혼 청구 또한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離婚도 가지가지 平壤法院에 나타난 夫婦들」, 『동아일보』, 1927.2.19-20.

은 정지영이 지적했듯,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라는 중요한 사건이 기점으로 자리했다.¹³⁹⁾

1910년대 『매일신보』에 게재된 첩 관련 기사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1920년대 첩의 사회적 위상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09년 3월 20일 내부훈령 제39호로 공포된 「민적법집행심득」 제3조에 따르면 첩은 처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아 남편의 민적에 기재되었다. 1910년대 중반 본처가 아닌 첩이 이혼을 청구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사정은 이러한 법 제정을 배경으로 한다.¹⁴⁰⁾ 첩이 남편의 민적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은 1915년 8월 7일 관통첩 제240호 「민적사무 취급에 관한 건」이 실시되면서부터였다. 관통첩 공포 이전에 존재했던 첩은 민적에 등재되었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새로 생긴 첩은 민적에 오르지 못했다.

조선 시대 처와 첩은 선명한 신분적 위계를 인지하며 공존했는데,¹⁴¹⁾ 근대로 접어들어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한때 그 관계는 수평적으로 이해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호적에 처첩이 ‘처처’로 기록되거나, 첩을 사람(人)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호적상의 증거는 일부 사람들에게 첩과 처를 동등한 존재로 보려 했던 인식이 자리했음을 알게 한다.¹⁴²⁾ 1905년 반포된 『형법대전』 제61조에는 “離異라 稱함은 妻妾

138)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앞의 글, 92면.

139) 정지영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39년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첩 관련 기사는 총 417건이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자살 및 살인 사건이며, 범죄, 고소사건이 그 다음이다. 기사의 수가 늘어나는 변곡점에 해당하는 해(1923년, 1928년, 1933년, 1938년)는 공통적으로 이혼을 둘러싼 법제정 문제의 변화된 지점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인다. 정지영, 위의 글.

140) 「妾의 離婚訴訟 첩으로는 살 수 업다고」, 『매일신보』, 1915. 3. 25; 「妾의離婚訴訟 민적말소 신청하라고」, 『매일신보』, 1916.2.25; 「妾의 離婚訴에 살겠다고 공소하느 남편」, 『매일신보』, 1916.10.25; 「愛妾을 相對로 리혼청구소송」, 『매일신보』, 1916.12.27. 관통첩이 1915년에 반포되었지만, 법이 현실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불러올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첩의 이혼소송은 한동안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 『대명률』과 『전율통보』에는 처를 첩으로 삼거나 처가 있음에도 첩을 처로 만들 경우 장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재문, 앞의 책, 183면)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을 규정짓는 상황에서, 양반이자 적처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를 이어나가야 했다. 배타적인 적처의 지위는 철저한 신분사회의 특성상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앞의 책, 47-51면.

142)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

을 黜함을 謂함이라” 고 규정되어 있다. 이이(離異)는 조선 시대 사용된 이혼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형법대전』 제정 당시에는 첩이 친속(親屬)¹⁴³⁾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첩과의 이별 또한 정처와 마찬가지로 이이(離異)에 해당했다.¹⁴⁴⁾ 물론 개화기에도 축첩제도를 비판하는 담론에서 그 비난의 초점은 작첩을 한 남성이 아니라 첩이 된 여성을 향했다. 그럼에도 첩인 여성은 계몽운동의 전선에 뛰어들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¹⁴⁵⁾ 이는 법적 차원에서 첩을 배척하지 않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첩이 사회적으로도 낙인찍히고 축출되는 현상은, 1915년 관통법의 실시 이후 고조되었고, 1920년대에 있었던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1910년대 이혼 문제와 관련된 법감정의 변화가 조선의 여성 전체를 보도기사의 주체로 불러들였다면, 1920-30년대 그 자리를 첩이 대체한 것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라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식민 당국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전시체제로 돌입하였다. 국가에 의해 통제된 언론은 총독부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전쟁 수행을 독려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¹⁴⁶⁾ 이 시기 가족은 황국신민화를 교육하는 장이었고, 여성은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갈 양처현모의 역할로 표상되었다.¹⁴⁷⁾ 이혼과 처첩 갈등을 둘러싼 가족 내

와 역사』 65, 2004, 81면.

143) 정광현에 따르면, 『형법대전』에는 친족과 같은 뜻으로 ‘친속’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 의용법으로 나타났던 『대명률』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첩은 친족 중 시마친(總麻親)에 포함된다. (정광현, 앞의 책, 9면) 국어사전에 따르면, 시마친은 오복(五服) 가운데에서 가장 짧게 만 2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사이의 친족으로 팔촌에 해당한다.

144) 정광현, 위의 책, 16면.

145) 홍인숙, 「‘첩’의 인정투쟁-근대계몽기 매체를 통해 본 ‘첩’ 재현과 그 운동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2009, 529-548면.

146) 박용규,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 언론학보』 46, 2001.

147) 「國民의運動 具體化: 賢母良妻主義 實行, 生活合理化的 徹底 心身兩方面의 振作을 積極圖謀」, 『매일신보』, 1938.4.20; 「銃後の 各 家庭婦女에 良妻賢母主義強調, 京畿道서 各府郡에 通牒하여 各團體協調로 邁進」, 『매일신보』, 1938.6.7; 「賢母良妻 目標 完全한 主婦養成」, 『매일신보』, 1939.1.1; 「女專生의 壯行記: 현모양처로서 國에 家정을 지킬 터」, 『매일신보』, 1942.1.14; 조유경, 「신문매체로 유포된 1940년대 경성 여성의 이미지」, 『미술사논단』 43, 2016, 236-241면.

사건은 여전히 나타났지만, 시대적 분위기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조선의 가족은 총독부 주도로 행해진 가족법의 정비 과정 속에서 이전과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민족공동체의 주요 단위이자 도덕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데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들의 집합'이자 '계약을 통해 결합되고 해체될 수 있는 집단'으로, 그 형질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가족 관련사건 기사는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듯 연일 쏟아져 나왔다. 근대소설에 나타난 가족이, 가족의 화합으로 끝을 맺는 고소설이나 신소설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기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표면적 현상의 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다.

2. 가족의 탈신성화와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

개화기에 접어들어 가족은 공적 영역인 국가와 대척점에 위치하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¹⁴⁸⁾ 이와 같은 가족의 위상 변화는 가족에 신성성을 부여했던 유교적 도덕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적 생활을 다루는 민법에 의해 가족 관계가 규율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 당시 논설에 나타난 민법 도입을 향한 기대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질서 비판과 함께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그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이들은 가부장의 전제적 권위가 인정되는 조선의 가정을 개혁하여 각 구성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이른바 '공화적인' 가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¹⁴⁹⁾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구사상을 개혁하려는 이들에게 계약을 비롯한 근대법의 원리와 실체는 가정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해

148) 전미경은 병합 이전 1900년대 발표된 논설을 중심으로 당대 가족담론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 가족은 국가 질서를 위해 포섭해야 할 집단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는 가족주의에서 국가주의가 지배적인 사회로 변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15-47면.

149) 朴勝喆, 「우리의 家庭에 在한 新舊思想의 衝突」, 『학지광』 13, 1917.5; 宋鎭禹, 「思想改革論」, 『학지광』 5, 1915.5; 春園生, 「朝鮮 家庭의 改革」, 『매일신보』, 1916.12.14; 田榮澤, 「舊習의 破壞와 新道德의 建設」, 『학지광』 13, 1917.5.

주었다.¹⁵⁰⁾

송진우는 「사상개혁론」(『학지광』, 1915.5)에서 유교사상의 타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개인이 유교 가치를 체현하는 가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가족의 확장인 유교적 국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가족과 국가를 공사 영역으로 획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법률에 대해 논한다. 체계적인 법률을 통해 국가 통치가 주밀하게 이루어진다면 “專制家”가 “夷族의 法”을 제정하고서 가족제도를 이용한 지배를 용이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¹⁾ 이러한 판단에는 도덕규범에 가까운 예치(禮治)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법치국가가 될 때, 가족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국가의 발달을 저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놓여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¹⁵²⁾에 기초를 둔 근대국가의 통치체

150) 유학생 출신의 신지식층의 혼인제도 비판은 조혼과 강제결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159-160면)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계약 원리에 대한 강조, 법정허혼연령에 대한 언급이 가족 개량과 관련된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발표 시기에 따라 법정허혼연령으로 언급하고 있는 나이가 달라지는 것은 당대 통용되는 실정법이 반영되었음을 방증한다. 당시 법정허혼연령의 법제 변화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의 「禮典」에는 남자는 15세, 여성은 14세에 혼인을 허용했다. 1894년에 「허혼연령을 정하는 건」에서 조혼을 금지하면서,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 혼인을 허용했다. 이후 1907년 8월에는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정국식 편역, 앞의 책, 1992, 341면.

151) 社會制度는人文進歩와時代發展를임호야變遷되며改革됨은人事界의事實이라元來, 家族制는部落社會의産物이며專制時代의餘波니 一은人文이未開호고知識이幼稚호야共同生活의原則을未解호고猜忌爭奪의野心이極烈호을隨호야族屬을團結호며部落을成立호며抵抗의力을作호에起源되고 一은刑政이未備호고法令이解弛호야國家의統治機關이周密호警察과絶對호權威를發揮치못호을因호야狡猾호專制家가夷族의法을制定호고家族의制를利用호야社會를拘束호고地位를確保코저호에發達되엇느니 是以로 個人權利가尊重되고國家威力이膨漲호現代에對호야는家族制의存在를容認키難호도다 茲에概論호면家族制는社會發展에障害物이될지니, 靑年英才로萬里에壯志가有호고一生의經綸을拘호야法律의制裁를不拘호며慣習의科臼에超越호야快舉雄圖의氣概가有호여도活動의方面과進行的徑路에家長의承諾을要求호게되니偉大호理想은凡夫의理解키不能호고危險호事業은俗翁의妨沮되키容易호도다 (밑줄: 인용자) 송진우, 앞의 글, 4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송진우가 비판하는 ‘이족의 법’이란 조선 시대 상위법인 예(禮)를 강조하는 성리학과 종법임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명률』은 조선 시대에 형법의 법원으로 기능했다.

152) 자의적인 지배가 가능하여 독재적 성격이 짙은 ‘법에 의한 지배’와 달리, 체계적으로 명시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

계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1910년대 중반 이광수는 그 누구보다도 조선 가족의 전근대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작가였다.¹⁵³⁾ 그의 논설은 민족의 성쇠와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가족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몽지식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보인다는 점과 더불어, 그의 글을 관류하는 핵심 전제로서 근대적 인권과 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어 이채롭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 “最大한 罪惡은 他人의 人格을 無視하고 人權을 侵害함”인데 “此罪惡이 最多하게 行하는 데는 朝鮮의 家庭”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원인으로 ‘가장의 전횡’을 꼽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¹⁵⁴⁾ 흥미로운 것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최대한 해치지 않게끔 할 대안으로 실정법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친족법에 포함되는 능력 관련 조항과 관련이 있다. 당대 논설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실정법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목으로, 이는 국가법에 대한 작가의 신뢰와 관심을 증명한다.

家長이 萬機를 專斷함은 즉 家族의 人格을 無視함이니, 人格을 無視함은 즉 家族을 器械視하고 動物視함이라. 嚴히 可憎한 것은 十五六世된 幼稚한 少年이 一旦 家長의 權을 執하면 老하고 經驗이 多한 祖母나 母親의 意思를 尊重함 줄 不知하고 一家萬事を 敢히 自斷하려 함이니, 如此히 하여 一家族이 不幸에 陷한 例가 不少하며 且 朝鮮 全道の 家長中에 年齡은

와 민주주의의 전제로 여겨진다. 박성우, 「윤리와 정치의 통합으로서의 법의 지배」, 『21세기 정치학회보』 19, 2009, 25-26면.

153) 이 시기 발표된 이광수의 논설 중 가정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 있게 쓰인 대표적인 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春園生, 「朝鮮 家庭의 改革」, 『매일신보』, 1916.12.14-22; 春園生, 「早婚의 惡習」, 『매일신보』, 1916.12.23-26; 李光秀, 「婚姻에 對한 管見」, 『학지광』 12, 1917.4; 李光秀, 「婚姻論」, 『매일신보』, 1917.11.21.-30; 春園, 「子女中心論」, 『청춘』 15, 1918.9; 春園, 「新生活論」, 『매일신보』, 1918.9.6.-10.19. 박찬승은 1910년대 구사상/관습을 비판하는 신지식층 가운데 이광수를 제일선에 선 인물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전대의 ‘실력양성론’의 입장 아래 개혁을 주장하는 논자들과 달리, 이광수는 ‘문명개화지상주의적 사회개량론’에 속한다. 이와 같은 구분의 이유는 이광수가 ‘독립’을 고려하지 않고서, ‘종족의 생존’과 ‘문명화된 생활’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박찬승, 앞의 책, 161-165면) 그러나 이 시기 이광수의 여러 글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가 민족의 독립 문제를 전연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154) 春園生, 「朝鮮 家庭의 改革」(1), 『매일신보』, 1916.12.14.

少年이 아니라도 此少年과 如흔 家長이 實로 不尠흔지라. 現代 法律에는 後見人, 禁治產, 準禁治產 等 制度로 此缺陷을 救濟하려 ㅎ나니, 家長된 者 萬一 未成年이거나 病身이거나 放蕩 ㅎ야 一家를 支持치 못흘 경우에는 辯護士에게 問議ㅎ야 法律의 救濟를 請함이 맞당ㅎ니라.¹⁵⁵⁾ (밑줄: 인용자)

「조선 가정의 개혁」(『매일신보』, 1916.12.14-1916.12.22)은 당시 이광수의 가족 관련 논설 중에서 법의 문제에 주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가정의 권한을 승계한 이가 타락하거나 능력이 부재하여 일가를 통솔하기 어려울 때, ‘후견인’, ‘금치산’, ‘준금치산’과 같은 법률적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때 상기해야 할 것은 이광수가 이 글을 발표한 1916년에는 능력과 관련된 인용 부분과 같은 제도가 조선에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사령 제정 당시 능력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제11조 규정은 관습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제14호로 1차 개정에서 이르러서야 ‘친권·후견·보좌인 및 무능력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친족회에 관한 규정’은 관습에 의하지 않는다고 선포되었다. 따라서 인용문에서 언급된 “現代 法律”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시행되고 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광수는 무엇을 출처로 삼고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같은 글에서 발견되는 “我日本은 主權者되는 天皇께서 率先ㅎ사 人民에게 憲法을 授ㅎ섯나니, 現今 朝鮮家庭의 革命은 正히 此와 類ㅎ여야 ㅎ을 것”¹⁵⁶⁾이라는 표현은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광수는 조선에 적용되는 법이 인민이 각성하여 주권자에게 요구했던 서구의 법과 달리, 천황에 의해 인민에게 수여된 것이라고 언급한다.¹⁵⁷⁾ 그는 여기서 나아가

155) 위의 글.

156) 春園生, 「朝鮮 家庭의 改革」(1), 『매일신보』, 1916.12.14.

157) 메이지 헌법에는 모든 법률의 집행자이자 통치권을 가진 천황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며, 식민지 조선의 법률은 천황에 의해 그 권리를 위임받은 조선총독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 법률사항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시 ‘제령’의 형태로 공포되었다. (한상범,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2001, 72면) 실제로 일본의 제국헌법은 유럽의 입헌정치를 풍토에 맞게 채용한다고 했으나, 천황의 대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등 군주주권을 바탕으로 하되 그 남용을 막는 정도의 형태를 띠었다. 유럽의 입헌제가 인민의 정치적 권리를 증대하는 것과 달리, 제국헌법은 천황의 권위 아래 신민을 복속시켜 국가체제를 안정적으로 견고화하려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다. (박광석, 앞의 글, 120-126면)

천황을 정점으로 만들어진 일본법의 전근대성과 국가주의적 성격에 대해 논하고 있지는 않다.¹⁵⁸⁾ 그러나 일본의 법체계가 지닌 특성에 대한 적실한 이해는, 조선에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일본 민법에 대한 이광수의 이해와 관심이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이는 근대법의 필요성과 가족과 법에 대한 작가 인식이 단순하지 않다는 단서이다. 나아가 일본 헌법의 보호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인권 보장 문제가 국민으로서의 지위 획득 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가정의 개혁」은 당대 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대적 인권, 조선의 관습, 일본 민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작가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시사적인 글이다. 이와 같은 세 준거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될 때 이광수의 사유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추적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국가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족제도 개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다른 논설에서도 나타난다. 「혼인에 대한 관견」(『학지광』, 1917.4)은 좋은 부처(夫妻)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글이다.¹⁵⁹⁾ 혼인의 목적을 크게 종족적 차원의 번영과 개체적 차원의 행복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혼인의 조건, 여자교육 문제, 정조 관념 변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론한다. 영육(靈肉)이 합치된 연애를 통해 얻게 된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개인은

158) 이와 같은 언급은 수록지면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같은 글의 서두에 조선을 '가족 단위의 團'이라고 명명하면서, 조선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그 이듬해 『청춘』에 발표된 「어린 벗에게」에서는 조선인을 '국민'이라 표현하고, '母國'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수록지면에 따라 달라지는 이와 같은 표현은 1910년대 이광수의 내면세계를 살피는데 주요한 단서가 된다.

159) 가족 개혁과 관련된 이광수의 논설 가운데 연구자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이 「혼인에 대한 관견」이다. 이 글은 특히 우생학적 진화론의 자장 내에서 연애와 결혼 문제를 논하는 엘렌 케이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장편 『무정』과 함께 국민국가 형성과 결혼이란 문제와 관련된 작가 인식을 살피게 하는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구인모, 「근대 한국여성의 서양인식, 서양체험과 문학: 한일(韓日)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12, 2004, 83-85면; 서지영, 「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 1920-30년대 연애의 장(場)」, 『여성문학연구』 19, 2008, 144-146면;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9, 2012, 180-184면) 그중 최근 유연실의 연구는, 이광수가 와세다 재학 시절 문학부에 있었던 가네코 지키수이(金子筑水)와 혼마 히사오(本間久雄) 및 『早稻田文學』을 통해 엘렌 케이의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광수의 엘렌 케이 수용의 중개자 역할을 살피고 있어 주목을 끈다.

국민이자 사회의 일분자이므로 최종적으로 “合法, 合倫理, 合事情”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과 윤리와 사정이 모두 합리성을 갖춘 혼인은 근대적 계약의 의미와 맥을 같이하며, 그 혼인 계약의 합리성은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확보된다. 법정 혼인연령, 혈통 결혼의 가부, 부모의 승낙 유무, 사회적 계급의 차별과 같은 조건들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國家의 命令과 社會의 約束을 遵守할 義務”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와 사회의 법칙을 우선시하면서 여기서 벗어난 혼인을 경계하는 작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⁶⁰⁾

그중에서도 이광수는 국가법이 사회적 약속인 관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법이 풍속과 도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과부재가에 대해, 여전히 수절을 강조하는 ‘사회’가 공식적으로 이를 허락한 ‘법률’에 발맞춰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사회는 일부일처를 국법으로 정했으면서도 명의를 불과하며 일부다처가 용인된다는 진술에서도, 명목상의 법을 넘어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¹⁶¹⁾ 이렇듯 이광수는 사회의 풍속과 도덕을 정제시키는 원인인 유교적 가치가 지닌 보편성과 영구성을 파쇄할 수단으로서, 필요에 따라 입법과 개정이 가능하며 제재의 강제성이 있는 법을 긍정했다.¹⁶²⁾

부부 관계의 변화는 근대적 계약의 수행자로서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광수는 신구 부부제도의 분기점은 결혼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거 혼인 계약이 쌍방의 친권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문명국의 민법 정신’이 담긴 혼인서는 부부 당사자의 명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계약 형식은 남성이 여성을 종족 번영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타파하게 한다.¹⁶³⁾ 여기서

160) 李光秀, 「婚姻에 대한 管見」, 『학지광』 12, 1917.4, 30-31면.

161) 위의 글, 33-34면.

162) 이러한 관점은 「신생활론」(『매일신보』, 1918.9.6-10.1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全人類에 通用되고 各時에 通用될 所謂 亙萬世而不變하는 大經大法를 制定하려는 原始時代나 잊어나 有 일”이며, 오늘날에는 “立法機關되는 國會가 每年 開會되어 每年 舊法을 改善하고 新法을 制定함과 같이 道德이나 風俗이나 習慣이나 모든 生活의 方式도 隨時隨處하여 變할 것이오 또 變히야 有 것”이다. 春園, 「新生活論」, 『매일신보』, 1918.9.7.

163) 春園, 「新生活論」, 『매일신보』, 1918.10.1.

민법 형식에 따른 혼인서는 법률혼을 뜻한다. 1920년대 초 민사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의 혼인은 사회의 관습상 인정되는 사실혼을 따르고 있었다.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혼뿐 아니라 이혼까지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혼인 여부를 객관적으로 규정해줄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 혼인서에 따른 계약은 당사자 한 편이 죽거나 결별 원인이 생길 때 소멸이 가능하다는 언술에서도 법률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¹⁶⁴⁾ 이와 같은 작가의 진술에는 가문의 변역을 위한 도구로 전략한 혼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과도하게 신성시하는 태도에 대한 배격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이광수는 자유의사에 근거한 계약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특히 조선 시대 부부관에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의 입장에 주목한다. 여성 교육이 현모양처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한정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이 선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¹⁶⁵⁾ 근대적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격적 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언급대로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된 여성 교육을 강조했던 전대 담론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제기가 무색하게도, 루소를 언급하면서 남녀 구분 없이 일단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버지, 아내와 어머니라는 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이어진다.¹⁶⁶⁾ 이는 여전히 그가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광수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 개인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실의 불평등한 관계에 천착하거나 젠더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¹⁶⁷⁾

164) 李光秀, 「婚姻에 대한 管見」, 앞의 글, 34면.

165) 위의 글, 31-33면.

166) “루소 先生의 말과 갓히 다만 男子나 女子를 사람만 되게 가르치면 自然히 男子는 조혼 夫와 父가 되고 女子는 조혼 妻나 母가 될 것이외다.” 위의 글, 32면. 루소는 『에밀』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덕목을 성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루소는 특히 이상적 아내의 덕목으로 정숙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간통한 여인을 처단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데에는 루소의 영향 또한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Jean Jacques Rousseau, 김중현 역, 『에밀』, 한길사, 2003, 645-653면.

167) 전세계적으로 노사 문제와 남녀 문제가 화두가 됨에 따라 조선에서 남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민족 발달,

그런데 가족의 전근대성과 구도덕을 신랄히 비판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와 같은 관습의 세계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광수는 전제적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종의 '입헌적 가정'을 이상으로 제시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의 과정 속에서 합의에 이르고, 가정은 이를 조율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서 이 대안은 이론에 가깝다고 자평한 후,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차적 대안으로 일가 성원 중 고령이고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이를 가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한다.¹⁶⁸⁾ 이는 전통적 가정이 전제적 성격과 남성성에 한정된다는 조건을 뺀 경우의 형태에 가깝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화국의 멸망」(『학지광』, 1915.5)과 같은 글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이렇듯 가족제도 개량이라는 현안을 둘러싼 이광수의 문제의식은 권리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에서 당대 실정법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도덕과 법을 대비하면서, 때로는 사회에 미치는 도덕의 영향력을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구에서」(『매일신보』, 1916.9.22-23)는 1916년 9월 4일 대구에서 청년들에 의해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사건을 논평한 글이다. 동일 사건을 다루는 『매일신보』의 논조가 청년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는 데 있다면, 이광수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타락을 문제시했다.¹⁶⁹⁾ 이 글에서 이광수는 국가와 사회에 행사되는 규범을 명확히 구분한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행동에 제재를 가할 뿐이라면, 사회는 도덕과 같은 불문율을 통해 선량한 감화를 이끌어 내어 범죄를 예방한다.¹⁷⁰⁾ 그 불문율은 '조선의 매동매향'에 존재한다고

가정 개량을 위해 '어떤 정도'까지는 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春園生, 「朝鮮 家庭의 改革」(2), 『매일신보』, 1916.12.16.

168) 春園生, 「朝鮮 家庭의 改革」(1), 『매일신보』, 1916.12.14.

169)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38, 2010, 238면.

170) 한편 국가와 사회, 법률과 도덕의 구분은 구한말에 발표된 글에서도 발견된다.

“法律은 國家의 强行하는 規則이라. 故로 法律의 保護를 受한다 恊은 國家의 力으로써 保護恊이오 道德規則과 如한 것은 自然히 社會의 人에 遵奉恊이 된 規則이라 故로 道德의 保護에 依한다 恊은 國家의 力이라 恊과 如히 確實한 力의 保護에는 不在하고 社會諸人의 道德心으로 生한 自然의 力으로 依하여 保護됨이라 法律上 權利는 法律의 力에 依하여 保護되고 道德上 權利는 社會의 道德心에 依하여 保護되고 權利者의 利益을 主張하는 點은 法律上 權利와 其他 權利가 異함이 毫無하니라.” 「民法講義의 概要 (續)」, 『서우』 8, 1907.7.1.

진술되는데, 이는 「공화국의 멸망」에서는 ‘촌중’으로 대체된다.

「공화국의 멸망」에서 촌원은 소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멸망시킨 근인(根因)으로 ‘법률’을 지목한다. 여기서 공화국은 서로 사랑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삶을 유지하며, 불충불효하지 않는다는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도덕이 공유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세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헌법이 부재하기에 오히려 포괄적으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불문율에 따라 질서를 이룬다. 독립적 체계로 보이는 실정법이 실은 국가 권력으로 보증되는 것과 달리, 이 불문율은 종족, 종교, 조상 등을 통해 법의 이치와 보편성을 부여받는다.¹⁷¹⁾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이러한 법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는, 각각의 구성원이 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도리를 이해하고서 스스로 정당한 행위를 할 때 유지된다. 근대적 법률을 통해 이와 같이 아름답던 사회가 깨져버린 현실에 대해 필자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는다. 근대적 법제도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실정법의 절차적 집행으로 두루 통용되던 가치의 척도가 상실되는 현상 또한 야기했기 때문이다.¹⁷²⁾ 다시 말해, 공동체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이 묵시적 공감을 이루었던 가치의 파괴는 개인의 권리를 표방하는 실정법이 일상생활을 규율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³⁾ 근대 별질서를 이와 같이 비판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촌중에서 통용되는 도덕의 토대를 ‘가족’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사회와 가족, 그리고 법과 도덕과 관련된 작가의 사유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1) “우리 宗教의 敎理요 種族的 規約이오 家憲이니, 實로 이 속에 우리 先人의 人生觀, 社會觀과 處世律의 모든 倫理的 規條와 安心, 立命하는 神奧한 哲理를 품은” 孤舟, 「공화국의 멸망」, 『학지광』 5, 1915.5, 8면.

172)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35면.

173) 이광수는 국가법에 의해 공동체 질서가 파탄에 이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촌중의 술집이 미풍양속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영업을 허가하는 법률이 있어 막을 수 없고, 투전판이 열려도 경관이 아니면 금할 권리가 없다. 부친이 생업을 소홀히 하고 주색에 빠진 농부에게 부친이 충고를 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참견으로 여긴다. 이처럼 각 개인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률의 프리즘을 통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게 되고, 구성원 공통의 문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거나 협의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孤舟, 「공화국의 멸망」, 『학지광』 5, 1915.5, 10-11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對하여 權利를 다토고 아이가 어른에게 向하여 平等을 設하며 弟子가 스승을 雇傭으로 녀기고, 우리 道德의 根基되는 家庭制度가 깨어지어 將次 從兄媒가 婚姻을 하러 들고 아오가 兄嫂의 改嫁를 勸하고 선비가 돈과 權 압해 무릅쓸 굽히니, 아버도 업고 어른도 업고 師弟도 업고 親戚더 업고 鄰里도 업는 世上이 그 무엇이리오 아아, 우리는 皮相的 文明에 中毒하여 이 오래고 情들은 共和國을 깨틀이엇더도다¹⁷⁴⁾ (밑줄: 인용자)

인용문에 의하면, ‘가족제도’는 촌중에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적용되는 도덕의 ‘근기(根基)’다. 여기서 도덕의 파괴로 이어지는 ‘깨어진 가족제도’가 ‘유교의 예(禮)’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 가족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¹⁷⁵⁾ 그렇다면 자녀의 권리 주장과 형수의 개가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가족제도를 옹호하고, 그와 같은 가족이 사라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이광수의 진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앞서 살펴본 가족개량 논설과 상반되는 모순적인 면모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이해가 일면적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때 온당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에 나타난 가족을 흔히 가족주의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조선 후기의 가족 형태와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족의 차이는 촌중의 도덕이 되는, 조목이 없는 헌법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상을 공경하고, 스스로 일해서 생존해야 한다. 부모, 동기, 처자, 이웃을 ‘일문(一門)’으로 여기고, 나아가 언어와 복식이 같으면 한 ‘혈족’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때 가족이 이광수가 비판했던 전제적 성격과 문중을 우선시하는 가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민족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는 법률 이전의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이 필요하며, 그 모범의 사례를 과거 우리 사회의 촌중에서 발견하려 했다. 그 근처에는 법률의 적용으로 의미가 파편화되기 이전의, 도덕과 인륜적 질서가 자생했던 가족

174) 孤舟, 「공화국의 멸망」, 『학지광』 5, 1915.5, 11면.

175) 이 글에서 이광수는 종형매(從兄媒)와의 혼인이 가능해진 현실에 대해 비판한다. 이러한 변화는 호적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자연적·혈연적 공동체였던 가(家)가 법적 혈연공동체인 호주 중심 가족으로 재편되는 현상과 긴밀히 연동되는 변화였던 것이다. 혼인을 통해 씨(氏)가 바뀌는 일본의 가족제도는 혈연 보다는 법적 등재라는 의미에서의 가족이다.

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구에서」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새것'으로서의 도덕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듯, 그가 강조한 도덕은 전 근대적 성격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광수는 과거 도덕이 근대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구했고, 그 양상은 새로운 도덕의 발생지로서 가족 집단을 형상화하는 문제로 나타났다.¹⁷⁶⁾ 그럼에도 과거 도덕에 대한 향수가 봉건적 가족 질서와 거기에 내재된 가치에 대한 수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처럼 이 시기 이광수는 가족을 국가의 법 체제 안에서 그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편, 법과 구분되는 도덕이 자생하는 가족에 대한 기대 또한 놓지 않고 있었다.

1910년대 조선 가족의 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 논자인 이광수는 법과 도덕의 길항 속에서의 변화를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표출되었는데, 이는 문명화를 위한 실천 차원에서 주장된 것으로 이론적 성격이 짙었다. 반면 1920-30년대 『신여성』, 『별건곤』, 『삼천리』 등의 잡지에 수록된 글들은 좀 더 실제 현실에 육박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전히 가족의 개량을 논하는 글이 실렸지만, 이전과 다르게 가족구성원 각자의 삶과 욕망이 개입된 권리 차원에서 법률의 문제를 사유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요컨대, 이광수가 가족 내 여성의 지위 문제를 추상적 개인 차원의 인권 문제로 다루었다면, 이 시기 글들은 이혼, 첩과 제2부인 등 실질적으로 법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의 삶에 밀착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담론 상에서 가족 내 여성의 법적 지위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전후부터였다. 두 차례 행해진 민사령 개정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에 근본적인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¹⁷⁷⁾ 이는 특히 1922년 있었던

176) 이광수의 법률과 대비되는 도덕은 작가의 정(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 가족을 통해 구현된 도덕이 '근대와 전근대의 복합적 결합'으로 나타났던 양상은 그의 정육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논의로는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45-49면 참고.

177) 1910년대 공포된 조선민사령의 친족법은 조선의 관습을 따른다는 점에서 전 시대와 차이가 없으나, 판례와 회답, 혼령, 결의 등에서 점진적으로 여성의 처지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많은 부문에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20년대 있었던 민사령 개정에 의해서였다. 이태영, 앞의 글, 138-145면.

제2차 개정으로 법률혼주의가 정착되고, 재판상 이혼에 일본 민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와 상응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 초기 이혼 담론이 자유와 강제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논의되었던 경향이 짙었다면, 점차 혼인 성립과 무효에 대한 법적 조건이 상식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그 쟁점을 소개하는 글들이 나타났다. 변호사인 강거복과 이인과 같은 필자가 쓴 상세한 법률적 지식에 토대한 글도 여러 지면에 게재되었다.¹⁷⁸⁾ 그밖에도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현행민법과 판례, 비교 대상으로서 일본 민법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 등이 소개되었고, 지식 전달을 넘어서 비판적 해석과 전망이 더해진 분석적 글도 실렸다.¹⁷⁹⁾

당시 결혼과 이혼 문제는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전통과 근대의 교차를 보여주는 동시에,¹⁸⁰⁾ 가족 내부의 문제였던 결혼이 국가의 영역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대립과 갈등을 내포했다. 법률혼의 정착은 개인 간 결합의 시작과 끝의 최종적 승인을 국가의 역할로 만들었다. 결혼 문제에 법률이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토로하는 글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출된 것이다.¹⁸¹⁾ 외국의 법을 소개할 때도 이러한 구도 아래 상이한 평가가 내려졌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적 형식이 잘 갖추어진 나라를 문명국으로 평가하기도 하고,¹⁸²⁾ 한 편의 의지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러시아의 제도적 절차에서 자유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했다.¹⁸³⁾

1910년대 후반부터 조선 사회에 불어온 개조 담론 속에서 ‘자유’이혼은 유행이 될 정도로 큰 화제였다. 1921년 1월 『서광』에는 당대 내로라하는 지식인 작가들을 상대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었다.¹⁸⁴⁾ 황석

178) 辯護士 康巨福, 「戀愛讀本・結婚教科書(第2輯)-結婚할 수 잇는 男女와 업는 男女」, 『별건곤』 11, 1928.2.1; 「婦人의 法律常識」, 『별건곤』 27, 1930.3; 辯護士 李仁, 「離婚問題와 現代 法律」, 『삼천리』 2, 1929.9.1.

179) 滄海, 「現代法律과 女子의 地位」, 『신여성』 36, 1931.6; 辯護士 楊潤植, 「法律과 夫婦關係」, 『신여성』 63, 1939.9; 辯護士 辛泰嶽, 「안해의 財産權」, 『신여성』 63, 1933.9.

180)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12-13면.

181) 주요섭, 「結婚生活은 이러케 할 것」, 『신여성』 5, 1924.5.

182) TS, 「未婚한 處女에게」, 『신여성』 13, 1925.2.

183) XYZ, 「든던 바와 判官인 新로국의 혼인이약이」, 『신여성』 16, 1925.5.

184)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如何한 婦君를 要求? 一. 如何한 男子를 要求? / 二. 現下 朝鮮 男女의 離婚 問題의 可否? / 三. 如何한 境遇에 離婚을 行할

우, 이돈화, 유진희, 김일엽 등 많은 논자들이 이혼의 자유를 주장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부부 사이에 ‘애(愛)’의 유무였다. 황석우는 부부 간의 애정이 “文明의 源泉”이며, “愛업는 夫婦의 離婚은 곧 그 愛 업는 社會의 滅亡을 求함이 될 것이라”고 논평할 정도였다.¹⁸⁵⁾ 반면 현 조선 사회에서는 이혼을 쉽게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장웅진, 홍병선 등은 조혼과 강제결혼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구여성 본처의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선뜻 이혼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홍병선은 “多年을 同居하고 甚至於 子女식지잇는 婦人을 棄함은 蓄妾보다 尤히 惡한 罪”¹⁸⁶⁾라고 했다. 조혼과 함께 대표적 폐습으로 비판받았던 축첩이 가족의 근대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혼 문제로 되레 긍정되는 이러한 장면은 과도기의 아이러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총 열세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서 이혼은 모두 조혼한 남성의 요구로 이해되었다. 문명한 부부 관계의 조건인 애정과 인격 존중은 교육을 받은 남성지식인과 이를 이해해주는 신여성의 결합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구여성 본처는 그 관계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동정의 시선을 받을 뿐이었다.

이혼과 관련된 당대 담론이 이론과 관념에 치우친 논의만을 생산했던 것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 갈등을 조정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면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때 법은 현실의 불화와 고민을 해소해 줄 기제로 여겨졌다. 이처럼 법을 초점에 둘 때, 근대와 전근대의 가족제도 대립이라는 틀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응해 나갔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들어온 현행 민법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그 법과 마주해야만 했던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번민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 문제를 다루는 글에는 가정 내 여성의 부당한 위치에 대한 인식과 가족 집단이 지녀야 할 가치는 공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법정에서의 상황을 설정하여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은 정보 전달의 목적을 넘어 이혼 문제를 둘러싼 일상적 반응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것인가?” 「目下 우리 朝鮮人の 結婚 及 離婚 問題에 對하여」, 『서광』 8, 1921.1.1, 44면.

185) 위의 글, 51면.

186) 위의 글, 56면.

1932년 『신여성』에 ‘특별독물’로 게재된 「가정쟁의 지상 심판」은 원고와 피고, 판사를 등장시켜 부부 갈등을 법정 장면을 통해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¹⁸⁷⁾ 제1호 법정은 ‘처에 대한 남편의 불충실과 배신에 대한 처의 항쟁’을, 제2호 법정에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남편의 이혼소송’을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이혼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증명한다.

이 글에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끄는 것은 판사의 태도이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청해 듣고 증거와 증언의 효력을 따져보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판결문 낭독을 제하고는 원고와 피고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권위적 면모를 드러낸다. 심지어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으박지르기까지 한다.¹⁸⁸⁾ 허구적 설정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재판장의 풍경은 법정의 판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로 당시 법과 법원은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선 가족을 계도해 나갔다.¹⁸⁹⁾ 하지만 한편으로 법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법에 의해 개인의 의사가 강압적으로 결정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은 판사의 성격 설정은 법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한다.¹⁹⁰⁾

첫 번째 소송은 남편이 결혼 후 태도가 급변하여 자신에게 ‘구식부녀’와 같은 대우를 하는 데 대한 아내의 문제제기다. 연애결혼을 한 이들은 서로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해 사소한 일이라도 합의를 거치자고 언약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아내에게 직업을 그만두게 하고 가사노동 전체를 맡기고는 기생 외입까지 하고 다닌다. 원고는 남편이 태도를 바꾸지

187) 「[特別讀物] 家庭爭議誌上審判」, 『신여성』 48, 1932.6.

188) “간단히 간단히!” (48면), “원고는 가만히잇서!” (50면), “식그러!” (51면) “어 조용해 인제 더뎡지안어도 조와-판결을 하겟스니 … (하략)” (52면) 위의 글.

189) 아내가 남편의 학대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남편이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판결이 조선의 가정 일반에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그리하여천하에 몹쓸 남편들은 정신채리고 안해를귀중히사랑할것을 가르킨 것이다” 「안해 학대하는 남편은 단연 리혼해도 조타. 전라도 고창 녀자 리혼소송에 고등법에서 승소 판결」, 『조선일보』, 1935.2.7.

190) 이러한 판사의 모습은 실제 재판소의 풍경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안해가따리니 離婚시켜주오: 자녀를 일곱명이나 둔 五十歲 男便의 提訴」, 『동아일보』, 1931.03.12; 「一審에 敗訴, 再審理로 勝訴: 오래동안 世人的 耳目을 끌든 山淸尹氏家 離婚訴의 解決」, 『조선일보』, 1935.10.6; 소현숙, 앞의 글, 141-143면.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가정의 의미를 반문하면서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진술한다. 가정 밖의 남녀 투쟁 문제를 안으로까지 들고 오는 신여성 일반에 유감을 표하면서, 가정 내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요구가 안식처로서의 가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이는 남성의 이혼 청구 원인이 구여성의 무지에서 신여성의 지식으로 대체되어 나갔던 당대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¹⁹¹⁾ 가정의 정서적 안정감과 보금자리로서의 의미를 부각하는 남편의 주장은 근대적인 가정인 스위트홈의 조건이기도 했다.¹⁹²⁾ 따라서 그의 발언에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정이 지녀야 할 이상적 가치라는 두 근대적 현상의 충돌하던 현실이 내포되어 있다. 양 측의 입장을 다 들은 판사는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하기에, 3개월 간 별거 생활 후 이혼 여부를 결정하자고 선고한다. 이때 판사는 원고의 생활비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이는데, 이는 현재 아내가 무직 상태이기 때문인 동시에 가정 내 아내의 재산권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내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는 판사의 태도는, 가정을 여성 해방을 향한 사회적 변화가 틈입하지 않는 특수한 공간으로 성역화하려는 남편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을 유보시킨다.

두 번째 소송은 원고, 피고, 판사와 함께 증인 두 명과 증거물이 등장한다. 원고인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고발하며 이혼을 청구한다. 원고가 내세운 증인이 돈으로 매수되었다는 사실과, 증거인 편지가 간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은 법적 절차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한편 아내 측 증인으로 요청된 남편의 친구는 간통의 상대로 지목된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기실 원고는 내연관계의 여성과 혼인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려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남편이 제시한 아내의 간통 현장은, 친구 K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산보를 하는 모습에 불과하다. 판사는 남편이 제기한 이유가 간통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도덕에 빠진 망상'이라 평하면서 소송을 각하한다. 아내에게 봉건적 도덕을 요구하고 소유물로

191) 「誌上討論: 現下 朝鮮에서의 主婦로는 女校出身이 나혼가 舊女子가 나혼가?」, 『별건곤』 16·17, 1928.12; 「나보다 學識 노픈 안해와 살수 업소. “人形집” 지키려는 新版 “노라” 受難記」, 『조선일보』, 1938.5.29.

192) 식민지 시기 스위트홈 관련된 내용은,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2005 참고.

여기려는 남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판사의 모습은, 이혼 소송 과정 자체가 가족의 전근대성을 타파해 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다루는 두 사건은 신구도덕의 대립과 더불어 현행 민법의 불합리한 면이 뒤섞여져 있는 현장을 보여준다. 『신여성』이라는 수록지면의 성격이 반영되었을지 모르지만, 판사는 여성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서서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는 구도덕 질서 아래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거나 이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여성의 문제를 법률로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이 투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제 판례를 회곡 형식을 빌려 표현한 글도 있다. 1938년 『여성』에 실린 「이혼의 비극」¹⁹³⁾은 말미에 필자의 말을 통해 부기되듯, 사랑으로 출발한 결혼이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죄’를 묻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은 이렇다. 아내는 시집에서 당한 학대와 남편의 박정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 남편은 원고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대개 거짓말이며, 피고가 유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증인을 취조한 결과 아내의 진술이 사실이고, 심지어 피고는 모 극단의 여배우와 내연관계임이 밝혀진다. 이에 판사는 원고가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동양 특유의 미덕을 저버린 면이 다소 있으나, 민법 제813조 제5항과 제7항에 의거해 이혼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가정 내에서 전래의 관습과 현행 민법이 경합하던 현실을 보여준다. 가정 불화의 원인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습적 질서가 무너지고, 여성이 남편과 시댁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변화가 법정의 판결로 인해 촉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필자는 글의 꼬트머리에 민법 813조의 세부적 내용을 부기한다. 이와 같은 상세한 인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혼청구의 권리가 법을 매개로 정당히 선언될 수 있으며, 그 세부조항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행해진 관습이 여성 인권에 배치되며 ‘죄’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이혼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논쟁적 문제였음은 분명하나, 법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수록 이혼 문제는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권리가 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여전

193) 金汶植, 「判例에 나타난 女性動態圖 (三) 「離婚의 悲劇」, 『여성』 제3권 제2호, 1938.2, 57-59면.

히 관습과 도덕에 기초한 가부장적 질서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가정의 굴레를 벗어난 행동이 일탈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 여성은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법을 통한 국가의 승인은 그 행동을 탈선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 만들었고, 이혼할 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의 가정 내 지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맥락에서 이혼 관련 법정 서사를 보여주는 일련의 글은 현실의 반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로 작용했다.

한편 첩이 된 여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와 전적으로 달랐다. 이혼이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문제라면, 첩은 권리가 ‘없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 문제였다. 첩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로 혼인계를 제출한 부부만이 법률상 부권(夫權)과 처권(妻權)을 주장할 수 있었다. 본처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첩은 정당한 아내의 권리를 빼앗고 인권과 법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혼이 금지되었음에도 남성의 측첩을 실제로 제약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첩의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런 면에서 첩의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해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함께 법률적 테두리를 ‘넘어선’ 정의와 권리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 시대에도 첩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가정 분란의 원인이거나 정치와 대립각을 세웠던 존재였던 것만은 아니다. 조선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도를 갖춘 사회였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첩은 상하 관계로 구분되었고, 그 위계질서를 어그러뜨릴 때 형벌이 가해졌다. 처가 있어도 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처와 첩의 자리를 뒤바꿀 순 없었다. 첩과 처의 선명한 신분적 위계는 그들의 자식에게도 적용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서자들이 관직 진출과 상속 면에서 제한적 권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첩(良妾)이나 천첩(賤妾) 모두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본처와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¹⁹⁴⁾ 조강지처의 인격과 권위가 남편의 첩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보되기도 했던 것은, 첩과 처는 바꿀 수 없다는 본처의 자부심이 전제된 것이기도 했다.

194) 정구선, 「한국 중세사회의 여성과 성」, 정태섭 외,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215-216면.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첩은 법률상 가족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가족을 단위로 신분을 등록했던 호적제도 하에서 첩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의 테두리 밖의 존재였다. 이렇듯 첩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축출되어야 할 존재로 부상하는 과정은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고 그것이 현실에 효력을 미치게 되는 과정과 비례했다.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신가정을 형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일부일처제에 의해 강하게 뒷받침되고 추동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첩은 있어서는 안 됐다.¹⁹⁵⁾ 이제 첩은 사회적 범망의 경계에도 서지 못하는 '외부'에 있는 존재였다. 가족 내에서 차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근대화를 위해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들의 관심은 첩을 척결해야 할 봉건적 유제로 보는데 머물지 않았다. 물론 축첩이 폐습이라는 이해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첩이 된 경우와 그 원인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 첩은 과거와 현재가 착종된 존재였다. 특히 첩인 여성을 동정하거나 첩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안타까운 어조로 쓴 글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은, 당시 첩이 주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개벽사의 주간이었던 차상찬이 삼청동인(三淸洞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여학교를 졸업하고 첩이 되어가는 사람들」(『신여성』, 1924.3)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이 글을 쓴 목적은, 그리 많지도 않은 여학교 졸업생들이 첩이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필자는 졸업 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리라 기대했던 여학생들이 첩이 된 현실에 개탄하는데, 이와 같은 입장은 첩이 되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에 따르면, 여학교를 졸업하고서 첩이 되는 경로는 총 다섯 가지다. 속아서 되는 경우, 유혹에 빠져 되는 경우, 자유연애에 중독되어 타락하여 되는 경우, 허영심에 의한 경우, 생활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그 중 가장 비중 있게 서술되는 것은 첫 번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여학

195)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앞의 글, 81면.

생은 남성의 기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적 등본을 확인한다. 그러나 남자는 등본을 위조하거나 아내가 등록되기 전의 민적 초본을 보여준다. 이들은 구두로 결혼을 약속한다. 기혼자인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임신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첩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당시 흔하다고 말한다. 법률을 통해 혼인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가, 그 의도가 무색하게 오히려 폐해를 가중시켰던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법률혼이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폐단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고민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여학생 각자의 주의를 독려한다는 식의 방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¹⁹⁶⁾ 그런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당시 여학생이 첩이 되어가는 현상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견해였다.¹⁹⁷⁾

여학생 첩에 대한 밀도 있는 접근은 ‘제2부인’이라는 개념이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났다. 193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 개념은 첩이 되길 원하지 않았으나 첩이 된 신여성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된 것이다.¹⁹⁸⁾ 새로운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이 용어는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통용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다.¹⁹⁹⁾ 당시 제2부인은 안락한 생활 또는 허영을 만족시키

196) 三清洞人, 「女學校를卒業하고 妾이 되어가는 사람들」, 『신여성』 4, 1924.3, 48-55면.

197) 「男子의 貞操問題 移動 懇談會」, 『신여성』 34, 1931.3, 23면.

198) 첩이 된 여학생이라는 현상을 기점으로 삼아 이 개념을 1920년대 탄생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편,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216면), ‘제2부인’ 개념에는 ‘여학생 첩’이라는 현상을 ‘특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개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사가 사용되었던 시점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1920년대에 있었으나, 외국의 첩을 번역할 때 쓰였을 뿐이며 ‘신여성으로 첩이 된 자’라는 의미로 쓰인 최초의 경우는 1933년 1월 『신여성』 지면에서 발견된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해선, 「1920~30년대 新女性 ‘第二夫人’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9면 참조) 김윤선 또한 ‘제2부인’은 첩과 소실을 가리키는 별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20년대 ‘여학생 첩’에서 30년대에 이후 ‘제2부인’ 문제로 접근 방식이 이동함에 따라 이 문제를 대사회적으로 고찰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윤선, 「또 다른 ‘신여성」,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199-201면)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제2부인’ 문제는 1930년대 이후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 정지영에 따르면, 『신여성』의 열면 논의와 대비될 정도로, 당대 『동아일보』에서 ‘제2부인’이란 용어는 오직 외국의 사례에서만 사용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구분 없이 ‘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앞의 글, 56-57면.

기 위해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의 첩이 되는 여성과 구분하여, '연애'라는 숭고한 가치로 맺어진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 규정되었다. 그런 면에서 첩이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를 위해 부정되어야 할 유평적 존재라면, 제2부인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를 동요시키고 부정하는 불온한 존재였다.²⁰⁰⁾ 이러한 개념의 사용에는 법적으로는 첩과 다르지 않은 지위를 갖는 여성들이 그와 다른 잣대를 정해 스스로 정체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물론 첩과 본처(구여성 아내)와의 구분을 통해 이들을 무시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법과 도덕이 아닌 다른 준거를 통해서라도 지위와 권리를 찾겠다는 제2부인의 능동적인 태도에 담긴 의미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신의 부부관계를 '자율적 개인들 간의 이해 속에서 맺어진 정당한 계약 관계'로 여기면서, 공인된 일부일처제 제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²⁰¹⁾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만큼 「제2부인 문제 특집」(『신여성』, 1933.2) 기획에는 여러 편의 글이 수록되었다.²⁰²⁾ 그중 정인익은 '제2부인'이 현재의 법률과 도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존재이며, 일부다처를 용인하는 것은 인문이 발달하기 전의 미개한 봉건적 유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법률과 도덕의 상동성을 전제하고서, 이 두 법칙의 변화가 고대소설과 근대소설의 변화된 인물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200) 全禧福, 「第二夫人問題檢討」, 『신여성』 56, 1933.2, 3-5면. 한편 '제2부인'과 '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논의도 있다. 최근 들어 모던남녀들이 연애를 하고 같이 살려고 보니 본처가 있어 정식결혼을 할 수 없자, 첩이라는 명칭을 기피하고 '허영심'에 스스로 '제2부인'이라 칭한다는 것이다. (夏伊, 「第李婦人實話- 병아리夫婦의 破婚」, 『신여성』 56, 1933.2.) 「제2부인 문제 특집」에 글을 수록한 필자 중 김활란과 이익상은 제2부인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그 명칭이 일부일처제의 법제화를 부정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201) 전희진·박광형, 「“제2부인”이라는 근대적 긴장」, 『사회이론』, 2016, 257면.

202) 이 특집 기획에는 변호사인 이인을 비롯하여 전희복, 정인익, 류광렬, 주요섭, 이익상, 송금선, 김자혜, 김활란, 박화성, 모운숙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총 열한 명의 필자의 글이 수록된 만큼 그 내용을 일별하긴 쉽지 않다. 제2부인이라는 개념의 성립 여부, 제2부인과 첩의 구분 문제, 제2부인의 사회적·법적 지위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논자들의 입장에 따라 제2부인을 향한 시선도 동정과 비난으로 나누어졌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古代小說中에서 흔히 읽을수있는바와가티 훌륭한 主人公이 公公然하게 左右兼夫人은 고만두고 四五名 七八名の 妻妾을거느려 逸樂을누리는 것으로 最高の幸福인것가티 指示하엿습니다.

그것을 禮讚하고 그것을 推獎하는 것으로 人生의 正當한 豪華를 다-하는것이라하엿습니다. 實例를든다면 지금 巷間에 도라다니는 古代小說의 權威인 玉蓮夢의 主人公 楊昌曲과가 틈이 그런 것이 아납니까?

楊昌曲은 封建의男性들의 欽仰의 標的이엿든것입니다. 社會生活 官界生活로부터 事主 家庭生活 夫婦生活에 이르기까지 이 架空의 人物은 萬人推仰의 標的이엿든것입니다.

要컨대 그時代에잇서서 楊昌曲과가튼 人物의 私生活은 그의 公生活의 勳功으로부터 얼마든지 더 퍼질 수가 잇섯던일이어니와 其實 그째의 道德이나 法律은 얼마든지 一夫多妻의 約制를 公然히 是認하여온가답이겟지요 萬一 그 時代에 이것을 許容치안엇다면 楊昌曲과같은 仁人君子를 主人公으로하야 勸善懲惡의小說을 記述하며 禁法의일을그에게敢行시키고 推獎禮讚할理가 엿설슬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世上에 아모리훌륭한 人格의 所有者라할지라도 數名の 妻妾을 거느리고잇다 하면 世人은그를 所望於平日이라고 愕然를할것입니다. 그가 아모리 玉蓮夢 楊昌曲 以上の 큰 人物일지라도…….203)

고대소설 『옥련몽』의 주인공 양창곡이 훌륭한 인격을 지닌 군자라는 사실과 다수의 첩을 거느리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혁혁한 훈공은 사적 영역에서 행복을 보장하며 더 많은 첩을 거느리는 것을 용인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와 달리, 훌륭한 인격자여도 일부일처제의 밖으로 이탈할 경우 그의 도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당시 창작된 소설에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세워도 여러 여성을 첩으로 두거나 일부일처제라는 장벽을 넘어선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린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정인익의 이러한 견해의 근거가 된다. 한편 그는 결혼은 연애와 사랑과 같은 감정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지적 타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밖의 부부생활의 정당성을 연애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신여성의 목소리를 과오로 평가한다. 당대의 변화된 도덕과 법률의 합리성을 전제 삼아 그 틀을 벗어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근대에 이르러 법률과 도덕의 문제는 일부일처제와 긴밀하게 연

203) 鄭寅翼, 「女性的 透徹한 自覺에 依하야」, 『신여성』 56, 1933.2, 210면.

결 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일부일처제에서 벗어나면서도 도덕과 정의와 같은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제2부인의 위치는 더욱 문제적이다. 한편 이 기획의 실린 글에서 제2부인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혼을 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 법 외적인 차원에서 사랑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찾아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근대법의 도입으로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는 법을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행동이나, 본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켰다.²⁰⁴⁾ 후자는 첩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부당한 사회인식을 교정하면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결국 법과 도덕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문제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희생자로 제2부인을 동정하는 시선이 나타나긴 하나 법과 도덕 양자에 대해 치밀히 논구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변호사인 이인은 제2부인의 법적 지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법률상 일부일부(一夫一婦)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제2부인이란 명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첩과 마찬가지로 부처 관계와 자식 문제에 있어 제2부인은 법률상 아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변심하거나 학대해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우며,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글의 독특한 점은 축첩을 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유한계급이라는 생각에서인지 축첩을 한 이에게 과세를 추가하자고 제안한다는 점이다. 부족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고, 생활이 어려운 하층계급보다는 향락을 즐기는 유한계급에게 과세를 더 부과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²⁰⁵⁾ 그러나 이는 제2부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부일처제라는 법을 위반한 이들을 과세라는 명목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그 죄를 상쇄시키는 방안인 셈이다. 한편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제2부인의 사정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4) 이혼을 통해 정당한 부인이 되고자 했던 행동 외에 나타났던 법적 대응으로는, 정조유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혜선, 앞의 글, 47-53면.

205) 李仁, 「法律上으로 본 第二夫人의 社會的 地位」, 『신여성』 56, 1933.2, 6-9면.

있다. 제2부인이 된 비참한 처지를 상술할 뿐, 그녀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맥락과 원인을 조명하지는 않는다.

법률혼주의의 정착과 축첩제도의 묵인 속에서 생겨난 제2부인의 불안정한 지위는 그 자식인 사생아에게로 이어졌다.²⁰⁶⁾ 사생아 문제는 가정의 비극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부모의 비합법적 관계가 아이에게까지 계승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관점이 주를 이뤘다.²⁰⁷⁾ 사생아 문제는 여성들의 고민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²⁰⁸⁾ 이는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상 가족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법적 구조 때문이었다.²⁰⁹⁾ 이러한 맥락에서 1938년 『삼천리』에 게재된 여류 문사들의 좌담 중, '신연애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주목을 요한다. 연애의 도덕과 규준을 세우기 위한 선행 조건을 닦아야 한다는 김동환의 발언을 시작으로 모운숙, 최정희, 이선희, 노천명이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의 평등과 경제적 평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신연애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 毛允淑 - 모든 인간의 욕망이 누구나 할 것 업시 모도 다 부자가 되어 살게 되기를 바라드 시 이 性 도덕에 잇서서도 여러 가지의 억매인 부자연을 몬저 끈어 버리는 것이 선결 문제일 줄 아려요. 말하자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자립의 길을 여러 주어서 재산권을 승인하여, 돈을 가지고서 자녀의 양육가튼 것도 모성의 힘 한 가지로써 해결할 수 잇게 하여야겠고 또 이혼

206) 사생아/사생자라는 법적 개념은 식민지 시기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 시대의 첩의 자식을 의미하는 '서자'라는 용어와 구별되는 새로운 범주였다. 법률혼이 아닌 모든 남녀 관계에서 생겨나는 자녀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추후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헤어지거나 한 명이 죽게 될 경우에도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된다. 사생자가 행정법적 용어로 정착된 것은 1915년 8월 7일 관통첩 240호 '민적사무취급에 관한 건'의 '출생에 관한 사항' 부분의 내용으로 인해서다. 홍양희,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앞의 글, 2013, 44-47면.

207) 당시 신문 및 잡지에서 사생아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면, 대체로 사생아의 처지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 남녀의 결합에는 비판적이다. 가정 정화를 위해 축첩하는 이나 사생아를 낳은 이를 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자와 사생아는 무고하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생을 살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적 차별의 악습, 호적 등재, 재산상속 지위에서의 차별을 모두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庶子, 私生兒의悲哀」(1), 『동아일보』, 1932.10.19.

208) 李泰俊·朴順天 대담, 「現代女性의 苦悶을 말한다」, 『여성』, 1940.8, 65-66면.

209) 이와 같은 현실을 낳은 법적 구조의 문제는, 홍양희,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앞의 글 참고.

당할 시에도 남편의 경제적 노예의 경지에서 완전하게 버서날 수 있게 하여야겠고-.

○ 崔貞熙 - 그리고 또 民籍을 고쳐 자녀의 종속을 모성편에도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것이요요. 오히려 자녀의 자유 의사대로 맞기어 부성에 가자면 부성에게 모성에 가자면 모성에게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요.²¹⁰⁾

인용문은 모운숙과 최정희의 발언인데, 이들은 새로운 연애가 가능하기 위한 일차적 조건을 모성과 결부된 법적 구조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모운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재산권의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재산권은 오직 호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은 감정이전에 생활의 유지라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이라는 이와 같은 견해는 애정을 절대적 기준으로 간주하던 이전 시기의 논의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적을 고쳐 자녀의 문제를 어머니 편에 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최정희의 발언은 현행 민사령의 한계를 적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법적인 아버지가 없는 아이의 경우 사생자로 등재되는 규정을 비판하면서, 어머니의 민적에 오를 경우에도 적자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부계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법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여성의 양육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다.²¹¹⁾ 나아가 최정희는 부계혈통을 비판하면서도 모계혈통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그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선택의 결정권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녀의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를 초과하는 시선을 보여준다. 법 자체가 현실에 직접적으로 규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끼워 넣음으로

210) 대담, 「女流 文士の『戀愛 問題』會議」,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5.1, 321면.

211)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0, 2006, 71면.

써 해석적으로 법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요컨대 법이 선재하여 개인의 권리 보장의 한계선을 그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의지와 그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법의 적용될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민적에 따른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은 일제말기 창씨개명 정책과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화두는 혼인으로 성(姓)이 남편의 것으로 변경되는 문제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총독부는 여성의 성이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해질 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선전했다.²¹²⁾ 그러나 당시 여성 인사들의 좌담에서 여성의 성이 변경되는 문제는 모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지 않았다.

이 좌담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4년이 되는 해, 전쟁의 장기화에 맞춰 주지해야 할 가정생활과 주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류평론가 박인덕, 동아일보 기자 황신덕, 여류작가 최정희, 전동아일보사 편집국장 설의식의 부인 최의순, 향상기예학교(向上技藝學校) 교사이자 음악가인 박경희가 참여하였다. 기자는 창씨개명 또는 서양자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있게 질문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여성이 남성의 성(姓)을 따르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당시 문단과 사회 제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사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길지만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자 - 民事令이 개정이 되어서 아모리 웃줄거리든 여성이라도 이제는 꿈작할 수 없게 남성 姓을 따르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각오는 여하.

黃信德 - 남편 姓 따르는 것이야 따르라면 따르지요, 여자야 아버지 성 따르거나, 남편 성 따르거나 별로 근본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요.

기자 -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이 任씨니 任信德이 되고, 薛義順이 되고, 金景禧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黃信德 - 그렇지요, 또 녀 자 성명이 필요하다면 任黃, 信德이라 할려고 해요.

기자 - 어느 분은 新字를 놓겠다고 해요, 新崔貞熙, 新朴景禧 이렇게요.

崔義順 - 남편은 하늘이니까, 성명 위에 그 성을 冠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朴景禧 - 어쨌든 한동안은 혼돈하여질 걸요, 더구나 사회 생활하는 여성들로는, 성이 고쳐진다면, 세상에서 그 남편 성까지 어디다 기억하여 줘니까, 그러니 새사람을 대하는 것까지

212) 전은경, 앞의 글, 371-372면.

서먹서먹하여 질 질요.

黃信德 - 落地 이후 40년 동안 여러 천 번, 여러 만 번, 불러오든 입에 젖고, 귀에 익은 이 성명을 一朝에 고쳐 놓으면 다시 그만 인식을 시키기에는 한동안 고심과 노력이 들 줄 압니다.

기자 - 그러면 千字 뒤푸리 모양으로 주석이 필요하겠군요. 「前黃信德女士即現任信德女士」 이렇게요,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 더 딱한 경우가 있을 걸요, 가령 이혼하고 다른 남편을 얻어사는 때에는, 어제까지는 朴玉順이라 부르든 것이 오늘부터는 金玉順도 되고 내일은 崔玉順이도 되고요.

崔貞熙 - 그러나 그런 이혼의 경우보다 우리들 신여성의 머리로 지나가는 큰 문제는, 가령 여류 작가가 하면 그 성명이 생명이요, 「價値票」인데, 2, 30년 지반을 닦아놓은 이 이름을 一朝一夕에 버리기 어려울 줄 알어요, 그러기에 民籍上 소요되는 성명은 따로 만들어두고, 그리고 예전 이름을 雅號 모양으로, 별명 모양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하고 싶어요, 이것은 朝鮮에는 이번에 개정 民事令 때문에 남편 성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있으나 내지에선 의례히 따르기로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도 여류 작가 宇野千代나 林芙美子を 보면 결코 제 남편 성을 따르지 안 었고, 더구나 宇野千代 같은 여성은 두 번 세 번 시집갔는데, 갈 때마다 남편 성으로 갈아야 한다면 아마 木村千代도 되었다가 渡邊千代도 되었다가... 할 것인데 늘 宇野千代로 있는 것을 볼 적에는 비록 호적 상에는 정식 씨명이 따로 있을 것이로 되 널리 사회에 통용하는 성명으로는 그 관습을 용납하여 주는 듯해요, 朝鮮 여성에 대하여도 이만한 관용성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²¹³⁾

참여 여성 인사들의 응답은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황신덕과 최의순은 남편의 성을 따르는 변화를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최의순이 남편을 하늘로 여기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반면, 황신덕은 그와 달리 남성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다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황신덕의 견해에는, 부권(父權)에서 부권(夫權)으로 변했을 뿐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변함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이 두 명사가 가정 내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면, 박경희와 최정희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문제 삼는다. 두 논자 모두 갑작스런 성의 변화로 사회적 입지가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다. 공통적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의 문제에 영향 받고

213) 좌담, 「戰爭 長期化 「家庭 生活」 主婦 座談會」, 『삼천리』제12권 제3호, 1940.3.1.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그중 최정희는 작가로서의 여성의 삶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진술하고 있다. 최정희는 민적에 등재되는 성과 이름이 바뀌더라도 사회적 이름을 별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법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규정짓는 문제가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자리한다.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을 정상화하는 법적 구조에 대한 최정희의 비판적 인식을 고려할 때, ‘씨’의 문제를 가족과 개인의 관계로 이해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재차 흥미해 볼만하다. 일본의 씨(氏)는 법률상의 ‘가(家)’를 단위로 붙여진다면, 성(姓)은 개인을 단위로 붙여진다. 조선의 성은 부계혈통의 표지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家)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부속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성이 개인을 내포로 삼고 혈족에서 씨족, 그리고 민족으로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호적상의 가(家)를 떠나고서도 개인의 신분을 논할 수 있는 반면, 씨(氏)제도에서 개인의 신분은 오직 가(家) 속에서만 규정된다.²¹⁴⁾ 최정희의 이와 같은 견해는 창씨개명에 대한 논리로 순혈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경우와 구분되며, 개인을 구속하는 가족국가라는 틀 속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당대 지식인들은 가족 관계를 새롭게 구조해 나갔던 법률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었다. 가족 내부의 갈등, 나아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가 민법의 적용 속에서 이루어지던 현실 속에서, 각 구성원들은 법에 의거하여 그동안 침묵을 요구받았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다. 한편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에 따라 정상가족의 이미지가 구축됨에 따라, 법의 그물망을 벗어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타자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중 법의 변화로 삶의 풍경이 급격하게 달라졌던 이는 단연 여성이었다. 총독부의 선전처럼 법이 여성의 삶을 이전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준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위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 내 여성의 삶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강제적인 법의 테두리 속에서 억압과 제약으로 더욱 괴로움을 겪었던 이들도 등장했다.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발표된 여러 글들은 이와 같은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 속에서 생성된 여러 사건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가족법을 둘러싼 현실

214)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297면.

의 제 문제를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풍부한 담론 속에서 작가들은 당대 법률이 보여준 다양한 면면들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성된 감정과 의식은 그들의 문학적 글쓰기에 주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Ⅲ. 법률혼 정착의 이면과 여성 인권 문제의 대두

1. 이혼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과 희생자로서의 여성

식민지 시기 이혼은 서구 문화의 유입과 이혼법의 체계적 정비가 맞물려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었다. 자유이혼이 성행한 데에는 엘렌 케이를 비롯한 외래 사상 수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그 자유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혼이 개인의 권리로 공인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²¹⁵⁾ 과도기 조선 사회에 나타난 이혼 소송은 크게 두 유형으로 대별된다. 아내의 무지를 이유로 이혼하려는 남성과,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거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노라'와 같은 여성이 그것이다.²¹⁶⁾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이 두 현상은 당대 가장 빈번하게 다뤄졌던 문학적 제재이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전 근대적 가족제도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자각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에서, 전통적 질서에 얽매인 이른바 '구여성'²¹⁷⁾은 등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근대적 자각을 이룬 신남성과 신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주류 담론 속에서 구여성 아내의 목소리는 조명조차 받

215) 『자못 모든 境遇에서 그 離婚이 兩親間의 性格과 意見의 相違로부터 일어난 것인 限에는 兒孩는 그 離婚으로 因하여 一層 良好한 狀態에 至할 수가 잇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兒孩는 父親과 母親과의 軋轢의 主題인 苦痛에서 脫出할 수가 잇으며. 또는 相反한 二者間의 意志의 爭鬭-곳 自己의 立場을 獨占하라고 相競하는 二者의 嫉妬의 努力 사이에서 散散히 粉碎되지 아니할 수가 업는 苦痛에서 脫出할 수가 잇다 하엿다. 이 意味로 말하면 自由離婚은 決斷코『펠스타-』一派들의 생각과 가티 不道德한 者는 아니다. 그리하고 只今 朝鮮人은 民法上에도 離婚의 自由를 許諾하여 잇는 바가 아닌가? 吾人은 이 自由離婚에 對하여 그리 不道德한 것이라고는 말하고 십지 아니하다.』(밑줄: 인용자) 盧子泳,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개벽』 9, 1921.3, 48면.

216) 이 기사의 필자는 조선 사회의 젊은 남녀의 이혼 소송은 이 두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혼 소송이 거기에서 벗어나 흥미를 끈다고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지식과 교양 수준이 높은 순종적이지 않은 아내의 불평을 견디지 못해 인격 모욕이란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재판소는 협의이혼을 이끌고자 위자료 칠천 원을 제시하면서 조정을 꾀하는데, 남편은 찬성하고 아내는 이를 반대한다. 「나보다 學識 노푼 안해와 살수 업소. “人形 집” 지키려는 新版 “노라” 受難記」, 『조선일보』, 1938.5.29.

217) 구여성과 신여성은 대립적인 의미쌍으로 함께 탄생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출현된 배경에 대해서는,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235-239면.

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1920년대 전후 자유이혼 담론이 확산되었고, 그 속에서 이혼의 권리는 주로 조혼한 남성의 목소리로 발화되었다. 이들은 신여성과의 연애를 제도적인 결혼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구여성과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국가에 의해 공인된 결혼만이 정상적인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성에는 청년 남성들이 모여 이혼기성동맹회라는 단체가 결성될 정도였다. 민태원은 이들이 가진 '염처증(厭妻症)'의 주된 원인으로 아내의 무지를 꼽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청년 남성들은 시대의 '유공(有功)한 희생자'가 된다고 말한다.²¹⁸⁾ 민태원의 이와 같은 평가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구여성 아내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인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던 시대적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 발표된 문학에서, 부모에게 이혼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남성의 시선에 구여성 아내가 포착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구여성을 능동적으로 그리는 경우는 대체로 신식 교육을 받아 자각에 이르는 경우에 한정되었고, 남편의 이혼 제의를 받아들일 때야 이들은 비로소 주체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¹⁹⁾ 구여성 아내는 무지로 인해 불행을 좌초한 구도덕의 희생자 또는 신여성으로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남성과 신여성 중심의 담론 속에서 이중으로 타자화된 존재인 것이다.²²⁰⁾

218) 閔泰瑗, 「厭妻症의 新流行과 女子教育」, 『현대』 8, 1920.10, 20-22면. 1920년대 유행했던 이른바 '이혼병'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식계층 남성이 아내의 무지를 꼽았던 사실은 신문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소박덕이三百名」, 『동아일보』, 1922.12.21; 「리혼한다는 남편말에 푼전업시 서울로」, 『동아일보』, 1926.6.4.

219) 권보드래가 지적한 대로 구여성 아내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는 소설은 많지 않다.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앞의 책, 67-76면) 한편 구여성 아내를 화자로 삼아 삶의 애환과 질곡을 토로하는 경우는 고전문학 장르에서 발견된다. 서경희, 「구여성의 소설 <고씨효절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조세형·정인숙, 「일반 논문: <시골여자 슬픈사연>과 <녀자의 설움>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구여성의 위기와 목소리」, 『국어교육』 133, 2010; 정인숙,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식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 2010; 조혜란, 「한성신보 소재 <조부인전> 연구-구여성의 자기각성과 현실대응양상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2014.

220) 김민정,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4, 2005, 205면.

신여성과 신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현 체계 속에서 본체인 구여성의 목소리는 근본적으로 박탈될 수밖에 없다. 구여성은 불충분하게 재현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불충분한 흔적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시도가 될 수 있다.²²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10년대 이혼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근대적인 이혼법이 명문화되기 이전, 법률혼에 대한 강박보다는 근대적 계약의 합리적 정신이 팽배했을 이때야말로 정식 아내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 계약 정신을 강조할수록 계약의 당사자인 아내의 의견은 고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이 시기는 이혼이라는 새롭고도 이질적인 사상을 접한 당대 여성들의 여망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시기였다. 신구 구분 없이 가정에서 억압받던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했으리라 짐작된다. 이처럼 가족과 혼인 문제와 관련해서 근대적 법률이 아직 여백 상태였던 1910년대는 법률에 대한 동시대 사람들의 여과 없는 기대와 우려가 나타났던 시기였다. 그 핵심에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합리적 계약 정신이라는 두 근대적인 변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고, 그 충돌의 지점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문학의 문제성이 있다.

이광수의 「규한(閨恨)」(『학지광』, 1917.1)은 이러한 역동적인 시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광수의 초기작은 대개 혼인과 가족제도의 신구 교차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형상화하는데, 특히 구여성 아내와 조혼한 남성

221) 식민지 시기 가족제도 하에서 구여성은 젠더화된 하위주체(gendered subaltern)였다. 스피박은 그의 에세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주류 담론의 재현 체계 내에서 발화하지 못하는 서발턴의 위치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주장은 서발턴을 언어를 가지지 못한, 행위 주체로서의 권리가 박탈된 존재로 간주한다고 여겨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스피박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서발턴의 행위 능력 부재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지배적 재현 체계이다. 따라서 지배적 재현 체계 내에서 침묵되거나 굴절된 서발턴의 발화 흔적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주변성과 이방성 그 자체를 ‘듣는’ 윤리적 시도가 된다.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은, Gayatri Chakravorty Spivak,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Rosalind C. Morris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참조. (이 책에는 1988년 판본과 1999년의 수정본이 함께 실려 있다.); Stephen Morton,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124-129면;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17, 2012.

의 이혼 문제는 인물의 내면과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모티프로 나타난다.²²²⁾ 이 희곡은 조혼을 하고서 동경유학을 떠난 남편 김영준이 구여성인 아내 이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 아내가 돌연 실신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는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듯, 이 희곡은 구여성의 비극을 통해 전근대적 혼인제도의 폐해를 드러내고,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근대적 결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²²³⁾ 그러나 극중 아내가 죽게 된 도화선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남편의 편지라는 사실은 그 편지에 적힌 영준의 주장을 온전히 긍정할 수 없게 한다.

이 희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여성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동경 유학생과 베를린 유학생을 각각 남편으로 둔 이 씨와 최 씨가 나누는 대화는 유학생 남편의 '무정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은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통스런 처지에 공감하는데, 이와 같은 가련한 두 여성 사이에 형성되는 심리적 동일시는 독자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킨다.²²⁴⁾ 반면 영준은 무대 위에 단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고 오직 편지를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점에

222) 이와 같은 경향은 이광수의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이 투사된 것이기도 하다. 작가 연보에 따르면, 이광수는 1910년 7월 19세의 나이로 고향 정주에서 백혜순과 중매결혼을 한다. 1918년 27세에 합의 하에 이혼했고, 1921년 5월에 허영숙과 정식으로 결혼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서울, 1999, 554-560면.) 김윤식은 자전소설 『그의 자서전』을 통해 당시 이광수의 내면풍경을 살펴보면, '경솔한 초혼'이라는 인식과,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의 관계가 작가의 제2차 동경 유학 기간 중 가장 큰 변민이었다고 지적한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서울, 1999, 315-320면) 한편 최주한은 작가 연보는 호적상의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실제 혼인 시기는 1908년 7월이며, 이광수가 황해도 안악에 있는 양산학교에서 열린 제2회 하기사범강습회 교사로 참여하던 당시 고향에 들러 혼인을 치렀다고 밝히고 있다. 최주한,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37-40면.

223) 근대극으로서 이 희곡에 대한 평가는 논자들마다 상이하지만, 당시 이광수가 발표한 혼인론의 연장선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김재석, 「〈규한〉의 자연주의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26, 2007; 서연호, 『한국 근대 희곡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4, 75-79면; 송명희, 「“규한(閨恨)”과 1910년대의 혼인관」, 『여성문제연구』 18, 1990; 양승국, 『한국 현대 희곡론』, 연극과인간, 2001, 55면; 이승희, 「한국 사실주의 희곡 연구: 1910~1945년 시기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01-102면; 이정숙, 「〈규한〉의 근대의식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9, 2004.

224) Lynn Hunt, 전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47면.

서 독자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형성하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구여성의 입장에 연민을 느끼며 서사 전개를 따라가던 독자는 갑자기 도착한 영준의 편지로 파경을 맞게 된 인물을 안타깝게 여기고, 영준의 일방적인 태도를 폭력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영준의 편지는 조혼의 폐해와 계약의 원리에 대한 이광수의 논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보이지만, 극 내에서는 무정함을 강하게 표출하는 장치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환기된다.²²⁵⁾ 나아가 이와 같은 전개는 영준의 편지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

崔 「아모 效力이 업는것이라. 只今. ㉠文明한 世上에는 強制로 婚姻시키는法이 업나니 우리의 婚姻行爲는 當然히 無效하게될것이라. 이는 내가 그대를 미워하야 그림이아니라, 實로 法律이 이러함이니 이로부터 그대는 나를 지아버로 알지말라, 나의 몸이 되어 그대는 그대로 갈지어다 나는- 아 이에 무슨 편지야요」 (하고 中途에 편지를 찢는다.)

… (중략) …

李 「이게 무슨일이요? ㉡天下에 이럴法이야 어디 또 있겠소 이런 법도 있소?」

崔 「아마 暫時 잘못생각하시고 그러섯겠지요. 얼마지나면 다시 잘못된줄을 알겠습지요. 또 아부님께서도 죗도록 하셔주시겠습지요」

… (중략) …

內 (다시 편지를 보더니) 「㉢암만해도 兄님께 精神이 빠지섯군. 아즈머님. 걱정마십시오. 제가 내일 길다라케 편지를 하겠습니다. 兄님도 사람인데!」

崔 「아모러나 마음을 좀 갈안치고 下回를 기다리십시오. 輕하게 무슨일을 하시지말고」²²⁶⁾
(밑줄: 인용자)

영준의 편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씨를 대신하여 이웃집 부인인 최

225) 김영준이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설정이 갖는 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가 제출되었다. 김재석은 남편의 주장이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것임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 상호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라는 점에서 폭력적인 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재석, 앞의 글, 59면) 반면 이정숙은 영준이 직접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정적 시선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구여성을 향한 연민이 근대적 결혼의 필요성보다 부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정숙, 앞의 글, 118-119면) 희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무대에 등장인물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점은 그 인물의 선악 여부를 떠나 그의 입장과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김재석의 분석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대적 결혼과 구여성 아내에 대한 연민이 대항으로 설정된다는 전제는, 「규한」의 경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26) 孤舟, 「閨恨」, 『학지광』 11, 1917.1, 43면.

씨의 목소리로 전달된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광수가 발표한 혼인론의 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준은 조혼의 피해자로 자신을 위치지우며, 부부 관계가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표명한다. ㉠에서 나타나듯, 이때 영준의 이혼 요구는 근대적 법의 합리성에 의거하여 당당하게 제시된다. 부모에 의한 강제적 혼인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문명이라는 가치로 보증되며, 이에 근거하여 영준은 이혼이 아내에 대한 사적 감정이 전연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준은 자신의 '전근대적인 결혼'을 '근대적 결혼'의 기준으로 파기하자고 주장하면서도, 근대적 결혼과 이혼의 전제 조건인 합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²²⁷⁾ 영준의 주장은 자신의 자유이혼의 권리만을 알 뿐, 이혼에 대한 아내의 견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적 결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죽음과 그녀를 향한 연민의 시선은 전근대적 혼인제도의 폐해를 고발할 뿐 아니라, 남성 지식이 주장한 근대적 결혼관의 한계를 교정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것은 근대성의 표지로 여겨지는 법의 논리가 전근대적이지만 인도적인 윤리의식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명한 세계의 '법'의 가치를 옹호하는 남편은 무지한 아내를 '사람'도 아니라고 평가한다. 반면 편지를 받은 아내 이 씨는 천하에 이럴 '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영준의 아우는 형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면서 형수를 안심시키려 한다(㉢). 전자는 근대의 법을, 후자는 도덕을 우위에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목은 당시 법과 도덕의 길항 관계를 의식했던 이광수의 사유가 투사된 것인 동시에, 근대적인 법을 긍정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지 않는 적용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다.

따라서 구여성 아내에 대한 연민은 근대적 결혼의 가치와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온당하다. 이는 구여성 아내가 멸시와 연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유

227) 이광수는 「신생활론」을 비롯하여 혼인 문제와 관련된 논설에서, 근대적 결혼은 부부의 쌍방향적인 의사 표현의 결과가 이어진 계약으로, 결혼의 파기 또한 양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II장 2절 참조.

발하는 모습으로만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²²⁸⁾ 그것은 최 씨가 충격을 받고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이 씨를 “순옥(順玉)”²²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지나치듯 서술된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성의 이름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등장인물이 이름을 갖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근대문학의 한 특징이기도 하거니와,²³⁰⁾ 여성이 법률상으로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10년대에 생겨난 근대적인 변화였다. 조선시대까지 여성은 아명으로만 불리다가, 결혼 후에는 ‘이 씨’와 같이 가문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성(姓)으로 불렸다. 일제 강점 이후에야 여성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민적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²³¹⁾ 따라서 그녀의 이름은 무자각한 구여성이기에 앞서 그녀가 법적 신분을 부여받은 한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영준의 위선은 법적 권리를 가져 마땅할 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한편 등장인물 소개에도 단지 ‘이 씨’라고 적혀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이 씨의 상황에 가장 깊이 공감했던 최 씨가 유일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혼인 계약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이 다른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는 이와 같은 장면은 『무정』과 『개척자』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규한」이 전근대적 가족제도와 법으로 대변되는 신문명의 무정함이 충돌하면서 양자에 대한 무의식적 성찰이 보이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단편 「무정」(『대한홍학보』 11호, 1910.3)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해진다. 이 소설은 조혼한 남편의 냉대를 받고 첩까지 들이게 되는 상황에서도 참고 살다가, 자신이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과 첩이 자신의 방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비

228) 김수진은 구여성에 대한 멸시와 연민이라는 이중적 감정이 당시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진, 앞의 책, 239면) 『신여성』을 중심으로 당대 담론을 살펴보고 있는 김수진의 분석을 염두에 둘 때, 주류 담론과 다른 재현방식을 보여준 이광수의 「규한」의 의미는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229) 孤舟, 「閨恨」, 『학지광』 11, 1917.1, 43면.

230) 이재선, 『한국소설사』, 앞의 책, 50면.

231) 여성은 법적 신분을 부여받게 되면서 국민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기혼여성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 국가의 국민으로 동원하기 위해 신분을 부여했을 뿐, 여성을 개별적인 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전경옥 외, 앞의 책, 56-57면;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24면.

관하며 자살하는 부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서술자는 부인의 처지를 가련하게 느끼면서도, 불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근대적 자각에 이르지 못한 그녀의 미성숙한 현실 인식과 소양부족을 부각한다. 서술자에 의해 부인은 “韓國模型的 婦人”으로, “特質도 읍고, 能力도 읍스느, 單純히 그 性質을 說明 亨진된 압이 무겁고, 實行이 단정 亨고, 아뭇 일이고 삼가고 삼가 亨며 절대적 父母와 지아비의 命令에 服從”²³²⁾하고, “容姿, 淑德을 無備 亨”²³³⁾ 인물로 제시된다. 그녀는 교육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모와 덕성 또한 갖추지 못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진술은 인물의 고통을 냉담하게 관조하면서 구제도가 지닌 부정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된다. 그 과정에서 부인을 향한 연민은 상쇄되고, 그녀 또한 비판되어야 할 구제도에 포함된 존재임이 부각된다. 「규한」이 서술자의 중개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여준다면, 「무정」의 주제의식은 서술자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의 도덕과 동정에 대한 인식이 근대적 문명에 대한 이해 속에서 더욱 확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규한」은 근대법과 거기서 파생되는 인권 문제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이 씨 부인에 대한 동정적 시선이 더욱 극대화된 것이기도 하다.

「규한」에서 다뤄졌던 근대적 법이념과 그 현실화의 간극은 같은 해 발표된 단편 「어린 벼에게」(『청춘』, 1917, 7-11)에서도 발견된다. 주인공 임보형은 「규한」의 영준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혼인은 법률과 윤리적 차원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 소설에는 이와 같은 웅변의 이유가 제시된다. 임보형에게 기혼자라는 처지는 동경 유학 시절 만난 김일련과의 사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조혼의 부당성을 토로하면서도, 보형이 일련과 실질적 연애 관계로 발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왜 마음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려는 것일까. 이는 서사 내에서 법률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 주의하여 읽을 때 그 의미를 간취할 수 있다.

이 편지를 써노코 나는 再三 생각하였나이다. 이것이 罪가 아닐가. 나는 밭서 婚姻한 몸이

232) 孤舟, 「無情」, (『大韓興學報』 11, 1910.3), 최주한·하타노 세츠코 엮음, 『이광수 초기 문장집』 1, 소나무, 2015, 82면.

233) 위의 글, 위의 책, 81면.

라 다른 女子를 사랑함이 罪가 아닐가. 내 心中에서는 或은 罪라 하고 或은 罪가 아니라 自然이라 하나이다. 내가 婚姻한 것은 내가 함이 아니오, 나는 男女가 무엇이며 婚姻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前에 父母가 任意로 契約을 맺고 社會가 그를 承認한것을 뿐이니, 이 結婚行爲에는 내 自由意思是 一分도 들지 아니한 것이오 다만 나의 幼弱함을 利用하여 第三者가 強制로 行하게 한 것이니, 法律上 으로 보든지 倫理上 으로 보든지 내가 이 行爲에 對하여 아모 責任이 업을 것이라. … (중략) … 다만 父母의 意思 尊重하고 社會의 秩序를 근심하는 好意로 그 契約- 내 人格을 蹂躪하고 侮辱한 그 契約을 눈물로써 默認할 따름이어나와, 내가 精神的으로 다른 異性을 사랑하여 蹂躪된 權利의 一部를 主張하고 掠奪된 享樂의 一部를 恢復함은 堂堂한 吾人の 權利인가 하나이다. 이 理由로 나는 그를 사랑함이오— 더구나 누이와 가지 사랑함이오 — 또 그에게서 그와 가튼 사랑을 바드려 함이 決코 不義가 아니라고 斷定하였나이다.²³⁴⁾ (밑줄: 인용자)

보형은 일련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쓰고서, 기혼자인 자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일이 '죄'인지 자문한다. 이내 그는 자유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강제적 혼인은 법률과 윤리적 차원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모욕적인 그 계약을 묵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부모의 의사와 사회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며, 이는 조혼을 비판하던 그의 입장과 상치된다. 이를테면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정신적으로 이성(異性)을 사랑하는 것을 “蹂躪된 權利의 一部를 主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육체적인 교섭으로 나아갈 때 간음과 중혼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²³⁵⁾ 요컨대, 위의 인용에 나타난 보형의 내면은, 근대적 계약의 원리로서 자유

234) 외배, 「어린 벗에게」(第二信), 『청춘』 9, 1917.7, 25-26면.

235) '第四信'에서 임보형은 다시 김일련을 만난다. 이때 보형은 인간의 인위로 만든 법적 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정(情)과 영(靈)의 요구라는 천성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긴다. 그는 사랑을 위한 이 '위반'적인 행위가 개인의 사욕 만족이 아닌 사회 발전과 이상 실현을 위한 선구적인 행위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이후 서사에서 임보형과 김일련은 연애 감정을 나누지 않으며, 문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눌 뿐이다. 두 인물이 헤어지고서 있었던 김일련의 연애담이 소개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보형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어지다가 끝이 난다. (외배, 「어린 벗에게」(第四信), 『청춘』 11, 1917.11) 이와 같은 서사 전개를 염두에 둘 때, 결말 부분에서 사랑의 권리를 누리겠다는 보형의 결심 장면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의지가 행동의 차원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점과 서사 전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지배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부분은 보형의 변화 이전, 즉 법과 도덕의 굴레로 번민하는 모습에 있다.

의사를 보증해 주는 법의 이념보다 현실에 적용되어 사회풍속을 계도하는 도덕과 법률이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에 기초한 근대법 정신은 전래의 억압적인 혼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로 긍정되었지만, 이와 같은 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선 사회에서 현실화 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파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광수의 초기작에 나타난 인물들은 감정과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기성의 법과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경계한다. 이는 한국 근대소설의 포문을 열었던 이광수의 첫 장편 『무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각기 다른 상황과 의식 수준을 보이지만, 대부분 일부일처(一夫一妻)를 당위적 명제로 여긴다.²³⁶⁾ 서술자는 직접적으로 형식의 일부일처제의 사상적 기반이 '서양 예수교 도덕'에 있고, 이는 개인의 경험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²³⁷⁾ 교회법의 원리에 가장 강한 구속을 받는 인물은 병국이다. 그는 동경 유학 이후 조혼한 아내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성인 영채에게 마음이 끌려 번민한다. '예수교적 혼인관'을 지닌 '부부신성론자'인 그에게, 축첩과 이혼을 엄금하는 예수교 도덕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구속으로 작용한다. 그 앞에서 '영육(靈肉)을 합한 전인격적 사랑'²³⁸⁾을 실현하고

236) 김장로가 기생 소설이었던 선행의 모친을 정처로 삼아야 했던 것은 기독교에서 한 명의 처만을 둘 것을 원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문을 중시하는 양반 신분인 김장로의 집안에서 기생을 정처로 삼는 것은 전래의 가족제도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후인 것이다. 형식이 기생인 영채를 첩으로 두지 않고서 선행과 나란히 놓고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권보드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 『무정』이 1920년대의 자유연애와 구분되는 '부부애'에 관한 소설이라고 평가한다.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앞의 책, 211-212면.

237) “형식은엄정혼일부々々주의「一夫一婦主義」를고집하고우선은첩을엇든지기싱외 입을하는것은결코남자의잘하는일이안이라한다과연우선으로보면첩이나기싱이안이고는오런일싱을지닐것긔지아이하다 우선의일부다쳐주의나 형식의일부주의가 반면은 각々이전조선도덕과 서양예수교도덕에서 나왔다하더라도 반면은 확실히 각々그네의 경우에서나온것이다 우선에게만일 영칙를주고 영칙가우선을스랑히 준다하면 우선은그날부터라도 기싱집에가기를긔칠것이다” 이광수, 「무정」 110회, 『매일신보』, 1917.5.23.

238) “내가구하던것은 오직정신덕위안뿐인줄알았더니 이제와서 비로소 그러치안이 혼줄을끼다랐다 직나의요구하는것은 정신덕이라던가육덕「肉的」이라든가하는부분 덕스랑이안시오 전인격「全人格」의 스랑인줄끼달았다

그런데한이성「異性」이닉압해나섰다 나는견딜수업시그에게 끌려진다 나는 지금 의리와스랑의두식이에 끼어서더홀슈업는고통을받는다” (밑줄: 인용자) 이광수, 「

자 하는 열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정』은 사랑의 서사지만, 그 사랑은 도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²³⁹⁾ 서술자는 사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부일처주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서사에 재현된 양상은 그와 반대로 나타난다. 예수교 도덕에 명시된 일부일처제는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벗어나 신분의 벽을 넘고 부부애에 기초한 혼인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혼인을 유지할 때는 억압이 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를 옹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랑의 감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법과 감정의 대립구도는 영채에게서도 나타난다. 기차 안에서 병욱을 만나기 전 영채가 봉건적 윤리 속에 갇혀 있었다면, 병욱을 만난 이후 “조용로운사람이되고 젊은사람이되고 젊고어엮분녀즈”가 되어, “사람의피가 끌키시작하고 사람의정이가타기를시작”함을 느낀다.²⁴⁰⁾ 그러나 영채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황주에 있는 병욱의 집에 머물면서 영채는 병욱에게 정다운 마음을 품게 되고, 이는 병욱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채는 형식을 향한 전통적인 정조 관념을 버리고서 처음 갖게 된 이 감정에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변민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곧 이성 일반과 육체적 교섭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환된다.²⁴¹⁾ 사람으로서 새로운 자각을 한 영채가 자신의 감정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무정』에서 일부일처제라는 법칙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웅변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채의 각성에 감화를 준 병욱의 말은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은 영채가 전근대적 윤리에서 벗어나 근대적 세계로

무정」 97회, 『매일신보』, 1917.5.5.

239) 최혜실은 『무정』의 일부일처제에서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부르주아 가정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발견한다. 최혜실, 앞의 책, 100-119면.

240) 이광수, 「무정」 94회, 『매일신보』, 1917.5.2.

241) 영채의 감정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녀가 갑자기 육체성을 느끼는 장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겨난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전 기생일 때 억지로 자신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했던 이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는 장면은 공감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장면은 1920-30년대 소설에서 여성의 변화를 독립된 인격으로 그리기보다는, 성적 차원에서 형상화했다는 점을 규명했던 이혜령의 연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혜령, 『한국 근대 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참고.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병옥은 영채에게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삼종지도(三從之道)에서 벗어나 “사림의 직분”²⁴²⁾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여기서 그 직분은 사회와 자손을 위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그 직분은 딸, 아내, 어머니와 같은 가정 내 역할과 직업을 가져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부연된다. 결국 영채가 안내받은 각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은 국민의 역할에 충실한 삶이다. 요컨대, 영채가 배운 근대적 세계는 국가가 정한 법인 일부일처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삶과 일맥상통한다. 아버지의 법으로 대변되는 도덕의 세계에서 국가의 법으로 진입한 셈이다.

이와 같은 법의 세계는 자신의 감정을 발견한 영채에게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영채는 병국에게 호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병국과 그의 아내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한다. 병국 부부에 대한 이와 같은 영채의 선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물론 이는 영채가 병국의 아내를 정당하게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채가 그 사이에서 심정적인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초에 영채에게 병국을 향한 마음을 발전시킬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정』에는 「규한」에서의 아내의 실성, 「어린 벗에게」의 애정관계의 결렬과 같은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정』의 인물들은 남성과 여성이 그 당사자로서 동등하게 혼인 계약에 묶여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한쪽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행위가 그 정신을 위반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영채에게 황주에서의 시간은 이성에 대한 열정이 솟아난 시기임에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원리가 지배적인 세계에서 구여성 아내는 이혼 문제로 빚어지는 갈등 속에 놓이거나 죽음과 같은 비극적 결말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광수의 두 번째 장편 『개척자』(『매일신보』, 1917.11.10-1918.3.15)는 근대 가족법의 도입에 따라 야기된 갈등을 당대 법 현실에 대한 찌릿한 묘사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연재 당시 『무정』만큼이나 독자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나, 연구자들에게는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 왔

242) 이광수, 「무정」 90회, 『매일신보』, 1917.4.27.

다.²⁴³⁾ 그러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관념과 제도적 변화를 둘러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민지 시기 발표된 소설에서 조혼 또는 정략혼의 문제로 부자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개척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소설과 유사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결혼의 지형도를 변화시켰던 근대법의 수용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소설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소설이 정략혼과 근대적 결혼의 충돌을 세대 갈등으로 풀어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순과 결혼 문제로 대립하는 인물은 그녀의 오빠이자 과학 분야의 선구자인 김성재다. 그가 집안에서 막강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호주’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 형상화된 혼인 문제가 전근대와 근대적 혼인 관습에 따른 세대 차이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갈등 구도는 당대 법의 문제와 함께 인물이 견지하고 있는 사상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개척자』의 전반부는 김성재의 과학실험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후반부는 김성순을 중심으로 기혼자인 민은식과의 연애와 혼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중핵 사건을 이룬다. 이러한 서사구성으로 인해 이 소설은 등장인물 중 누가 진정한 개척자인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인물 중 김성순이 보다 진보된 의식을 지녔다는 점은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된다. 김성재는 ‘인경’으로, 김성순은 ‘시계’로 각 인물이 살고 있는 시대가 비유된다는 점에서, 김성순은 또 다른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김성재에 비해 좀 더 신사상에 가까운 인물이다.²⁴⁴⁾ 서사가 전개되면서 의식이 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김성순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대 독자들 또한 대부분은 민과 성순의

243) 김영민, 「『개척자(開拓者)』 다시 읽기」, 『사이』 18, 2015, 83-95면.

244) 전반부에 나타나는 성재의 실험을 작가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순이 좀 더 ‘신사상’에 가깝다는 것은 서사 내 서술자의 판단으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종로의 인경 소리를 듣고 난 성재보다는 시계의 치는 소리를 듣고 난 성순의 편이 얼마큼 더욱 신사상을 동화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경 소리의 여향(餘響)이 스러지지 아니한 사회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의 사상을 억제하고 어른들의 명령을 복종하기에 관숙(慣熟)한 성순은 분명히 성재와 모친의 면전에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할 용기도 없어서” (이광수, 「개척자」, 『이광수 전집』 1, 삼중당, 1971, 251면, 밑줄: 인용자)와 같은 부분을 들 수 있다.

연애를 핵심적인 서사로 받아들였다.²⁴⁵⁾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개척자』에서 작가가 가장 비중 있게 형상화하고자 한 주제는 성순을 중심으로 한 혼사갈등을 통해 드러난다.

그간의 연구에서 성순은 주로 열정과 감성의 개척자로 평가되어 왔다.²⁴⁶⁾ 그러나 민은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성순과의 혼인을 위해 본처와 이혼하겠다는 그의 뜻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성순의 행동은, 선행 연구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기혼자와 그의 아내와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여타 소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김성순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그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성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후반부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앞서, 서술자의 직접 진술을 통해 서사의 향방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부분은 특히 혼인과 관련된 갈등을 법정 상황의 비유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성순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조혼한 아내가 있는 민은식을 향한 애정과 집안에서 강제로 정한 변성일과의 혼약 때문에 발생하며, 그 갈등의 근저에는 인물들이 혼인을 이해하고 있는 제도적 기반의 차이가 존재한다.

245) 김영민은 민과 성순을 핵심 인물로 여기는 당대 독자들의 반응과 이광수가 민을 주인공으로 호칭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 소설을 민을 중심으로 한 연애소설로 보았다. (김영민, 『『개척자』 다시 읽기』, 앞의 글, 94면) 그러나 연애와 혼사갈등의 중심에 놓인 인물은 민이 아니라 성순이다. 더구나 후술하겠지만 성순은 인권의식의 차원에서는 민보다 진보된 태도를 보인다.

246) 서영채, 『사랑의 문법』, 앞의 책, 66-73면;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배치- 최찬식의 『능라도』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2004, 159-186면;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20, 한국비교문학회, 1995, 89-132면. 뒤의 두 연구는 성순의 자살을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로 설명하는 반면, 서영채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서영채는 성순의 사랑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애에 따라 사랑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사랑의 핵심은 낭만성과 맹목적 열정에 있다고 분석한다. 성순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민은식이 보여준 계몽주의에 도전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성순의 자살은 민은식과 동일한 성향의 작가가 그의 뜻을 좌절시키려 하는 성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순의 사랑은 억압적인 구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 한정해서만 의미가 있고, 그걸 초과할 때는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순이 죽기 직전 서술자가 그를 이 집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각한 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은,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게끔 한다.

변은 모친과 성재의 허락을 존중하되 민은 도리어 그것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성순의 허락을 중히 여긴다. 이제 만일 모친과 성재는 성순을 변에게 허락하고, 성순은 자기를 민에게 허락하였다 하면, 이에 성순의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대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성순은 모친과 오빠의 것이냐, 또는 성순 자신의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쟁점이 될지니, 법정의 좌우에 늘어앉은 변호사 제씨와 방청인 제씨는 응당 각각 자기의 의견을 따라서, 혹 좌, 혹 우 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이 만일 인습의 법전을 준거한다면 성순 측에서는 기필코 기피를 신청 하거나 상고할 것이다. 다만 흥미를 감쇄하는 것은 이 사건의 원피(原被) 양방이 각각 자기 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음이니, 성재도 성순은 확실히 장형(長兄) 되고 호주 되는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는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성순도 나는 오직 내 소유물이다 하는 판단이 분명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분명치 못한 쟁점을 가지고 감정과 인습과 방편과 고집과 임시 임시의 단편적 생각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²⁴⁷⁾ (밑줄: 인용자)

서술자는 앞으로 전개될 서사에서 다뤄질 사건을 “성순의 소유권 문제”로 제시한다. 성순이 모친과 오빠로 대변되는 가족의 소유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하는가와 같은 쟁점을 다룰 것이니, 각 측의 논리와 입장을 읽고서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라는 관념은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연법사상을 기저로 하는데,²⁴⁸⁾ 인물들 사이에서 성순의 소유권 문제는 ‘근대적 인권’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성재가 성순을 집안의 소유로 이해하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아니 되는 이 인권이라는 새 사상은 가장 진보하였다는 성재에게까지도 아직 실행할 힘을 주리만큼 깊이 침투하지를 못하였”²⁴⁹⁾기 때문이다. 결국 서술자는 두 인물이 모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성순이 이와 같은 재판에서 승소하리라는 결론을 미리 예고한 셈이다. 만약 재판장이 인습에 토대하여 판단을 내린다면 성순은 상고를 하리라는 서술 또한 성순이 인습을 넘어서 신사상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정과 유사한 설정은 혼인과 관련하여 여전히 관습이 법원(法源)이 되고 있는 당대 현

247) 이광수, 『개척자』, 앞의 책, 253-254면.

248) 소유권의 설정은 근대법사상의 기초인 자연법사상의 정신인 자유와 인권을 기저로 한다. 인간에게 타고난 것으로서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항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甲斐道太郎, 강금실 역, 『소유권사상의 역사』, 돌베개, 1984, 200면.

249) 이광수, 『개척자』, 앞의 책, 251면.

실에 대한 작가적 대응으로, “인습의 법전” 하에서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비판이 현실성을 띠는 것은 두 입장에서 견지하고 있는 혼인에 대한 인식이 관습법과 근대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원(法源)에서 출발하며, 그에 대한 인물들의 이해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변성일과 김성재에게 있어 혼인 당사자인 성순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일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변성일은 성재와 성순의 모친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관습상 도리어 정면공격이요, 겹하여 정정당당한 일일 것”²⁵⁰⁾이라 생각한다. 약혼만 하고서 성례는 해성(解喪), 즉 부친 김참서의 삼년상을 마치고서 해도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조선 시대에는 부모의 상중에 딸의 결혼식을 하는 것이 장형에 처벌을 할 정도로 용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⁵¹⁾ 관습에 근거한 혼인에 대한 작가의 이해가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김성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김참서가 죽은 후 호주가 된 성재는 성순의 의사를 물어볼 순 있지만, 그것은 필수도 아니며 자신이 결정한 혼약을 성순이 깨뜨리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여긴다.²⁵²⁾ 반면 민은식은 모친과 성재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혼인 당사자인 성순과 자신의 의사 합의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 간의 의사와 애정에 의한 혼인 당사자의 ‘계약’으로서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의 입장은, 아직 결혼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조선의 현실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²⁵³⁾

한편 성순이 인습에 근거한 상대측의 논리에 맞서 자신의 소유권은 자기

250) 위의 책, 246면.

251) 김재문,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172면.

252)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선 풍속에서 자식의 혼인은 주혼자의 명의로 하며, 본인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주혼자는 부 또는 조부, 없을 경우에는 형이 되며, 그 경우 모나 조모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정궁식 편역, 앞의 책, 344-355면.

253) 관습법에 기초한 혼인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성을 띠는 것과 달리 민은식의 혼인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자유의사라는 원론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것은, 이와 같은 법이 현실화되는 현장을 작가가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광수는 스스로 당대 현실을 폭넓게 재현해내는 소설을 창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법은 구체적인 조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에게 있다는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은, 그의 불철저한 인식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집이 지어진 이후로 아마 한 번도 있어 본 전례가 없는 참사람의 일단”²⁵⁴⁾에 이르기까지, 성순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인식 수준의 깊이를 확보해 나간다. 이는 딸, 아내, 지아비, 시집, 사람,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의미, 혼인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세간에서 이혼이 그르다고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개념과 범주를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 비판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²⁵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순은 자신이 그들과 다른 신생활로 나아가야 할 분기점에 선 인물임을 자각한다.

『내가 일생에 그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면 민적상 나의 아내로 있다고 그가 행복되었을 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그 어른은 이혼되는 것보다 차라리 민적상으로 만이라도 민씨의 아내로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는지 알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하면, 그를 이혼하는 것은 그를 더욱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못하셔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에게 줄 것이 둘 중에 하나인데, 즉 사랑을 주거나 자유를 주거나, 그런데 나는 사랑을 못 주니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요. 그가 새로 행복된 경우를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요.』

… (중략) …

『습관에 매여서 그렇겠지요. 자기인들 이렇게 무정하게 하는 나를 사랑할 리야 있겠어요. 다만 이혼이란 못하는 것이다. 하물며 재혼이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는 아니 들어야 된다. 이것이겠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될 수만 있으면 차라리 새로 행복된 경우를 찾고 싶어하리라고. 그도 청춘이야요, 지금 이십 삼세이야요. 왜 혼자 늙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구습의 힘에 매여서 그러지요……』

성순은 다만 고개를 도리도리하였다.

『그것이 습관이거나 무엇이거나 그가 원통해 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254) 이광수, 『개척자』, 앞의 책, 298면. 전반부 서사를 이끌었던 화학자 김성재의 실험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부친의 죽음과 집안의 곤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술자의 이러한 평가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개척자’의 반열에 성재가 아닌 성순을 위치시키고 있음을 증명한다.

255) 성순이 전통적인 인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는 이광수가 일본에 유학할 당시 접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본에 수용된 신칸트학과 및 칸트 철학과의 영향성을 살피게 한다. 이행미, 「두 개의 과학, 두 개의 문명」,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118-126면.

못하셔요. 만일 이혼을 하신다면 저는 다시 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²⁵⁶⁾

성순과 민의 의견 대립은 이혼 문제와 관련된 상반된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민은 성순이 집안이 정한 혼약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이 되어주고, 일생을 같이 하리라 약속하고서 인습과 전쟁을 치러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순을 독려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지탄 및 앞으로의 대안이 우려되어 자신의 의견을 번복하여 성순에게 변과의 혼인을 권유하고, 성순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서는 바로 생각을 바꿔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혼이 구습에 매어있던 아내의 삶에 자유를 준다는 민과 같은 입장은 식민지 시기 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논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 관습의 세계에 익숙한 민의 아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절을 고수하는 것을 참된 것으로, 이혼은 기처(棄妻)로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민과 같은 주장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순이 민의 이혼을 반대하는 까닭은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그녀는 이혼의 문제를 아내가 느낄 행복과 불행의 감정으로 이해하며, “습관이거나 무엇이거나 그가 원통해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다시 말해, 성순은 습관(관습)의 세계가 아무리 전근대적일지라도, 자유와 해방이라는 좀 더 진보된 세계가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당사자인 아내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순의 태도는 민은식에 비해 성숙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자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성순이, 아내의 소유권 또한 민이 아닌 그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성순의 감수성이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성순이 자신의 소유권을 자각하는 과정이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를 확인해 가는 비판적 성찰과 맞닿아 있다면,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다.²⁵⁷⁾

한편 성순이 민과의 육적 교섭이 없음에도 ‘처녀’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

256) 이광수, 『개척자』, 앞의 책, 279-280면.

257)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32-35면.

세우게 된 것이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혼한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기혼자인 민은식과 성순이 육체적 교섭에 이르게 될 경우, 이는 '간통'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의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순은, 그녀가 민의 아내로 엄연히 존재하는 한 그를 무시한 혼외관계를 갖거나 이혼을 종용할 수 없다. 결국 성순은 민과 그의 아내의 합의를 통해 깨어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된 그들 부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육이 분리된 정신적 사랑에 한정시키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이는 성순이 민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약혼한 변에게 마음을 주려고 애를 썼으나 불가능했던 경험에 의해 도출된 인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성순의 독특한 정조관은 단순히 미숙한 인물의 착각이 아니라, 여러 장애와 구속을 거쳐 도달하게 된 나름의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성순은 이와 같은 의지를 실현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다. 성순은 성재에게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과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남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성순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²⁵⁸⁾ 성재는 정혼자가 있는 성순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 생각하면서, 그녀를 “일생에 용서를 받지 못할 큰 죄인” 이자 “가성(家性)을 더럽힌 대악인” 으로 몰아세운다.²⁵⁹⁾ 관습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성재는 부부간의 정신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 교섭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이 서사화되는 것은 성재의 그와 같은 부부관을 보여준다. 결국 성순의 죽음은 그녀와 성재의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성순의 죽음은 정신적 가치의 우위를

258) 고전소설의 가정소설 유형에서 여성주인공을 위해하는 관습적인 방법은 인물의 정절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만으로 여성 인물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 강진옥은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여성인물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시대인식이 투사된 것으로서, 당대 여성 억압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앞의 책, 83-84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순이 자신을 처녀로 자처하는 것이 고전소설의 여성 인물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9) 이광수, 『개척자』, 앞의 책, 288면. 성재는 약혼할 성순은 가례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혼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간음죄에 대해 추궁한다. 『慣習調査報告書』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대명률』에 의해 간부(姦婦)는 본부의 의사에 따라 가매(嫁賣)할 수 있다. 정공식 편역, 앞의 책, 342면.

증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도덕의 우위를 선언한 것으로, 이광수의 추상적 계몽주의가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성순을 통해 보여준 근대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현실 사회에 적용되는 법률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 문제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순은 앞서 발표된 이광수의 다른 소설의 인물보다 소유물이 아닌 여성의 존재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계약의 합리성에 이해를 지닌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 인물의 자각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관습적 규범의 세계가 여전히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성순은 여성의 소유권이 가정 내에서는 주장되기 어려운 당대 담론의 현실을 넘어서고 위반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파국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김명순의 등단작이자 『청춘』의 특별 현상 모집에서 3등을 차지한 「의심의 소녀」(『청춘』, 1917.11)는, 가정 내부에 있는 여성이 괴로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 주의를 끈다. 이 소설에서 구여성 아내의 비극적 죽음의 결정적 계기는 여성의 이혼할 권리의 부재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이광수를 비롯하여 식민지 시기 많은 작품에서 여성인물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뿐, 이혼을 먼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아내의 이혼 요청이 최초로 등장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²⁶⁰⁾

趙局長은 世世로 兩班이라 弄花에 巧하고 射의에 妙하다. 더는 세 번 妻를 맞구고 妾을 갈기도 十餘人이라. 花柳에 淪고 村百姓의 계집까지 戲弄하였고 그의 別業에서는 晝夜를 顛倒하고 놀았다 夫人이 그에게 嫁하야 그 딸 佳姬를 나었다. 肉의 美는 시러지지만 키가 어려운 것이 매 남편의 亂行은 夫人의 不幸과 가치 자랐다. 새로 드려온 妾은 남편의 사랑을 아섯다 남편은 親戚間에도 忤었다. 前妻의 딸은 每事에 妬를 타서 夫人을 誣陷한다 사랑을 願하여도 얻지 못하고 自由를 願하여도 얻지 못하고 離別을 請하여도 안드려 疑心을 맞고 虐待을 맞고 갖치여 非觀을 하든 남저지에 病든 몸을 이르켜 平壤의 別莊에서 자살하였다.²⁶¹⁾ (밑줄: 인용자)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는 그 제목에서도 짐작되듯, 의문의 소녀 범네와

260) 김일엽의 「자각」과 심훈의 『직녀성』을 들 수 있다.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는 1917년에 발표되었다는 점과 신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목소리로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구적이다.

261) 김명순, 「疑心の少女」, 『청춘』 11, 1917.5, 67면.

그의 정체를 궁금해 하는 동리사람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결말에 이르러 외부와 소통을 차단한 채 살아가야만 했던 비밀이 밝혀지는 구성을 취한다. 서술자는 해설적 어조로 소녀의 본래 이름은 가희이며, 그녀의 외조부(황진사)와 함께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가야만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가희의 부친 조국장은 여성을 완룡물로 여기면서 희롱을 일삼는 인물이다. 처를 세 번이나 바꾸고, 첩을 십 여 명이나 두면서도 화류계 여성과 마을의 백성에게 손을 뻗칠 정도이다. 그의 이러한 성정은 재산가 황진사의 무담독녀이자 평양에서 유명한 미인인 가희의 어머니와 간절한 구애 끝에 결혼하고서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가희의 어머니는 남편의 작첩, 전처소생의 모함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사랑과 자유 가운데 그 무엇도 얻지 못하자 이혼을 바라고,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행한다.

이처럼 「의심의 소녀」는 남성의 방탕이 허용되는 가족제도 아래 불행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삶의 질곡을 보여준다. 당시 전근대적 가족 윤리에 대한 비판은 논설의 단골 주제였고, 소설의 주제로도 빈번하게 그려졌다. 그러나 여성이 스스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는 인물의 설정은 1910년대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소설만의 이채이다.²⁶²⁾ 나아가 가희 어머니의 사연은 이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가정 내 여성의 괴로운 삶을 적시하는 동시에, 이혼을 청구할 수조차 없는 여성의 법적 지위의 부당함을 드러낸다. 1915년에 이르러 여성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 전까지, 이혼의 원인은 오직 남편과 부가(夫家)에서만 규정할 수 있었다. 기처(棄妻)의 형태가 아니면 집을 떠날 수 없는 법적 규정은,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장벽으로 자리했던 것이다.²⁶³⁾

가희 어머니가 자신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을 사랑 없는 부부 관계를 지

262) 전은경, 「1910년대 지식인 잡지와 '여성': 『학지광』과 『청춘』을 중심으로」, 『어문학』 93, 2006, 516-517면.

263) 조선 시대 이혼은 사법(私法)의 영역이 아니었다.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이혼 처분을 제외하면,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이유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기처(棄妻)하는 것만이 가능했다. 『대명률』에는 조선 시대 양반이나 양인 층의 여성은 이혼을 청구하면 '남편을 배반한 죄'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 75, 2010, 98면.

속해야 하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사랑을 願하여도 얻지 못하고 自由를 願하여도 얻지 못하고 離別을 請하여도 안드러”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견딜 수 있지만 남편의 이혼 요청은 죽음과 진배없다고 여기는 구여성의 전형적인 표상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그녀는 결국 전근대적 구속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해 자살하게 되지만, 가부장 중심의 가족질서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성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의심의 소녀」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권리로 인식되기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인물을 그려낸다. 그녀의 죽음은 이혼의 권리를 인지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근대적 계약의 합리성 내에서 일부일처제와 인권의 문제를 보여줬던 앞서 다룬 작품들과 달리, 『창조』(1919.2) 창간호에 함께 실린 최승만의 희곡 「황혼(黃昏)」과 전영택의 단편 소설 「혜선의 死」는 조혼과 이혼의 문제를 ‘자아 해방’의 문제에 더 밀착하여 형상화한다. 이 두 작품의 창작이 앞서 살펴본 것들과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정신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 급증했던 당시 풍경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상당하다. 또한 1910년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 두 작품은, 1910년대 지속적으로 제기된 여성의 이혼 청구가 권리 투쟁의 일환으로 의미화되던 담론상의 변화 속에서 출현된 것이기도 하다. 이광수의 『개척자』에서 구여성의 문제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보인 성순이라는 대리적 인물을 통해서 그 입장이 대변되었다면, 이 두 작품은 서사 내에 직접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최승만의 「황혼」은 지식인 남성이 조혼한 아내와 이혼을 선언하고 자유 연애를 선택하지만, 결국 주인공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희곡이다. 언뜻 그의 죽음은 자유연애라는 이상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봉건적 현실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신의 죽음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인물의 마지막 진술을 바로 주제로 환원시켜버릴 때 발생하는 일면적 접근이다. 서사 내에서 죽음의 원인은 주인공의 일방적인 이혼 선언으로 명시된다. 주인공 김인성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은 이혼 선언 후 애

인의 집에 머물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이며, 병의 악화 원인인 신경쇠약과 불면은 전부인의 원한 서린 얼굴이 환영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전근대적 혼인 관념의 희생자로 자처하는 김인성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이혼으로 희생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집을 나선 김인성은 왜 아내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것일까. 이는 그가 부친과 이혼 문제를 두고 논전을 펼칠 때, 그 옆에 있던 당사자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내를 상기함으로써 해석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결혼은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김인성은 계약의 당사자인 부인의 의사를 단 한 번도 묻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혼인의 무효를 넘어, “제妻를 버릴權利가 있음”²⁶⁴⁾을 주장한다. 김인성에게 이혼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릴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물 형상화는 자유연애와 이혼이라는 근대적 권리를 자기합리화를 위해 남용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부딪치게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남편의 폭력적인 발언에도 봉건적 질서에 얽매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던 구여성 아내의 입장이 ‘환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규범 자체를 비판할 수 없는, 복종이 내면화된 그녀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방식을 경유해 서사 내에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²⁶⁵⁾ 「황혼」은 조혼한 아내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식인 남성의 죄의식을 매개로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를 띤다.

전영택의 「혜선의 死」는 전근대적 인습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인물인 혜선이 동경유학생인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²⁶⁶⁾ 혜

264) 최승만, 「황혼」, 『창조』, 1919.2, 14면.

265) 「황혼」에서 아내의 입장이 환영을 통해 강조된다면, 이광수의 「규한」에서는 광기(아내의 실성)로 극대화된다. 이처럼 합리적인 언어의 체계 속에서 입장을 진술하기 어려운 구여성의 처지는 비합리적인 설정을 통해 작품 속에 기입된다.

266) 신수정에 따르면, 남편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와 저주를 내뿜는 장면은 근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 재현의 양상에서 최초의 장면에 해당한다. 남성중심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원한을 그의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인물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의 의미를 새겨놓는다. 신수정, 앞의 글, 49-53면.

선은 서울 S여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녀를 신여성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 서사 내에서 학교 교육이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학교를 다니는 계기 또한 열여덟 살에 출가한 이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을 본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난다.²⁶⁷⁾ 한편 그녀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도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내면화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혜선의 死」는 혼인 문제를 둘러싼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법률이 충돌하는 사건을 구여성의 시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소설은 이혼을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법적 절차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남편 신원근과 혜선의 친구 정자, 사촌오빠 동욱은 이혼 문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보여준다. 정자와 원근이 애정을 우선시하면서 이혼을 전적으로 옹호한다면, 동욱은 합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이들보다 성숙한 시각을 드러낸다. 동욱은 혜선이 합의를 해 줘야만 이혼이 되어 민적을 가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후에야 혜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원근 또한 법률이 허락한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혜선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을 하면 되며, 자신은 개가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답한다. 동욱은 혜선의 생각이 과거의 관습에서나 통용되는 것으로, 지금 세상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다. 그거슨 넷날말이지 지금은 그러치안타. 어딴지금세상에 그거슬許諾하고, 그러구 사람의 運命을勿論 제손으로 開拓하기에 달닌거시다.」

「예수敎에서는 許諾하더라도 아버지가 그거슨 죽어도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改嫁 하야 쯔 그러치오 이전 사나히란 당초에 밋업지를 안어요. 읍바는내놋코.」

「如何間 離婚해주는거시 申에게 대해서도 죠혼일이 아니냐. 그사람은 平生혼자 살나겠니?」

「왜요, 죠혼사람하고 結婚해 잘살겠지요. 나는 나혼자살어요. 그러고 잘사는 모양을쯔보겠서요.」

「그거슨 法律上許諾지안는거신데.」

267) 아버지가 혜선을 학교에 다니게 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혜선이 학교를 다니게 된 시점과 당대 아내의 무지를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딸과 사위의 관계를 우려한 아버지의 뜻으로 짐작된다.

「離婚해도 이담-에 해요」²⁶⁸⁾ (밑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혜선은 자신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버지를 꼽는다. 이는 그녀가 아버지의 말을 법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해 한강에 투신하는 혜선의 모습은 가부장적 세계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혜선의 죽음은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묘사된다. 이혼을 권유하는 동욱과 헤어진 혜선은 현재의 참담한 처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회고한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비극의 발단은 열두 살 때 오빠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사건으로 등장한다. 이후 어머니는 자궁병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울화로 죽고, 혜선은 오빠 대신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자책하며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평생의 원한으로 여기며 성장한다. 이때부터 혜선은 남성 중심적인 가정과 사회를 적대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다. 남편이 귀국해도 집에 오지 않는 데 대해서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도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식적인 부부 관계에 얽매어 있지만, 남편의 애정과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혜선이 한강에 몸을 던질 때, 인자한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게 되는 장면은 중요하다. 남편을 저주하고,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단절로서 생애를 마감하면서, 인자한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동일한 비극을 맞게 된 여성 일반의 삶에 대한 동류의식과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혜선의 死」는 근대적 인권이 가정 내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 속에서 법적 이혼 절차의 마련이 유의미한지 의문을 던진다. 이혼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관련 법률이 마련되는 가운데서도, 그와 비례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가정 내 여성 인권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1910년대 중후반 발표된 이혼 문제를 서사화한 작품들은 구여성의 인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구여성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장면은 찾긴 어렵지만,

268) 전영택, 「혜선의 死」, 『창조』 1, 1919.2, 47면.

경멸과 연민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녀들의 내면은 서사 내부에 혼적으로 남겨져 있다. 근대적 교육을 습득해야 유의미한 주체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구여성의 인권 그 자체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은 이후 발표된 소설들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1920년대 소설에는 결혼제도 자체가 인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문제시되면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애를 이상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는 법률혼주의에 따라 일부일처제가 좀 더 강제성을 띠게 되면서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나, 이를 통해 서사 내에서 조혼한 남성은 신여성과의 연애에 있어 아내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근대적 계약의 합리성을 강하게 의식했던 1910년대 문학이야말로 구여성 아내와 이혼이라는 화두를 문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첩의 법적 지위 자각과 정신적 사랑의 추구

조선 시대 첩은 법적·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나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²⁶⁹⁾ 근대에 들어 일부일처제가 문명한 가족의 표본으로 여겨지면서, 계몽주의자들은 봉건적 악습의 대표로서 축첩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이러한 축첩제도와 첩인 여성을 향한 비판은 근대 초기부터 지속되어왔으나, 첩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던 현상은 1920년대에 일어난 변화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1922년 민사령 개정으로 신고에 의해 공인받은 법률혼만이 인정되는 변화와 맞물려 나타났다. 게다가 축첩의 유지는 부부 중심 핵가족이라는 신가정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었다.²⁷⁰⁾ 그 결과 첩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존재해서 안 되는 첩이 사회적으로는 양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던 간통죄 조항 때문인데,

269) 이태영, 앞의 글, 140면.

270)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정지영의 「1920-30년대 신여성과의 ‘첩/제이부인’」과 본론의 II장을 참조할 것.

그로 인해 남성은 여러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모순은 축첩 폐지라는 화두가 애초에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고, 개체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²⁷¹⁾ 축첩은 야만적인 제도이고, 첩이 된 여성 또한 근대 문명과 대척점에 위치한 존재였다. 첩은 가정을 깨뜨리고 아내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일 뿐, 역으로 첩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첩은 봉건적 유제로서 타파해야 할 뿐 아니라 근대 법률에 따라 사회 밖으로 축출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첩은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존재로 표상되었다.

1920년대 초 개조 담론의 유행으로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자유가 활발히 논의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첩이 된 여성이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었던 상황은, 사상적 변화에 앞서 법적 구속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누구나 자각만 한다면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은 첩, 또는 과거에 첩이었던 이들에게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녀들이 첩이 된 원인은 대체로 타락, 허영심, 방종함과 같은 개인의 성격과 자질 문제로 일반화하여 이해되었다. 이는 법을 중심으로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생겨났던 구조적 문제를 첩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소설에서 첩이 형상화되는 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일엽은 신여자의 연애 대상은 인격, 사상, 연령 상 기혼 남자밖에 없다는 현실을 명료히 인식하고서, 제도적 결혼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민적상 아내는 감성과 성적(性的)으로 사실상의 이혼 관계이므로,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은 기혼자와 연애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²⁷²⁾ 제도와 관습을 넘어선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삶의 궤적과도 일치하며, 「헤로인」(『불교』, 1929.6), 「X씨에게」(『불교』, 1929.6)과 같은 자전적 경험이 투영된 소설에서도 확인

271) 메이지 시기 축첩제의 비판은 문명화를 위한 야만적 제도를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남녀동권과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소현숙, 앞의 글, 220-221면.

272) 일엽, 「우리의 이상」(『부녀지광』, 1924.4), 김우영 엮음, 『김일엽 선집』, 현대문학, 2012, 288면.

된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구여성의 태도는 인격을 깨닫지 못한 결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구여성 또한 자각만 한다면, 결혼 생활을 능동적으로 종식한다면 언제든 고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상의 생활」(『신여자』, 1920.6)과 「자각」(『동아일보』, 1926.6.19-26)은 교육을 통해 흡사 신여성과 같아진 구여성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구여성이 신여성의 계몽의 대상으로 재현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 둘 사이에 놓인 구별의 선은 언제든지 흐릿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여성의 또 다른 비판 대상인 첩은 그와 사정이 달랐다. 첩이 된 여성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 번 부여된 그 낙인을 거둘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김일엽의 「어느 소녀의 사(死)」(『신여자』, 1920.4)는 이를 잘 보여주는 소설로, 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타난다. 조명숙은 이미 정혼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금전을 바라고서 부자의 셋째 첩으로 보내려 하자, 결국 한강철교에서 자살을 선택한다. 이 부모는 세 딸 모두 남의 첩으로 시집보냈는데, 명숙은 그 두 형이 허영심의 있어 첩으로의 삶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얼마 되지 않아 버림을 받게 된 두 형님이 완롱물과 같이 취급되는 삶을 보면서, 명숙은 그와 같은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이 소설은 교육을 통해 자각한 여성이 봉건적 구습에 대항하여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문제화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²⁷³⁾ 그러나 한편으로 명숙의 죽음은 첩이 될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회적 지탄을 피해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첩으로 팔려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죽여야 하는 아이러니는 첩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양상이었다.

273) 유진월, 「〈신여자〉와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 2006, 83-84면. 주인공 명숙이 첩으로 팔려가는 현실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점은 부모의 강제와 봉건적 구습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독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명숙이 근대적 자각에 도달한 여성의 새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고평한 데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열한 살의 나이에 부모가 정해준 남편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그와 같은 평가를 유보하게 한다.

그러나 첩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면서도, 그 원인을 첩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전면화하는 소설 또한 발표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광수의 『재생』과 「돌아다 볼 때」를 비롯한 김명순의 1920년대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 첩의 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광수는 근대적 결혼에 내재한 계약의 정신에 누구보다도 천착했던 작가로, 계약 외부에 놓인 첩의 법적 권리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김명순은 문단 활동 내내 ‘첩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투했던 작가로, 어머니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첩으로 낙인찍힌 여성이 한 개체로서 삶을 보존하는 문제를 서사화했다.

이광수의 『재생』(『동아일보』, 1924.11.9-1925.9.28)은 첩이 스스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뚜렷하게 자각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혔던 첩의 삶과 내면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²⁷⁴⁾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삼일운동이 실패로 끝이 난 후, 정치적 좌절과 환멸 속에서 물질적 부와 쾌락과 같은 세속적 가치가 만연된 1924년의 식민지 조선이다. 선행 연구에서 김순영은 이와 같은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돈과 쾌락을 탐하는 신여성으로, 결말에서 그녀가 자살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을 심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⁷⁵⁾ 이러한 해석은 순영이 순간적인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들로 뒷받침된다.²⁷⁶⁾ 그러나 순영이 신여성인 동시에 첩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한 순영의 성향은 당대 첩 존재에 대한 세간의 일방적인 이해와 일치하며, 서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영은 첩인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면서 제반 문제에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²⁷⁷⁾ 요컨대, 이 소설은 순영이라는 한 인물의 삶의

274) 『재생』에 대한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은 필자의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현대문학연구』, 2016)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275)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1-12면;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우리말글학회, 2009, 15면.

276) 백운희로 대변되는 물질적 부와 성적 쾌락에 미혹되다가 신봉구와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는 등의 장면들이 이에 해당한다.

궤적을 통해서 당대 만연했던 첩에 대한 인식과 그와 구별되는 예외적인 면을 함께 다루면서, 당대의 일반적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전달한다.

순영이 첩이 되는 과정은 당시 여학생이 첩이 되었던 경로를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⁷⁷⁾ 성욕과 물질적 쾌락, 허영심, 오빠에 의해 돈에 팔려가게 된 것, 곧 이혼을 하리라는 약속을 믿었는데 속게 되는 경우가 모두 순영이 첩이 된 이유로 나타난다. 그중 백윤희와 살림을 차린 후 순영을 번민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민적’ 문제다.

(민적이란 무엇인고?)

하고 억지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남의 정실로 시집을 가서 민적에 「처(妻)라는 글자를 박히는 것이 여간 부럽지를 아니하였다.

「첩으로 간 것」하고 칠없는 계집애들까지도 자기를 대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순영은 아무쪼록 아는 여자를 아니 만나도록 피하였다.

… (중략) …

『여보시오, 나는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남편에게 큰소리 칠 수가 없다. 자기 방이라고 이름 지은 안방에 자기가 손을 대일 수 없는 궤가 있든지 서랍이 있든지 순영은,

『저것을 내게 보여 주오』

하고 큰소리로 청구할 기운이 없었다. 심지어 남편이 기생집에서 가서 자고 오더라도 그런 줄을 분명히 알더라도 그것을 준절하게 책망할 기운이 없었다. 하물며 백이 본 집에 가는 것이야, 이틀을 가든지 사흘을 가든지 오직 내 가슴만 박박 긁어서 피를 내일 뿐이지 무슨 말 한 마디 할 권리도 없었다.²⁷⁹⁾

277) 신여성의 한 특징으로서의 허영심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첩으로서의 순영의 위치를 조명한 연구로는 사회학 분야에서의 전희진과 박광형의 논의가 있다. ‘제2부인’담론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예로 『재생』을 다루고 있다. (전희진·박광형, 앞의 글, 270-279면) 그런데 II 장 2절에서 설명했듯, 제2부인은 신여성이 첩이 되는 경우 전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재생」은 ‘제2부인’이 아닌 ‘여학생 첩’의 문제를 그린 작품이다. 순영은 사랑과 연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백윤희의 첩이 된 것도 아니며, 첩과의 구분을 통해 제2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화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재생』은 근대와 전근대를 각각 대표하는 여학생과 첩이 결합되어, 봉건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첩이 근대적 세계 속에도 존속하는 현실에 대한 자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접근하는 편이 타당하다.

278) 당대 여학생이 첩이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는 글로는, 삼청동인(三淸洞人)의 「여학교를 졸업하고 첩이 되어가는 사람들」(『신여성』 4, 1924.3)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의 II 장 2절을 참조할 것.

인용문은 순영이 첩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 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묻고 성찰하면서 첩으로서의 법적 권리가 어떠한지 인식하기 시작하는 인물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삶의 동반자로서 남편을 대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 공간과 재산, 하다못해 가구 하나조차 순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순영은 사회적으로도, 집안 내에서도 고립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순영이 첩으로서의 자신의 권리 부재를 절감하는 이 대목은, 우연히 봉구를 만나게 된 장면 다음에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순영은 봉구를 만난 직후 지금의 삶을 돌이키고 싶다는 상상을 한다. 이때 순영이 원하는 삶이 봉구와 사랑하던 때가 아니라, 동래 온천에서 정조를 유린당하기 전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순영이 백윤희의 첩이 된 기점이 되는 사건으로, 순영에게 있어 지금의 참담한 처지를 벗어나는 일이 봉구와의 사랑보다 더욱 간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첩으로 간 것」하고 철없는 계집애들까지도 자기를 대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첩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는 모습 또한, 순영의 가장 큰 후회와 번민이 첩이라는 자신의 신세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영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봉구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해 했던 증언을 추후 번복하게 된 원인은 그녀의 부정한 성격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순영이 변심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현재의 남편과 아이와 집에 대한 애착을 떠올리면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배면에는 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윤희의 정실이 될 수 있는 기회”²⁸⁰⁾를 기다리는 열망이 자리한다. 양심을 지키거나 봉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제도적으로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순영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고

279) 이광수, 「재생」, 『이광수전집』 2, 삼중당, 1971, 116면. (이하 같은 작품의 인용은 해당 본문 뒤에 면수만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280) “그래도 오늘날까지는 순영은 자기가 윤희의 정실이 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곧 잘 봉구를 위하여 양심대로 증언을 서고도 다시 그것을 부인해 버렸고 또 그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뼈가 절인 일이지마는 내심으로는 어서 봉구가 사형을 당하여서 영영 후환을 끊어 버리기를 바란 것이다.” (165면, 밑줄: 인용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영은 자기에게 그러할 권리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 자기는 첩이 아닌가. 법률에는 첩을 보호하는 조문이 없다. 남편이 자기를 내어 보내려면 아무 때에나 내어 보낼 수가 있다. 자기도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판에 남이 나의 남편을 잠시 빼앗는다고 나서서 말할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 (중략) ……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남의 첩이다- 돈에 팔려 와서 음식과 재물 밖에 모르는 남자의 더러운 쾌락의 노리개가 되다가 더러운 매독과 임질로 오장까지 골수까지 속속들이 더럽히고 게다가 소박을 받는 신세다. 그래도 정당한 아내가 되어 보려고 본처가 죽기를 빌고 기다리는 몸이다. 돈 욕심과 본처 되려는 욕심을 달할 길이 없게 됨에 남편이라고 부르던 사내를 죽여 버리고- 그것도 질투 끝에- 자기 집이라 일컬을 수 없는 집을 불살라 버리려 칼과 성냥을 품에 품는 몸이다.

그러나 순영은 자기를 건져 낼 힘이 없었다. 앞도 절벽, 뒤도 절벽이다.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인제는 마지막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162-167면)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 순영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나 구제해 줄 법조문이 부재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법률에는 첩을 보호하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은 오직 백윤희에게 달려있다. 사실 순영은 아내와 곧 이혼하겠다는 백윤희에게 속아서 결혼했고,²⁸¹⁾ 조금만 기다리면 본처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바람은 법적으로 “정당한 아내”가 되어야만 백윤희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영의 기대는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공간’이라 생각했던 안방에 다른 여학생을 데리고 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산산이 부서진다. 언제든지 다른 첩이 나타날 경우 버려질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직감하게 된 것이다. 이는 남편이 병이 든 본처를 찾아가거나 밖에서 기생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로 다가왔다. 순영은 처음부터 돈에 의해 거래되어 백윤희의 첩이 되었던 자신이, 본처가 되어 그가 사는 집과 모든 가산을 ‘제 것’으로 소유

281) 백윤희는 순영의 둘째 오빠인 김순기에게, “부청 민적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 사람이나 다름없고 또 부윤으로 말하더라도 내 말이라면 거스릴 리가 없으니까 만일 이혼이 필요하다하면 그것은 금시라도 될 일” (30면)이라면서, 순영을 민적에 등재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순영을 합법적인 부인으로 삼으려는 약속으로 그녀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할 권리를 얻게 되는 날은 오지 않으며, 봉구와의 사랑을 뒤흔들었던 물질적 부유함 또한 남편의 애정이 식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통감한다. 따라서 백윤희를 죽이고서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목숨 또한 끊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첩으로서의 삶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출된 것이다.

한편 순영이 “자기를 건져 낼 힘”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영은 남편의 애정이 자신에게 떠나는 것이 두려워 창부가 하는 행위를 배워가며 스스로를 “쾌락의 노리개”로 전락시켜 성병까지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대목은 아무런 권리를 지니지 못하는 첩의 지위를 강하게 환기하는 동시에, 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인격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순영의 자각은 당시 여학생 첩이 사물처럼 거래되고 임의로 버려질지 모르는 존재로 여겨졌던 사정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세간의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했던 자신의 행동을 자성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순영의 서사는 전근대적 관습으로 여겨졌던 축첩이 근대법이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당대 현실을 묘파하고 있다. 민사령 개정 이후 신고주의가 도입되면서 국가에 의해 공인된 법률혼과 사실혼의 위계는 더욱 선명해졌다. 사실혼을 부정하고 모든 결혼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실혼 관계가 법의 그물망을 피해 나타났다. 계급과 성별 등에 따라 법률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민적을 속이거나 합의되지 않은 이혼을 신고하는 등 법을 잘 아는 이들이 이를 악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²⁸²⁾ 사적 계약으로서의 결혼을 국가가 보호해주리라는 기대는 당대 현실 속에서 긍정적 결과만을 낳지 않았던 것이다. 『재생』은 법률에 대

282) 이는 『재생』에서 김순영과 백윤희와의 관계뿐 아니라 김박사와 조혼한 그의 아내 사이의 일화로도 나타난다. 김박사는 미국 유학을 다녀와 사회적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는 인물이나, 그는 오직 신여성과 스위트홈을 꾸릴 생각밖에 없다. 그의 조혼한 아내는 민적상 이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스스로 김박사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묘사는 당대 현실의 찌푸린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대적 계약의 합리성을 신뢰하던 1910년대 이광수의 인식에서 변화된 지점을 읽을 수 있다.

한 지식의 격차와 이를 행사하는 주체들의 문제를 다루고, 여기서 나아가 법률 자체에 축첩의 관행을 묵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음을 적시한다. 그 부당함의 정체는 윤변호사의 첩으로 살아가는 선주의 발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왜 못해요? 남편에게 대한 사랑 따로 있고, 오빠에게 대한 사랑 따로 있지요. 그래 남자는 민적에 이름 있는 본처라는 것 두고, 기생첩 두고, 또 유처 취처로 처녀 장가를 들고- 계집을 둘씩 셋씩 해도 상관없고, 그래 여성은 순결하게, 그야말로 순결하게 플라토닉 러브로 이성을 오빠로 사랑해서는 못 쓴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39면)

인용된 부분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당대 법률의 문제를 인물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선주의 이와 같은 발언이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순영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번민하는 인물인 반면 선주는 방종한 신여성으로 여겨져 왔던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선주가 첩의 삶을 살게 된 계기는, 사랑하는 이에게 속아서 정조를 빼앗기고 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한 가해자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고, 그에 대응하여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선주가 순영에게 남성이 지키지 않는 정조를 여성만이 지킬 필요가 있는지 묻는 것은 그녀의 방종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남녀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정조관념에 대한 타당한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인용된 부분은 선주가 여러 이성과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이유로 현행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당대 법률에서 남성은 민적에 아내가 있어도 여러 첩을 두어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반면, 여성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교섭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체적인 교섭이 없는 플라토닉 러브조차 안 되냐는 선주의 말은 법률을 교묘히 이용해 수많은 여성을 유린하는 여러 남성들과, 이를 가능케 했던 현행 법률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민사령 개정 이후 표면적으로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다르게 적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간통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시 일본 민법에는 축첩이 간통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반면 조선에는 관습을 구실 삼아 이러한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법 적용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는 봉건적인 축첩은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고, 법률상 존재하지 않은 첩들이 양산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의 가부장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배경에는 이렇듯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자리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법의 적용은 근대담론의 일종으로 여성의 해방, 자유연애가 사회적으로 고취되었던 맥락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근대의 산물인 법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켜줄 합리적 기제로 환영받았지만, 당시 조선에 시행된 법률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과 지위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작가는 선주의 진술을 통해 당시 조선에 시행됐던 법률이 지닌 한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 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폐지해야 했던 축첩 관행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묵인되었다. 근대적 존재인 여학생과 축첩이라는 전근대적 제도의 만남은 그 연계를 허용해 준 근대법의 테두리 속에서 자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1910년대 이광수가 민법에 의거한 결혼계약을 문명적인 부부의 필수적인 토대로 간주했던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합법적 사실혼이 편만한 조선의 현실은 그가 제시한 이상적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형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제도를 바라보는 신봉구의 인식 변화는 흥미롭다. 순영이 근대법 내에서 축첩이 지속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면, 신봉구는 결혼을 ‘소유’의 문제로 이해하면서 계약으로 지탱되는 결혼제도 자체에 회의를 드러낸다.²⁸³⁾ 처음 봉구는 순영을 아내로 소유하여 집 안에 가두어야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²⁸⁴⁾ 그런 그의 인식이 교정되는 계기는 살

283) 혼인은 자유의사와 특정한 법적 형식이라는 두 조건에 따라 체결되는 민사상의 다른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는 결혼의 일종의 거래와 소유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辯護士 康巨福, 「戀愛讀本・結婚教科書(第2輯): 結婚할 수 있는 男女와 업는 男女」, 『별건곤』, 1928.2.1, 142면.

284) “(혼인을 하여서 순영을 영원히 내 안방에 갖다가 가두어 놓아야 한다. 그때에는 둘째오빠가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창현이나 백윤희 놈 따위야 내 집 문

인죄로 모함 받은 자신을 위해 재판장에서 순영과 경주가 보여준 헌신적인 증언이다. 이때 봉구는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서 희생적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순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그 결과 그동안 순영을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²⁸⁵⁾ 이를 통해 봉구는 한 개인에 대한 소유를 넘어선 조선 동포를 향한 무한히 확장된 사랑, 그들을 위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완성태로서의 법적 부부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적인 일부일처제 안에서는 진실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봉구와 경주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봉구는 경주와 혼인을 거부하지만, 그의 신념을 따르게 해달라는 경주의 뜻을 받아들여 한 집에서 생활한다. 결말에서 순영의 죽음은 결혼에 대한 봉구의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해석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순영은 자살을 선택하기에 앞서 봉구의 집을 찾아간다. 봉구는 그런 순영을 냉담하게 대하는데, 이는 그가 순영을 향한 애욕과 소유욕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사랑을 극복한 정신적 사랑을 지향하는 봉구에게 과거의 애정과 미움이 남아있는 순영은 포용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다. 그 결과 순영은 죽게 되며, ‘재생’ 또는 ‘부활’하지 못한다. 따라서 순영의 죽음은 첩의 삶을 반성하거나 사회 현실에 저항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봉구가 도달한 진정한 사랑에 포섭되지 않은 타자로서의 그녀의 위치를 부각시킨다. 그녀의 자살은 일부일처제라는 법적 테두리 속에서 거부된 존재의 삶이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

전에 발길이나 얼른할까 보나. …(중략)… (어쩌면 이것이 내 것이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내것이 되어? 내가 아내라고 부를 사람이 되어?)” (22면, 밑줄: 인용자)
 285) “『보라, 예수께서는 어찌하였는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을 빌지 아니하였나- 이것이 진실로 사랑이다. 아니, 나는 일찍 순영을 사랑하여 본 일이 없었다. 아무도 일찍 사랑하여 본 일이 없었다. 나는 오직 순영을 욕심내었던 것이다. 순영으로 나의 노리개를 삼을 양으로, 장난감을 삼을 양으로 욕심을 내인 것이다. 그러다가 내 것이 안되매 나는 스스로 순영에게 대한 나의 사랑이 참되고 깨끗지 못함을 뉘우칠 줄을 모르고 도리어 순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다. 내가 순영을 원망할 무슨 권리를 가졌던가?』” (142면, 밑줄: 인용자)

는 것이다.

이광수가 『재생』을 통해 결국 국가와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첩의 삶이 용납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소설적으로 풀어냈다면, 김명순에게는 가족 안과 밖에서의 여성의 삶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가와 같은 실존적인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였다. 지금까지 김명순 문학은 대체로 봉건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그로부터 벗어난 근대적 사랑,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²⁸⁶⁾ 그러나 김명순이 축첩 문제를 전 근대적 가족제도의 병폐로만 간주했던 것은 아니며, 소설 속 인물을 통해 강조된 사랑의 가치 또한 근대적 사상의 영향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²⁸⁷⁾ 따라서 여기서는 김명순 소설에 나타난 첩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 근대를 비판하고 근대를 지향한다는 도식으로 그의 문학을 평가하는 것이 다분히 일면적일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제도에 대한 김명순의 사유가 중층적 양상을 띠게 된 연원은 그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의 문학적 행위는 부호의 소실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평생 ‘첩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삶과 무관하지 않다.²⁸⁸⁾ 이와 같은 작가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 자전적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조선일보』, 1924.6.13-7.15)다. 이 작품은 첩의

286)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 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편 윤광옥의 연구는 김명순의 작품이 봉건적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근대적 가부장제, 당대 결혼제도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김명순·나혜석·김일엽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4-57면.

287) 김명순은 같은 1세대 여성작가에 포함되는 나혜석과 김일엽과 달리, 여성해방의 주창자로서의 면모보다 작가로서 두각을 보였다. ‘현상문예공모’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장편소설을 신문에 연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김명순의 글쓰기가 나혜석과 김일엽의 글쓰기보다 계몽적 성격이 비교적 열다거나 가장 작가다운 공적을 남겼다는 평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46면)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근대적 각성과 같은 계몽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김명순 문학의 다채로운 면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288) 이상 김명순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는 서정자와 남은혜가 함께 펴낸 『김명순 문학전집』의 부록에 실린 연보를 참고했다. (김명순,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한편 남은혜는 ‘첩의 딸’이나 ‘나쁜 피’와 같은 외부에서 가해진 낙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의미로 김명순 문학을 평가한다는 점에 서 이 논문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남은혜, 앞의 글.

삶을 유지해야만 어머니로서의 삶 또한 지속할 수 있는 인물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²⁸⁹⁾ 탄실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오라비가 죽고 편친을 봉양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고, 기생은 정처(正妻)가 될 수 없기에 스스로 '죄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첩이 된 인물이다. 그녀의 고민은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려면 첩의 신세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탄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한 버려야 한다는 데 있다. 당시 교회는 일부일처제를 규율로 삼았는데, 첩은 이를 위반한 자로 일부 지역에서는 입교를 엄격히 금하기까지 했다.²⁹⁰⁾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탄실의 태도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야만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어린 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소설이 자전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할 때, 김명순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야 했던 어머니의 부당한 삶을 바라보면서 비판적 사유를 키워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첩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유년기 체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조모의 묘전(墓前)」(『여자계』, 1920.3)²⁹¹⁾ 는 본처와 첩, 서자와 적자

289) 이와 같은 딜레마를 그린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는 나도향의 『어머니』(『시대일보』, 1925.1.5-4.30)가 있다. 이 소설에서 첩이자 어머니인 영숙의 딜레마는 연애와 모성 사이에서 발생한다. 영숙이 춘우와의 결합을 통해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버려야 한다. 결국 영숙은 어머니의 의무를 선택하고서 첩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간다. 이와 같은 기본 골격의 유사성을 보이지만, 영숙과 탄실의 어머니가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탄실의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죄와 구원의 주제와 결부되어 실존적인 고민으로 나타난다면, 영숙의 갈등은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따라 추동된다.

또한 『어머니』의 독특한 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영숙이 남편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인정과 의리의 문제로 나타나고, 첩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충동적/반동적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볼 때, 김명순과 이광수의 소설과 달리 나도향의 『어머니』에서 첩의 신세는 개인의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영숙이 춘우와의 연애를 선택하는 일을 남편과 딸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죄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90) 1895~1896년 선교사들의 일부다처제 이해를 살핀 옥성득의 논문에 따르면, 서울과 원산의 선교자들은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인 반면, 평양과 부산에서는 엄격히 입교를 금했다고 밝히고 있다.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2002, 18-19면.

291) 「英姬的一生」(『여자계』, 1920.6)은 어머니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던 서녀(庶女)인 여성인물이 아버지에게 의해 자기를 희생하는 혼인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내

등 가족구성원의 지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위계질서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할머니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던 서녀(庶女) 춘채가 아버지에 의해 원치 않은 혼인이 정해지자 괴로워하다 혼절하게 되고, 병환이 깊어져 폐결핵으로 앓다가 죽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독특한 지점은 인물의 설정에 있다.

春菜는有名한 故雲溪女史의 어엽분 孫女이었다. 雲溪女史라면 半島의 唯一人인 女子墨畫家이었다. 그生前에 어엽분春菜를 老來에명으로 希望으로 光明으로 慰安의으로 다만 女王갓치 貴히貴히養育했었다 그臨終에는 다만보드럽고 섬약한녀를 心機사오나온長子夫妻에게 咐托하여 自己의 財産을, 相續케하고 遺言하고半瞑했었다.

雲溪女史는 일즉이己出안인 長子와次子를 分家하고 長子の庶子 春菜를 膝下에 寵愛하며 그릇껏으로 快足한生活을 더욱이 불렀더라.²⁹²⁾ (밑줄: 인용자)

춘채의 조모인 윤계 여사 슬하에는 친자식이 없으며, 장자와 차자 모두 기출(己出)이 아니다. 그리고 춘채는 서자인 아버지의 서녀(庶女)이다. 윤계 여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가계도를 정리해 보면, 본처, 서자, 서자인 아들의 소실이 낳은 딸이 되는 셈이다. 작가의 의도적인 누락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 한 명의 적통도 없이 서출로만 구성된 이와 같은 가족은 서자와 그 어머니인 소실의 지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 가족에서 가장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조모와 손녀 사이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이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²⁹³⁾ 조모인 윤계여사로 이어지는 모계혈통을 계승하는 문제

용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祖母의墓前에」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292) 望洋草, 「祖母의墓前에」(『여자계』, 1920.3),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254면.

293) 신혜수는 조모와 손녀의 비혈연 관계에 대해 모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설정으로 해석한다. (신혜수, 앞의 글, 18-19면) 이는 김명순의 작품 전반에서 모계와의 단절을 지향하는 의식을 읽고자 하는 연구자의 전제에 따른 분석이다. 신혜수의 연구와 달리 이 논문은 김명순 문학에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그로부터 확장된 여성 일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판단은 어머니를 형상화하는 방식에 의해 뒷받침된다. 「탄실이와 주영이」와 「돌아다 볼 때」에서의 어머니는 모두 소실로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들은 부도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의 가치를 아는 존재이다. 작중 첩의 딸들은 어머니의 법적 지위는 계승하지 않되, 그녀가 지닌 정신적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어머니와의 연대적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김명순 문학의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부계든 모계든 혈통이 가족의 조건으로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춘채와 조모의 깊은 유대감이 정서적 공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춘채는 조모에게 받은 '사랑'이라는 정신적 재산을 계승해나갈 의무를 느낀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정한 결혼상대자에 대해 병이 들 정도로 감정적인 거부를 보이는 춘채의 태도는 자기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강제결혼이라는 문제에 앞서, '사랑'이라는 조모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다에서 비롯된 자책에서 기인한다.²⁹⁴⁾ 김명순은 남성은 지배와 정복욕이 우세하며 이와 달리 여성의 자질은 '애(愛)'와 '정(情)'에 있으며 이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⁹⁵⁾ 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여성 인물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조모의 묘전에」 또한 마찬가지다. 이 소설은 첩이나 서자와 같은 출신에 따라 그 지위가 줄 세워지는 현실의 문제는 팔호쳐버리고, 오직 정신적 가치의 계승만을 강조한다. 이는 가족제도의 주변인으로서의 첩과 그의 자식의 현실적 처지가 참담하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돌아다 볼 때」(『조선일보』, 1924.3.31-4.19)²⁹⁶⁾는 당대 첩이 된 여성의 삶의 문제를, 사랑과 제도의 대립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포괄적으로 그리고

특징을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은혜, 앞의 글, 52-54면; 최윤정, 「김명순 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2013, 495-497면.

294) “할머님의大洋보다깊고넓은사랑의품안에서자라 할머님의家産을相續하여 석석節節이 할머님前에省墓하올 孫女の幸運의길이다한줄살피시옵소서” 望洋草, 「祖母의墓前에」(『여자계』, 1920.3),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257면.

295) 「男子가 女子로 女子가 男子로」(7), 『동아일보』, 1922.1.7.

296) 이 소설은 1924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고, 후에 1925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생명의 과실』이라는 창작집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주제의식의 변화로 이어질 정도로 전면적인 개고(改稿)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사이의 작가의 내면이나 문제의식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명의 과실』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 문인의 첫 작품집으로, 이는 김명순이 같은 1세대 작가로 묶이는 나혜석과 김일엽보다 문학적 열망이 강했고, 문학적 성취 또한 더욱 높았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김명순의 초기 작품들이 묶인 『생명의 과실』은 시, 수필, 소설 세 부문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소설 중에는 등단작인 「의심의 소녀」와 「도라다볼새」 두 편만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김명순의 왕성한 문필 활동에 대해서는, 남은혜,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 2010을 참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기본 갈등 구조는 조혼한 남성과 구여성 아내, 그리고 신여성의 삼각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인공 엄소련²⁹⁷⁾이 겪는 비극의 직접적인 계기를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애정이 아니라, 속아서 첩이 되어버린 데서 찾고 있다는 점에 이 소설의 이채가 있다.

고모 엄에스트 여사는 소련이 그녀의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 아내가 있는 남편을 유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으로, 소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최병서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최병서는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는 기혼자였다. 구혼 당시 상처를 했다는 병서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다. 소련이 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혼인이 역설적으로 소련을 첩의 신세로 전락시킨 셈이다. 이 사실을 안 소련은 자신이 경솔하게 ‘민적’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는다. 민적에 대한 소련의 예민한 감각은 그녀가 법적으로 첩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 법률혼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부부의 정당성은 민적을 통해서만 보증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나타난다. 병서는 갖은 애를 써서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소련을 자신의 민적에 올린다. 소련은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병서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제도 안에 편입된 이와 같은 상황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가) 『그런말이엇의잇습니까 사랑하는까닭으로사람을 속한다고, 그런일을 내가하면 당신이나를 엿씩하섯겟습니까, 내가엇편사람을 사랑해서참을슈가업다고 가령사람의쳐가 된것을 석히고 엿편마음에드는쳐잇는 사나히게, 편지만해서환심만샷다할지라도 세상은나더러 무엇이라했겟습니까, 도적이라고까지안할까요』²⁹⁸⁾

(나) 『참그동안에 민적을밧구섯다지오 그러나 무슨수용이잇습닛가, 임의고모까지 퇴적을 하게된다음에야이왕그러케 된일이닛가 하수업지요, 최씨댁 민적속에는 동거인이, 되어 잇던 지 정부인이 되엇던지, 고모가 내려오기까지만 저는댁에 머물너잇겟습니다. 그제는저를 위해서썬안이라, 누구를 위해서던지, 당신은또한번 민적을가르시겟지요』 하고 편지를 쫓어본다.²⁹⁹⁾

297) 단행본에 실린 개작에서는 이름이 ‘류소련’으로 바뀐다.

298) 金明淳作, 「도라다볼쎄」(『조선일보』, 1924.3.31.-4.19),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316-317면.

(가)에서 소련은 병서에게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도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난한다. 또한 자신의 기혼자일 경우를 가정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성과 달리 여성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부연한다. 이는 소련이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을까 우려했던 고모의 시선을, 소련 스스로 이미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첩의 딸'이라는 출신에 부가된 운명의 굴레는 소련의 정체성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련의 모습은 정처가 되길 바라다가 첩의 법적 권리를 인식했던 『재생』의 순영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소련은 첩이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에서 비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는 이에게서 남편을 빼앗아버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련은 첩이 되는 문제를 윤리적 의미에서 '죄'의 문제로 이해한다.

(나)에서 소련이 민적을 고친 병서를 꾸짖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병서는 많은 금전을 들이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까지 소련을 민적에 등록한 자신의 노력을 그녀가 몰라준다고 야속해 한다. 그러나 소련은 정치로서의 권리를 원하지 않는다. 민적에 오른 법적 부부라는 형식보다 아내가 있는 남편을 빼앗았다는 도덕적 가책과, 사회적으로 그들의 혼인을 정당하게 보는가의 문제가 그녀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련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다시 민적을 갈라 남이 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소련이 첩이 된 자신의 상황을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결혼제도와 여성 문제 일반으로 확장하여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이다. 첩이 되는 것이 도적질과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은 본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으며, 그 도적질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여성의 불합리한 삶을 낳은 결혼제도의 역사를 성찰하는 데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몸을 뺏긴것이 앓잡고원수스러웠다 결혼이무엇이나 과거의 몇천만의 할머니들이 그것뻘에 원한을 품고 죽었슬것이고 과거의 몇억조의 어머니들이 그것뻘에 희생이 되었슬 것일가, 욕심만흔 더러운것들에게 몸을 더럽히고 쏘그종자를나

299) 金明淳作, 「도라다볼쎄」(『조선일보』, 1924.3.31.-4.19), 위의 책, 322면.

으면 쏘남의집쳐녀들을 더럽히고 버리고 가두고, 욕하고, 그남아부족해서 이부를 그머리속으로, 생각해내고, 게집녀짜셋을모아서 욕을 쓰고 한것들이 사나히가 안이나 옛날에는 쫓타고 하고 지금에는 실타고 쏘다른 녀자를 속여서라도 데려오는것이 사나히들이 아니나

... (중략) ...

아, 그러나 녀자들은 어찌해서, 남자드을 피하라, ㉠ 우리들의 ●악한 혈관속에는 더러운 피가흐넛다. 남자들을 영영히 피하고, 보슈를 하지못할 더러운피가원뿔의 혈관마다 흐넛다. 아무리 독부와, 아무리 추부라도, 그의제일사랑하는사나히가 안어만주면 착하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잊지 안으냐. 벳홀 안보는녀인이라도 그남편만 도라오면, 벳을본다는것이고, 한숨을 쉬고 분푸리를 하는 녀인들일지라도 사나히가 도라오면 곳친단말이다. …… 짜라서 이극렬한 내우름도, 효순씨를못이즌 탓이 안일가.

녀자들은 무엇으로 남자들을 피할것인가 ㉡ 녀자들의 혈관속에 남자의피가 흐르는 이상에 남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생명인이상에 잊지하면, 녀자들과 남자들이 아주 모든관계를쓰러 버릴가…….

그는 윈 세상을 잊그러서 윈녀자들을 모라서 남자들과 관계를쓰케하고십혔다.³⁰⁰⁾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성의 삶의 성격이 규정지어지는 현실을 소련이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다. 소련은 여성들의 혈관 속에 “더러운 피”가 공통적으로 흐른다고 말하면서 모든 여성과의 연대를 지향한다. 남은혜는 이에 대해 “작가 자신의 전 생애를 엮어 맨 ‘나쁜 피’ 담론을 전유하여 오히려 여성 전체를 이해하고 연대의식을 획득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한다.³⁰¹⁾ 나아가 소련이 이해하고 있는 여성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더러운 피’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남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사랑에 매달리게 되는 피’(㉠)로, 이는 여성을 약하게 만들어 불평등한 위치를 구축하는 제도 내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게끔 한다. 그러나 여성의 이러한 약함, 남성들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태도는 혈관 속에 ‘남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남성들이 결혼과 가족 제도 하에서 여성을 희롱하고 희생시키는 방탕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대목은 소련이 여성을 약하게 하는 ‘더러운 피’가 남성에게서 유래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라 하겠다. 결혼

300) 金明淳作, 「도라다볼쎄」(『조선일보』, 1924.3.31.-4.19),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324-325면.

301)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앞의 글, 84면.

제도, 가족 제도는 이러한 특징을 자명한 것으로 구축하는 기반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소련은 첩이 곧 죄인이 된다는 종전의 사고에서 인식의 전환을 보인다. 그 죄는 첩이 아닌 ‘남성의 더러운 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유의 과정은 김명순의 어머니의 핏줄을 의식하고 부정한다는 선행 연구의 관점의 재고를 필요로 하게 한다. 어머니의 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피에 ‘오염된’ 어머니의 피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련의 인식 전환은 남성들과 대척지점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동류의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첩 또는 첩의 딸에게 계승되어온 ‘나쁜 피’의 출처를 부계의 문제로 돌리면서 그 의미를 내부에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상당하다.³⁰²⁾ 소련이 피를 이와 같이 이분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서사 내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몸에 “원녀자를 다-더럽히고십든 아버지의 피가 몸을 더럽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못이져서 죽어바렸다 하는어머니의피”³⁰³⁾가 흐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소련이 아버지의 피는 부정하고, 사랑을 바라는 어머니의 피만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결말에서 소련이 더러운 피를 다 뽑아 버리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패배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녀가 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의 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련은 자신의 자살 기도를 ‘먹는 문제’와 반대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은 주의를 끈다.³⁰⁴⁾ 몸에서 피를 전부 뽑아버리면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러운 피를

302) 당대 문단에서 김명순이 ‘어머니의 피’에 섞인 방종함을 유전으로 계승했다고 비난한 대표적인 글이 김기진이 쓴 「여류 문사에 대한 공개장」(『신여성』, 1924.11)이다. 김명순은 이와 같은 사회적 지탄과 멸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도라다불새」에 나타난 이와 같은 전복적 인식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303) 金明淳作, 「도라다불새」(『조선일보』, 1924.3.31.-4.19),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334면.

304) “「먼저 더러운피를 다-빼고 먹을수잇스면 먹어라」하고 소리를질느듯하다. 그는 손빨니 윗목에노힌 경대설함을여렸다. 그속에는 서양 면도가잇섯다. 그것을 그갑에서 빼여든 소련은 사시나무갓치, 바르르 썩렀다 또 숨지려는 새갓치 썩렀다 그는 쏘다시 자기가 주린것을알고 보고십흔 것이 잇는 것을 아랏다. 하나 또 그의리성이 「먹으면 너는또 더살것이요 보고십흔 것을 보려면 먼저 보기실흔것부터 보지안느냐 이제이다 네가 네의피를뽑아 저주된 네생활을곳치는것도」 재촉하느듯하다”(밑줄: 인용자) 金明淳作, 「도라다불새」(『조선일보』, 1924.3.31.-4.19), 위의 책, 같은 면.

다 뺏아버려야 살기 위한 먹는 행위를 한다는 소련의 생각은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의 자살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체성을 증명하는 첩의 형상과 접점을 보이면서도, 몸 안에 흐르는 부계혈통의 유전과 전면적인 대결의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죽음은, 이 소설과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에 놓인 하우스트만(Gerhart Hauptmann)의 『외로운 사람들(Einsame Menschen)』의 주인공 요한네스의 죽음과 전혀 다른 주제의식을 전달한다.³⁰⁵⁾ 요한네스의 자살은 조혼의 희생으로 의미화된다. 그는 아내인 케테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케테의 아픔과 심정을 헤아리려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남성중심 결혼 제도 하에 모든 여성의 처지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소련과 요한네스의 거리는 상당한 것이다. 오히려 소련이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는 안나 마알이다.

내가 저 「고적한 사람들」 가운데 「마알」 같은 여자가 아닌 까닭이 아니냐. 그의 앞에도 두 남자가 있었으나, 처가 없다는 「부라운」에게로, 그는 시집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안나! 안나, 마알! 얼마나 장한 사람다운 사람이냐. 옆눈도 뜨지 않고 공부할 안나, 마알! 같은 여자가 말로 효순씨는 좋아할 것이다.³⁰⁶⁾ (밑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소련은 안나 마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반성한다. 마알은 기혼자인 요한네스와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의 친구로 등장하는 미혼인 브라운과 결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정신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길이야말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련은 마알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아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병서와 혼인했던 사실이 문제였다고 자책한다. 결혼제도 ‘밖’에 있는 ‘깨끗한’ 마알을 동경하는 것이다.

305) 연재본에서는 「고적한 사람들」로 쓰였다가, 개작이 된 단행본에서는 「외로운 사람들」로 변경되었다. 하우스트만의 소설과 김명순과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혜수, 「김명순의 하우스트만 문화번역 연구-「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2016;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31, 2010.

306) 金明淳作, 「도라다볼때」(『조선일보』, 1924.3.31.-4.19),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334면.

「돌아다 볼 때」가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바뀐 부분 중에서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련과 병서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한 부부라는 점과, 그로 인해 소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³⁰⁷⁾ 연재본과 달리 병서는 기혼자가 아니다. 소련은 병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에도 가정의 참주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생활해 나간다. 효순은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면서 소련과 최병서와의 단란한 가정이 지속되길 기원한다. 요컨대, 소련이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것은 두 판본에서 마찬가지로, 단행본에서는 소련이 결혼하고서도 효순과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³⁰⁸⁾ 이 둘은 각기 다른 가정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한 법칙’을 공유하기로 맹세한다. 이로써 개작을 통해 소련은 연재본에서 동경하던 ‘마알’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³⁰⁹⁾

그런데 여기서 새삼 주의를 끄는 것은, 연재본에서 소련이 마알을 동경하면서 결혼제도 ‘뽀’의 삶을 추구하며 비판했던 병서와의 제도적 결혼을 개작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그녀는 고모와 은순(효순의 아내)의 우려 속에서 ‘잠재적인 첩’이 되기 때문이다. 효순의 표현을 빌려 달리 말하자면, 각자 서로의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이들에게 “요한네쓰와 마알에게오는파멸”³¹⁰⁾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단행본 판본에서 첩의 문제가 가시적인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인물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긴장으로 작동하고

307) 이 소설은 추후 단행본에 실리면서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고(改稿)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두 판본은 소설의 딸인 소련에 대한 고모의 우려와 편견, 기혼남성인 효순과 소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연재본과 단행본의 주제의식은 달라진다. 연재본이 조선의 결혼, 가족 제도의 문제 등 부정적인 환경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린다면, 단행본에 수록된 내용은 환경을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의 실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308) 이는 서로를 ‘오라버니’와 ‘누님’으로 부르는 대목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改稿) 도라다볼새」, 『생명의 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4 (김명순,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367면).

309) 안나는 요한네스에게, “만약 저의 의지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 때엔 저의 법칙과 같은 법칙 아래 일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셈이에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용기가 날 거예요.” (131)라고 말한다. Gerhart Hauptmann, 윤순호 역, 『외로운 사람들』, 양문사, 1960.

310) 김명순, 「(改稿) 도라다볼새」(『생명의 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4), 서정자·남은혜 엮음, 『김명순 문학전집』, 앞의 책, 366면.

있음을 보여준다. 연재본에서는 첩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줬다면, 단행본에서는 일부일처제라는 현실을 깨뜨리지 않고서 정신적 사랑만을 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런 점에서 육체의 문제를 소거하며 법적 부부의 상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정신적 사랑을 지속하는 모습은, 결국 제도적 차원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현실에서 소극적이거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살펴본 이광수와 김명순의 소설은 1920년대 들어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에 따라 더욱더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된 첩의 지위와 내면을 그리고 있다. 1920년대 여학생 첩의 비율은 증가했고, 사회적인 비난은 오롯이 첩이 된 여성의 몫이었다. 제2부인 담론과 함께 첩이 된 신여성을 사회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찍이 첩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이광수와 김명순의 소설의 의미는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나아가 법 밖에 있는 첩의 문제를 가시화함으로써 법적 일부일처제와 정신적 사랑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신가정의 이데올로기가 성립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식민지 법체계의 모순적 적용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법질서를 구축해 문명적 가족을 수립하겠다고 한 총독부의 정책이 허구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3. 계약 개념의 재해석과 일부일처제의 균열

부부애를 기초로 한 가족은 근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선 가정 개혁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어왔고,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는 서구 핵가족과 유사한 신가정 담론이 가족제도 비판의 대안적 상으로 제시되었다.³¹¹⁾ 그러나 그 이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만큼, 소설 속에 구체화된 형태로

311) 1920-30년대 담론상에서 두드러졌던 '소가정론'은 서구 근대 핵가족의 모습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김혜경·정진성은 이러한 개념이 이상적 가족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부계계승성과 부부중심성이라는 신구 가족의 특질이 공존하는 가족 개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정진성,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 35-4, 2001.

등장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렸다.³¹²⁾ 스위트홈이라는 신가정이 사회적 실체로 등장하고, 근대적 지식을 갖춘 가정부인이라는 새로운 여성인물이 비중 있게 그려지게 된 것은 1930년대 소설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변화였다.³¹³⁾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조응하는 소설을 지속적으로 창작했던 대표적인 작가가 장덕조이다. 그의 초기 소설을 지배하는 핵심적 세계는 전형적인 신가정과 그 토대가 되는 부부관계이다.³¹⁴⁾ 그는 실제 생활에서도 현모양처 이미지가 강했고,³¹⁵⁾ 소설에서 펼쳐지는 부부 간의 갈등 또한 결국 신가정에 걸맞은 부부 역할의 강조와 가정윤리의 회복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³¹⁶⁾ 그러나 장덕조의 초기소설에 등장하는 아내가 신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안주하거나, 가정부인이라는 욕망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다분히 일면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남편」(『신가정』, 1933.10)과 「아내」(『신가정』, 1934.2)이다. 동일한 지면에 얼마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발표된 이 두 소설은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되듯 나란히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편 모두 부부 사이에 배우자의 친구가 등장함으로써 간통 관계로 이어질까 의심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히스테릭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 두 소설은 배우자의 질투로 인해 발생한 불화가 해소되고, 진정한 부부애를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³¹⁷⁾ 이는 두 소설의 화자인 인애가 다

312) 1910년대 문학에는 합리적 계약에 기초한 자유결혼의 정당성을 부르짖는 인물의 모습이 발견된다. 1920년대에는, 낭만적 사랑을 강조하며 제도적 결혼 밖의 사랑을 갈망하는 인물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인물들에게 있어 가족은 대체로 그들의 욕망을 억압하는 전근대적 잔재 또는 인위적 제도로 여겨졌다.

313) 노지승에 따르면, 1930년대 등장한 가정부인은 1920년대 급속도로 팽창했던 근대 교육을 받은 여학생 집단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노지승, 앞의 책, 102-106면.

314) 장덕조의 초기소설 중 부부관계가 핵심 갈등을 이루거나 부차적 플롯으로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과반수이상에 해당한다. 그런 면에서 작가의 초기소설을 통괄하는 주제의식을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찾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다.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2012, 493-494면.

315) 일례로 채만식은 장덕조가 풍설의 장본인도 아니고, 세상이 다 아는 '현숙한 아내'이자 '착한 어머니'라고 평한바 있다. 채만식, 「張德祚 女史의 進境」(『조광』, 1939.3), 『채만식 전집』 10, 창작과비평사, 1989, 174면.

316)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9-88면; 진선영, 앞의 글.

317) 조리, 위의 글, 72-73면; 진선영, 위의 글, 502면. 진선영의 경우 「남편」은 질투

른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이다. 인애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은 「 남편」에서는 아내로, 「아내」에서는 부부 갈등의 이유가 되는 아내의 친구로 등장한다.

「남편」의 인애는 신가정의 전형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살림살이를 정성껏 정리하고, 남편의 애정과 정답고 따뜻한 말을 기대한다. 인애가 꿈꾸는 가정상에서, 남편의 다정다감하지 못한 성격은 늘 만족스럽지 않다. 당분간 인애의 집에 기숙하게 된 남편의 친구 임군의 개입으로 이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싹트기 시작한다. 사실상 인애와 임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바느질을 해 주는 등 임군을 배려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이 둘의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인애는 두통으로 앓게 되고, 그녀를 돌봐주는 옥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워 임군과 둘만 있던 찰나에 남편이 들어온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인애의 뺨을 때리고, 인애는 남편에게 옥순 어머니가 잠깐 집에 간 거라고 말하며 오해를 풀려고 한다. 남편은 그 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아내를 안고서 잘 눕혀준다. 그리고 인애는 남편이 옥순네를 찾아가 자신의 말의 진의를 확인했다고 ‘짐작’하고, 남편의 순직한 사랑을 새삼 다시 ‘느끼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이들 부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남편이 다시 돌아와 병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전적으로 인애의 시선에서 짐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와 임군의 관계를 오해하고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옥순네에 갔다왔다는 것도 인애의 추측일 뿐 서사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인애가 불만을 가졌던 남편의 무심한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애가 꿈꾸는 신가정과 남편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이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일시적이거나 인애의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는 ‘아스나로’라는 화분을 통해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

(가) 결혼축하로받았던 아스나로가 구월의 소리를들으면서 누른잎이 하나하나 늘어가기시

로 인한 부부갈등을 그리는 소설에 포함시키며, 「아내」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작하였다.

인애는 시들어가는 가을화분에 물을주면서 남편의 발좌쇠를 기다렸다.

... (중략) ...

선량한 그의 남편은 신문을뒤적이면서 어린안해의 정성을 끝없이 만족해한다. 그러나 인애는 남편의 만족스러운표정과 입가의 미소만으로는 언제나 불만하였다.³¹⁸⁾

(나) 아스나로가 락엽되어 펄럭 펄럭 날아다닌다.

「여보 아무리 림군시중드는것이 바쁘기로니 그래 화초에물줄시간도 없단말이요?」 인애는 다른때없이 십어배앗듯이 말하는 남편의말에 꾸매고잇든 림씨의양말을 집어던지고 뜰앞에나려섰다.

「여보 하다못해 이것만이라도 손질을해두지 이화분앞에서 결혼식하든일은 별서 아무의의가 없어진모야이구려」박아지에 물을떠가지고섰는 남편의얼굴이 어스름한저녁빛속에서도 창백해진것이보였다. 몇날동안 눈에 띄우게 남편의신기가 좋지못한것은 그도벌서부터 느끼고잇었으며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짐작은 하고잇는터이엇지만 오늘같이 이렇게불쾌해하는것은 사실처음이였다³¹⁹⁾

‘아스나로’라는 화초는 이들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받은 선물이다. 가을이 되어 점점 시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인물들에게 이 화초는 단순히 계절에 따라 변화를 겪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는 이 소설이 첫 문장이 ‘누런 잎이 늘어가는 아스나로’를 조명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가)에서 인애는 시든 화분만큼이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심리를 발견한다. 남편이 아내인 인애에게 흡족한 반면, 인애는 자신의 행동에 만족할 뿐 기대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불만을 느낀다. 한편 (나)에서 남편은 화초가 시든 것이 아내가 자신과의 결혼생활보다 임군에게 관심을 쏟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부부의 위기를 상징하는 ‘시든 아스나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된다. 이 두 대목을 제외하고 아스나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더불어 추측을 통해 남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애의 모습은, 이들 부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318) 장덕조, 「남편」, 『신가정』, 1933.10, 168면.

319) 위의 글, 169면.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인물의 상태에는 그 균열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아내의 긴장과 불안이 억압되어 있다.

부부 관계에 대한 회의는 「아내」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이 소설의 화자인 인애는 동무 경숙과 그의 남편 박씨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 부부의 주선으로 인애는 박씨와 같은 H은행에 일자리를 얻게 된다. 그 후 인애는 경숙의 시기와 의심과, 경숙의 남편이 가정의 불만을 호소하면서 인애에게 호의를 베푸는 탓에 환멸에 빠지게 된다. 학창시절과 달리 히스테릭해진 경숙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경숙의 남편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개한다. 인애는 이를 일반적인 아내와 남편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³²⁰⁾ 요컨대, 인애가 느낀 감정은 아내와 남편, 곧 가정에 대한 환멸인 것이다.

경숙이는 묵묵히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드러다보고 있었다.

「넌 참 행복자다. 정말」

「우리집 박 소리아니야 그까짓사내가 아무리 널위한대두 무슨상관있니? 그보담두 언제나 네가 눈썹하나 찡따얹고 태연히 있는게 난부러워서……」

경숙이는 갑자기 원목을 부르르떨자 인애의 이불우에쓰러져 느껴올었다. 차디찬 그의손이 인애팔우에묵직하게 눌러있었다. 옛날졸업식전밤 여학교기숙사에서 경숙이가 이렇게 그의 머리맡에서 느껴올든것이 생각났다.

「언네! 언네!」 이렇게 부르거나니 두사람이 다 순진하든 처녀시절에 돌아간 듯이 야릇한 그리움이 치밀어올라왔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눈에도 숨여올랐다. 인애는 얼는 지금 경숙이가 가져온 이불것으로 자꾸 솟아나는 눈물을 꼭 눌렀다.³²¹⁾

인용문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경숙은 자신의 시기심의 정체가 남편이 인애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 대한 질투가 아니라, 남편의 태도에 일희일비하는 자신과 달리 태연한 인애의 모습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이때 인애는 지금까지 남편을 욕하던 아내가 아닌 학창시절의 동무인 경숙을 떠올리며 친근감을 느낀다. “순진하든 처녀시절에 돌아간 듯” 한 그

320) “창백한 얼굴에 광란한 듯이 그남편의욕을 퍼붓는 경숙이를 바라보며 인애는 기가마쳤다.

「이런 것이 안해로구나! 부끄럼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고」 그는 그밤 눈이붓도록 울었다.” (밑줄: 인용자) 장덕조, 「안해」, 『신가정』, 1934.2, 51면.

321) 위의 글, 55면.

리움 속에서 두 여성 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결말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 인물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남편과 아내의 불화는 이 소설의 표면적인 갈등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아내가 되었을 때 불행에 이르게 되는 여성의 삶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내재한다.

이처럼 장덕조의 「남편」과 「아내」는 여성의 시점에서 신가정이 얼마나 불안한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인물은 새로운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는데, 남편은 봉건적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인다. 표면적으로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사실상 그 위계를 수용해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을 아내의 입장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장덕조의 소설이 가정의 영역에 진입한 신여성이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던 현실을 보여줬다면, 이와 같은 불안한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은 그 토대가 되는 계약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은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팽배한 가정 담론의 방향에서 벗어난 나혜석의 글은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그의 페미니즘적 성향은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다가 1930년대에 접어들어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전환점은 김우영과의 이혼이었다.³²²⁾

「이혼고백장」(『삼천리』, 1934.8-9)에서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결혼에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를 부감하면서, 이혼을 당한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호소한다. 이 글이 발표되자 나혜석은 더욱 거세진 논란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보수화되던 분위기 속에서,³²³⁾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구미일반에 나타난 진보된 결혼생활이라는 나혜석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도, 대중들의 공감을 사기도 어려웠다.³²⁴⁾ 그럼에도 이 글은 여성의 이혼 권리가 인정되면서 근대

322) 송명희, 「신여성 나혜석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해부하다』, 지식과 교양, 2015, 12면. 나혜석과 김우영의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것은 1932년 봄이다.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183면.

323) 확대 보급된 제도적 교육의 양치현모 중심으로 생산된 협소한 여성관,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의 경제공황의 여파 등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관념은 보수화되었다. 김정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49-51면.

324)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185-186면; 송명희, 「신여성 나혜석과 페미니즘」, 앞의 글, 204면;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앞의 책, 236-237면. 평양에 산다는 한 여성은 「이혼고백장」을 읽고 사적 생활인

법에 담긴 ‘자유’의 속성이 부각되다가, 그 권리 내에 있는 ‘불평등’을 인지한 당대 이해 수준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³²⁵⁾ 작가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이혼 문제에 대한 시대적 성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혼고백장」은 공식적(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다는 기록에 대항하여,³²⁶⁾ 사실은 김우영에게 ‘강요당한’ 부당한 이혼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다분한 글이다. 그 비판의 초점은 부부간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간통죄에 있는데,³²⁷⁾ 조선형사령에 근거하여 이 조항은 ‘기혼여성’의 죄를 묻는 의미에 한정된 것으로 그 범주가 대폭 축소되었다.³²⁸⁾ 당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발

가정의 일을 노출했다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경솔한 발언을 자중해달라고 당부한다. 평양 일 여성, 「나혜석 씨에게」, 『신가정』 제2권 제10호, 1934.10.1. (나혜석학회 엮음, 『나혜석을 말한다』, 황금알, 2016, 214-221면) 이 글은 나혜석의 글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또한 가정이 공적 영역과 격리된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현상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가정 내부에 불합리함을 공공연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는 당시 여성들의 글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자, 가정 내부의 일로 은폐된 여성 인권 문제를 노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325) 1930년대 초 송계월(宋桂月)은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현재의 악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때 거론된 제도에 현재 시행하고 있던 상속법, 혼인법, 이혼법이 포함되었다. 송계월은 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봉건적인 법률의 폐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민사령 등에 명시된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다. 「新女性의 新年 新信號」, 『동광』 29, 1931.12.27, 74면.

326) 김우영의 호적에 ‘협의이혼’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최종고, 「나혜석(1896-1948)의 이혼과 고소사건-한국여성인권사의 한 단면」, 『아세아여성법학』 14, 2011, 166면.

327) 송명희는 나혜석이 1930년대 발표된 글에서 ‘가부장제 결혼에 내재한 이중적 성규범 전통’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송명희, 「신여성 나혜석과 페미니즘」, 앞의 글, 201-201면) 여기서는 이 규범이 가부장제 일반의 특징인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위해 시행된 법률의 문제로 좁혀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28) 조선 시대 간통죄는 형량의 차이가 있지만 신분, 젠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대상이 되었다. 가령 조선이 차용한 『대명률』의 간통 처벌 규정에는 혼인 외성관계를 한 남녀는 장 80대에 처했다. 그중 기혼여성은 10대를 추가된 90대를 맞아 가중처벌 되었다. (이순구, 앞의 책, 206면) 반면 일제 강점 이후 그 범주는 기혼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일본 민법 제813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원인 중 제2항 ‘처가 간통하였을 때’, 제3항 ‘남편이 간음죄에 의해 형에 처하였을 때’라는 두 항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여성 한 편에게만 요구하는 조항이었다. 남편은 기혼 여성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상대자로서만 처벌받았다. 이에 대해 홍양희는 간통죄가 부계혈통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성을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 동시에 청구되었는데,³²⁹⁾ 이를 악용해 벌어지는 부당한 사건들은 신문에 여러 차례 기사화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했다.³³⁰⁾ 특히 간통죄는 이혼을 원하는 남성들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간통이라는 죄명을 씌우기 위해 모함을 하거나 심지어 계락을 세워 아내를 강간케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혼을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따라서 1920년대 말에 이르러 남성 이혼 청구 원인의 50%가 처의 간통으로 나타났던 사실은,³³¹⁾ 실제 간통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부정한 아내가 많아진 현상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우영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혜석에게 이혼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간통죄로 구속될 경우 징역살이를 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려면 협의이혼 제안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간통죄가 가정 내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혼고백장」은 여성의 삶을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당대 법적 현실을 향해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삶에 공감을 요청하는 공적 발화의 성격을 띤다.³³²⁾ 그렇기에 이 글은 ‘고백’의 형식을 표방하지만, 한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자기성찰로 나아가는 글이 아니다. 그 이전까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족 내부의 고정적 틀을 전복하는 내용을 품은 글을 꾸준히 발표해 왔음을 고려할 때도 이와 같은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³³³⁾ 또한 이 글의 문제성은 당대 법률의 한계로 인해 억

통제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분석한다. 홍양희,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식민지시기 “간통죄”와 성(Sexuality) 통제」, 『법과사회』 51, 2016.

329) 192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4조에 따르면,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그 결과,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내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었다.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앞의 글, 136-137면.

330) 「本妻를 離婚코저 匿名에 偽證外지」, 『동아일보』, 1925.11.8; 「제 계집을 팔아먹고 姦通罪로 告訴」, 『동아일보』, 1927.2.2; 「돈과 계집을 中心으로 血族相爭의 醜劇一幕」, 『매일신보』, 1930.2.4.

331)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앞의 글, 135면.

332) 물론 이 글이 지닌 이러한 의도는 사회와 대중의 외면을 받음으로써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압받는 피해자인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계약과 정의라는 근대법의 가치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통해 나혜석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³³⁴⁾ 요컨대, 이 글은 당시 시행되던 실정법의 부당함을 정의라는 도덕의 문제와 대비하면서, 자신을 이혼의 원인의 제공자로 여기는 세간의 평가를 역전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가족법의 피해자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품고 있다.

「이혼고백장」에서 나혜석이 가장 중점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김우영이 제기한 간통이라는 사유가 이혼의 실제 동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김우영은 변호사 개업을 위해 경성의 한 여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기생과 유흥적 생활에 빠진다. 나혜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 최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김우영은 이 편지를 '구실' 삼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³³⁵⁾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나혜석은 이 일화의 이면에 대해 논한다. 김우영이 변호사 개업이 경제적 이유로 순탄하지 않자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아내 나혜석이 그림 도구를 사는 문제로 이해하고, 그 결과 나혜석을 더 이상 아내의 명의를 두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혼을 하고 돈이 많은 매춘부와 살림을 차리리라는 생각도 한다.³³⁶⁾ 이는 모두 나혜석

333) 가장 대표적인 예는 모성과 관련된 나혜석의 문제적인 글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글로는, 『신여성』 1-2호에 실린 「부처(夫妻)간의 문답(問答)」이 있다. 이 글은 상해, 하얼빈, 러시아와 같은 서양 가정을 참고하여, 조선의 가정이 부인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데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논설이 아닌 부부 간의 대화라는 형식을 띠는 이 글은 그 비판과 대안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상에서의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끈다. (羅晶月, 「夫妻간의 問答」, 『신여성』 1-2, 1923.9, 11) 이러한 맥락에서, 나혜석의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추상적 가치에 몰두하기보다는 항상 현실 역사의 맥락 안에서 이해했다는 김경일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앞의 책, 125면)

334) 이와 같이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은, 나아가 '시민-주체'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초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Dipesh Chakrabarty, 김택현·안준범 역, 「누가 고통을 증언하게 하는가?」,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285-297면.

335) “辯護士開業을 시작하고 京城 어느 旅館客이 되어서 日本 妓生 돈 만흔 갈보들의 誘惑을 받으면서 내가 某氏에게 보낸 片紙가 口實이 되어 이 料理집 저 親舊에게 離婚意思를 公開하며 다니든 때이엿습니다.” 羅蕙錫, 「離婚告白狀」,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8.1, 90면.

336) “氏는 잠 아니 오난 밤에 곱곰히 生覺하였사외다. 爲先 嫉妬에마쳐오르는 怨

의 입장이 투영된 것으로, 김우영이 실제로 이러한 의도로 행동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³³⁷⁾ 그러나 사실과의 정합성은 중요하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와 남편의 방탕함을 부각함으로써 최린과의 관계가 이혼의 동기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항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나혜석은 김우영의 불순한 동기에 대항하여 자신은 ‘동기’ 차원에 죄가 없으며, 오히려 순수한 의도였음을 거듭 강조한다. “動機에 아모 罪 업는 나”³³⁸⁾ 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남편의 간계를 간파하지 못한 자신의 순일함과 아이들을 위해 악의는 없었지만 사죄를 하겠다는 헌신성을 보인다.

㉠ 歐米 一般男女夫婦 사이에 이러한 公然한 秘密이 잇는 거슬 보고 또 잇난 거시 當然한 일 이요, 中心되는 本夫나 本妻를 잊지 안는 範圍內에 行動은 罪도 아니요 失守도 아니라 가장 進歩된 사람에게 맛당히 잇서야만 할 感情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事實을 判明 할 때는 우서두는 거시 수요, 일부러 일홈을 지을 必要가 업는 거시외다. 辨別잔이 生覺남니다. 어린죽하들이 배급하서 못견대는 거슬 참아 볼 수 업서서 이웃집에 가 빵 한조각 집을 거시 原因으로 前後 十九年이나 監獄出入을 하게 되엿사외다. ㉡ 그 動機는 얼마나 아람다잇든가. 道德이 잇고 法律이 잇서 그의 良心을 속이지 아니하엿는가. 原因과 結果가 따로 나지 아니하난가. 이 道德과 法律도 하야 怨痛한 죽음이 오작 만흐며 怨恨을 품은 者가 얼마나 잇슬가.³³⁹⁾ (밑줄 강조: 인용자)

함은 얼굴을 불게 하엿사외다. 그러고 자기가 自己를 生覺하고 또 世上맛을 본 結果 돈벌기처럼 어려운 거시 업는 줄 알앗사외다. 安東縣 時節에 濫用하든거시 後悔나고 안해가 그림 그리라고 畵具 산거시 앓가워졌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배도대를 바람을 끼여달면 바람을 따라 다라나는 것 갓치 그 根本生覺을 다난 대로 모든 生覺은 다그便으로 向하야 다라나는 거시외다. 氏가 그러케 生覺할사록 一時도 그 女子를 自己안해 名義로 두고 십지 안은 感情이 불과 갓치 이러났사외다. 同時에 그는 自己 親舊 一人이 妓生서방으로 놀고 便히 먹는 거슬 보앗사외다. 自己 逆境에서 다시 살니는 한 方策으로 生覺했슬 때 離婚說이 公開되니 여긔저긔 돈 잇는 갈보들이 後補되기를 請願하는 者가 만하 그 中에서 하나를 取하엿든 거시외다. 때는 안해에게 離婚請求를 하고 萬一 承諾치 아니면 姦通罪로 告訴하겠다고 威脅을 하는 때이엇사외다.” (밑줄: 인용자) 위의 글, 92-93면.

337) 나영균은 생활이 매우 궁핍했더라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최린에게 편지를 쓴 것은 엄연히 나혜석의 잘못이라고 본다. 그로 인해 격노한 김우영은 전통사회와 용납할 수 없는 아내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혼을 완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이미 기생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우영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한다. 나영균, 앞의 책, 176-180면.

338) 羅蕙錫, 「離婚告白狀」, 앞의 글, 90면.

339) 위의 글, 91면.

위의 인용은 동기 차원에서 자기의 죄 없음을 외부적 준거를 끌고 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대목이다. 우선 나혜석은 ㉠에서 자신의 죄목이 조선사회에만 해당될 뿐, 좀 더 선진한 구미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미 사회의 문명한 부부는 본부와 본처를 바꾸지 않는 한에서, 다른 이성과의 교제는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해 주는 진보된 행위라고 설명한다.³⁴⁰⁾ 이러한 입장은 최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대목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최린과의 만남은 그 시작부터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에 동의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김우영의 태도와 당시 법률만 보더라도 받아들여졌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를 차치하고 나혜석의 견해를 존중해서 평가하자면, 식민지 조선이 아닌 구미 사회의 법과 풍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평가받으려는 그의 태도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더 나은 풍속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의도는 ㉡에서 다시 강조된다. 나혜석은 자신의 현 상황을 장발장과 유비하여 설명한다.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의 행위는 결과만 보면 죄이지만, 그 동기는 도덕과 법률을 초과하는 아름다운 양심에 의한 것이다. 장발장과 나혜석의 경험은 같은 층위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주목을 요하는 것은, 동기와 결과가 분리된 근대법의 합리적 체계에 대한 반감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덕과 법률은 오히려 양심을 속이게 하고, 사람들의 원한과 원통함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법률이 보편적 선(善) 또는 정의 문제와 거리를 두고 법률 집행의 실정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미 사회를 모범으로 삼아 가정 개혁을 주장하는 나혜석에게 있어 지금 현재를 구속하는 실정법이라는 적법함의 표준

340) 이와 유사한 논리는 「獨身女性の 貞操論」(『삼천리』, 1935.10)에서도 발견된다. 서구 사회의 '스위트홈'은 남편과 아내 각 개인의 힘이 아니라 '남녀교제의 자유'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그런데 나혜석이 언급한 서구의 이 가정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참고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또한 계약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나혜석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프랑스 사회에서도 지탄받았다. 게다가 이들의 계약 결혼의 기점이 1929년이라는 점에서 나혜석이 구미만유 중에서 이를 접했을 가능성도 적다. (변광배,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 살림출판사, 2007) 나혜석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구미 부부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 중요하지 않다. 법을 위반한 그녀의 행위가 현행법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 비판은 사회적으로 공감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한편 나혜석이 주장한 아내로서의 자신의 권리는 좀 더 구체적인 현실 비판 위에 개진된다.

남남끼리 습한 것도 當然한 理治요 떠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나 우리는 서로 떠나지 못할 條件이 네가지가 있소 1은 80老母가 계시니 不孝요 2는 子息四男妹요 學齡兒童인만치 保護해야 할거시오 3은 一家庭은 夫婦의 共同生活인만치 生産도 共同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分離케 되는 同時는 맞당히 一家가 二家되는 生計가 잇서야 할 거시오, 이거를 마련해 주는거시 사람으로서의 義務가 아닐가 하오 4는 우 年齡이 經驗으로 보든지 時機로 보든지 純情 卽 사랑으로만 산단난 것보다 理解와 義로 사라야 할 것이오, 내가 임의 謝過하였고 내 動機가 專혀 惡으로되이 아니오 또 氏의 要求대로 賢妻良母가 되리라고 하엿사외다.³⁴¹⁾

위의 인용에서 나혜석은 이혼을 할 수 없는 나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조건은 네 가지나 된다. 노모에 대한 불효 행위이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점, 가산(家産)은 부부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이를 정당히 나눠야 한다는 점, 결혼생활의 단계 중 이들의 현 위치가 사랑이 아닌 '이해와 의'를 덕목으로 살아가는 시기라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산과 관련된 요구이다. 기혼 여성의 재산권은 조선 시대보다 더욱 퇴보하여 전혀 인정되지 않았는데,³⁴²⁾ 그렇기에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은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오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청구를 통해서만 재산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³⁴³⁾ 그러나 나혜석이 간통죄로 이혼의 사유를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웠다. 집안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341) 羅蕙錫, 「離婚告白狀」, 앞의 글, 95-96면.

342) 조선 시대 딸들은 상속권이 있었고, 혼인한 여자의 경우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여성의 재산권은 점차 위축되었다.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앞의 책, 63-68면.

343) 이태영, 앞의 글, 145-146면.

의식하고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법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기초 형태에 신뢰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나혜석은 파탄을 맞게 된 결혼 생활을 '거짓'으로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結婚 當時에 모든 準備 모든 誓約이 成立되어 잇섯고 임의 그거슬 다 實行하여온 까닭”³⁴⁴⁾ 때문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서약'으로 맺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결과야 어찌되었든 계약의 주체로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혜석의 태도는 아래 인용된 부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가) 全人類中 何必 너는 나를 求하고 나는 너를 짝지으랴하는 대는 네가 내게 업서서는 아니 되고 내가 네게 업서서는 아니 될 무엇 하나를 차자 엇지 못하는以上 그 結婚生活은 永久치 못할 거시오 幸福지 못하리라난 거슬 나는 일즉이 깨다랴든 거시엿습니다. 그러타고 나는 그를 늦기 실했고 氏는 나를 늦치 아니하엿습니다. 다만 斷行을못할 따름이엿습니다. 그리다가 兩便親戚들의 勸誘와 및 自己責任上 擇日하야 結婚한 거시엿습니다. 그 때 내가 要求하는 條件은 이러하야합니다.

一生을 두고 只今과 갓치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림 그리는 거슬 妨害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前室 딸과는 別居케 하여 주시오.

氏는 無條件하고 應諾하엿습니다.³⁴⁵⁾

(나) 「婚姻할 때도 두사람이 한 일이니까 離婚도 두사람이 할 터이니 걱정을 마시고 가시오」

나는 밤에 한잠 못 자고 생각하엿사외다.

일은 임의 틀녔다. 게집이 생겼고 親戚이 同議하고 한 일을 혼자 아니하랴도 쓸대업난 일이다. 나는 문듯 이러한 方針을 生覺하고 誓約書 두장을 썼습니다.

誓約書

夫〇〇〇과 妻〇〇〇은 滿2個年동안 再嫁 又は 再娶치 안기로 하되 彼此에 行動을 보아 復舊할 수가 잇기로 誓約함.

右 夫 〇〇〇 印

344) 羅蕙錫, 「離婚告白狀」, 앞의 글, 85면.

345) 위의 글, 87면.

(가)는 나혜석이 김우영의 구혼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녀는 애초에 이 결혼이 개성과 영혼의 교류가 있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결혼에 앞서 파탄을 경계하기 위해 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지금과 같이 사랑해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시어머니와 전처 소생의 딸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당시 김우영은 이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이혼고백장」의 내용을 통해 김우영은 이 세 조건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이 변한 것,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일가친척과 함께 살아갔던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나)는 이와 같은 사달을 지금은 막을 수 없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 나혜석이, 이후 복적(復籍)하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혼 요건으로 2년 간 재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만드는 장면이다. 그러나 속편에서 김우영은 나혜석과의 이러한 서약을 무시한 채 재혼한다. 일견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계약에 의지하는 것이 법에 무지한 모습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혼인과 이혼 모두 당사자인 두 사람의 '사적 계약'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 주목을 요한다. 당대 실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일지언정, 법률의 근간이 되는 계약 원리를 무시한 것은 김우영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계약으로서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환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자율적 관계 맺기에 개입하는 국가의 법을 문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나혜석은 「이혼고백장」을 통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던 식민지 조선의 법률을 비판하는 동시에,³⁴⁷⁾ 법의 원초적 상태를 구성하는 '

346) 위의 글, 96면.

347) 당대 법률에 대한 나혜석의 비판적 인식은, 영국의 운동단원인 영국의 핑크하스트 부인과의 문답의 한 장면을 상기시킨다. 핑크하스트 부인은 참정권 운동의 원인이 '어리석은 남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만족할 수 없는 영리한 여성의 행위라고 의미 부여한다. (羅蕙錫, 「英米婦人參政權運動者 會見記」, 『삼천리』, 1936.1, 92면) 이는 나혜석의 발언은 아니지만 그의 인식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람으로서의 인권의 동등성을 무시하는 조선의 법률 또한 남성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으며, 나혜석이 이를 비판하면서 법의 진정한 정신을 거듭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려는 영미 자유주의 운동가들의 활동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계약'과 '양심'의 가치는 오히려 법을 어겼다고 비난받는 자신에 의해 수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위에 경험을 생생히 서술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소지가 자신에게 더 많으며, 이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은 오히려 김우영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공론장을 활용해 자신이야말로 이 결혼의 피해자라는 논리를 확보하려 했던 시도로, 「이혼고백장」은 법정이 아닌 여론을 향해 공표된 일종의 소송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최린을 향한 나혜석의 정조유린청구 소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계를 요구한 최린이 김우영의 처권(妻權)을 침해했고, 자신을 가정과 사회에서 배척받게 했다는 사유를 들면서 소송을 건다.³⁴⁸⁾ 이는 「이혼고백장」에서 보여줬던 최린과의 만남에 대한 서술과 모순적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혜석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온당할까. 이 소송과 관련된 내막은 나혜석과 변호사 소완규의 대화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나혜석은 최린이 기왕의 약속과 달리 생활비를 전혀 지원해주지 않아 야속함을 느끼고, 그에 대한 분풀이이자 반항심의 일환으로 소를 취한다고 밝힌다.³⁴⁹⁾ 여기에 근거하여 김형목은 나혜석의 소장 제기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은 최린과 여성인 자신의 위치가 선명하게 나뉘지는 데 대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잘못된 인습을 타파하려는 새로운 도전장”이라는 것이다.³⁵⁰⁾ 그러나 이 역의 문제가 전혀 배제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법체계 안에서, 여성이 내연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정조유린 위자료청구소송밖에 없었기 때

348) 「女流畫家羅 蕙錫氏 崔麟氏 相對 提訴」, 『동아일보』, 1934.9.20. 신문에는 소장에 적힌 청구이유의 전문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우영이 정한 보호자의 위치에 있던 최린이 나혜석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하여 정조를 유린했다. 이것을 안 김우영이 이혼을 요구했고, 나혜석은 자기 의지는 아니었으나 유혹에 넘어간 죄를 시인하여, 최린과의 상의 후 그의 인격을 믿고서 협의이혼을 승낙했다. 그런데 피고는 생활비 지급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를 비참한 생활로 내몰았다. 전도를 개척하고자 불란서 유학을 가기 위한 원조 요청 또한 거절당했다. 최린은 일시적 쾌락의 만족을 위해 나혜석을 유혹했고, 그녀의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적으로 배척받게 했다. 김우영에 대한 처권(妻權)을 침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받았으므로 이에 청구한다.

349) 羅蕙錫, 「異性間の 友情論 아름다운 男妹의 記」, 『삼천리』, 1935.6.

350) 김형목, 「위자료 청구소송을 주도한 소완규와 나혜석 인연」, 『나혜석연구』 7, 2015, 30면.

문이다.³⁵¹⁾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나혜석의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는 정 조유린을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식민지에 부과된 법 조항에서 여성이 공적으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정조'밖에 없던 상황을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³⁵²⁾ 이와 같이 나혜석은 당시의 법적 상황을 직시하고, 그 틈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갔다.

나혜석의 급진적이면서도 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그의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이혼 이후 발표된 소설로 현재 알려진 것은 「현숙」(『삼천리』, 1936.12)과 「어머니와 딸」(『삼천리』, 1937.10), 이렇게 두 편이다.³⁵³⁾ 이 두 소설은 나혜석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경희」(『여자계』, 1918.3)에 비해 명료한 주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소설로 평가되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 중 「현숙」은 이혼 이후의 비참한 삶 속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⁵⁴⁾

「현숙」은 계약 개념에 입각하여 연애 관계와 가족 구성의 문제를 새롭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소설이다.³⁵⁵⁾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카페

351)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앞의 글, 253면.

352) 위의 글, 273면.

353) 희곡으로는 「巴里의 그 女子」(『삼천리』, 1935.11)가 있다. 한편 방민호는 서정자에 의해 엮어진 『나혜석 전집』에서는 '여성 비평'으로 분류되고 있는 「獨身女性의 貞操論」(『삼천리』, 1935.10)을 소설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방민호, 「나혜석의 전성-나혜석과 이광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동호 외, 『나혜석, 한국 문화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5, 356면.

354) 1930년대 나혜석의 소설 중 비교적 주목을 받은 것은 「현숙」이다.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를 내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 소설이 작가의 이혼 후의 심경과 현실적 처지가 투사되어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평가의 대표적 견해를 보이는 조미숙은 즐거리가 산만하고 주제의식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조미숙, 「여성의 상태와 나혜석의 글쓰기-“경계”와 “아브젝트” 체험의 표현」, 『한국문예비평연구』 42, 2013) 긍정적인 평가로는 방민호, 정미숙, 안숙원의 논의가 있다. 이 소설을 사소설로 평가하고 세상을 향한 저항의 의미를 읽거나(방민호, 위의 글), 다면적 여성 주체를 통해 당대 고정된 젠더 구상을 비판했다거나(정미숙, 「나혜석 소설의 “여성”과 젠더수사학-「경희」, 「원한」, 「현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6, 2010), 대체 가족의 모델을 제시(안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3, 2000)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55) 「현숙」은 인물 간의 선명한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그 주제의식을 간취하기 어려운 소설이다. 즐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현숙은 현재 여급으로, 깃다점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 자금을 후원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는 현재 화가인 L, Y시인과 여관에서 동숙하면서,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급이자 모델 일을 하는 현숙이라는 한 여성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인 현숙의 내면과 행동의 동기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숙은 합리적인 거래/계약의 일환으로 연애를 하고, 제도적인 혼인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는 것이다.³⁵⁶⁾ 때문에 깍다점 운영 계획과 연애 모두 ‘계약’을 통해 실행하려고 하는 현숙의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이 소설을 이해하는 핵심 문제이다. 현숙은 이 계약을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회계의 논리로 집행하는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등장인물들은 그와 반대로 현숙을 소유하는 문제로 이해한다.

현숙을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가령 화가 K는 그녀를 타락했다고 여기고, 노시인은 그녀가 얕전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숙은 후원자들과 일대일 계약을 했다고 느끼게끔 이른바 신사계약의 원칙을 세운다. 깍다점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내세워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현숙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시인과 K가 서로 현숙의 정체성을 다르게 말하면서,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실상 현숙에게 중요하지 않다. 누구도 자신을 소유하거나 책임져 줄 것을 바라지 않는 현숙은 그저 계약을 맺고 끊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 ... (중략) ... 현숙씨 이만한 권리는 당연히 L에게 있지 안소, L은 당신을 일로부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이 L의 既得權이야요. 이 既得權을 실행하라는 것이야요. 분명히 현숙씨는 손벽을 치며 L의 권리를 기뻐해 줄 것이요. 당신도 사람일 것 같으면 이것이 마음에 마지리라고 想像하고 마음으로부터 미소를 띄우게 되었소.

현숙씨! 이 편지는 그 의미로 내가 가지고 온 것이요. 나는 지금 두사람을 위하여 滿腔의 축복을 다하오. 부라보! 부라보!」 ... (중략) ...

현숙은 연애를 회계와 같이 생각하는 신념 아래, 자신을 향한 L의 열정어린 감정을 경계한다. 현숙이 하숙을 옮긴 이후 L과 Y는 실망한다. 그러던 중 L에게 편지가 온다. L은 편지에 적힌 내용에서 시키는 대로, 그 편지를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러 갔다가 현숙을 다시 만나게 된다. 현숙은 L이 여기에 온 내막을 알고서, Y에게는 비밀로 하여 반년간의 계약 연애를 하자고 제의한다.

356) 현숙은 타락한 생활을 해선 안 된다는 노시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자신의 생활을 알면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숙의 본심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네? 언제 내가 말한 회계의 입구가 이렇게 속히 우리 두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줄은 想像도 못했어요. 우리 둘의 감정은 벌써 충분히 준비해졌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감정과다라도 관계치 않아요 L씨! 나는 이제 L씨라고 불느니 않겠어요. 그 대신 부라보를 불너드리지요. 부라보 부라보!」 … (중략) …

우리 둘은 반년간 비밀 관계를 가져요. 반년 후 신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爲先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³⁵⁷⁾ (말줄: 인용자)

계약 행위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태도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숙의 의사와 무관하게, 편지의 발신자는 L이 그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현숙이 L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순정한 마음이 담긴 연서를 대필로 써서 보낸다는 점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편지의 발신자는 현숙을 남성들 사이의 거래 대상으로 여기듯 그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현숙이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인지하고서 이용한다는 데 있다. 현숙이 L에게 앞으로 ‘부라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편지 끝에 쓰인 이 단어로 L을 부르는 현숙의 태도에는, 편지의 뜻을 그대로 인계하여 L과 계약 연애를 하겠다면서 소유에 골몰하는 이들을 비웃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현숙의 이른바 ‘계약 연애’는 선불리 법적 결혼을 맺어 실패할 경우를 경계하기 위한 방책이자,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전복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서 현숙의 정체가 표면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현숙은 계약의 주체로서만 존재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그 참모습이 파악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숙의 태도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일종의 ‘대체 가족’의 의미와도 연결된다.³⁵⁸⁾ 같은 여관에서 ‘우연히’ 공동생활을 하게 된 노시인, 화가 L, 현숙은 가난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3인의 생활은 한 사람도 떼여 살 수가 없이 되었”³⁵⁹⁾을 정도로 친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숙은 노시인과 L에게 이사하는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여관을 떠난다. 가족과 유사한 형태를 띤 대안적 생활공동체 또한 현숙에게는 영속적 관계로 이해되지 않는다. 현숙은, 연애도 인간관계도 모두 계약을 통해서 유지하는 삶

357) 羅蕙錫, 『玄淑』, 『삼천리』, 1936.12, 249면.

358) 안숙원, 앞의 글, 74면.

359) 위의 글, 243면.

을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 우연히 결성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깍다점 운영 계획이 성공할 경우 좋은 통지를 보내 함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듯, 그녀는 모든 관계를 계약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숙은 결혼을 비롯하여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자신에게 행사될 수 있는 구속력을 애초에 차단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³⁶⁰⁾

한편 이와 같은 계약 개념에 대한 작가의 이해는 그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경희」(『여자계』, 1918.3)의 한 장면을 새삼 상기시킨다. 소설 도입부에서 경희는 일본 유학시절 때의 경험담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으로 그때 봤던 활동사진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나혜석이 본 영화는 아버지를 매매한다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³⁶¹⁾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이 강요된 혼인 문제로 부친과 갈등을 겪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를 사고팔 수 있다는 영화 속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봉건적 가족제도 내에서 딸을 소유물로 여기는 관습에 대응하는 관점으로서, 아버지 또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두 아이의 거래/계약 행위로 매매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 남성들과 계약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현숙의 모습으로 연결된다. ‘경희’가 부권(父權)을 계약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권위의 신비로운 토대를 깨뜨렸다면, ‘현숙’은 부권(夫權)을 부수는 시도인 것이다. 이처럼 나혜석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 딸 또는 아내의 위치를 버리지 않고서, 또한 법의 논리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서, 그 내부에서 그 의미와 위계를 전복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을 이혼 경험을 매개로 사유하고서, 오히려 계약의 근본적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법적인 혼인제도 밖으로 나아갔다.

360)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는 「新兩性道德의 提唱: 友愛結婚, 試驗結婚」(『삼천리』 6, 1930.5)에서 논의한 서구의 시험 결혼 등을 대안으로 참고하고, 사적 계약이 법적 계약을 압도했던 자신의 이혼 경험이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61) 소설 속에 제목이 부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실제 개봉했던 영화를 소설적으로 가공해서 삽입한 것인지 완전히 허구적인 설정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영화라는 신문물을 매개로 아버지를 매매한다는 신사상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은 자못 흥미롭다. 당대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를 살펴보고서 소설 속에 삽입된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혜석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문제의 가시화는 이혼에 대한 성찰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부당한 계약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선희의 「계산서」(『조광』, 1937.3)에서도 나타난다. 유산의 후유증으로 절름발이가 된 아내는 자신과 달리 ‘완전한’ 남편을 보면서, 균형이 맞지 않은 생활은 파산밖에 남지않았다고 생각하고는 생활의 총결산을 위해 ‘계산’을 한다. 이때 화자는 남편의 다리 하나로도 부족하며 목숨을 위자료로 받아야겠다는 광기 어린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인공의 히스테리는, 그 계산서가 자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안해된 자의 계산서”³⁶²⁾로 비약하면서 그 명분을 얻는다. 그녀의 계산서는 불평등한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모든 아내들의 겪는 불합리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녀가 절름발이가 된 원인이 여성의 육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산의 경험과 연결된 것으로 설정된 점 또한 결말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가 설명된다.³⁶³⁾ ‘나’는 근대와 전근대와 같은 시기 구분을 차치하고, 모든 결혼계약이란 구도 내에서 모든 여성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시하는 것이다.³⁶⁴⁾

한편 계약의 본령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지만, 실정법 차원에서 사회에 적용되었던 방식은 ‘민적 등재’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였다. 이선희의 「도장」(『여성』, 1937.1)과 유진오의 「이혼」(『문장』, 1939.2)은 민적이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부부 관계의 결합과 해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서사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도장」은 민적에 등록된 아내라는 사실이 본처로서 자신의 지위를 지켜줄 일종의 ‘권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가 남편의 학대와 첩의 존재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도장을 가장 무서운 물건으로 여기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에도 도장만큼은 내주지 않을 것 같던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지 않으면 가막소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팔자를 한탄하면서도

362) 李善熙, 「計算書」, 『조광』 제3권 제3호, 1937.3, 285면.

363)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아이를 해산하다가라는 점 외에는 그 이유를 서사 내에서 찾기가 어렵다.

364) 김윤정, 앞의 글, 96-97면.

조강지처의 도리라며 도장을 꺼낸다. 이때 주목할 점은 그녀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사실과 다른 여성과 정식 부부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냐고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남편과 그의 집안을 위해 본처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 그 정도는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³⁶⁵⁾ 그녀는 민적 신고를 통해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법률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그 형식과 별도로 부부관계의 증명은 계약 밖의 다른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여성 아내의 안타까운 처지는 역으로 당시 ‘계약’이라는 것이 절차적 의미로만 여겨지고 오용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축한다.

「이혼」은 조혼한 남성의 시점에서 구여성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³⁶⁶⁾ 아내 또한 시대의 희생자로 여기면서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주인공 박재신은 상사 회사 회계 주임으로 조혼에 따른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합리화 아래 방탕을 일삼는 인물이다. 아내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홀륭한 인도주의자’라고 자신을 두둔하기도 한다. 그런 그가 올드미스이자 여학교 교사인 홍윤희를 만나고서 결혼을 결심하고, 오랫동안 유보했던 이혼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러 시골로 내려간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자, 재신은 “생후에 처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 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이혼의 현장인 시골이 “무서운 지옥”으로 여겨진다. 그간 자신을 합리화했던 ‘시대의 죄’라는 구실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론’이라는 생각이 든다.³⁶⁷⁾ 나아가 재신의 괴로움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윤희를 만나 이혼증거인 호적 등본을 보여주면 이 번민이 상쇄되리라는 기대가 무참히 깨어지는 데서 비

365) 구여성 아내를 ‘만동서’라고 부르면서 관찰하는 서술자는 그녀가 도장을 꺼낸 마지막 장면에 대해 남편을 위해 한 일이 남편과 남이 되는 것임을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한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보면, 그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는 행위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자신을 내버려두면서 다른 이와 혼인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한탄 또한 그 예라 할 수 있다.

366) 이 소설은 보성전문 교수 김광진과 노천명과의 연애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도 유명하다. 임현영, 『임현영 평론 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5, 90-92면.

367) 玄民, 「離婚」, 『문장』, 1939.2, 81면.

롯된다. 윤희는 이혼을 하기 위해 내려간 지 한참 있다가 올라온 재신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면서, 호적등본을 “조히짱 한 장”³⁶⁸⁾으로 치부한다. 여기서 윤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법적 증명에 앞서 결혼에 대한 재신의 진정성으로, 재신이 시골에 머무르는 시간에 비례해 그녀의 의혹은 증폭된 것이다. 재신은 그와 같은 윤희 앞에서, 무슨 죄인지도 모른 채 어떤 가혹한 벌을 받는다는 참담함을 느낀다. 결국 조혼한 남성과 친구여성의 삼각관계의 문제의 쟁점이 되었던 이혼의 결과물인 ‘호적등본’은 이들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혼을 설명해주는 문서가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부부 간의 결합과 해체 사이에 법적 절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1930년대에는 실정적 차원의 계약 문제가 개인의 권리와 부부 관계의 실질적인 결합과 해체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소설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작품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작가가 최정희다. 앞서 살펴본 민사령의 불합리한 면을 꿰뚫어보던 작가의 태도는 소설 창작으로도 이어졌다. 최정희 문학이 근대와 전근대를 막론하고 결혼과 가족 제도의 타자로 살아야 했던 여성의 삶에 깊은 관심을 담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로, 이는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지맥」(『문장』, 1939.9), 「인맥」(『문장』, 1940.4), 「천맥」(『삼천리』, 1940.1-4), 소위 ‘삼맥’ 연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⁶⁹⁾

368) 위의 글, 84면.

369) 선행 연구에서 최정희 문학이 ‘여성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서사화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없으나, 그 초점과 평가는 조금씩 다르다. 특히 그 평가는 여성과 모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김복순은 모성보다 여성을 우위에 두고서 양자의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완전한 여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김복순,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방민호는 사회제도 속 여성의 운명을 밀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자립적 가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0, 2006) 심진경은 최정희 문학의 인물이 보여준 여성성이 ‘연기’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고 본다. ‘삼맥’ 연작에 대해서는, 모성과 여성의 관계의 심층에 존재하는 여성(애육)이 가부장제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국 이를 승인한다고 분석한다.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7-1, 2006; _____, 「모성’의

그중 「지맥」은 '민적에 등록되지 않은 아내'의 문제를 서사화함으로써 30년대 부각되었던 제2부인의 문제를 전면화한 소설로, 국가가 정한 계약 범위 '밖'에 놓인 여성의 삶의 질곡을 그리고 있다.³⁷⁰⁾ 주인공 은영이 느끼는 정당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안정감은 남편인 홍민규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깨지게 된다. 이는 남편의 사랑을 정체성의 준거로 삼고 있는 제2부인의 비극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³⁷¹⁾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은영의 태도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줄 법의 그물망의 바깥에 서는데, 이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하라구 호적등본을 사용해 보란말이야」

이것은 전에도 동무가 내게 한번 권해보든 말이였다. 즉, 서울에있는 내 호적— 아직 결혼 안한 처녀대로— 도라가신 아버지 어머님의 딸로 그냥 있는 호적등본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처녀행세를 해서 직업을 구해보라는 말인데 나는 두해를 두고 생활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략)……

「안될말이야. 그건 비극을 또한개 지어내는것밖에 안돼.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치드래도 나는 이미 남의 아내였고 또 현재 당당한 어머니데 어떻게……」

「그게 고집이라는거야. 제발 좀 그 고집을 집어취워요. 글세 그렇게한다구 어머니가 못될 거 어디있수」

「고집이라면 고집일지 모르지만 아모리 살기위해서의 한개의수단이라 치드래두 그것은 결국 내자신을 속히는 것이 되구마니까. 혹 당신말대루 그런방법을써서 생활난을 면한다구 하드래두 내 마음이 밥을 굶는이상으로 괴롭다면 안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³⁷²⁾

탄생- 최정희의 「지맥」, 「인맥」, 「천맥」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2015) 박죽심 또한 여성의 주체적 의지를 엿볼 순 있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3면.)

370) 「천맥」의 서사적 상황은 「지맥」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이거나, 이 두 텍스트의 여성 인물의 처지는 다르다. 「천맥」의 연이는 상수와 혼인 당시 법률과 도덕이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사실혼의 관계는 곧 법률혼의 관계로 전환된다. 연이와 상수의 관계를 '법 있게 만난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이를 증명하는 구절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런 점에서 「천맥」은 「지맥」과 문제의식의 연속성을 보임에도, 국가가 정한 근대계약의 테두리 밖의 존재에 초점을 두는 이 절의 논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한다.

371) 全禧福, 「第二夫人問題檢討」, 『신여성』 56, 1933.2, 5면.

372) 崔貞熙, 「地脈」, 『문장』 제1권 제8호, 1939.9, 46면.

은영은 ‘남의 등록 없는 아내이자 어머니’³⁷³⁾를 증명해 주는 관청의 공증이 없어서 학교나 회사, 사무원등 신분의 확인이 필요한 직업을 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그가 홍민규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문서상 확인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은영은 호적등본상 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가(家)의 구성원이다. 국가가 정한 그녀의 신분은 미혼자로 이를 활용하면 구직 활동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은영의 선택은 현실적 어려움보다 자신이 정한 정체성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가 더욱 비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는 자율적인 계약의 의미를 고집스럽게 놓지 않으려는 은영의 선택은 공인된 계약만을 인정하는 현실과의 대결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장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러한 은영의 태도는 사생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은영은 사생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적대의 책임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의 죄로 여기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에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은영의 인식은 사생아를 향한 동정의 시선이 부모에게까지지는 이어지지 않던 당대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관계를 배제하고서 국가가 정한 법적 부부만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의 입학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에도, 이상훈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은영이 상훈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청혼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의붓아버지의 사랑에 내포된 근본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홍가에서 이가로 아이들의 성이 바뀌는 일’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이는 혈연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앞서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인 은영의 모습을 고려할 때 그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아이들을 그대로 ‘홍가’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생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어머니의 민적에 사생자로 올라가있거나, 아니면 그 어디에도 등록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의 혈연은 부계

373) 위의 글, 40면.

혈통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부와 가족을 이루는 본능과 감정의 연대가 지닌 중요성을 환기한다. 이러한 감정은 규정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족의 구성 원리를 부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맥」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숨기고 있는 소설이다. 계약 밖의 배제된 이들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넘어’ 계약의 테두리를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맥」의 문제의식을 법적인 부부 관계 내부의 문제로 변주하여 형상화한 작품이 「인맥」이다. 아버지가 정한 배우자와 애정과 이해도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선영은 친구인 혜봉의 남편인 허운을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애정 없는 결혼의 비극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이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결말에서 선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를 낳고, 허운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혜봉과 일종의 자매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선영이 모성애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그 모성애를 허운에 대한 애정과 등가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³⁷⁴⁾ 이는 선영이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선영은 법적인 가족을 유지하면서, 이를 위해 존재해선 안 되는 다른 남성을 향한 마음을 억압하려 하지 않는다.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재했던 ‘자유’를 법적 계약의 테두리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살펴본 1930년대 작품은 신가정의 윤리가 팽배하면서 부부의 성역할을 고정해 나갔던 당대의 주류 담론을 벗어나고 비판하는

374) “이런것뿐아니라, 어쨌든 아이를 낳든날부터 나는, 이때까지 알지못하든 온갖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때로, 신이 내게 한가지의 시련(試鍊)을 더해준것이 아닌가, 다시말하면 내가 아직도 그이에게 도달(到達)할 자격이 못됨으로 내게 충실한 안해에서 참된 어머니, 즉 완전한 여성(人間)으로 이르게하려는 운명의 암시를 보여준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것도 같았습니다. 내가 읽은 책들이 가르치듯이 모성애가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강하고 고귀하고 또 그것처럼 참된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강한것, 그고귀한것, 그참된것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감정을 버릴수는없었습니다. 내게는 모성애가 강하고 고귀하고 참된거나 마찬가지로, 그이를 생각하는 내감정도 세상의무엇보다 가장 강하고 고귀하고 참되다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심한때면 아이에게서 그이의 영상(影像)을 발견하는일까지 있게되었습니다.” (밑줄: 인용자) 崔貞熙, 「人脈」, 『문장』 제2권 제4호, 1940.4, 46면.

모습을 보여준다. 그 균열은 대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포착되는데, 이는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근본적으로 젠더불평등의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 이전까지는 법의 그물망 밖에 놓인 존재들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1930년대 들어 제2부인을 비롯하여 법적 지위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관심이 심도 높은 논의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소설은 계약의 안과 밖을 고르게 조망하면서, 법적인 부부 관계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총독부의 가족법 정책의 최종 도달점이 호주 중심 가족이며, 그와 같은 가족이 남성을 보조하는 여성의 의무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문학이 보여준 문제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호주에 의해서만 법적 권리를 부여받던 여성들이 그 수동적 위치에 머물지 않는 모습은 국가적 차원의 불온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Ⅳ. 국가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가족의 자율성 모색

1. 전근대적 윤리의 복권과 사적 처벌의 문제화

식민지 시기 시행된 가족법은 봉건적 관습질서에서 벗어나 가족의 문명화를 가져다 줄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가의 강제적 규제를 속성으로 하는 법률의 특성상, 개인은 가족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국가라는 또 다른 상위집단의 구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에 행사되는 법이, 인간 본성에 근거한 예(禮)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법(法)으로 전환됨에 따라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작품을 검토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일제 강점기에 의한 식민 통치 아래, 급속히 통용되어야 했던 국가법은 가족 내에 용인되는 감정적이고 우연적인 법을 발전적으로 지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족의 법은 국가법과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법이 충돌하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 지점을 극명하게 내보이게 된다.³⁷⁵⁾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은 국가법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난 관습적 규범이 유지되고, 그뿐 아니라 관습이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한 지대이기 때문이다.³⁷⁶⁾

이 절에서는 낭만적 정조를 중심에 놓고서 감정과 본능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1920년대 초기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와 개성의 강조는 근대성의 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주관화된 감정이 타인을

375) 헤겔은 '신의 법'에 해당되는 가족의 법이 이성적인 법적 질서의 완성체인 국가법으로 발전된다고 보았지만, 그와 같은 순차적인 발전 도식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서다. 헤겔의 법철학은 가족에서 시민사회로, 이어서 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따른 것인데, 일제 강점기에 의해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근대법은 시민사회의 매개 없이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의 긴장과 대립을 극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저서를 참조. Charles Taylor, 정대성 역, 『헤겔』, 그린비, 2014;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2, 지식산업사, 1988, 449-601면;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임석진 역, 『법철학』, 한길사, 2008.

376) 옹거는 근대적 법체계 속에서 관습법의 효력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가족'을 꼽고 있다. Roberto Mangabeira Unger, 앞의 책, 69-70면.

향한 단죄 행위로 나아갈 때, 전근대적인 법의 세계와 맞닿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가족 내에서 통용되는 관습법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국가법과 대립하는 '가족의 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근대적 법을 매개로 가족 관계와 가족 내부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재편해 나가하고자 하는 국가와 긴장 국면을 보여주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도향의 『청춘』(1920)³⁷⁷⁾은 인륜적 도덕질서와 가족 구성의 새로운 윤리로 부상한 사랑의 대립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결말에서 사랑의 좌절로 낙담한 주인공이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는 장면은 나도향 문학의 본질로 간주되는 낭만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인물의 극단적 행위는 사랑을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진리로 여긴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⁸⁾ 이때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은 정혼과 매매혼으로 대변되는 봉건적 가족제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은 구제도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³⁷⁹⁾ 하지만 이는 다분히 주인공 일복의 입장에서 소설을 읽을 때 도출되는 일면적 해석이다. 청춘 남녀의 사랑이 파국적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여 재독할 때, 봉건적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되지 않는 복합적인 의미를 만나게 된다.

대구은행 안동지점에 근무하는 주인공 유일복은 그 은행의 지배인의 딸이자 대구여자학원 제2호 졸업생인 정희와 정혼한 사이다. 그러나 일복은 정희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우연한 계기로 주막집 여식인 엄양순을 만나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애정갈등이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시발점은 정희의 자살기도다. 정희는 일복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강에 투신하고, 지나가던 여승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한

377) 『청춘』은 1920년 나도향이 19세의 나이로 안동에서 보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쓰인 소설이다. 1926년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유고로 간행되었다.

378) 나도향 문학은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특징인 낭만주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청춘』의 경우 습작의 성격이 짙어서인지 나도향의 다른 작품에 비해 연구자들의 주목을 덜 받은 경향이 있다. 김기영, 「나도향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현실인식」,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박현호,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 『상허학보』 6, 2000; 소영현, 「근대소설과 낭만주의」, 『상허학보』 10, 2003, 78-80면; 심수영, 「나도향 소설 연구: 「청춘」, 「환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0-59면; 오양진, 「낭만적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나도향의 경우」, 『우리어문연구』 19, 2002; 임정연, 「근대 소설의 낭만적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48, 2011, 325-332면.

379) 김기영, 위의 글, 24면; 심수영, 위의 글, 39-41면.

다. 그러나 안동읍내에 정희의 자살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일복과 양순의 사랑은 중국에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양순의 어머니가 일복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제시된다. 빗을 갠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늙은 장돌뱅이에게 딸을 시집보내기로 약조했다는 것, 양반과 상사람이라는 신분의 차이, 일복의 정혼자였던 정희의 자살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중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정희의 자살이다. 이는 일복이 양순과의 혼인을 허락받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어떻든 저는 저의 딸을 아무리 나이 늙은 장돌뱅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아요.』

일복은 다시 살이 에이는 듯한 불쌍한 정과 피가 끓는 듯한 분노가 가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서 가끔가끔 방 안에서 크게 못 하는 가는 양순의 기침 소리를 들을 때 일복은 그 어여쁜 양순을 수염이 짐승의 털 같이 나고 수욕(獸慾)이 입 가장자리와 두 눈에서 낙수지듯 하는 그놈의 장돌뱅이가 이리 발 같은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덤벼드는 듯한 때 악 소리를 치면서 덤벼들어 그놈을 당장에 죽여 흠 없고 깨끗한 양순을 구해 내고 싶었다.

... (중략) ...

『네, 네. 그것은 아무리 나이 젊고 얌전하고 재주 있는 당신이라도 남의 목숨을 끊게 한 어른에게는 드릴 수가 없단 말예요.』

일복의 머릿속에는 번개같이 정희가 보였다. 정희!

... (중략) ...

『동진 씨! 나의 마음을 말하려 하나 그 말이 없고 귀를 가졌으나 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만일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없거든, 줄 수가 없거든 말씀여요...』

일복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사면을 한 번 물끄러미 바라보고서,

『저에게 주지는 않을지라도 제발 오십먹은 장돌뱅이에게는 주지 말어 달라고 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 울었다. 그러려니까 그 어미는 다시 깔깔 웃으면서,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그려. 내 딸아지 당신의 딸은 아니지요. 내 딸은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하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은 별떡 일어나 두 주먹을 쥐고서 어미에게 달려들며,

『이 아귀야! 딸의 피를 빨아먹는 독사야! 너 같은 것들은 모두 한번에...』³⁸⁰⁾

380) 나도향, 「청춘」, 주종연 외 엮음, 『나도향 전집』(하), 집문당, 1988, 84-86면

일복의 벗인 동진의 물음에 따라 양순의 어머니는 딸과의 혼인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말한다. 받은 돈을 대신 돌려줄 테니 혼인을 무르자고 하자, 돈은 바라지 않는다면 신분이 같아야 후환이 없다고 돌려댄다. 그러자 일복은 상사람 노릇을 할테니 허락해달라고 한다. 계속되는 설득에 양순의 어머니는 결국 마음에 있던 진짜 이유를 밝힌다. 아무리 여러모로 일복이 출중한 사윗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든 ‘죄인’과의 혼인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일복을 원망하듯 쳐다보면서 절대 딸을 줄 수 없으며, 차라리 늙은 장돌뱅이에게 시집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단언한다. 딸을 소유물로 여기고 매매혼이라는 악습을 행하는 양순의 어머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는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³⁸¹⁾ 일복은 그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자 더 이상 양순과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그는 정희의 죽음에 대해 ‘법률’이나 ‘양심’의 차원에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성의 보배 중 하나인 인정”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자신이 정희를 죽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³⁸²⁾ 이처럼 일복은 법률과 도덕적 양심보다 ‘인정’을 상위의 가치로 여기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일복이 걱정적 분노를 느끼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양순과 혼인을 이루지 못하게 된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지만 ‘인정’의 차원에서 그 이유를 납득했다. 그러나 일복은 양순의 어머니가 그의 기준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양순 어머니가 장돌뱅이에게만큼은 시집보내지 말아달라는 일복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한 것이다. 일복은 오십이 다 되서 어여쁜 양순을 취하려는 장돌뱅이도, 딸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팔아버리는 양순의 어머니도 모두 짐승 또는 아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일복이 자신이 죽을지언정 이들을 살려두기 싫다고 격분하는 것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그날 밤 일복은 양순과 사랑의 도피를 떠나기

381) 손병희, 「나도향의 소설에 안동이 등장하는 까닭」, 『안동문화』 16, 1995, 143-144면.

382) “물론 내가 법률상으로 죄를 면할 수 있고 또는 양심으로 보아서 내가 허물이 없지마는 인간성의 보배 중 하나인 인정으로 보아서 나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도향, 『청춘』, 앞의 책, 54면.

위해 그녀를 찾아온다. 그러나 일복의 예상과 다르게, 양순은 그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한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장돌뱅이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복은 이러한 양순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인기척을 느낀 양순의 어머니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온다. 이때부터 파란이 시작된다. 걱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일복은 양순의 어머니에게 충을 겨누고, 심지어 양순의 오빠인 엄영록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충을 쏘게 되어 그를 죽게 만든다. 그리고서 일복은 다시 양순에게 함께 이곳을 떠나고자 말한다. 그런데 이때 양순은 지금까지의 우유부단하고 순응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일복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저는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니와…』

하면서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이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그러나 나는 저이를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비록 저이를 잊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이를 따라 갈 수는 없지. 저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죽게 한 이지?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죽인 이지?」

… (중략) …

『네! 저를 이 자리에서 저 우리 오라버니처럼 쳐죽여 주세요.』

… (중략) …

『여보세요, 제가 당신을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며 또는 같이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녜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감보다도 당신의 칼에 죽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나는 남의 사랑을 빼앗어 자기를 복스럽게 하기는 원치 않어요. 당신을 위하여 죽은 이의 사랑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어요.」³⁸³⁾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복이 모든 장애를 불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과 달리, 양순은 사람을 죽게 만든 일복과는 함께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일복이 죽게 한 대상이 '가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양순에게 있어 일복은 그의 아내인 정희와 자신의 오빠를 죽게 한 사람이다. 인륜적 도덕질서를 범으로 여기는 양순은 일복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순과 일복의 차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인정' 또는 '인간의 도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다. 앞

383) 위의 책, 94면.

서 일복이 양순의 어머니를 아귀와 같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포함하여, 일복은 그 나름의 판단기준을 갖고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인권만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희의 죽음에 대해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그녀의 자살을 가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만, 살인과 방화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인간 이하의 행동을 저지른 ‘짐승’을 처벌했다고 합리화하는 일복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복과 달리 양순은 그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희와 자신의 오라비를 죽인 일복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상의 관념을 탈각하지 못했고, 매매혼에도 저항하지 않는, 전근대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양순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문제에 대한 가장 첨예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순은 그녀의 가족인 오빠를 죽게 만든 일복에게 오빠를 죽인 그 칼로 자신 또한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양순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과 도덕을 법칙으로 삼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녀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벗어던지지 못할 정도로 관습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관습에 내재된 도덕관념을 통해 은연 중 인권에 대한 감수성에 도달한 인물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은 관습적 사고에 침윤된 양순이, 근대 교육을 받은 일복과 정희, 동식보다 인권 문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심지어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지키고자 했던 ‘참사랑’의 가치가 이 소설의 핵심 주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는 일복이 양순을 죽이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는 대목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처음 일복은 양순이 자신을 칼로 찔러 달라는 부탁을 듣고 참사랑을 느끼며 감격한다. 그러나 그는 양순을 재차 칼로 찌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와 같은 광기어린 일복의 모습은 그녀의 집에 불을 붙이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이때, 그는 살인과 방화라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죄악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악마의 전당! 요괴의 소굴! 내가 너를 불지른 것이 아니다! 옛날의 소동이 불에 탄 것 같이 너의 운명이 너를 불에 타게 한 것이다.”³⁸⁴⁾ 라는 그의 외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서사 내에서 일복의 사적 징벌은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내

지 않는다. 불길을 바라보는 일복의 모습은, “뜯어먹던 미끼의 흐른 피를 입 가장자리에 흘린 짐승처럼 잔인한 웃음”³⁸⁵⁾을 지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³⁸⁶⁾ 여기서 새삼 상기해야 하는 것은, 이 장면에 이르러 일복이 앞서 자신이 엄준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해선 안 될 행위를 저지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일복의 행위는 극단적으로 사랑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인물이라는 접근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서술자는 근대적 사랑을 추구하려는 인물의 이러한 맹목적 신념을 낙관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가족 구성의 원리로 부상한 근대적 사랑이 현실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윤리의식과 대립함에 따라 그 가치를 스스로 퇴색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을 법률과 관습, 윤리보다 더욱 상위의 가치에 두는 일복의 태도는 정희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복을 향한 그녀의 맹목적인 애정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과,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일복의 앞에서 아내로 인정한다는 말 한 마디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녀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상관없이 일복이 단지 정희를 아내로 ‘인정’만 해주면 된다고 여긴다. 일복은 그녀의 부모가 정해진 남편이지만, 정희는 법률과 인습에 따르는 형식상의 아내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일복을 자신의 자아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희는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복의 사상과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들이 사랑을 서로간의 합의와 소통으로 뒷받침되는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진은 일복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 자

384) 위의 책, 97면.

385) 위의 책, 96-97면.

386) 일복이 인식과 행동에 타인에 대한 경멸과 정복욕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아래 인용 부분은 양순을 찾아갔다가 인기척을 느낀 양순의 모친이 왔을 때, 일복이 충구를 들어 위협하는 장면이다.

“『이 짐승 같은 년, 꿈적 말어. 깝 소리만 해 보아라. 그대로 쏘 터이니.』

어미는 「에구머니」 한 소리에 그대로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떤다. 일복은 이것을 보고서 아까 그 여적의 괴수나 사나운 짐승을 본 듯한 생각은 어디론지 없어지고 땅에서 꿈지럭거리는 지렁이같이 더러웁고 징그러운 중에도 아무 힘도 없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웬일이지 세계를 정복한 듯한 용기와 자신이 생기었다.” 위의 책, 89-90면. (밑줄: 인용자)

살을 시도한 정희에 대해, 배우자로서 굳은 신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습과 법률 어느 준거로도 설명될 수 없는 '정식 아내의 신성성'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이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결혼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관습과 법률이라는 전근대와 근대의 결혼제도가 지닌 형식 자체를 거부한다. 오직 배우자의 '인정'만으로도 아내와 남편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동진의 이러한 생각에 일본은 아내가 애인이 되어야 원만한 가정을 이룬다면서 쌍방향적 사랑을 강조하지만, 양순의 거절에도 거듭 사랑의 도피를 떠나자는 그의 행동은 정의화 동진의 의식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청춘』에서는, 가족에 행사되는 관습과 법률이라는 전근대와 근대의 법칙 양자를 부정하는 인물은 옹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맹목적 신념은 파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양순이야말로 유일하게 긍정성을 잃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륜적 도덕에서 출발하여 타인을 향한 윤리의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지닌 그녀의 태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는 관습과 법률, 또는 이 모두를 방기하든 윤리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일복의 광기어린 사적 처벌을 통해 개인적인 단죄가 긍정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양순을 통해서도 인륜적 도덕의 가치를 드러내고, 일복을 통해서도 사적 처벌을 비판적으로 문제화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해 줄 근대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족 내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복수를 감행하는 인물은, 나도향의 「물레방아」(『조선문단』, 1925.9)에서도 등장한다. 이 소설은 전근대적 구도덕과 풍습이 여전히 온존하는 농촌, 즉 근대적 법질서가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후사를 볼 욕심으로 이방원의 아내를 찢어내는 신치규, 전 남편에게서 아내를 데리고 도망친 이방원, 이와 같은 인물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의 세계에서 부부 및 가족 관계는 법률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방원이 신치규와 아내의 사통을 목격하고서도 이들을 간통죄로 고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방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사법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법적인 처벌보다

개인적인 복수가 훨씬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하에 살인을 결행하는 것이다. 그가 신치규와 아내의 삶에 대해 “그까짓 것들을 살려두어 쓸새업는 인생들”³⁸⁷⁾이라고 평가하면서, 살인의 도구로 쓸 단도를 감격스럽게 닦는 장면을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존재들을 처단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방원의 모습은 『청춘』의 일복과도 겹쳐진다. 그러한 맥락에서 두 소설이 전달하는 주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 인물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순과 아내는 공통적으로 자신과 함께 떠나자는 남자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물레방아」의 아내와 달리, 『청춘』에서 양순은 일복이 징벌해야 할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죽음의 지니는 의미는 다르다. 양순의 죽음은 그가 견지한 윤리의식을 환기하면서, 가족의 범인 인륜적 질서를 긍정하게 한다. 반면 「물레방아」의 아내의 죽음은 빈곤한 삶을 전경화할 뿐이다. 이방원과 신치규, 그 이전의 남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아내는 이들을 ‘부부’와 같은 가족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성(性)을 일종의 교환수단으로 삼아 관계를 이어가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는 데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³⁸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물레방아」는 법이 개입하기 어려운 비제도적인 부부 간의 갈등을 매개로 국가 또는 사회로 대변되는 질서가 구제해 줄 수 없는, 나아가 가족을 구성할 수도 없게 만든 현실의 빈곤함을 적시하는 소설이다.

한편 「J의사의 고백」(『조선문단』, 1925.3-4)은 간통죄를 의식하면서도 법률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도입부에서 주인공 J의사는 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폭로하면서까지 고백 행위를 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힌다.

이글을 쓰라는나는 몇 번이나 주저하였는지 알수가업습니다. 이글은 나의인격을 당신의게 대하여 사사로 나치는동시에 쓰는 나의죄악의기록을 스스로 짓는 것이 되는 것을 알무로 몇번이나 들었든בות을 내던졌는지알수가업습니다. 이글을 쓰라고 결심하였슬째 또 이손에들은 철필촉이 나의신경(神經)을 바늘긋으로 색이는 듯이 싸각싸각하는소리를 내이며 나의쓰

387) 稻香, 「물레방아」, 『조선문단』 11, 1925.9, 13면.

388) 박현호,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 앞의 글, 315-136면.

지안으면안이될글을쓸 때 비로소 나의내면생활(內面生活)에 무슨큰변환이 잇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숙명적(宿命的)으로 이글을 서로받고주는운명을 타고나지안엇슬 것도 나는 현대인(現代人)이라는 관념아래에서 명백히압니다. 또는 내가 이글을 써서 당신에게 바치지안이하야도 나의게 아무 의무나책임이 업슬 것도 법률의관념으로 나는 모르는것이 안이며 도리혀 그것을 회피하지안이하면안될 것도 압니다.

...(중략)...

당신도 이글을 보시면은 새삼스러웁게 놀래실줄압니다. 그리하고 또 S라는녀성이 얼마나 당신에게 원망스러웁고 또는 무서운녀자인 것을 당신도 아시겟습니다. 그러나 그죄는 결코 S에게만잇는것이안압니다. 다부분의책임이『나』라는사람에게잇습니다. 나라고하는사람 만업섯드면 S라는녀성도 그와가튼무서운죄악-사람으로서 사람을 업시한다는 죄악은 짓지안 엇스리라고 생각합니다. 엇지하얏든지 이죄악을 짓게된나로서 이글을 써서 당신의게모든 사실을 자백하야 그죄를 사하는동시에 또는 이『나』라는사람의게도 다소간에 동정함점이 잇는 것을 알려주시기를바라는바압니다.³⁸⁹⁾ (밑줄: 인용자)

그가 고백하려 하는 내용은, 기혼남성의 신분으로 기혼여성인 S를 유혹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수신자로 설정되고 있는 ‘당신’의 정체이다.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로서 이 일을 알아야 한다는 진술로 볼 때, 고백을 듣는 수신자는 S의 남편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설정이 문제적인 것은, 그가 굳이 남편이 알지 못하는 아내의 부정과 그 상대자인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적용되었던 간통죄 조항에서 남성의 경우는 기혼 여성의 간통 대상일 경우에만 처벌받았다. 따라서 미완이라는 점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S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그는 간통죄로 고소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J의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의무를 ‘법률의 관념’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님에도, ‘내면의 윤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자신의 법적 처벌의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J의사는 고백을 통해 ‘당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동정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처벌을 내릴 역할을 ‘당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는 근대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물의 태도는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판가름내리고, 그 죄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를 벌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

389) 稻香, 「J醫師의 告白」, 『조선문단』 6, 1925.3, 2-3면.

어 있다. 나아가 여기 등장하는 법이 간통죄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가장 내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 교섭이 간통죄라는 이름으로 처벌받는 것은 국가에 의해 성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J의사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법의 통제 속에 두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도향의 소설은 전달하는 주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근대적 법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이는 사적인 용서와 처벌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나도향의 『어머니』(『시대일보』, 1925.1.5-4.30)는 앞서 살펴본 소설과 다르게, 비제도적 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 있는 집단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 소설은 첩인 여성이 딸을 향한 모성애와 이성을 향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을 다룬다. 흥미로운 점은 첩이 된 여성, 딸을 첩으로 판 어머니, 첩을 두는 남성과 같이 비제도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춘』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돈을 받고 딸을 판 어머니는 실은 본처가 있는 줄 모르고 ‘속아서’ 혼인시켜버렸다는 사정이 있다. 영숙의 남편은 여러 첩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는 형식적일 뿐, 자신의 참사랑은 영숙 뿐이라는 내용의 연서를 보내기도 한다. 근대소설에 걸맞은 부부 윤리가 일부일처제이며, 많은 소설에서 남편의 방탕과 축첩이 인물의 부도덕함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³⁹⁰⁾ 이와 같은 남성인물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편지에서 사랑은 모든 형식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영숙을 첩으로 둘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토로하기까지 한다. 근대적인 낭만적 연애에나 나올법한 사랑을 절대화하는 순애보가 축첩을 일삼는 남성의 진심어린 고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숙과의 관계에서 춘우와 남편 중에 윤리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다. 이는 영숙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도덕과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못하는 첩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지만, 그와 같은 생

390) 일부일처제와 도덕성을 결부하여 살펴보면,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인물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논의로는, 鄭寅翼, 「女性の透徹한 自覺에 依하여」, 『신여성』 56, 1933.2, 210면. 이 글에 대한 설명은 본론의 II장 2절 참조.

작은 충동적이고 반동적인 욕망으로 묘사된다. 오히려 남편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인정'과 '의리'와 같은 가치의 문제로 등장한다. 공식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남편과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버리고 춘우와 연애를 하는 일이 신의와 절개를 저버린, 일종의 '죄'로 묘사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연애이자, 오히려 당당한 법률상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선택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도향 소설의 인물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한다. 감정과 인정, 그리고 인간 본연의 정신에서 발생한 윤리를 중시하는 인물들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가의 법이 투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흥미로운 점은 법을 대체하는 이와 같은 가치들이 근대법 이전의 세계, 전근대적 법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나도향의 소설은 근대법의 도입으로 가족 질서를 외부적 개입에 따라 규정하려는 현실에서 벗어난 '예외적' 가족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은 소설은 국가법을 비판하는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 나도향 소설의 인물이 사적 처벌을 용인하지 않고 비판적 거리를 형성하는 반면, 김동인은 개인적 차원의 처벌이 본능과 감정의 개입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삶에 보다 가까운 법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동인의 「법률」(『영대』, 1924.12)은 이른바 '문명한 법률'인 현행 법률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김동인은 “朝鮮에서 現行되는, 日本法律과 總督府制令도 똑々이 모르는 筆者”³⁹¹⁾라고 자처하지만, 나름의 기준을 갖고서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형법대전』이 좀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조목을 예로 들면서 부연된다. 처첩의 간통을 보았을 때 그 간부(姦夫)를 살인하는 문제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제495조, 조부모나 외조부모, 남편과 남편의 조부모와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제526조, 동행 또는 동거인이 타인을 모해함을 알면서 막지 않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구호하지 않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그중 김동인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하위항목을 두 가지 덧붙여 인용하고 있는 제495조이다. 작가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

391) 萬德, 「法律」, 『영대』 4, 1924.12, 67면.

함하여 실제 『형법대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通奸을見하고姦夫를殺者는左開에依하야處함이라

- 一 行姦을見하고 姦夫와姦婦를親獲하야登時殺死者는勿論함이라
- 二 姦夫가姦所에서已離함을見하고即時門外에追出하야殺者는苔一白호되 姦狀을의見치 못하境遇에는故殺로論함이라
- 三 姦夫를姦所에서捕獲하얏스나登時에殺치못하고其後에殺者는懲役終身
- 四 通姦함을聞知만하고姦夫를殺死하거나縱容行姦하다가姦夫를殺死하境遇에는并히故殺로論함이라 392)

위의 조항은 남편이 아내(처첩)의 간통을 인지하고서 간부(姦夫)를 죽일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처벌과 관련된 첫째 조항은 간통 현장을 보고서 즉시 죽이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은 아내와 간통한 남자가 현장에서 떠났는데 쫓아가서 죽일 경우는 태형에 처하며, 만약 현장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했다고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인이 예로 들고 있지 않은 나머지 두 항목은,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서 ‘즉시 죽인다는’ 두 조건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로, 이러한 경우 남편의 사적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항목은 『대명률』에 간통조항을 계승한 것으로, “남편의 감정적 분노를 이유로 살인을 정당화한 가부장적 사고의 소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³⁹³⁾ 그런데 「법률」에서 김동인은 법조항에 내포된 가부장적인 맥락은 문제시하지 않고, 오직 피해자이자 곧 가해자이기도 한 남편의 입장과 감정적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 이유는 제법 상세하게 설명된다.

예를들자면, 刑法大全全部를 벗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殘暴하다는 稱을 바든 刑法大全의 모든 條目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密接하게 되어있는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因姦殺死律의 制四九五條의 一部分은, 그것이 얼마나 人情이라는 것을 근거삼고 짜내인 것인지알수있

392) 『형법대전』, 융희2년 4월5일 발행, 122면.

393)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2003, 104면.

습니다. 쪽々하고 正確한지금의刑法에 殺人罪로명々될것이, 刑法大全에서는「因姦殺死律」이라는명목아래서, 사람의 本能的憤怒와 人情을보호하려는 애씀을보였습니다.

長者를傷害或은 不成傷한者是死刑, — 남의危急함을보고 구원치안은者는 笞一百. 모든 것은, 사람의 본능과 공덕과 의리를 근거삼은것이외다. 탁월한 유여가있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지어내이지못할, 아릿다운 인정과 의리가, 그속에 풍부히 숨어있습니다.

세상은 진보합니다. 文明이라는 것이 차々 우리의 삶가운데로 침입합니다. 풍부한 마음의 유여는, 文明세문에 차々쫓겨 나갑니다. 우리는, 그 因果의進步세문에, 탁월한 유여를 가진 「刑法大全」 대신으로, 지금의 쪽々하고, 좁쌀스러운 새로운 法律에 복종치아늘수 없게되었습니다.

넛적法律은 사람의게 附隨되어 이섯는데, 지금은 도리혀 사람이 法律에 附隨되었습니
다.³⁹⁴⁾

김동인은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형법대전』의 조목을 인간의 본능과 인정을 보호하기 위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내의 간통을 본 남편의 살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찬동에 다름 아니다. 그는 “쪽々하고 正確한지금의刑法”이 남편의 개인적 감정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殺人罪로명々”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의 고저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관적 처벌을 용인하는 법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근대법은 김동인에게 있어 인간의 삶과 거리가 먼 법인 것이다. 김동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의 법은 “本能的憤怒와 人情”과 “본능과 공덕과 의리”가 사라졌다. 그가 이상으로 삼는 법의 형태는 사적 처벌을 인정하는 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김동인의 주장이 문제적인 것은, 본능적 감정으로 촉발된 살인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인권과 생존권이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⁹⁵⁾

김동인의 법률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전적으로 반영된 소설이 「유서」

394) 위의 글, 68-69면. (원문의 문단 사이에 두 차례 기재되고 있는 기호 ※를 인용문에서 생략했음을 밝혀둔다.)

395) 김경수, 「김동인 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구보학보』16, 2017 참고; 한편, 이지훈은 이 글에서, 김동인이 재판을 통한 판결로서 효력이 생기는 근대법의 속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이지훈,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42, 2014, 369면.

(『영대』, 1924.8-1925.1)로, 작가 스스로 “강렬한 東仁味를 발견”³⁹⁶⁾한 작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소설은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화가 O의 괴로움을 본 중매자이자 그의 재능을 아끼는 ‘나’가 간통 사실을 확인한 후 자살로 위장하여 봉순(O의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넷적과가치, 一門이 몽치를들고 나서서, 두년놈을 처죽일수도 업는바—며, 그들의 간통의 증거를 잡어서, 검사국에 고소를 하자니, 그것도또한 O의명예를 위하여 못할일이 아닌가.

아니, 원수는 그만 두고라도, O를 이전과가튼 어린이로 다시 만들수가 잇다하면, 그것뿐이라도 하여야겠다.……

나는, O의 傷心한 여원 얼굴을 드러다 보면서, 언제던, 그뒤에서 비웃는 A氏와 O의 안해의 얼굴을 보았다. 그럴때마다, 나는 속으로 부르지졌다 —

「O, 기다리게. 하누님은, 올흔자를 구원한다네. 설혹, 하누님이 못구원한다 할지라도 이 OO는, 꼭 구원해 주세. 마음노코 기다리게. 다만, 時期네, 時期야. 엑, 짐생들.’³⁹⁷⁾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은 봉순과 A의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나듯, ‘나’는 간통죄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법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핵심은, 과거의 법은 현장을 급습하여 아내를 살해할 수 있는데,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고, 검사국에 고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나’가 특별히 의식하는 부분은 고소를 하는 것이 O에게 불명예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기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간통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이 고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친고조항은 피해자인 남편이 자신의 명예 또는 이해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도록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남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러한 항목에는, 결국 아내를 남편의 통제 아래 두게 하려는 의도가 내재한다.³⁹⁸⁾ 이와 같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나’는 O가 직

396) 金東仁, 「朝鮮近代小説考(十四)」(『朝鮮日報』, 1929.8.15.), 『김동인 전집』16, 조선일보사, 1988, 33면) 김윤식은 김동인이 언급한 ‘동인미’를 인형조종술이 철저하게 행사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244-245면.

397) 김동인, 「遺書」, 『영대』 5, 1925.1, 167면.

398)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에 오욕”을 당한 일을 세상에 유포하여 또 다시

접 고소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3자인 자신이 직접 O의 아내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근대와 근대 법에서 간통죄는 처벌 강도와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때, 제3자인 '나'가 봉순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근대와 전근대의 법에서도, 그 법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 차원의 윤리적인 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봉순과 그녀의 상간자(相姦者)인 A를 짐승과 다름없는 하찮은 인생으로 여긴다. 그들을 죽여서라도 예술가인 O를 지키는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들을 벌주려는 '나'의 행위는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집요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수행된다. 이는 본능과 인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의 논지와 다소 상치되는 면이 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차등적 시선과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뿐이다.³⁹⁹⁾ 이러한 맥락에서 이 소설이 합법적인 아내의 부정을 그렸다는 점은 새삼 주목을 요한다.⁴⁰⁰⁾ '나'가 봉순을 교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O의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여성 이전에 아내라는 이유로 사적 처벌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물의 내면성 부재는 역으로 남편과 달리 본능을 억압해야 했던 아내의 삶을 상기시킨다. 근대와 전근대를 막론하고 간통죄와 같은 조항에서 감정을 표출할 권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부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서」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차등적으로 그리고, 이를 암암리에 승인했던 작가의 (무)의식이 투사된 소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도향의 소설이 현실을 구속하는 법률의 의미를 환기하거나 범죄를 통해 법 또는 윤리의 문제를 되새기게 한다면, 김동인은 법률로 통제될 수 없는 본능과 악을 형상화하는 데 치중한다. 또한 나도향 소설에서 여성인물의 죽음은 각각 나름의 주제를 제시하며 현실의 경종을 울리지만, 「유서」의 경우 개인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 이상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명예를 훼손하는 이중의 피해”를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간통 사건 피해자인 남편이 자신의 “명예와 이해를 위해” 처의 간통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홍양희,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식민지시기 “간통죄”와 성(Sexuality) 통제」, 앞의 글, 323-324면.

399) 김경수, 「김동인 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앞의 글, 299면.

400) 정혜영, 「김동인 문학과 간통: 단편 〈遺書〉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7, 2006, 25면.

2. 법 현실을 통찰하는 개인과 재산 상속의 의미

염상섭은 식민지 시기 어느 작가보다 가족법 문제를 소설 속에서 여러 차례 서사화했던 작가이다.⁴⁰¹⁾ 특히 이 시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가족법 문제가 주로 부부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가족 집단 전체와 식민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세전」(고려공사, 1924)은 식민 권력에 포획되어 가는 조선의 현실을 가족을 매개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 재현된 가족은 근대와 전근대 어느 한편으로 수렴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한다. 조선의 공동체인 문중 가족이 병합 이후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꺾진하게 묘사함으로써, 가족과 개인의 관계가 식민 국가의 개입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세전」은 전근대적 가족공동체가 국가에 의해 법적 가족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맞물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신분이 등록됨에 따라 감시와 동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개인의 모습을 밀도 있게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⁴⁰²⁾

그간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이인화의 인식 변화는 관부연락선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그 시점은 이인화가 배에 오르기 전 대합실에서 형사의 심문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이전까지의 여정에서 보여준 인물의 내면을 통해 단적으로 나타난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인화는 자유, 자기해방 등 인간 존재의 본연적인 문제

401) 예를 들어, 「해바라기」에서 영희는 결혼 문제에 있어 현행 법률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꼬집으며, 「진주는 주었스나」에서는 사실상 중혼에 해당하는 문제가 법률에 의해 제재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남녀 차별적인 간통죄 조항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사실혼 관계와 축첩이 양산되는 현실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402) 지금까지 「만세전」의 연구는 상당히 많은 양이 축적되었고, 그 관점 또한 다채롭다. 그 경향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민족의 참혹한 실상을 꺾진하게 그린 수작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식민지 현실을 바라보는 주인공 이인화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가 도출되었다. 이인화가 식민지 현실을 인식했는가, 아니면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데 천착했는가라는 문제로 나뉘어져 왔다. 또한 두 가지 경향이 이인화에게 모두 내재해 있으며, 그의 내면에서 양자가 분열되고 있다는 논의도 제출되었다. 한편 이 절에서는 가족과 개인,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세전」을 재론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출된 다음과 같은 연구는 이 논문의 중요한 시사점이 되었다. 김향, 「식민지배와 민족국가/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에 대하여: 『만세전』 재독해」, 『대동문화연구』 82, 2013.

에 골몰하며 일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감정의 정체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분명히 제시되진 않지만, 이인화는 자신의 이 번민이 조선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통된’ 기질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이인화의 내면이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해서부터이다. 연락선에 오른 후 그는 펄박 받는 조선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고, 그의 머릿속은 구체적인 조선의 문제로 채워진다.

下關에 到着하면 그머리쌀압흔 依例히하는승강이를받기가 실키에, 배로 바로드러갈까하얏스나, 배에는 아즉 드리지안는模樣, 나는 하는수업시 待合室로 드러갓다. 변도나 살까하고 賣店압해가서 섯스라니까, 어느틈에 벌서 눈치를 채엇든지, 임바네쓰를입은낫서투른 親舊가와서, 帽子를버스며, 國籍이, 어드냐고묻는다. 나는 암말아니하고 한참치어다보다가, 名銜을 쓰내서 내밀고, 勲章 가게로 도라서버렸다

「本籍은……?」

「내 名銜을 바다들고, 내가 勲章을 다—하기까지, 기대리고잇든 임바네쓰는 쯔 괴롭게 군다.⁴⁰³⁾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은 이인화가 연락선에 오르기 전 형사의 심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형사가 이인화에게 ‘국적’을 묻고, 이인화가 대답의 차원에서 명함을 건넸음에도, 다시 이인화의 ‘본적’이 어디인지 추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본적(本籍)은 실거주지가 아닌 호적 작성 당시의 소재지를 말하는데, 이인화가 ‘일본 국적을 지닌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징표가 된다.⁴⁰⁴⁾ 형사는 이인화에게 그의 본적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조선인과 내지인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이 있음을 직시하게 한다.⁴⁰⁵⁾ 이는 법이라는 인위를

403) 염상섭, 『萬歲前』, 고려공사, 1924, 48-49면.

404) 본적(本籍)은 1909년 민적법 시행으로 호적제도의 도입과 함께 만들어진 개념이다.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법률적인 가족으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조선 시대에는 족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호적은 국민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이로부터 가족은 법률상 공식적으로 국가의 하부조직이 되었다. (홍양희,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研究 :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앞의 글, 18, 34-36면) 이승일에 따르면, ‘본적(本籍)’이란 용어는 민적법 시행 이전인 1905년 무렵부터 일본의 영향으로 점차 사용되었다. (이승일, 앞의 책, 226면.)

405) 본적은 개인의 뿌리를 상기시키는 징표로, 식민지 시기 지역적(地域的)의 이동의 부자유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을 해 주며, 피식민주체를 만들어내는 기제

통해서는 일본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장면은 본적이 기재된 호적이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호적에 등재된 본적지는 국가가 가족을 통제할 지역을 지정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형사들의 심문 과정은 국가의 등록시스템에 포착된 식민지 조선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식민지의 촘촘한 감시체계는 호적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족을 호적을 단위로 한 법률상의 가(家)로 전환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인화가 배에 올라 관찰하게 된 조선 민족이 ‘권리를 상실한’ 존재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찡찡하게 묘사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탑승 기점부터 권리 부재의 존재로 호명된 이인화가 자신과 같은 존재를 향해 시선이 머무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의 현실을 본 이인화의 분격에 찬 모습은 부당한 현실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반동적 심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권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감정은, 곧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만세전」에 접근할 때, 이인화의 가족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의 시도는 새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인화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가족은 전근대적 가족만이 아니라 총독부 정책에 따라 달라진 당대 가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묘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변화이다. 선행 연구에서 아내를 공동묘지에 묻겠다는 이인화의 의지는 조선의 매장과 장례문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전근대적 가족제도를 개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식민자의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되었다.⁴⁰⁶⁾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식민자의 시선’을 통찰하고 있는 그 다음의 층위이다.⁴⁰⁷⁾ 다시 말해, 이인화는 식민지 정책에 의해 변화

가 되었다. 이 문제가 동화의 실질적 장애로서 지식인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일제말기에 이르러서인데, 그보다 훨씬 먼저 그 문제를 포착하고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현실인식과 통찰력을 잘 보여준다.

406)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묘지와 “신석현(新湍縣)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7, 2001 ; 한만수, 「「만세전」과 공동묘지령, 선산과 북망산: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39, 2010.

407) 최근 김향은 염상섭의 계급적 시각의 투영으로 식민지가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

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식민자의 시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시대 가족의 전근대적 면모가 이미 허울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인화와 김천 형님의 대화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이 이해하는 가족은 모두 식민 정책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된 가족과 다름이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동묘지를 주제로 한 형제의 대화 부분이다. 표면상 두 형제의 의견 대립은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서 촉발된 것 같지만, 사실상 두 인물의 관심은 토지가 지닌 자본의 성격에 있다.⁴⁰⁸⁾ 이들은 이미 문증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적 토대이자, 가족공동체의 정신적 의미를 고취하는 묘지의 상징성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에게는 묘지가 사유화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된 그 땅을 위조해서 팔아넘긴 친척이 문제이다. 즉, 문증의 재산이 해체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체된 재산의 소유가 관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세전」은 식민지 정책에 따라 탈바꿈되고 있는 가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그와 같은 가족의 변화를 응시하는 이인화의 태도는 식민자의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인화가 가족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가족이 주는 혜택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 생활을 위한 비용을 원조 받기도 하고, 아들을 양자로 맡겨도 될 입후제도가 있어 가족의 구속을 받지 않고 홀로 떠날 수도 있다. 가족은 이인화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내의 죽음은 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가족으로 대변되는 식민지 조선을 비판적으로 매개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띤다. 이인화는 조선의 가족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응시하지만, 그 가족을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으면서, 그 내부에서 가족의 부정성을 폭로하는 존

에서 고통받는 무산층의 문제를 배제/소외시켰다는 한만수의 논의(한만수, 위의 글, 132면)에 대해 반박한다. 김향에 따르면, 이인화에게 선산과 공동묘지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는 오직 매장 문화 자체에 회의를 보이는 인물인 것이다. (김향, 앞의 글, 23-25면.)

408) 조선 시대 선산과 위토는 문증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적 토대였고, 종중의 소유로서 개인의 소유할 수 없는 불가침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총독무 묘지 정책에 따라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토지는 매매 대상이 되고, 이로써 가족공동체의 물적·상징적 기반은 소멸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의 변화와 관련된 선산과 위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훈, 「祭祀用財産의 承繼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고.

재인 것이다. 전근대적 가족과 식민권력에 의해 변화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이러한 개인의 위치는 염상섭의 다른 소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⁴⁰⁹⁾

「만세전」의 이인화가 가족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놓인 인물로서 가족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데 머무른 인물이라면, 이후 전개되는 소설 속 인물들은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단편 「난 어머니」(1925)는 각별히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출생과 같은 본원적 요인보다 재산과 호주라는 지위가 갖는 힘이 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동경유학생인 종호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다. 이때 그의 내면을 차지하는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상속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그의 생모의 정체를 아버지에게 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종호에게 '난 어머니'의 정체는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적이에요 절실한 자기 일생의 뼈에 사모친 커다란 수수꺼끼”⁴¹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호에게 금고의 열쇠는 이 비밀의 열쇠에 비할 때 부차적이다.

그런데 종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여 그 물음이 직접적으로 해소되지 못했음에도, 종호는 지금까지의 번민이 일시에 해소될 만큼의 감정적 변화를 느낀다.

종호는 귓결에 들은채 만체하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설은지 기쁜지 자기마음을 지향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도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든지」라는 말이나, 「데려 올 사람은 데려 오게 내버려두세요」라는 그말이 반가운 것 보다는 불시에 눈앞에 만세상이 탁 터진것같은 시원한 생각이, 놀라움과 함께 가슴속을 빼근히 쪼개는 것 같아서 마음을 지향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발상(發喪)에 종호는 누구보다도 설게 울었다. 철 난 뒤로부터 어머니를 찾던 설음을 마지막 씻어버리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커다란 감격의 파동이였다. 그와 동시에 부친에 대한 애통(哀痛)과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였고, 모친의 심중을 동정하는 눈물이기도 하였다.

409) 이와 같은 이인화의 태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는 사랑한다는 관념이 극단에 가서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며, 부부 간 사랑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회의를 보인다. 이는 사랑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 결합에 이르는 당대 팽배했던 신가정 담론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인화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고자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10) 염상섭, 「난 어머니」, 『염상섭 전집』 9, 민음사, 1987, 183면.

누이들에게도 감사와 새로운 우애를 느꼈다.⁴¹¹⁾ (밑줄: 인용자)

발상에서 종호는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운다. 그 까닭은 어머니를 찾던 설움을 씻어내려는 마음과 구별되는 “커다란 감격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그 감정의 정체를 구성하게끔 한, 종호가 마주한 ‘불시에 눈앞에 펼쳐진 판세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부친의 임종을 전후로 종호를 대하는 태도가 전적으로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통해 묘사된다. 항상 모친의 역성만을 들던 누이들이 종호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서모는 자신의 견해를 느닷없이 드러낸다. 모친은 예전과 다르게 자신이 홀대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역정을 내기도 한다. 요컨대, 종호가 그의 삶의 가장 큰 비밀이자 설움이었던 ‘난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그만두게 된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혈혈단신”, “고독한 자기 신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들의 태도 변화는 종호가 이제 이 집안의 ‘금고의 열쇠’의 주인이 된 데서 기인한 것이지만, 종호는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기보다는 감정적 차원의 변화를 느낄 뿐이다.⁴¹²⁾ 이처럼 「난 어머니」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본능과 감정적 차원보다 우위에 놓이게 된 재산관리자로서의 호주의 지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객관적 어조로 담담하게 서술하며 어떠한 가치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개인과 가족의 관계 설정에 대해 작가의 견해가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은 『광분』과 『삼대』와 같은 장편소설에 이르러서이다.

한편 염상섭은 산문과 같은 비허구적 텍스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당대 조선 가족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 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마치 주종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문제시했다. 또한 조선 시대 삼강오륜과 같은 도덕이 부르주아적 원칙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그의 판단은 나아가 조선 사회에 나타나는 상속 문제 등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중류 이상의 상류계급 가족에서

411) 위의 글, 191면.

412) 물론 서모의 갑작스런 변화에서 그가 종호의 생모라는 점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소설 내에서 종호는 서모의 행동을 의아하게 느낄 뿐, 서모의 행동 변화를 자신의 존재와 결부시켜 이해하지 않는다.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⁴¹³⁾

무지극악한 촌부의 본부 독살이라는 사실이 자유연애라는 신경향 신풍조의 모더니즈한 현상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구도덕, 구가족제도의 여폐라고 할 것인가? 지금은 보도기관과 경찰, 사법의 활동이 민활하기 때문에 다만 그와 같은 사건이 비교적 많이 세간에 알려어지고 처벌될 따름이지, 그러한 기관과 기능이 유치한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전율할 사실이 유아무아문에 연출되었을지 누가 알랴. 그는 고사하고라도 고부간의 암투, 시누올케의 반목, 시앗싸움, 계모의 전설 자식 구박 같은 가정적 대소 비극은 아직도 도처에 구경할 수 있는 것이다.⁴¹⁴⁾ (밑줄: 인용자)

인용문은 1929년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작품의 명암」이란 글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염상섭은 최근 일어나는 가족 내 범죄 행위의 원인을 구습에서 찾아야 할지, 아니면 신사상의 영향으로 봐야할지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다. 물론 보도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가정 내부의 사건들이 공적 영역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언급을 통해 과거에는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관심은 과거와 현재 중 어느 편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왜’ 여전히 그와 같은 가정 비극이 빈번하게 나타나는가에 있다. 한편 같은 글에서 염상섭은 조선소설의 특수성을 가정비극의 계통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염상섭이 유독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빈번하게 서사화했던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가정비극이 현재까지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이 전근대적인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른바 가족 서사에 해당하는 염상섭의 소설은 과거를 현재적으로 계승하면서 동시대의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작가의식이 산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대표적인 작품이 『광분』(『조선일보』, 1929.10.3-1930.8.2)이다. 이 소설은 계모와 전설 가족의 갈등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작품의 명암」에 나타나는 작가의 문제제기와 가장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 민병천의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413) 염상섭, 「지상선을 위하여」, 『염상섭 문장 전집』 1, 소명출판, 2013, 210면.

414) 염상섭, 「작품의 명암」, 『염상섭 문장 전집』 2, 소명출판, 2013, 49면.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은 계모 김숙정과 전처소생의 만딸 민경옥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계모형 가정소설로 분류되는 고소설 「장화홍련전」을 떠올리게 한다.⁴¹⁵⁾ 이러한 특징적인 면과 앞서 살펴본 산문을 고려할 때, 『광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또는 현대적으로 변형된 계모와 의붓딸 사이의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던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당대 신문매체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기사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일별해 보면, 갈등 원인은 주로 계모의 천성으로 지적된다.⁴¹⁶⁾ 이를테면 계모와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달리 효(孝)라는 윤리가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계모가 인정과 의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모를 진정한 부모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계모의 일방적인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만약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할 경우, 되레 반항심이 생겨 참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⁴¹⁷⁾

이와 같은 기사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모의 성품에서 사건의 발단을 찾는다는 점에서 가족제도 내에서 주변화된 그들의 위치를 선명히 보여준다. 후처이긴 하나 법적으로 정당한 아내이고 어머니이지만, 비합법적인 존재인 첩과 거의 유사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⁴¹⁸⁾ 이처럼 계모와 전처소생과의 갈

415) 김양선은 이 소설이 고소설의 주된 갈등을 근대적으로 변형했다고 평가한다. 선악의 구도가 뚜렷하여 권선징악의 주제를 띠지 않는 점, 대립구도에 있는 인물 모두가 전형적이지 않고 각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소설과 다른 특성을 띠었다고 보았다. 김양선, 『『광분(狂奔)』 자세히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 2001, 95면.

416) 「惡毒한 繼母의」, 『동아일보』, 1924.7.15.; 「前室子息 눈을 빼는 惡毒한 繼母」, 『동아일보』, 1924.7.14. 계모의 학대가 전처소생의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 사법기관 또는 경찰의 개입이 등장하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前妻所生과 繼母의 虐待」, 『동아일보』, 1927.6.30-1927.7.1; 「疑問의 小兒屍」, 『동아일보』, 1927.3.3. 사회문제가 되어서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강조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계모를 마치는 이와 계모가 되는 이」, 『동아일보』, 1928.1.31; 「前妻의 子息을 못에 밀어 너허」, 『동아일보』, 1929.5.28.

417) 「朝鮮人 家庭缺陷의 一例」, 『동아일보』, 1927.8.29.

418) 심지어 『동아일보』의 가정 관련 상담 코너인 「가뎡고문」에는 이와 같은 글이 실리기도 했다. 모르고 시집갔다가 후처가 된 여성이 남편과 전처의 자식들을 사랑으로 대했음에도, 일 년 정도 지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자신을 학대한다는 고민을 보내온 것이다. 이와 같은 곡진한 사연에도, 상담자는 그 여성이 노력을 덜 해서 그렇다고 답변한다. 「가뎡고문」, 『동아일보』, 1929.1.30.

등을 논한 기사들은 조금씩 상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두 계모에게 찾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광분』은 계모가 전처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을 서사화하면서도, 그 과정과 까닭이 대중매체에 실린 기사들과 변별되는 점이 있어 흥미롭다. 계모인 숙정이 살인 공모라는 죄를 저지르게 된 주된 동인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민병천의 후처인 숙정은 집안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숙정은 민병천의 법적인 아내이면서도, 조강지처가 아닌 후처인 자신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를 첩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⁴¹⁹⁾ 이와 같은 숙정의 불안은 후처가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산의 상속분할권을 가진 민병천이 숙정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만딸 경옥을 유다르게 아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숙정이 머무르고 있는 양관을 폐지하라고 거듭 주장하는 경옥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계모인 숙정은 그 불안이 극대화되어 경옥의 살해에 가담하게 된다. 이 소설은 범인을 수색하는 길고긴 과정을 거쳐 진범으로 밝혀진 숙정과 변원량이 경찰에 잡히게 되면서 끝이 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새삼 주목을 요하는 것은 민병천의 태도이다. 그는 경옥과 숙정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고 아내와 변원량을 범인으로 의심하면서도 이를 끝끝내 감추려고 한다. 가장 사랑했던 딸이 죽었음에도, 그는 체면과 가문, 숙정과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 경옥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비밀이 덮여지길 바라는 것이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이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체포되는 『광분』의 결말은 염상섭의 다른 소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특히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숙정이 식민 권력의 하부제도인

419) “남편의 사랑과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든든한 것인가? 또 자기 용모가 어느 때까지 이만치라도 보존될 것인가? 첩이라는 것을 마지막 것까지 영영 떼버리게 하느라고 십여 년 동안을 두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또는 전실과 그렇게 유난스럽게 의가 좋았고 자기에게도 것처럼 하면서도 첩을 몇씩 두던 그 버릇이 늙었다고 아주 없어졌을까? 아들 못 낳는 것이 인제는 자기의 탓이요, 또 기력도 이전만 못하니까 사오년래로 압전해진 것이지만 지금인들 쉬쉬하고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 일인가? 조강지처라면 또 모를 일이요 앞에 돈이 없다면 모를 것이다.” 염상섭, 『광분』, 프레스21, 1996, 231면.

경찰에게 잡혀가는 과정이 민병천의 집이 몰락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경찰은 범법자를 연행하는 정의 구현자라는 의미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을 조선 사회의 유비로 읽을 때, 민병천의 집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를 바로잡는 문제가 온전히 공권력에 위임되고 있는 결말을 의미심장하다. 국가에 의해 가족이 완전히 통제·관리 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삼대』(『조선일보』, 1931.1-9.17)는 유산 상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광분』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가족집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축이 되는 조덕기라는 인물로 인해 『광분』과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소설은 조부인 조의관, 아들 조상훈, 손자 조덕기로 이어지는 삼대(三代)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세 인물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관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렇기에 이들의 갈등은 단지 가족 내부의 문제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히 알려진 바이다.⁴²⁰⁾ 그런데 상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세 인물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다. 조의관의 첩인 수원집으로, 사실상 조의관이 죽게 된 직접적 원인을 그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물이 환기하는 의미는 간과될 수 없다.

유산 상속의 문제를 살피기에 앞서, 이 소설의 흥미로운 점은 등장인물 대다수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법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홍경애와 조상훈이 딸 정례의 민적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겠다. 홍경애는 민적 문제 해결과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다. 학교를 입학하거나 혹은 죽게 되어 매장하게 되더라도 법적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훈은 법적으로 자식은 아버지 소유라면서 정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홍경애는 정조유린죄, 위자료,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면서 맞선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이 나며 상훈과 경애는 그들이 겪은 부당함을 법을 수단삼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의경은 민적에 오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처가 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조의관의 첩인

420) 이재선, 앞의 글; 최시한, 앞의 글.

수원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주장하여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 하진 않는다.

이러한 인물의 특성은 유산 상속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상훈은 장자인 자신이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덕기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는다. 이는 조의관도 마찬가지다. 조의관은 병상에 누워서 전보를 쳐도 오지 않는 덕기를 기다리면서, 상훈의 방해로 손자가 오지 않는다는 면서 아들을 금치산자로 선고하겠다는 폭언을 한다. 그러나 아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이와 같은 방법을 알면서도, 조의관은 상훈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지 않는다.

한편 수원택은 유산상속 문제에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를 더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녀는 조의관의 독살 음모의 가담자라는 점에서 조씨 집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조의관의 세 가지 오입 중에서도 수원택을 첩으로 들인 일이 단연 손에 꼽히는 오입이 된다.⁴²¹⁾ 그런데 이 인물이 가정 내 위치와 법적 위치는 동일하지 않다. 소설 내에서 수원택이 조의관의 '첩'이라는 사실은 여러 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그녀는 안방을 차지하고, 집안 내 가사권을 장악하려는 욕망을 내비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수원택은 조의관의 신뢰를 얻게 되고, 그녀를 경계하지 않게 된 조의관은 결국 비소 중독으로 죽게 된다. 첩 신분인 수원택이 조씨 집안의 재산을 빼앗을 방법은 이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삼대』의 갈등과 사건 전개의 초점은 재산 상속 문제에 있다. 조의관은 유언을 통해 손자 덕기에게 상속을 하면서 조씨 일문(一門)의 계승을 부탁한다. 한편 아들인 조상훈은 가독상속자의 위치로서 법률상의 상속권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상훈이 소송이 아닌 금고를 터는 범죄 사기극을 자행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덕기의 상속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조상훈을 범죄자로 만듦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박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유산상속자는 조덕기여야만 하는 것일까.

조의관이 조상훈이 아닌 조덕기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이유는 서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듯, 조상봉사와 가문의 지속과 같은 문제 때문이다.

421) 김승민, 앞의 글, 107면.

그러나 조덕기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조부의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더 높은 조상훈보다 조덕기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크며, 이러한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줌에 따라 덕기의 상속자로서의 정당성은 더욱 강조된다. 덕기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 것이다. 또한 덕기는 부자간을 비롯하여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는 뜻이 맞지 않아 집을 나온 병화에게 부자간은 이론적 차이로 대립할 사이가 아니라 인륜적 관계라고 말한다. 흥경애가 낳은 배다른 동생을 ‘한 핏줄’로 여기면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조상훈이 자신의 자식임에도, 병을 앓고 있는 참에 차라리 죽길 바랐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다. 또한 덕기는 경찰서에서 취조받을 때도 부친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볼 때, 덕기가 유산을 상속하는 의미는 명확해진다. 그는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가문과 돈만을 쫓는 인물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난 어머니」의 종호가 인륜보다 재산과 권위의 힘을 발견한다면, 『삼대』의 덕기는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문중의 질서, 물질적 부, 그리고 가족 내 권위자로서의 위치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에게 이 가족을 지탱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인륜적 도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언뜻 보면 가족중심적으로 보이는 덕기의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까닭은, 그가 견지한 도덕이 필순과 병화와 같은 이들을 향한 지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덕기는 전근대적 가족이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그 봉건적 성격을 버리고, 도덕의 구현체라는 가치만은 견지하려고 하는 인물이다. 『삼대』의 가족이 『광분』에서와 달리 식민지공권력의 조사와 침입에도 완전한 파탄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덕기와 같은 인물이 존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처럼 『삼대』의 상속자 조덕기는 유산을 향한 욕망에 추동되어 비법적인 행동을 하는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가족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덕기가 가진 혈연에 근거한 도덕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흥경애와 그의 자식을 가족으로 품고,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필순의 가족과 친구인 병화를 돌보게 하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덕기는 가족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의 질서를 그 밖으로 확장하는 인물인 것이다.

3. 계급의식을 내면화한 여성과 가족의 의미 재인식

근대법의 등장으로 비로소 여성은 법률 앞에 사람이자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떠나 당대 지식인들은 여성이 법률에 의해 과거의 봉건적 가족 속에서도 존중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긍정적 변화 속에서도 예외적 존재가 있었다. 바로 '혼인한 여성'이다. 기혼 여성은 관습이 아니라 근대법에 의해 법률상 무능력자로 지정되었고, 부권(夫權)에 철저히 종속된 존재였다.⁴²²⁾ 호주권으로 지칭되는 그 권리는 무형의 권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가족의 거처를 지정하고, 혼인과 양자 입양 및 서자와 사생자 입적과 같이 가족구성원의 범주를 확정하는 데도 동의권을 갖고 있었다.⁴²³⁾ 이와 같이 당시 가족법상 기혼 여성은 법률상 모두가 평등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인권에 기초한 근대법에 내포된 한계는 계급 담론이 수용되고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물사관에서의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가진 논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인권 개념의 허구성을 고발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을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로 보면서 인권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⁴²⁴⁾ 그런데 이는 단순히 부르주아 가정을 비판하는 서구 이론의 소개에 머물지 않았다.

모든 資本主義國家에서는 婦女子의社會的地位 男子의 그것에比하여 甚한差別이잇거니와 今 日의朝鮮에는 特히이것이甚하다. 첫째로 女子는 法律上에잇서서 未成年者나또는禁治產者와 똑가튼待遇를받는다. 男便잇는女子는 男子의承諾이업시 남과契約할權利가업고 財産을處分 할權利가업고 子女에게 對하여 男便과同等的親權을 行使하지못한다.⁴²⁵⁾ (밑줄: 인용자)

422) 기혼 여성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와 같이 법률상 무능력자에 해당했다. 滄海, 「現代 法律과 女子의 地位」, 『신여성』 36, 1931.6, 22-25면;

423) 玉滄海, 「現代 法律과 女性의 地位」(續), 『신여성』 40, 1931.10.

424) 「朝鮮女子의 社會的 地位」, 『신여성』 20, 1925.10 ;

425) 梁明, 「婦女子의 社會的 地位- 「唯物史觀으로본婦女子의社會的地位」其一, 『신여성』, 1926.2, 9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유물사관으로 조선 부녀(婦女)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는 논자들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극심한 지위 차이 문제가 조선 사회에서도 나타난다는 의견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차별을 가장 공고하게 하는 첫 번째 지점이 법적 지위의 차이였다. 기혼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 주체적으로 계약할 권리도, 재산을 처분할 권리도 없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위 글의 필자인 양명(梁明)은 조선의 무산부인의 소외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민족주의자는 조선 민족을, 사회주의자는 조선의 무산대중을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인구의 절반인 조선 부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베벨을 인용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나 지력적인 면에 있어서나 부족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여성은 오랫동안 '가정'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 자체가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담론의 수용은 '자연'에 근거해 여성을 가정에만 머물게 했던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근대법 사상을 향한 비판이기도 했다. 양명을 위시한 조선 가정을 비판하는 논자들은 근대적 인권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들은 소유권으로부터 시작해 '부자유로부터의 해방'만을 보장하는 근대적 인권 개념으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방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자유로부터 소외된 이들은 자유로운 세계에 진입 자체가 관건인데, 근대적 인권 문제는 이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⁶⁾ 그리고 자유로부터 소외된 조선의 대표적인 무산자가 바로 조선의 부녀(婦女)였다.

이와 같은 담론적 현실 속에서, 조선사회에 수용된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시대적 함의 또한 달라졌다. 1920년 전후 개조담론과 더불어 여성 해방과 자아 각성의 해방을 의미하는 상징적 존재인 '노라'는, 1930년대 계급담론과 만나게 됨에 따라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의 주체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나서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⁴²⁷⁾ 다시 말해, 1920년대 노라가

426) 이상돈, 『인권법』, 앞의 책, 42-43면.

427) 입센 수용과 관련해서 채만식의 소설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미지, 「〈인형의 집〉 '노라'의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30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용된 '노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2; 안미영, 「한국 근대소설에서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 『비교문학』 30, 2003; 정선태, 「『인형의 집을 나와서』: 입센주의의 수용과 그 변용」, 『한국근대문학연구』 3-2,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아해방의 표상이었다면, 1930년대 노라는 집을 나오고서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존재였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조선의 가정을 지탱하는 식민지 가족법 자체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심훈의 『직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당시 널리 수용되었던 사회주의의 영향 속에서 노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⁴²⁸⁾ 계급 문제를 다루면서도 도식적인 주제 전달로 나아가지 않게 한 동인은 이 소설이 식민지 조선 부인의 현실을 꿰뚫히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라’와 ‘인숙’ 두 여성인물이 겪는 수난과 역경은 식민지 조선의 공간을 누비면서 펼쳐진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모순적 방식으로 적용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채만식은 초기작부터 가족제도의 문제를 반복하여 그렸던 작가이다.⁴²⁹⁾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만을 향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 초기 단편들에서도 그와 같은 면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처녀작 『과도기』(1923)는 조혼과 같은 봉건적 유제와 이를 해소하게 하는 근대적인 이혼제도의 현실화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현상과 입장들을 여러 인물의 발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일찍부터 동시대 조선 사회의 가족 문제에 천착했던 작가의 이와 같은 면모는 그의 삶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혼과 사실상의 이혼 상태, 그리고 다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는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 것이다.⁴³⁰⁾ 작가의 이력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첫 번째

2002; 류진희, 「한국의 입센(Henrik Ibsen) 수용과 노라이즘(Noraism)의 역학」, 『나해석연구』 2, 2004.

428) 박정희의 연구는 이 두 소설이 ‘가출한 노라’의 행방과 대안을 작가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다. 박정희, 「『家出한 노라』의 행방과 식민지 남성작가의 정치적 욕망」, 『인문과학연구논총』 39, 2014.

429) 「박명」(『동아일보』, 1925.10.9.-16)에는 ‘칠거지악’과 같은 관습법이 여성에게 굴레로 작용하는 현실과 첩과 과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며, 「순네의 시집살이」(『동아일보』, 1926.1.20.-26)에는 노예적 삶과 다를 바 없는 시집살이를 그려냈다. 「봉투에 든 돈」(『현대평론』, 1927.6)은 돈을 위해 자식을 기생으로 파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온다.

430) 채만식은 1920년 부모의 뜻을 따라 혼인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일본 유학 이후 사실상 이혼 상태로 접어들었고, 결혼 제도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표하다가 1936년 이후 사실혼의 관계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방민호, 「채만식 문학에 나

결혼에서 법적인 ‘이혼’을 거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생활로 이어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과도기』의 인물들이 고민하는 이혼 문제를 통해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 (중략) ... 어떠한 사람은 ‘공방이 들거나 정이 없는 부부가 이혼을 아니하는 것이 노예생활 매음생활’이라구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있지만, 그 사람은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한걸음 양보하구 그렇듯한 부부생활이 노예생활 매음생활을 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라구 가령 하더라두…… 그러면 그렇듯한 여잘 그 노예생활이나 매음생활에서 해방을 시키면 해방시키는 그날부터 그 여자들이 갈 곳이 어디난 말이야? 그날부터 그들이야말로 참 키이를 잃은 배나 진배없지…… 그들이 그날부터 새파란 청상과부가 되기 아니면 그제는 정말 공공의 매음장으로 가질 않겠단구? 그러면 자, 어느 편이 나올까? 노예생활 매음생활에서 해방을 한다구 일껏 하구서 도리어 그들을 공공 매음소나 새파란 과수를 만들 것하구…… 차라리 인정을 베풀어 주구 부부란 명의를 그대로 가지구 그네에게 장래의 희망두 주구 맘두 편히 먹게 하는 것이? 그네가 사실 말하자면 남편 된 사람에게 그다지 거리끼거나 그렇질 않으니까…… 그 지경 된 그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진한 부부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애(人類愛)로써 대접하면 그만이야. 그러구 만일 그네 스스로가 다른 곳으로 가구 싶어하거든 그때엔 얼마든지 이혼을 해 주는 것이 좋구……” 431)

인용문은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동경유학생 중 정수의 발화이다. 그는 조혼한 아내가 싫다고 이혼을 하겠다는 친구들에게 인용문과 같은 일장연설을 한다. 정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 없이 하게 된 조혼이 영혼을 속박하는 정신상의 “노예생활 매음생활”과 다를 바 없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혼 이후 여성의 현실적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직시한다. 정절을 고수하여 봉건적 가치 속에 속박되어 한 평생 살아가거나, 자포자기의 심정과 생계의 어려움이 겹쳐 매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당대 조선의 풍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이 소설은 서술자가 등장인물 모두를 과도기적 인물로 한계선을 그은 채 끝이 난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를 타개하거나 해결을 모색하는 작업은 이후의 발표된 다른 소설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의 삶 모두를 억압하는 조선 가족이 지닌 모순

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0-21면.
431) 채만식, 「과도기」, 『채만식 전집』 5, 창작사, 1987, 237-238면.

성에 내포된 동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조선일보』, 1933.5.27.~11.14)⁴³²⁾에 이르러 수행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정수가 언급했던 이혼 후 두 여성의 생활 문제가 이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탐색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 소설은 정수가 말한 “노예생활 매음생활”에 머무르지 않는 여성 인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소설의 전반부는 입센의 희곡과 내용이 같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임노라는 남편 현석준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차용증서에 위조도장을 찍는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남편을 위한 행동이 위법 행위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이자, 현석준은 노라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으며 그녀를 비난한다. 그때 노라는 비로소 지금까지 행복이라 여겼던 칠 년 간의 가정생활이 실은 현석준의 인형이자 완롱물로서의 삶에 불과했음을 절감한다. 그리하여 노라는 ‘사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인형이 아닌 사람이 되고자 집을 나온다. 그러나 가정 밖에 그녀가 찾고자 했던 권리는 있었던 것일까. 이 소설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노라를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설적 응답인 것이다.

집 밖을 나온 적 없는 노라의 삶에는 온갖 수난이 펼쳐진다. 그중에서 노라뿐 아니라 여러 여성인물에 걸쳐 반복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이혼 문제’이다. 이혼의 권리는 근대에 들어 대표적으로 생성된 여성의 권리로 여겨졌는데,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경계가 담긴 논의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³³⁾ 소설 속에서 이혼을 둘러싼 사건은 두 양상으로 전개된다. 전형적인 구여성인 옥순과 조혼한 남편 재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노라와 현석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그

432) 『인형의 집을 나와서』는 『조선일보』에 연재될 당시 제목으로, 추후 작가에 의해 상당 부분이 교정되어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로 개제(改題)되었다. 작가의 교정본을 주로 참고하되 작가의 집필 당시 초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신문 연재본을 살펴보려 한다. 개작과 관련된 내용은 방민호의 해제를 참고할 수 있다. 방민호, 「희귀한 문학유산, 채만식 교정본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 채만식, 방민호 편,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 예옥, 2009, 512-527면. 이와 작품 인용은 이 책을 참고했으며, 본문에 면수만 표기한다.

433) 콩트에 가까운 짧은 희곡에서도, 채만식은 당대 이혼 제도의 등장으로 생겨난 여러 국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비합법적 결혼이나 형식상 남의 첩이 되는 것이 불가하다거나 이혼수속을 할 때 민적등본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畢S, 「잡아먹고 싶은 이야기 1- 나는 몰라요」, 『별건곤』, 1933.6.

것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옥순은 재환과 법적 부부 관계이나 소박을 맞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다. 재환은 옥순과 그의 부모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지만, 승낙해주지 않아 옥순을 더욱 박대한다. 이와 같은 재환의 모습은 당시 법 현실을 작가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1922년 민사령이 개정되고 나서 이혼은 쉽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을 걸 수도 없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일본민법 제813조에 규정된 열 가지 사항 중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할 때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⁴³⁴⁾

그러나 옥순과 재환은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옥순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은 그의 전근대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킨다. 옥순은 이혼이라는 관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다.⁴³⁵⁾ 그녀는 칠거지악(七去之惡)에 따른 기처(棄妻)만이 존재했던 조선 시대의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아내의 부덕함을 상징하는 이혼을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봉건적 관념 속에 살고 있는 옥순은 남편이 서울에서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비합법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옥순의 자살은 현실에 대한 비관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434) 일본민법 제813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II 장 1절을 참조.

435) 옥순과 같은 방식으로 이혼 문제를 드러내는 인물로 병택의 아내가 있다. 병택은 조혼을 하고서 동경에 있을 동안 이혼을 해달라고 졸랐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유학에서 돌아와 부모가 안 계시니, 부인을 졸랐으나 이혼을 승낙 받지 못한다. 병택은 아내에게 생계를 이유로 친정에 가 있다가 20년 후에 만나자가고 하고, 아내는 이혼보다 낫다면서 되레 병택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와 같은 인물의 설정은 당대 조혼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옥순의 남편 재환과 달리 병택이 노라에게 긍정적인 감화를 주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여성 아내를 버려두는 병택의 태도를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다. 조혼한 아내를 박대하는 병택,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행위에도 고맙다고 하는 병택의 아내, 이혼이 아님을 다행히 여기면서 소박맞은 딸을 먹여 살리는 일을 그리 군색하게 여기지 않는 친정 등, 이와 같이 주요 인물이 아님에도 이혼 문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정을 인물에게 부여하고 있음은 당대 식민지 조선의 가족제도로부터 발생한 제 문제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방증한다.

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는 옥순이 돌연 죽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재환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녀를 모든 풍파의 원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구습에 젖어있는 옥순이 보여준 저항의 최대치는 유서에 자신의 시체를 ‘오씨’ 집에 보내지 말라는 말을 남기는 정도인 것이다. 옥순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야, 여자는 출가 외인으로 죽어서도 시댁에 포함된 존재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옥순은 재래의 이혼과 동시대의 이혼, 두 관념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한편 옥순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인물은 작중 이름이 부여되지 않는 재환의 첩인 한 신여성이다. 그녀는 옥순에게 찾아가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분탕질을 놓는다. 그녀는 정치의 지위라는 것이 민적 등재에 따라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재환과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위해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본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민적에 오르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이는 옥순이 죽은 후 민적에 등재되고서 달라진 그녀의 태도를 통해 확인된다. 첩이었을 때는 재환이 눈길을 주는 모든 여성과 본처인 옥순을 경계했던 인물이, 본처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로는 재환이 방탕한 생활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다. 민적에 오른 현재 자신의 상태를 ‘무기’로 여긴다는 직접적인 언술은 그녀의 욕망을 선명히 드러내 준다. 이후 재환과 관계를 맺는 김정원 또한 이혼을 하고서 자신이 민적에 오를 날을 고대한다.

이와 같은 인물형의 기저에는 1922년 민사령 개정 이후 정착된 신고주의에 기초한 법률혼주의의 암면이 자리한다. 채만식은 민적 등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 신분의 획득 문제가 부부 관계의 결속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여성들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면에는 민적이라는 법률에 등재된 부부 관계가 지닌 의미의 공소함을 꿰뚫어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옥순과 재환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혼 양상이 관습과 근대법이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면, 노라와 현석준의 경우는 당대 시행되고 있는 근대 가족법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대목을 세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전근대적 가족제도 비판으로 수렴

되지 않는 현재성을 지닌 문제가 노라와 석준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차원에서 지극히 ‘현대 가정’의 문제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⁴³⁶⁾ 현석준이 노라에게 복수를 하고자 세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혼을 해주지 아니해요, 이혼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내가 하는 결혼을 완전한 결혼으로 하자면 우선 이혼수속을 마친 뒤에 해야 하겠지만 그러지를 아니한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번 사람더러는 잘 알아듣도록 일러 두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해도 임노라라고 하는 계집은 죽는 날까지 현석준이의 법률상의 안해로 있어야 합니다.”

“되려 좋답니다.”

“흥! 좋을지 나쁠지 두고 보라십시오. 지금 법률이 남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남의 안해로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거나 그런 것은 못합니다. 했다가는 싫어도 형무소에 가야지요. 형무소에 갔다가 나와서도 남편이 이혼을 아니하면 여전히 그 사람의 안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임노라라는 계집이 사내를 얻는다는 것은 형무소를 현주소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시키고래야 말 테니까요.” (182-183면)

인용문은 집을 나간 노라를 벌주기 위해 현석준이 세운 세 가지 계획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석준에 의해 가장 ‘무서운 벌’로 언급되는 것이 노라와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상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가져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혼 여성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고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석준은 이를 이용해 노라를 영원히 법률상의 아내로 두겠다고 선언한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현석준의 이와 같은 이해가 식민지 조선의 법률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924년 형사령 개정 이후 아내의 간통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이혼소송을

436) 김미지는 식민지 조선에서 입센의 『인형의 집』이 주로 봉건적 가족 제도의 질곡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희곡의 문제의식은 “‘전 근대 대 근대’ 혹은 ‘가족제도 대 개인’이라는 기존의 이항대립적인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논의구조”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지, 앞의 글, 181면.) 그런 점에서 채만식의 희곡은 ‘노라의 후일담’을 그리고 있음에도, 현대적인 가족 문제와 부부의 수평적 관계를 질문한다는 점에서 원작이 보여준 문제의식을 잘 구현해낸 작품이라 하겠다.

먼저 제기해야 했다. 그리고 아내가 간통죄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녀와는 다시 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⁴³⁷⁾ 현석준의 계획과 달리, 노라는 한 번 형무소를 갔다 오면 영원히 그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시키겠다는 그의 의견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오인이 흥미로운 것은 현석준의 계획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 간통죄 항목을 강하게 환기하기 위한 장치로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베벨의 『부인론』에 등장하는 여성의 법률적 지위를 논하는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과도 일치한다. 이 책은 노라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감화를 준 사회주의자 오병택에게서 건네받은 책으로, 소설 전반의 주제의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⁴³⁸⁾ 베벨에 따르면, 종족, 계급, 성의 사회적 종속 관계는 정치적 제도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때 ‘법률’은 “하나의 법 개념으로까지 상승하게 된 지배계급의 이익을 항목별로 형식화한 표현”⁴³⁹⁾이다. 또한 이 책에서 베벨은 부부에게 적용되는 법률 중 남편의 특권은 이혼법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내용상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지역에서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간통죄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두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⁴⁴⁰⁾

주목할 점은 현석준의 이 계획이 서사 내에서 실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서사에서 누락된다는 사실이다. 현석준이 노라와 다른 남성과의 교섭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계속 문면에 등장한다. 노라와 오병택의 관계가 의심되는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고, 노라가 유곽에 나가 몰 남성들의 희롱을 받는다는 것 또한 그는 전부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현석준이 야심차게 세운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대목이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법률이 지닌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기능으로만 삽입된 장치라는 점을 방증한다. 요컨대 이 장면은 노라에게 영향을 미친 베벨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사상

437) 소현숙, 앞의 글, 136면.

438)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와 베벨의 『부인론』과의 관련 양상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소산산의 연구가 있다. 소산산,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와 『부인론』의 관련양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6, 2014.

439) August Bebel, 이순예 역, 『여성론』, 까치, 1995, 296면.

440) 위의 책, 300-3001면.

이 식민지 조선의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라의 삶의 여정을 되짚어볼 때,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대 식민지 가족법에 의하면, 여성은 법적으로 무능력자이다. 그녀는 재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다. 집을 나온 노라가 적당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도 큰 문제지만, 칠 년이나 가정생활을 유지하고서도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전혀 가질 수 없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친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노라는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모성만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통해 양육권을 얻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현석준은 가족을 버리고 나간 여성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단정한다. 노라의 이와 같은 바람이 당대 현실에서 허무맹랑하다는 것은 그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혜경이 노라의 이러한 생각에 실소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집을 나온 노라의 삶이 불행한 것은 그가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가 아니다. 기혼 여성의 법적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체적인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채만식은 아내가 부권(夫權)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부장제를 지탱해주는 법률에 의한 것임을 노라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법률을 통해 구축된 일부일처제의 유지, 결혼의 결속과 파기를 주도하는, 가정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남성에게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이 소설은 이와 같은 법률상의 불평등 문제를 부부 간의 개인적 차원으로 나타내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 근원에 경제적 억압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라가 공장에서 현석준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결말의 장면에서 여실히 나타난다.⁴⁴¹⁾

따라서 노라가 지배인과 직공,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다소 도시적이긴 하나 갑작스런 전개라고 치부할 순 없다.⁴⁴²⁾ 이와 같은 대목은 “억압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노동자는 같은

441) Friedrich Engels,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6, 박종철출판사, 1991, 85면.

442) 전반부 노라의 삶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진 조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핀 반

처지에 있다” 443)는 전제를 확인하게 하는 장면인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담론장에서의 논의를 새삼 상기시킨다. 근대적 법률에 포함된 식민지 가족법 내에서 주장되는 인권 보장으로는, 법 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기혼여성의 삶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러한 장면으로 소설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형의 집을 나와서』의 결말이 갑자기 계급 문제로 전환된다는 평가는 온당하지 않다. 부르주아 가정의 모순은 법률을 통해 지탱되고 동시에 극대화된다. 작가는 이와 같은 가족 구성의 바탕에는 경제적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심훈의 『직녀성』(『조선중앙일보』, 1934.3.24.-1935.2.26.)은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마찬가지로 당대 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근대와 근대 가족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채만식의 소설에서 그 비판의 무게중심이 근대 부르주아 가족에 놓여있다면, 『직녀성』은 전근대적 가족에 좀 더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가족법이 여성에게 끼치는 억압적인 면만이 강조되는 반면, 『직녀성』에서 근대법은 억압뿐 아니라 해방의 계기로도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심훈의 『직녀성』은 혼인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실제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소설이다.⁴⁴⁴⁾ 인숙과 봉환의 혼인은 부친 간의 친분으로 이루어지고, 아명으로 불리던 인숙이 학교에서 출석을 불러야 하면서 이인숙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소설 속 일화는 작가의 실제 체험이 최소한의 허구화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⁴⁴⁵⁾ 주목할 점은 이 소설에 나타나

면, 결말에 이르러 나타나는 노라의 계급의식을 각성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공종구, 「채만식 소설의 기원-『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4, 2010, 177면.

443) August Bebel, 앞의 책, 15면.

444) 심훈은 1917년 17세의 나이로 부친의 친우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심훈의 의지로 아내 전주 이 씨를 진명 학교에 진학시켰고, ‘해영’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1924년 24세의 나이로 이혼을 한다. 심훈의 결혼과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생애 부분은 전집의 ‘작가연보’를 참조했다. 심훈, 「작가연보」, 『심훈 전집』 1, 글누림, 2016, 346-347면.

445) 작중에서 아명인 ‘방울’에서 ‘인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는 두 차례 등장한다. “혼인한 지 다섯 해 뒤에야 결혼신고를 할 때 임시로 지어서 개명 신청까지 한 이름” (심훈, 『직녀성』 67회, 『조선중앙일보』, 1934.5.31.), 학교에서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방울이란 아명밖에 없던 윤 자작의 셋째며느

는 봉건가족 비판이 조혼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법제 질서 하에 구축된 봉건적인 가족제도의 면면을 부감하고, 점차 몰락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폭넓게 담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가족 구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작가가 생각하는 가족제도의 변천과 발달의 도정을 가늠케 한다.

소설 내에서 “인형의 결혼”⁴⁴⁶⁾으로 표현되는 조혼 제도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비극의 씨앗으로 나타난다. 앞서 채만식의 소설에서 인형의 삶을 살게하는 가정이 부르주아 가정이라면, 『직녀성』에서는 봉건적 가족으로 나타난다. 인숙을 ‘조선판 노라의 후신’으로 보는 관점은, 인숙의 조력자이자 작가에 의해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는 복순을 통해서도 제시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인숙과 함께 봉환도 제도의 희생양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포괄한 결합이 아니라 며느리, 손부를 보기 위해서 또는 대를 잇거나 성욕의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 및 결혼제도에 대한 꾀진한 묘사는 봉환과 인숙의 부부 관계가 파탄으로 귀결되는 것이 개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봉환이라는 인물의 성정이 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숙하고 유약하며, 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겨주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안하무인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인숙을 ‘직녀성’이라 부르며 애정을 다하는 모습, 동경 유학에 다녀온 후 일본 여성과 연애를 하면서 인숙을 하대하는 모습이 한 인물에게서 공존한다는 점은, 한 개인의 모순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제도적 문제를 환기하는 것이다.

이는 인숙 또한 마찬가지다. 그녀는 시댁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아버지 임종도 제때 보지 못한다. 남편이 일본 여성과 동승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강지처의 명예만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도 생각한다. 처음 봉환의 외입을 보고서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던 인숙을 상기할 때, 인숙이 봉건적 가족 속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과정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봉환과 인숙이 지닌 성정과 능력이 모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구축된 것이며, 이는 역으로 그 가정의 성격이 달라질 때 그들의 삶 또한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연상시키기

리는 비로소 이인숙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 (103회, 1934.7.12.).

446) 심훈, 『직녀성』 25회 (『조선중앙일보』, 1934.4.18.), 김종욱·박정희 엮음, 『심훈 전집』4, 글누림, 2016, 86면.

때문이다. 요컨대, 두 인물의 모습은 봉건적 가족제도 하에 성역할이 고정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지배 질서가 내면화되는 현장을 잘 보여준다.

인숙은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이 억압 속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봉환과 이혼을 결정한다. 이는 여성이 이혼 청구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특히 구여성의 의식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편지를 받은 지 이주일 이내에, 귀하가 본인에게 사건을 위임한 윤봉환 씨와 협의상 이혼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법 제813조 제2호의 법규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터이니 귀하의 신분과 명예와 또는 쌍방의 장래를 심분 고려하여 급속히 해결지으시기를 권고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협의하기에 거리끼는 사정이 있으면 당 변호사에게 회답하여 주시어도 원만히 처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민법 제813조 제2호에는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인데, 해석하면 아내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관계한 사실이 있으면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닌 이상, 단 한 번의 관계라도, 또는 상대방이 아내가 없는 독신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⁴⁴⁷⁾

인용문은 봉환이 인숙과 자신의 친구가 간통 행위를 했다고 오해하고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통보하는 대목이다. 결혼 이후 봉환의 수많은 외입이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마찬가지로 이혼과 관련된 간통죄 조항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현실을 적시한다. 또한 봉환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간통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이혼을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는 점은 법률이 수단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조문을 나열하며 인숙을 협박하는 봉환의 이혼 청구는 ‘오해’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인숙이 간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봉환의 고백으로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장면은 당대 법률이 불공정하지 않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합리성을 담보한 법이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인숙

447) 심훈, 『적녀성』 264회(『조선중앙일보』, 1935.1.3.), 김종욱·박정희 엮음, 『심훈 전집』5, 글누림, 2016, 306-307면.

이 근대적 법률을 긍정하고,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인식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인숙의 자각은 복순 등 조력자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변화된 법률을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다. 인숙이 봉환에게 자신이 이혼을 청구할 이유가 더 많다고 조리 있게 따져 묻는 장면이나, 부청 호적계에 봉환과 함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오면서 혼인을 천륜이라 여겼던 데서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 모습 등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직녀성』에 나타난 간통죄는 이혼과 관련된 조항에 내재된 불평등함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남성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위치에 선다는 관념이 간통죄라는 조항 자체에 함축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동경 유학 후 화류병에 걸린 봉환은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병을 옮기게 됨을 알면서도,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 인숙을 강간한다. 그 순간 인숙은 부부제도, 결혼생활의 “야만성”을 깨닫는다. 나아가 여성이 이와 같은 굴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호소도 할 수 없는 조선의 가정을 “감옥”이라고 생각한다.⁴⁴⁸⁾ 요컨대, 인숙은 봉건적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치가 성적으로 노예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여성의 성이 도구화되는 이와 같은 장면은 가정 밖에서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장면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세철은 봉회를 데리고 유곽을 둘러보러 간다. 이때, 세철은 여성이 정조를 매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하면서, 봉회에게 돈 또는 지위와 정조를 바꾸는 매음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세철은 매춘의 문제를 여성의 정조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유곽에 와서 여성을 매매하는 귀족들을 비판하면서, 매춘부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필요로 하는 남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드러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들은 베벨의 『부인론』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베벨은 결혼과 매춘의 상보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남성들이 매춘부를 사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처럼 이해한다고 논한 바 있다.⁴⁴⁹⁾ 심훈은 베벨의 이와 같은 논의를 참고하여 식민지 조선 사회에 적용하여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간통죄 조항에 따르면, 기

448) 심훈, 『직녀성』 214회(『조선중앙일보』, 1934.11.10.), 위의 책, 163면.

449) August Bebel, 앞의 책, 197면.

혼여성의 혼외 관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남성의 경우 기혼여성의 상대자로 그 남편이 고소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받았다. 이러한 부당한 법률과 그에 따른 억압적 현실에 기저에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아무런 경제권을 지닐 수 없다는 권리 부재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심훈은 베벨이 언급한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특징을 조선의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봉건적 가족제도, 법제화된 일부일처제, 매매춘이 공존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경제적 문제로 한 데 묶어 살펴보는 작가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이 흥미로운 점은, 당대 법 현실을 꿰뚫히게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전망이 앞서 비판했던 가족제도의 모습을 지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남성이 여성을 종속하는 가족에 내재된 계급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넘어설 때 가능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일종의 ‘공동가정’의 모습은 이 같은 대안공동체의 성격이 짙다. 혈연을 중시하는 관념을 넘어서고, 모두가 직업을 가져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정의 모습이 그려진다.⁴⁵⁰⁾

(가) 다 각기 적으나마 벌어들이는 대로 공평히 추렴을 내어서 생활을 하여 나갈 것과, 될 수 있는 데까지 생활비를 절약해서 여유를 만들어 ××학원과 유치원에 바칠 것이며 (인숙의 월급은 삼십 원으로 정하였다 하나 이십 원만 받으리라 하였다)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공동 가정의 대표자로는 복순을 내세워 외교를 맡게 하고, 살림을 주장해 하는 것과 어린 애를 양육하는 책임은 인숙이가 지고, 회계위원 노릇은 봉희가 하는데, 세철은 몸을 뒤편으로 쫓개고 싶도록 바쁜 터이라,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격으로 대두리 일을 통찰하게 하기로 헌법을 제정하였다.⁴⁵¹⁾ (밑줄 강조: 인용자)

(나) 인숙은 꼭 알고 싶어 묻는 것도 아니면서 말을 자아내기 위해서
 “박복순이란 이름은 민적 이름이겠죠?”
 하고 물었다.

450) 권철호는 이와 같은 대안적 가정에 대해 심훈의 독서 체험을 참고하여 무로후세 코신과의 영향 속에서 찾고 있다. 권철호, 「沈熏의 長篇小說 『織女星』 再考」, 『어문연구』 43, 2015.

451) 심훈, 『직녀성』 309회(『조선중앙일보』, 1935.2.25.) 김중옥·박정희 엮음, 『심훈 전집』5, 앞의 책, 421면.

… (중략) …

“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라났다우. 더군다나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구…: 민적에두 내 이름이 빠졌으니깐. 이를테면 난 조선 사람이 아니구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떨어져자라고는 이 세상에 하나두 없으니깐 여간 홀가분하지가 않거든요.” 452)

(가)는 복순과 인숙, 봉희와 세철이 함께 만든 ‘공동 가정’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들의 가정이 ‘가족’을 넘어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이전의 서사에서 봉건적 가족제도와 부르주아적 가족의 부정성이 모두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후 도달한 전망이라 하겠다. 즉, “현대의 모순된 제도와 습관”에 의해 구축된 “소유의 원리”에서 벗어난 가정인 것이다.⁴⁵³⁾ 그리고 새로운 가족은 이전과 ‘다른’ 법률을 통해 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법률이 국가의 지배를 위해 정초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설정은 식민지 조선의 법제를 구축하는 일본 제국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의미는 이 대안적 가정의 대표자가 복순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나)에서 나타나듯 복순은 민적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적자라는 의미에서 “조선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고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복순이 무적자인 것은 양반 또는 귀족과 구분되는 프롤레타리아로서의 그녀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복순 스스로 자신이 조선 사람이 아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무산자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 대목은 복순이 국가의 인적 통제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신분을 부여받지 않은 복순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지만, 이는 역으로 국가의 동원 메커니즘의 포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뜻한다. 요컨대, 그녀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가족제도 바깥에 놓인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심훈은 계급의식을 토대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제의 법망으로 구축되

452) 심훈, 『직녀성』 66회(『조선중앙일보』, 1934.5.30.) 김종욱·박정희 엮음, 『심훈 전집』4, 앞의 책, 203-204면.

453) 심훈, 「결혼의 예술화」, 『심훈 전집』 1, 글누림, 2016, 245-245면.

지 않는 무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가족을 매개로 일본 제국을 향한 저항의 의미를 소설 속에 심어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심훈의 『직녀성』은 식민지 가족법적 현실을 폭넓게 재현하고 있으며 계급의식을 매개로 불평등한 가부장제를 형성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발표된 소설 중에서 당대 가족 내 여성에게 가해지는 법률의 모습을 전근대와 근대를 막론하고 가장 폭넓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V. 가족 구성의 경계 확장과 순혈주의에 대한 성찰

1. 내선결혼의 불가능성과 고향 개념의 재정립

식민지 통치의 주요 수단 중의 하나는 문화와 인종의 혼합으로,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병합 이후부터 내선결혼의 문제는 동화정책과 민족 구별이라는 모순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공존된 채로 논의되었다.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호적법과 친족법의 공포와 개정은 병존하기 어려운 이 두 조건을 병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정책이 추진된 것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가 시작된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⁴⁵⁴⁾ 이 절에서는 시대에 따라 법제가 변화함을 전제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담론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설 속에서 내선결혼의 서사적 구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말기에 이르러 내선결혼은 국가적 차원의 숭고한 행위로 장려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까지 내선결혼의 선전 논리는 낭만적 사랑의 수사와 좀 더 가까이 있었다. 가령 1921년 전후 총독부는 '내선융화'라는 통치 방침 아래, 사랑의 결과물인 내선결혼을 통해 민족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애에 기초한 부부중심의 근대가족 성립을 전제한 논리로, 이때 황국신민화를 위한 첫 단계라는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담론장과 사회적 분위기는 이와 같은 지배담론과 거리를 두면서 자유연애와 사랑을 내선결혼에 연결시키는 것에 회의적이었다.⁴⁵⁵⁾ 사랑만 있다면 다른 민족과의 결합은 옹호해야 마땅하나, 국책의 일환인 내선결혼에는 이미 정략결혼의 성격이 전제되었다는 것이다.⁴⁵⁶⁾ 예를

454)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결혼' 장려 문제」, 앞의 글, 259-261면.

455)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선의 왕세자인 이은(李垕)과 일본의 황족인 나시모토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결혼이다. 이들의 결혼은 『매일신보』에서 낭만적인 연애 서사, 스위트홈으로 대변되는 행복한 가정으로 재현되었다. (이영아, 「이은(李垕)-나시모토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결혼 서사를 통한 '내선(內鮮)결혼'의 낭만적 재현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17, 2011)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선전 방식은 1920-30년대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정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선전과 현실」, 『역사문제연구』33, 2015).

456) 「政略結婚을 斥하노라」, 『동아일보』, 1922.01.29; 「異民族과의 結婚是非」, 『삼천리』 제3권 제9호, 1931.9.1.

들어, 김병노는 내선결혼이 “인간성과 인간성의 순수한 접촉” 이면 괜찮지만 “불순한 정치적 경제적의 동그 아래에서 출발한 결혼”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⁴⁵⁷⁾

내선결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법 또한 변화가 필요했다. 두 민족 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하려면 결혼과 동시에 호적상의 이동, 즉 입적과 제적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실시됨으로써 가능해졌다. 1921년 6월 7일 부령 99호로 「내선인 통혼법안」이, 같은 해 7월 1일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혼인 등의 민적 수속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또한 1922년 12월 반포되고 19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호적령에 의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다.⁴⁵⁸⁾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 내선결혼은 민족의 장벽을 넘어 개인적 차원의 사랑을 제도적 결혼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로 선전되었다. 일제말기에 이르러서는 호적제도가 내선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으로 논의되었지만, 1920-30년대에는 그와 같은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창작된 소설에서도 법제의 문제는 대체로 내선결혼의 장애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대 담론에서의 반응을 따라 내선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편에 가까웠다.

한설야의 「그릇된 동경」(『동아일보』, 1927.2.1~2.10)⁴⁵⁹⁾은 내선결혼의 모순을 통해 ‘내지인’과 ‘식민지인’에 대한 일제의 차별적 시선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소설이다. 서사 내에서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혼은 ‘일선 융화론’의 구현으로 의미화된다.⁴⁶⁰⁾ 따라서 이들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결말은 지배담론으로서의 내선결혼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에 가깝다. 조선인 여성이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결혼이 ‘개인의 사랑’의 실현처럼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을 향한 모방 심리와 허영심이 자리한다. 이 소설은 당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선전논리의 대척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낭만적 연애의 의장 속에 숨겨놓은 지배 논리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법제 구축으로 사랑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457) 金炳魯, 「特殊性을 考慮하라」, 위의 글, 27면. 조금씩 논지는 다르지만, 한용운, 황애시덕, 우봉운도 정책상의 결혼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458)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결혼’ 장려 문제」, 앞의 글, 13-19면.

459) 이 소설은 김덕혜(金德惠)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로, 동아일보 현상공모에 이등으로 당선되었으며, 총 9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460) 「그릇된 동경」(5), 『동아일보』, 1927.2.5.

준 시혜자로 위장한 식민 당국의 가면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그릇된 동경」은 정치범으로 수감된 오빠에게 보내는 서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편지는, 조선인 여성이 허영과 자만으로 조선 남성의 청혼을 거부하고 일본인과 결혼했으나, 조선인을 야만인으로 멸시하면서 학대를 일삼는 남편과의 생활에서 사랑으로 넘지 못하는 민족적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인 남성 Y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녀가 '일본 사람'과 다름없다고 느껴졌다는 데 있다. 그녀는 동경 말을 따라하는 등 일본인의 행동을 모방한다.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기대가 더해져 일본 살림, 일본 여자의 모습을 흉내 내기에 골몰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인격과 가치를 손상시키고, 조상에게서 받은 의기와 피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소설의 제목인 '그릇된 동경'이 전달하는 뜻은 명확하다. 일본인을 향한 모방 심리가 인격과 개성, 나아가 민족적 정신을 망각하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자성의 계기는 오빠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녀의 오빠는 상해에서 잡혀온 불령선인인데, 그의 징역살이는 이천만 조선인들의 염원을 담은 거룩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그릇된 사랑과 결혼 생활을 '양심'에 위배된 '죄악'으로까지 자평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림시정부니 민족주의의 해가지고 주제넘게 달녕대지만그것은다 어름업는작난이다 어림업
시덤비다가는 그만났든바람도업시쓰러져버릴것이다 야만인이란할수업다 학대하고 절대지
배를하지안으면 그릇된근성(根性)이업서질날이업다 그근성을 빼내어야 동화도가능한것 이
다하고 제깎에성이지요

이리하야 우리집을욕하든 그는 민족전데에그주둥이를 돌렸나이다 주제넘은것을하고 말안
듯는무리는 죽여버려야한다 또네게도 불온한빛이 보이면군국정신에비쳐가차하지안는다고
옥베르기일수엿나이다

온민족을멸시하는그가나한사람을 탐탁히알리는 물론업나이다 런에는국경이 업다하엿스
나이리구서야 런애가 제야모리국세다하여도 일본사람의 국경을넘어낼것갓지안터이다똥집
까지되지못한 우월감이 차잇스니그를엇지는장수가잇습니까

나는알앗나이다총과칼이세력잇는 시대에는 어데를물론하고강한자가 문명인이요 약한자
가야만인 것을 나는 알앗나이다제가바라든자유를 남에게서 빼앗고 제가 사랑하든 민족사상

을남의민족에게서죽이려하는심사가 과연 문화인의심사 오며 정당한생각일가요 칼과총이 만
일필요하다면 못된자를 격구리고버히기위하여 하는 말일것으로 소이다

읍배.조선인뿐아니라제삼자로보아서도 극히올타고 생각하는일을오늘날국부의인간들은그
르다고 부당하고 잡아가두고때리고 죄주고하나이다 이날이언제나 쫓날가요 그러나약하다고
울혼일이울치안을수업는것임애우리는모름직이 우리의 사명을다하지안으면 안될것으로 소
이다⁴⁶¹⁾ (밑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나’는 굳센 연애는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일본사람의 국
경을 넘어낼 것 같지 안 터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선결혼의 불가능성을 절
감한다. 그녀의 남편은 조선인의 기질 자체를 무시하고, 동화가 불가능한
민족이라 말하며 학대/지배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나’는 온 민족을 멸시하
는 남편의 그와 같은 시선에서 자신 또한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며 조선인
의 정체성을 깨닫는다. 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갈등은 내선결혼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서만 형성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그것이 민족
대 민족의 결합이라면 사회정치적 맥락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내선결혼은 ‘나’에게 민족적 차이를 깨닫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화
하고 있는 자신을 비판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
기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내선결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두 민족 간의 반목과 멸
시와 같은 감정적 표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
이다. 그녀는 조선인을 향한 일본의 멸시와 우월감이 ‘문화’가 아니라, 무력
에 기반한 ‘문명’적 속성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1920년대 문화통치의 전략
인 내선결혼 정책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문명을 비판하면서 문화를 중시
하는 분위기로 나아갔던 세계사적 흐름에 일본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대
한 비판이다. 또한, 인용문에서 ‘나’는 조선 민족을 위한 행위가 “조선인뿐
아니라 제삼자로 보아서도 극히 올타고 생각하는 일” 임이 분명한데, 일본
인들이 이를 탄압하며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
처럼 ‘나’는 제삼자의 시선의 개입을 시도함에 따라 일본의 정책을 상회하
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인식
은 일제말기 창작된 「대륙」과 「피」 이전부터 순혈주의적 민족 관념에 함몰

461) 咸興 金德惠, 「그릇된 瞳瞼」(7), 『동아일보』, 1927.2.8.

되지 않는 작가의식의 단초를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염상섭의 「남충서」(『동광』, 1927.1-2)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내선결혼 문제를 인물의 욕망과 내적 갈등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로 꼽힌다.⁴⁶²⁾ 내선결혼을 다루는 소설들이 대개 연인 또는 부부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천착하는 반면, 이 소설은 부부 및 부자 관계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한설야의 「그릇된 동경」이 민족 간의 갈등을 다소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다면, 「남충서」는 가족구성원의 욕망과 이해가 교차·대립하는 상황의 본질에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민족 문제가 소설 전반에 관념적으로 선재하지 않고, 조선과 일본의 가족제도의 차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남충서」는 친일 부호인 남상철(南相哲)과 그의 소실인 일본인 미좌서(美佐緒)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자, 법적으로 장남이나 사실상 서자인 남충서(南忠緒)의 내면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대한 논의는 주인공 남충서가 겪게 되는 번민과, 그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된 정체성의 의미를 구명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⁴⁶³⁾ 여기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에 이어, 충서의 정체성 자각 과정이 미좌서를 통해 발화되는 일본 가족제도에 대한 상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좌서의 욕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민적에 정실로 입적하는 것과 충서의 상속권 입지를 다지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두 남가(南哥)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수렴된다. 미좌서는 민

462) 식민지 시기 내선결혼의 효시로 여겨지는 소설은 이인직의 「貧鮮郎의 日美人」(『매일신보』, 1912.3.)이다. 조선인 남편에게 속아 상당한 지위와 생활을 기대하고 온 일본인 여성이 빈한한 생활을 한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이 소설은 길지 않은 분량으로, 인물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민족 간의 문제, 식민지 정책과의 관련성 등 내선결혼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문제와는 무관한 소품에 해당하는 소설이다.

463) 김정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의 문제-남충서, 유진, 조준석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4, 2015, 267-271면; 이해령,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아의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18, 2003; 전훈지, 「식민지시기 혼혈인의 자아 정체성 연구-염상섭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3, 2015; 최현식,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23, 2003, 142-151면.

죽이라는 가치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이는 충서를 정실의 호적에 올라달라고 청하면서, “고향”을 단념하고 “남가의 집”에 묻히리라고 다짐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⁴⁶⁴⁾ 민적에 정실로 입적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실 소생인 차남 충희가 상속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장남으로서 충서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모인 자신이 정처가 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미좌서가 민적에 등재된 아내가 된다는 것은 조선 국적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좌서는 근본적으로 민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며, 그보다 물질적 욕망이 우선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좌서가 정실에 오르지 못하자 동경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에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다분히 일면적이다. 미좌서는 딸 효자와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본인 사위를 양자로 얻어 시야(矢野) 집안을 이어나가겠다는 목적이 있다.⁴⁶⁵⁾

(가)「썩은 수작이 아니냐? 지금 모르겠거든 두고 보렴으나. 알 날이 잇슬 게네! …… 내일이 구 모레구 들어갈찌두 모르지만 민적에 올리고 그년도 내쫓고 하기 전에는 적어도 십만원은 가지고 나올 게다. 그리고 동경 가서 효자는 시야(矢野) 집 뒤를 잇게 할 결심이다. 둘 중에서 너 하나 데려가면 효자는 내가 데려와도 문제는 업슬 게요 효자 내노코는 나는 한시도 못 견딜 켜니까…… 효자도 그러케 하기로 하엿다. …(중략)…」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떨어져 나간 다음에야 다만 딸 하나를 의지하고 살려는 모친의 심중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충서는 이런 소리를 비쳐 보았다. 딸이고 아들이고 민적을 빼내어서 어머니 성(姓)을 팔게하고 소위 양자 사위란 것을 어더서 계집의 집 손(孫)을 잇게한다는 것은 조선 풍습으론 아니될 일이요 … (하략) …⁴⁶⁶⁾

464) 아들을 낳아서 본 마누라에게 바칠 썰은 인저야 세상 물정을 알게된 미좌서도 산설고 물설은 쓸쓸한 대한의 썰- 남가의 집 산소에 파묻친다고 섭섭히 고향을 단념하고 반가히 남씨 집 사람으로 그를 띄게 되었던 것이다. 본실스택이 실죽해 하면서도 충서를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리게 한 것도 충서 부친의 충애가 미좌서에게 쏠리었던-말하자면 미좌서의 전성 시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악 못 낳는 몸이 아닌 본실에 충희가 생긴 뒤부터는 남가의 집 재산은 내것이라고 꿈꾸던 미좌서로서는 은근히 오늘이 잇슬 것을 그제부터 염려하였던 것이다. 염상섭, 「남충서」, 『염상섭 전집』 9, 민음사, 1987, 276면.

465) 미좌서는 충서에 비해 딸 효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자는 일본식 생활양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미좌서가 효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겠다는 데는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466) 염상섭, 「남충서」, 앞의 책, 284면.

(나) 「…… 늙은이 만년처럼 현소리를 하고 되하고 하는 것 갓다마는 실상 말하던 내가 <야에꼬>(팔중자)를 아니 데려온달제 벌써 나는 남가의 집과 남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러케된 것이 돌이켜 잘된 세움이다. 너는 어차피에 아버지를 알아야 할 것이요 조선서 살려면 실상 조선 계집을 어더야 할 게니까 똑바로 말하면 잘된 일이니라. 분하고 절통한 말을 하자면 한이 업지만 어썸턴지간에 내가 너이 내의를 미워서 며느리랍시고 하는 것을 못 살게 굴려고 한 것이 아니건만는 너두 알아 주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자주 뇌스가리는 것 갓다마는 효자는 어썸턴지 내가 말틀 것이니까 내일 모래스세 너 아버지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더라도 너도 힘을 써 다오. ……」⁴⁶⁷⁾ (밑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미좌서는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조선의 가족제도 하에서 충서는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아버지의 가(家)에 속한 충서는 서양자가 되지 않는 한 조선 국적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효자는 출가로 다른 집에 입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혈통의 구속력을 덜 받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좌서가 효자를 이적(離籍)시켜 자신의 성(姓)을 이어가게 하려는 생각을 바로 일본인 혈통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치환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법률상 가(家)를 이어가는 일본의 가족제도를 염두에 둘 때, 미좌서가 일본에서 가(家)를 창설하는 일은 사회적·법적 신분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미좌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으로 돌아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복권하는 데 있다. 조선과 달리 일본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와,⁴⁶⁸⁾ 일본에서 국민 지위를 획득하는 문제가 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⁴⁶⁹⁾ 미좌서가 일본으로 가면 조선인 남성의 첩으로서보다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확보

467) 염상섭, 「남충서」, 앞의 책, 288면.

468) 일본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식이 여자만 있을 경우, 연령순에 따라 호주가 됨 ② 남자 자식이 있지만 적출자가 아닌 사생자일 때, 적출자되는 여성이 호주가 됨 ③ 누대상속 받아온 집에서,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별세할 경우 그 부인된 여자가 호주가 됨. ④ 서양자제도로, 혼인한 남자가 여자의 성을 따르고, 자녀를 낳아 가계를 이어가는 것. 玉滄海, 「現代 法律과 女性의 地位」(續), 『신여성』 40, 1931.10.

469) 일본의 근대가족은 메이지 헌법에 의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법률상의 가족을 의미하는 이에(家)의 형성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국민을 등록하기 위한 매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1장 2절의 내용을 참조할 것.

할 수 있다.⁴⁷⁰⁾ 재산을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하려던 미좌서는 재산을 얻지 못하게 되자, 포기하려 했던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보다 견고히 하려는 것이다.

한편 (가)에서 나타나듯 충서는 미좌서와의 대화 속에서 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선의 가족제도와 풍습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보여준다. 앞서 충서는 민적이나 혼인을 구속으로 느끼면서, 이른바 ‘민적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여겼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일본의 가족제도와 마주하게 되면서, 조선의 가족은 아버지의 민적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식하게 된다. 충서가 전통 관념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또한 이와 비슷한 노정을 거친다. 동경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미좌서를 보면서, 굳센 감격은 느끼지 못하지만 “「아비의 나라는 내 나라다!」”⁴⁷¹⁾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⁴⁷²⁾

주목할 점은 충서가 깨닫게 된 민족과 전통에 대한 이해가 고향에 대한 미좌서의 애착에서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전통(傳統)이란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관념으로나 의식으로 민족이란 자각은 업는 경우라도 그 민족의 전통이란 무거운 짐을 누구나 지고 다니니까 허는수 업는 일이지. …… 무거운 짐이 아니라 피스속에 요약(要約)되어서 흐르는 것이다. 모든 진리가 뒤집혀도 그것만은 영원한 비밀이요 또 아무도 속일수업는 사실이다. ……대관절 사람이 민족을 써나서 살 날이 잇슬까? —그것은 어찌한 남자를 붓들고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북극의 인종이 남극이 도회를 거니는 창부(娼婦)에게 어머니라고 절하는 세의스일일

470) 최현식은 미좌서가 남상철에게 요구한 10만원을 “일본 국민으로의 안정적 재진입을 위한 보험금”으로 해석한 바 있는데, 일본 국민으로서의 지위 회복의 문제는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 10만원보다는 자신의 성을 잇는 가(家)를 일궈내는 행위와 좀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현식, 앞의 글, 145면.

471) 염상섭, 「남충서」, 앞의 책, 286면.

472) 이해령은 남충서가 부계적 가족제도를 전통의 차원으로 승인하며, 여기서 나아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아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거나 배제되는 양상을 띤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는 민족 정체성을 통해 가족은 재규정된다는 전제가 자리한다. (이해령, 앞의 글, 205-209면) 그러나 「남충서」가 민족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가족을 통해서 민족정체성은 확인되고 구성된다. 또한 효자의 경우 충서와 미좌서의 진술을 통해서만 작품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녀를 부정적 인물로 축조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남충서」는 민족과 전통이 강조되면서도 동시에 경계인으로서의 위치가 부각되는 소설이다.

것이다.……」⁴⁷³⁾

충서는 미좌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 자신에게 ‘씨’가 다르다고 했던 말을 통해 전통과 민족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말이 모욕처럼 들리면서도, 이것이 엄준한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족이라는 자각이 없을 지라도, 피 속에 새겨진 전통적 관념을 떠날 순 없다. “못칠 자리를 차자가려는 어머니가 달관이다!”⁴⁷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충서는 이러한 본원적 성격의 전통과 더불어 P·P단동지들과 모여 했던 전통파괴 논의를 떠올린다. 전통 관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파괴와 생성이 가능한 전통과, 사람의 뿌리로서 (무)의식적 영향을 주는 혈통과 민족의 문제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충서가 자각하게 된 민족의식은 미좌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미좌서가 그리워한 고향은 무덤을 쓸어줄 일가친척도 없는 곳으로, 출생지라는 의미는 있지만 혈통과 전통 계승과 같은 문제와 연관지어 인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고향 이미지는 일본의 가족제도를 상기시킨다. 앞서 살펴본, 혈통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본의 가족제도의 특징은 미좌서가 그리워하는 고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충서」는 일본과 조선의 가족제도와 그에 따른 혈통 및 고향의 의미의 낙차를 드러냄으로써, 내선결혼이 현실적 이유로 실현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는 미좌서가 법적인 아내로 호적에 등재될 수 없는 이유를 상기시킨다. 요컨대, 미좌서가 조선 생활에 습합할 수 없는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혼인에 의해 조선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를 우회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한설야의 「그릇된 동경」과 염상섭의 「남충서」는, 각각 법률혼과 사실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1920년대에 이르러 내선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현상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가능할지라도 다른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선결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73) 염상섭, 「남충서」, 앞의 책, 289면.

474) 염상섭, 「남충서」, 앞의 책, 289면.

이와 달리 일제말기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들은 ‘연애에서 결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소설적 응답으로, 이는 변화된 가족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내선결혼은 내선일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1936년 8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내선일체를 “形도 心도 血도 肉도 모두가 일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일본인과 조선인 간 육체적 교섭의 수준을 넘어 정신과 문화, 정서의 차원에서의 합일을 강조했다.⁴⁷⁵⁾ 이와 같은 미나미 총독의 발화 내용은 당대 언론 매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가령 『매일신보』의 한 사설을 보면, 내선결혼은 융화와 화해를 넘어 ‘마음과 몸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의미 부여된다. 가정에서부터 황국신민화를 달성하게 하는 내선일체의 출발점인 것이다. 내선결혼은 일상생활을 바꾸게 할 실천적 행동으로, 기념품을 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⁷⁶⁾ 이처럼 내선일체를 장려하는 글에서 육체보다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은 국책담론의 성격을 띤 각종 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내선결혼을 맺게 될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사랑과 정(情)의 레토릭” 속에서 독려되었던 것이다.⁴⁷⁷⁾ 다만 여기서 ‘사랑’의 의미는 종전의 선전 논리와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1920년대 내선결혼에서 근대적 가족구성과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었다면, 일제말기에는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로 수렴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했다.

이처럼 정서적 차원의 결합을 강조하는 태도는 내선결혼을 옹호하는 내용을 서사화한 당대 소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녹기』, 1940.3-7)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개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호의와 친밀감을 토대로 민족적 차이와 차별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⁴⁷⁸⁾

475)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앞의 글, 258-259면.

476) 「社說 - 내선결혼의 장려」, 『每日申報』, 1940.12.19.

477) 김경연은 1939년, 1940년 두 차례 발간된 『모던 일본』의 <조선판>에서 내선일체와 관련된 글에서 그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김경연,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와 식민주의의 균열: 이광수의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14, 2011, 305-308면.

478) 이광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心相觸れてこそ)」(『녹기』, 1940.3-7), 이경훈

한편 대표적인 내선일체론자로 꼽히는 현영섭은, 내선일체는 법률과 제도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 교류가 있다는 점에서 예술과 진리의 세계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⁴⁷⁹⁾ 그런데 현영섭은 내선연애가 개인의 동기 차원에서 촉발됨을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가 불행과 비극으로 귀결되는 까닭을 경제·사회적인 조건에서 찾고 있다.⁴⁸⁰⁾ 물론 이어서 내선연애의 파탄보다는 출발점이 되는 연애 동기가 중요하다고 진술하지만, 현실적인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내선일체를 옹호하면서도 정신적 차원에만 집중된 당대 국책 담론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내선일체와 내선상혼」(『조선급만주』, 1938.4)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내선일체를 단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만 찾고 형식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생활과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내선일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심일여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기 위한 형식을 부여해야 한다.⁴⁸¹⁾

현영섭은 내선일체의 완수를 위해서는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책 담론의 주된 논지가 내선결혼으로부터 출발한 황국신민화였다면, 그는 이와 반대로 황국신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해준 이후에야 내선일체의 완성이자 목적지인 내선결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담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내선일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놓인 실질적인 차별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²⁾ 이와 같은 입장 아래, 그는 내선일체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⁴⁸³⁾ 그중 법률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번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 평민사, 1995.

479) 현영섭, 「내선일체 완성에의 길」, 임종국 편역, 『친일논설선집』, 실천문화사, 1987, 116-117면.

480) 위의 글, 119면.

481) 文學史 玄永燮, 「內鮮一體と內線相婚」(『朝鮮及滿洲』, 1938.4), 양지영 편역, 『재조일본인이 본 결혼과 사회의 경계 속 여성들』, 역락, 2016, 38면.

482) 총독부는 담론상 내선일체를 독려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주로 정신적·문화적 차원의 일원화에 집중했고, 법적 동화는 가장 최후의 문제로 설정했다.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앞의 글 참조.

조선인 남자가 내지인 부인과 결혼하면 그 아이는 조선인이 된다. 하지만 이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내선결혼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내선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내지인이 될 자격을 줘야 한다. 내지인 남자가 조선인 여성을 아내로 얻으면 잘 사는 이유가 이런 법률적인 이유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출세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내지인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선인 남자가 내지인 부인을 아내로 얻는 경우이다. 내지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아이를 키워 아이는 내지인다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조선인으로 존재하니 잘 될 리가 없다.⁴⁸⁴⁾

인용문의 요지는 호적에 조선인으로서의 표지가 기록됨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받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적체계 안에서 본적은 내지인과 외지인을 구분하는 지표로, 조선인은 “외지인 중 조선에 본적을 가진 자”에 해당했다. 당시 지역적(地域的) 이동은 혼인과 입양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호적법 체계 내에서 내지인과 외지인은 대를 이어 자손 대대로 그 신분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적법의 개정은, “‘차별로부터의 탈출’의 법적 확인”이자 “조선인이었던 혼적을 지우는”, “내선일체 실현의 최종단계”로 간주되었다.⁴⁸⁵⁾

특히 그는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겼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적(家籍)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선인 남성의 적(籍)은 그의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483) 현영섭은 아래 제시한 크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그밖에 종교적 이유와 풍속과 습관의 차이가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간략히 부연한다. 그중 풍속과 습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같은 글의 앞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조선인과 내지인의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서양의 관습’을 따른 생활방식을 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내선결혼을 제약하는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인 이유로, 내지인과 조선인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평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내선인 상호 간에 경멸하고 반목한다는 관념적인 이유 3) 법률적인 이유로, 특히 조선인 남자와 내지인 부인의 결혼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주목한다. 文學史 玄永燮, 「內鮮一體と內線相婚」(『朝鮮及滿洲』, 1938.4), 앞의 책, 49-51면.

484) 위의 글, 51면.

485) 이승엽, 「늑기연맹의 내선일체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소 석사학위논문, 2000, 71면. 호적법 개정에 대한 주장은 같은 필자의 다른 글에서도 발견된다. 天野道夫, 「事實としての內鮮一體」, p.41(이승엽, 같은 글, 72면).

그는 혼인에 따라 전적(轉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선인 여성이 내지인 남성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자식이 조선인이 되어 차별을 받는 문제를 의식하여, 일본인 여성은 조선인 남성과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선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모두 내지인이 될 자격을 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호적법이 내선결혼과 내선일체를 가로막는 궁극적인 요인이라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었다.

지금은 내선일체의 정신적 완성이 요구되지만, 그다음으로 나는 생활적, 예술적인 완성을 바란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완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서 내선결혼을 원한다. 예술적 완성이 연애가 성립하면 그 연애는 생활적인 완성과 정치적인 완성을 바라게 되고 결국 내선결혼의 완성을 촉진시킬 것이다.⁴⁸⁶⁾

인용문에서처럼 현영섭은 내선일체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해했다. 이때 정신적 차원의 완성은 출발점일 뿐,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다. 그는 생활 습관에 대한 예술적 완성을 위해서는 민족적 특징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양의 관습을 채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음 단계는 법적·사회적인 지위가 동등해지는 문제였다. 호적법의 개정을 통한 정치적 완성과, 직업과 임금의 차별을 없애 생활수준을 높이는 경제적 완성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수행되어 일본인과 같아질 때에야, 내선결혼을 바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현영섭은 내선일체의 완성을 바라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내선일체의 현실화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총독부는 끝까지 이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무화한다는 일제말기 가족정책은 담론상의 포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현영섭의 이러한 이해는 일제말기 발표된 내선결혼 문제를 그린 소설을 이해할 때 유효한 참조점이 된다. 이 시기 내선결혼을 다룬 작품에서 사랑의 완성이로 끝을 맺는 경우는 드물다.⁴⁸⁷⁾ 이는 민족 간 결합을 전적으

486) 文學史 玄永燮, 「內鮮一體と內線相婚」(『朝鮮及滿洲』, 1938.4), 앞의 책, 52면.

487)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 연구는 일제말기 내선연애/결혼의 문제를 다룬 소설에 나타나는 '결합불가능성'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곧 내선일체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내선결혼이 총독부의 내선일체 정책의 선봉에 놓인다는 전제 아래, 서사적 구현의 의미를 밝혀 국책에 협력하고 있는지

로 긍정할 수 없는 무의식이 발현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영섭의 논의를 염두에 둘 때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내선일체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소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정신적 차원의 동기를 절대화/이상화한다면, 그와 반대로 연애/결혼 동기가 지닌 의미가 퇴색되는 양상을 그린 소설은 우회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일제 말기 발표된 한설야의 「피(血)」(『국민문학』, 1942.1)와 「그림자影」(『국민문학』, 1942.12)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개인적인 사랑을 다루면서, 그 이면에 민족 문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이들 소설은 공통적으로 주인공인 조선인 남성의 회고적 시점으로 과거 연애를 낭만적으로 추억하면서, 내선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애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 ‘나’의 일본 여성을 향한 마음이다. 그는 일본인 여성을 애뜻하게 그리워하지만,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적 차원의 결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림자」에서 ‘나’는 치에코와의 이별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생명의 환호성”⁴⁸⁸⁾으로 표현되는 무형의 가치를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와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아쉬워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상화된 연애’의 형상화에는 제도적 차원의 결합이 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적인 파탄에 이르는 길이라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즉, 정신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을 강조하는 인물의 태도에는 내선결혼의 현실

그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일제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작가의식 차원에서 협력과 저항의 의도를 구명하려는 시도다.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 층위」, 김재용 외 저,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121-152면;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한민족어문학』 50, 2007. 한편 조진기의 논의는 성별과 국적에 따라 내선결혼을 네 유형으로 나눠 그 특성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중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에서 젠더와 민족의 위계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여성에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 글』 41, 2007;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8, 2005) 최근 조운정은 내선연애/결혼의 성패를 차치하고서, 결혼과 연애라는 개인의 욕망에 해당하는 문제가 집단적 사상과 연결될 때 발생하는 간극에 주목하였다(조운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

488) 한설야, 「影」(『국민문학』, 1942.12), 김재용 외 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2010, 208면.

화의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피」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상세히 나타난다. 이 소설은 ‘나’가 동경에서 미술을 공부할 때 스이후 선생의 문하생으로 같이 있었던 마사코와의 사랑을 추억하는 내용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는 내선결혼을 부정하거나 그 불가능성을 그린 작품,⁴⁸⁹⁾ 단순한 연애 소설에 불과하다는 평가⁴⁹⁰⁾와 같은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가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이한 평가는 작품 말미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자신의 ‘피’를 고통의 근원으로 의미부여하는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뉜다.⁴⁹¹⁾ 그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결국 내게 견어낼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자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을 터이다.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사코는 자신의 이러한 호의가 내게는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겠지만 결국 이번에도 그녀는 내게 고통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괜찮다. 평생 고통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파란 하늘을 떠가는 하얀 구름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⁴⁹²⁾ (밑줄: 인용자)

주인공 ‘나’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의 ‘피’에서 찾고 있다. 고통의 직접적인 계기는 마사코로 인한 것이지만, “평생 고통과 싸

489)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 층위」, 김재용 외 저, 앞의 책, 140-148면;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7-150면.

490)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앞의 글, 2005, 177-181면; 장용경, 「일제 말기 內鮮結婚論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18, 2007, 207-210면;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453-457면.

491)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해석상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민족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검열을 의식한 우회적 글쓰기라는 평가와, 앞의 서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으로 양분된다. 한편 검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제 말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서사의 유기성’과 ‘우회적 글쓰기’의 관련성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492) 한설야, 「血」(『국민문학』, 1942.1), 김재용 외 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앞의 책, 190면.

우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의 차원에서 보면 마사코로 인한 고통은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 서사의 유기적 흐름을 고려할 때,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는 듯한 주인공의 모습은 평생 고생만 해 왔던 어머니의 운명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띤다.⁴⁹³⁾ 문제는 어머니가 일생동안 겪은 그 고통의 정체 또는 의미가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소설에서 어머니의 의미는 고향과 등가를 이루는 상징적 의미인 ‘나’의 뿌리이자 영혼이 살아 숨 쉬는 터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결국 그의 고통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운명적이며, 그 터전은 고향이 지닌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요컨대, 여기서 ‘피’는 어머니와 연결됨으로써 유전과 운명의 계승을 넘어 고향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사 내에서 ‘고향’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또한 시골이라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고향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으로 겹겹이 싸여있어 K향으로 가는 전마선 부두가 보일 쯤에는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 안개와 송림의 그림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듯한 파란 풍경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선경을 떠오르게 했다. 그것은 이미 육체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몽환경처럼 보였다.

… (중략) …

나는 전마선에 타는 것도 잊고 트렁크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고향의 풍경을, 오늘로 영원한 이별이 될 지도 모르는 고향의 모습을 그렸다. 어떤 그림으로 할 지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의 내 기분, 마음을 비추고 있는 자연과 어머니가 녹아 있는 그림자를 종이에 옮길 뿐이었다.⁴⁹⁴⁾ (밑줄: 인용자)

위와 같이 ‘나’에게 고향은 실제 풍경이라기보다는 감정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 구현되는 ‘마음의 풍경’에 가깝다. 그는 스스로 고향의 의미를 육체의 차원이 아닌 영혼이 도달해서 이르게 된 경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죽음 이후 주인공의 정신 속에서 무형의 상태로 있던 고향이 ‘예

493) 이 대목이 어머니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은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제기되었다. 그러나 마사코와 나의 민족적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앞의 글, 180면.

494) 한설야, 「血」(『국민문학』, 1942.1), 앞의 책, 171면.

술'의 형태로 나타나는 장면은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이후 선생의 문하에 있던 그는 전람회 출품 권유를 받고서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고, 이때 그의 머릿속에 있던 고향의 풍경은 '추억'이란 제목의 그림으로 복원된다. 그로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향을 떠나며 종이에 옮겼던 소묘 차원의 고향 풍경은 '완성'에 이르고, '나'는 영혼 속에 살아있는 고향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향은 예술의 근원으로 숭고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마사코와의 결합에서 고통을 느끼게 만든, '나'의 내부에 흐르는 '피'는 이와 같은 고향의 의미가 덧붙여져, 순혈주의적이고 본질적인 민족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형성한다.⁴⁹⁵⁾

이와 같은 '피'의 함의를 고려할 때, 마사코와의 결렬이 단순히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차이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마사코도 나도 그림에 대한 수도자와 같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서로의 마음 깊이 흐르는 변화를 의식했을 것이다.

... (중략) ...

마사코도 나도 마음의 방향이 차라리 한 곳에 안정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결국 그 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인간과 예술의 위기를 나 자신이 느끼게 되었다. 그 계기는 너무나 간단하게 찾아왔다. 마사코가 내게 '김 상은 결혼 안 하세요'라고 물었던 것이다.

나는 그 찰나 과거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를 느꼈다. 내 눈앞에 '거짓말'이라거나 '예술'이라거나 '인간'이라는 것이 섞여 하나의 무서운 환영이 되어 점멸하는 것이었다.⁴⁹⁶⁾

마사코와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는 그에게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용된 대목에서, '나'는 마사코의 고백을 듣기 전부터 상호간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을 “인간과 예술의 위기”로 느끼고 있다. 그중 인간으로서의 위기는 내가 기혼자임을 밝히고, 그로 인해 마사코가 떠나면서 해결된다. 마사코는 법적 혼인 밖의 내연 관계를 거부하고, 머지않아 부모님이 정해진 실업가 남편과 가정을 꾸리게 된다. '나'는 마사코가 자신을 떠난 행위가 경건하다고 느끼고, 그녀가 “순결

495) 윤대석, 앞의 글, 149면.

496) 한설야, 「血」(『국민문학』, 1942.1), 앞의 책, 181면.

그 자체” 입을 깨닫는다. 교활하고 불순한 삶을 살 뻔한 위기는 이렇게 극복되고, 이로써 예술을 매개로 공명하던 마사코와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은 채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정신에 남게 된다.

시간이 지나 ‘나’는 조선의 온천장 여관에서 남편과 함께 투숙한 마사코와 해후하게 된다. 다시 만난 마사코는 더 이상 예술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가정에서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사코를 성스러운 존재로, 연애 감정 이상의 대상으로 느낀다. 오죽하면 “결혼해서 그녀를 잃는 것보다는 삼계까지 그녀를 쫓아갈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싶다”⁴⁹⁷⁾고 생각할 정도다. 그런데 오직 ‘마음의 눈’으로 그녀를 기억하자는 생각은 ‘고향’을 향한 마음가짐과 비슷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가 선물로 준 그림에 마사코가 돈을 지불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예술이라는 정신적 고향을 공유하던 마사코가 이제 그 자격을 상실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가 마사코의 행위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술(고향)의 의미를 물질적 교환의 거래로 퇴색시켰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민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랑이 달성되리라는 생각은, 그의 핏속에 흐르는 상실된 고향이자 예술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할 때 종결된다. 요컨대, 한설야의 「피」는 일본인 여성과의 연애가 ‘인간’과 ‘예술’에 해당하는 공통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애초에 결합을 꿈꾸는 것이 허구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을 묶어줬던 예술이 고향과 등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당대의 현실을 향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효석은 내선결혼과 국제결혼을 반복적으로 서사화한 작가이다. 그는 경계를 넘는 결합이 가능 또는 파탄으로 나가게 하는 계기로서, ‘두 인물이 공통성을 공유하는가’라는 물음을 반복적으로 소설화했다.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되는 소설이 1940년 전후로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완성 미발표 장편’이다.⁴⁹⁸⁾ 제목조차 알기 어려운 이 미발표 원고에

497) 위의 글, 185면.

498) 친필 원고의 첫 장이 소실된 이유로 이 소설의 제목 또는 발표 지면 및 시기 또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집에 따르면, 이 소설의 집필 시기는 1940년 전후로 추정된다. 서사 내에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강제 폐간(1940)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선어학회 사건(1942) 전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던 시기로 추측된다. (이효석 문학재단 엮음, 『이효석 전집』 6,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주목하는 까닭은, 일본어 소설에서 다뤘던 내선결혼과 조선어로 창작된 소설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러시아 여성과의 국제 연애가 동시에 나타나며, 이 두 결혼에 대한 작가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⁹⁹⁾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미완성 미발표 장편은 두 결혼의 대비를 통해 내선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불안한 토대를 드러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고승인(高勝仁)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아마노 가쓰토(天野勝人)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대일협력에 앞장 서는 인물이다. 그가 내선일체로 나아가게 된 계기는 아내 이요시와의 사랑 때문이다. 개인 간의 사랑을 통해 내선결혼과 내선일체의 신념으로까지 나아가는 인물을 그려내는 것은 국책 담론의 논지를 방불케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의 사랑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그 계기는 내선일체론자로 유명한 승인을 처단하고자 습격한 인물을 바라보는 승인과 아내의 상반된 태도로 나타난다. 승인은 그 자객이 자신과 사상은 다르지만 같은 동포로 여기는 반면, 아내는 그를 오직 원수로 여기면서 적대시한다. 그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승인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이요시는 복수를 했다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승인은 동포와 원수라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 속에서, 아내를 향한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느끼게 된다.

한편 승인의 동생 고승서와 그의 아내인 이리나의 관계는 승인 부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때같이 인간의 생명을 경멸한 적이 없었어요. 죽지 못해 아직껏 살아 있으니까요. 하얼

원, 2016, 292-293면) 한편 필자가 확인한 선행 연구 중에서 이 소설의 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공주은의 연구가 있다. 내선연애를 다룬 이효석 소설 전반을 다루면서, 다른 작품과 연계되는 지점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공주은, 「이효석 소설관과 내선연애라는 소재」, 『한민족어문학』 72, 2016, 364-365면.

499) 이효석의 소설 가운데 내선연애(결혼) 모티프를 보이는 소설은 다음과 같다. 「緑の搭」(『국민신보』, 1940.1.7-4.28), 「薊の章」(『국민문학』, 1941.11) 러시아 여성과의 사랑 등 국제연애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은 다음과 같다. 「旅愁」(『동아일보』, 1939.11.29.~12.28), 「蒼空 (碧空無限)」(『매일신보』, 1940.1.7.~4.28), 「哈爾濱」(『문장』, 1940.10) 공주은은 전자의 경우 후자와 달리 구성상의 파탄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선연애 모티프가 이효석의 창작관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공주은, 위의 글). 김재용은 이효석 문학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내용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빈은 제가 태어난 고장인데 지금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 버렸어요. 어째서 모든 것이 이렇듯 뒤죽박죽이 되어 갈까요. 슬퍼지네요. 동양의 땅에는 이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곳을 떠날 작정이어요. 그것만이 오직 하나 살아갈 길이니깐요.”

“미국에 가서 그곳 어느 도시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녀는 친어머니를 하얼빈에 떼 놓고 가는 것조차 불사하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 (중략) …

이리나는 홀에서 승서를 알게 되면서부터 언니인 나자보다도 좀 더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승서로부터 꿈을 강요당했다기보다 두 사람의 꿈을 뿌리부터 일치해 있었고 이것이 두 사람을 신속하게 결합시키게 된 것이었다. 똑같이 고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사람끼리의 공통된 고민의 결합이었다.⁵⁰⁰⁾ (밑줄: 인용자)

승서와 이리나의 관계는 “뿌리부터 일치” 된, “똑같이 고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끼리의 공통된 고민의 결합” 으로 의미 부여된다.⁵⁰¹⁾ 이리나는 하얼빈, 승서는 조선,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들은 새로운 고향을 찾아 떠나고자 한다. 그 곳은 ‘미국’으로, 식민지화된 조선, 하얼빈 등 동양과는 다른 의미를 띤다.⁵⁰²⁾ 한창 미국과 전쟁을 준비하던 시대적 맥락과, 당대에 미국이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유럽의 근대적 가치를 이어받았을지 모른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서와 이리나가 미국으로 떠나는 의미는 자못 의미심장하다.⁵⁰³⁾ 여기서 미국이 비단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같은 함의를 지닌 고향이 「

500) 이효석, 「미완성 미발표 장편」, 이효석 문학재단 엮음, 『이효석 전집』 6,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29-330면.

501) 이는 『벽공무한』에서 ‘쪽정’으로서의 공통성에 공감하며 결합을 이루는 철일마와 나아자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주리, 「동화, 정복, 번역: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8, 2010, 53-54면;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196-202면; 정실비, 「일제 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의 변전(變轉)」,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참고.

502) 일제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이 제국에 종속되지 않는 의미로 맥락화되고 있다는 논의로는 정실비, 위의 글 참조.

503) 파리합락 이후 지식인 일각에서는 유럽의 근대적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보고, 동양을 호명하는 입장과, 그 가치를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행방을 기다려 보자는 논의가 각축을 이루었다고 한다. 김재용은 「풀잎」(『춘추』, 1942)의 분석을 통해 이효석이 후자의 입장에 공명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김재용, 앞의 글, 306-307면. 또한 소설에서 승인이 아우 승서에게 지금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시기상 무모하다고 말하는 점에서도 이들이 설정한 여정의 목적지의 의미는 간과될 수 없다.

여수」에서는 '구라파'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주인공 '나'가 구라파를 동경하는 것은 그 곳이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갈망하는 자유의 표상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⁵⁰⁴⁾ 이처럼 일제말기 이효석 소설은 국제연애/결혼을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유라는 이름의 고향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다. 그와 다르게 내선일체를 지향한 인물의 결혼은 균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결혼의 두 양상에 대한 대조적 의미는, 내선결혼이 법적 개선으로 궁극적 완성에 이르기 전에 그 출발이 되는 정신적 완성에조차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2. 월경(越境)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시선

조선인 여성은 일본 호적 입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음에도,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과의 내선결혼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⁵⁰⁵⁾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내선결혼이 그 성패 여부를 떠나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⁵⁰⁶⁾ 그러나 문학적 재현이 특정한 관점을

504) “구라파에 대한 애착을 나는 가령 구라파 사람이 동양에 대해서 품는 것과 같은 그런 단지 이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보다도 한층 높이 자유에 대한 갈망의 발로라고 해석해 왔다.” 이효석, 「여수」, 이효석 문학재단 엮음, 『이효석 전집』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84면.

505) 이정선에 따르면, 내선 결혼으로 입적/제적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 순서는 '조선인 여성→ 조선인 남성·일본인 여성→ 일본인 남성'이다. 이는 조선인 여성이 지역적을 변경해도 식민통치와 가족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합은 그 반대의 경우에 약 7%에 불과할 정도로 그 차이가 상당했다. 이정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동화를 거부하고 전통을 지킨 증거로 보거나, 조선인 가정생활을 일본화하기 위한 총독부의 장려의 결과로 보는 해석이 있어왔다고 소개한다. 거기에 더해 이정선은 남성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상대적으로 일본 여성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던 현상과, 조선인 여성이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법률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리라는 이유를 추가로 들고 있다.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앞의 글, 100-105면.

506) 조진기는 조선인 남성과 내지인 여성의 결혼을 다룬 소설의 예로 이광수의 「마음이 서로 만나고서야」(이경훈 번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를 대상으로 삼아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목적에 충실한 계몽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조진기, 앞의 글, 442-447면.

통해 조직된 세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내선결혼을 다루는 소설이 희소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현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 시기 문학이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인 여성이 비조선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은, 조선인 남성의 경우와 달리 민족 경계를 넘어 연애와 혼인을 하는 여성을 불온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일제말기 시행된 창씨개명 정책은 부계혈통과 전통을 강조하는 조선의 가족을 해체하고자 했고, 민족적 정체성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통가족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⁵⁰⁷⁾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일제말기에 내선결혼 서사가 적지 않게 창작되었음에도, 그 대다수가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으로 나타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인 여성은 피의 융합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혼인에 의해 남편의 성(姓)과 국적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 여성은 일본과 조선의 가족의 동질화가 강조됨에 따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전통가족 담론이 팽배해지는 상황 속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김사랑의 「빛 속으로(光の中に)」(『문예수도』, 1939.10)는 내선혼혈이긴 하지만 일본 국적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결합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앞절에서 살펴본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연애 서사가 내선일체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본다면, 이 소설은 내선결혼 생활 자체를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성립불가능성을 더욱 강조한다. 문제는 내선결혼을

507) 이러한 맥락에서 박태원의 「채가(債家)」(『문장』, 1941.4)는 당대 창씨개명(創氏改名) 정책의 반대로 순혈주의 가족의 옹호로 나아가지 않고서, 일제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앞의 책, 435- 445면. 한편 씨(氏)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겨난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서양자제도이다. 이를 제재로 삼는 작품은 드문 편으로, 이석훈의 일본어 소설 「北の旅(북으로의 여행)」(『국민문학』, 1943.6)과 「血緣(혈연)」(『동양지광』, 1943.8)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두 편 모두 일본 가문에 서양자로 간 인물이 이전의 가족 및 고향과 완전히 분리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선의 가족을 해체하고 일본의 가족제도를 이식하고자 한 지배담론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설이다. 이석훈의 일본어 소설과 관련된 내용은, 劉惠瑩,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및 진영복,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담론과 균열-이석훈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8, 2011 참조.

한 조선인 여성 정순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모델시키면서까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일본의 가정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다음의 장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역시 아주머니가 하루오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랐다.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하루오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지금도 역시 한베에 씨를 귀중히 여기고 있겠지요.”

“아이고…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세요.” 그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애처롭게 말했다.

“주인인걸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한베에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하고 그 여자는 놀란 나머지 목소리를 삼켰다. 그리고는 술에 아주 녹초가 된 사람처럼 신음했다. “…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난 조선 여자예요.” 마지막에는 흐느낌 소리로 변했다.⁵⁰⁸⁾ (밑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눈여겨볼 점은 정순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소극적이지만 그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순과 한베에 관계의 내막을 알고 있는 남선생은, 한베에가 조선 요릿집에서 주인을 협박하고서 데리고 나온 여성이 정순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남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순은 한베에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조선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고향으로 떠나라고 권해도, 그는 스스로 한베에게 종속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그는 하루오의 어머니임을 스스로 부정하며, 그 아이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정순은 사회적으로 하층계급이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지탄받는 직업을 지녔으며, 일본인 남편을 뒤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 집단 어디에서도, 그리고 가족과 민족 공동체 어디에서도 승인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 서영인이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그녀는 중층적 억압 속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구원될 수

508) 김사량의 「빛 속으로(光の中に)」(『문예수도』, 1939.10), 임현영 엮음, 『김사량 작품집』, 지식울만드는지식, 2013, 40-47면.

없는 존재인 것이다.⁵⁰⁹⁾ 그렇기에 정순은 남과 하루오와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설 수 없는 것이다.⁵¹⁰⁾

이처럼 조선인 여성의 민족의 경계를 넘는 가족 구성은 애초에 조선인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행위이며, 법률상 주어진 여성의 자유에는 그 자유를 향유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현실에 적용 가능한 법률의 유연함이 되레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한 적대적 감정을 형성하는 데 공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인 여성은 비단 일본인 남성과의 결합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이 아닌 남성과의 교섭 자체가 문제가 된다.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조선인 여성이 민족 경계를 넘는 연애와 결혼을 서사화한 소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¹¹⁾

염상섭의 『이심』(『매일신보』, 1928.10.22-1929.4.24)은 신여성의 허영과 성적 타락이라는 표층 서사 이면에 당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문제제기가 함축되어 있는 소설이다.⁵¹²⁾ 특히 서술자의 언술과 춘경의 내면 서술이 교차됨에 따라, 춘경은 비판받는 동시에 비극에 빠지게 된 가련한 여성인물로서 동정을 느끼게 한다. 권위적인 서술자는 주인공 춘경의 성적 타락의 원인으로 그녀의 기질을 제시하지만,⁵¹³⁾ 춘경의 내적 갈등과 번민 또한 상당히 빈

509) 서영인, 「서발탄의 서사와 식민주의의 구조-일제말 김사량의 문학」, 『현대문학 이론연구』 57, 2014, 163-165면.

510) 김사량의 「빛 속으로」의 정순의 모습은 앞 절에서 살펴본 한설야의 「그릇된 동경」에 나타난 '나'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이다. 「그릇된 동경」의 조선인 여성은 철저한 민족적 자각과 자기 자신의 그릇된 인식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거쳐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에 속하게 된다.

511) 김주리는 내선결혼의 서사가 일제말기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면, 혼혈 결혼을 그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다. 김주리, 「동화, 정복, 번역: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8, 2010.

512)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앞의 책, 147-155면; 김병구, 「염상섭의 『이심』론」, 『시학과 언어학』 24, 2013; 오윤호, 「염상섭 소설의 이중플롯 연구: 초기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유중호, 「소설의 사회사-염상섭의 문혀있는 작품」, 『염상섭 전집 3: 二心』, 민음사, 1987, 303-326면;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내적 형식과 탈식민성』, 태학사, 2013, 225-240면.

513)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을 들 수 있다. “제 몸을 팔아서라도 잘 입고 잘 먹는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으면 도리어 행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으나, 서빨리 체면이니 양심이니 인격이니하는 생각이 춘경이의 머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춘경이는 더 고생이 있던 것이다. 그것들은 그의 가문이란 것과 그가 받은 중등교육에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교양의 힘이 그의 허영심과 그의 뱃속에 숨어있는 악종의 버레(그것은 탕부의 기질이다.)를 죽일만큼 좀 더 컸더라면 좋았겠지마는 그

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서술의 교차는 춘경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를 눈여겨보게 한다.

서사 내에서 춘경의 성적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는 일본인 좌야와 서양인 커닝햄과의 관계이다. 그중 춘경이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서 외면 받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후자에 있다.⁵¹⁴⁾ 커닝햄이 춘경을 향한 애정은 그의 동양 취향이 반영된 것이고,⁵¹⁵⁾ 사기결혼 과정에서 돈이 오갔던 점을 고려하면 이 둘의 관계는 거래의 성격이 다분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커닝햄은 춘경을 향한 순정한 애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서양인과의 교제에 거부감을 갖던 춘경 또한 그의 진심에 감격을 느낀다. 두 인물의 감정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마음의 교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⁵¹⁶⁾

춘경이는 남자가 이렇게까지 낙심이 되어서 표랑의 길을 떠나겠다는 것을 듣고 가엾게 생각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때문에 한 남자의 생애가 축발이 되는것을 가만이 보고 앉았다는 것은 무서운일 같기도 하였다. 그 뜨거운 정화(情火)! 사랑이냐! 죽음이냐! 고 헤매이는 그 젊은 열탕같은 심정! 서양 사람이거나 <니그로>거나, 자기에게 이만큼이나 순진한 향의를 가지고 있는것을 보고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수 없었다.⁵¹⁷⁾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흥미로운 점은 춘경이 커닝햄의 사랑에 인종을 뛰어넘는 감격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커닝햄은 춘경에게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자고 하고, 춘경을 그와 함께 고베(神戸)로 떠나 살림을 차린다. 이렇게 볼 때, 커닝햄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좌야와 춘규 사이에서 농락당하는 조선의 삶 속에서 춘경을 탈출하게 해 주는 존재이다.⁵¹⁸⁾ 하지만 고베에서의 생활

렇지 못한것이 그의 일생을 비극으로 끌어가는것이였다.” 염상섭, 「이심」, 『염상섭 전집 3: 二心』, 민음사, 1987, 83면. 이처럼 서술자는 춘경이 후천적으로 습득한 교양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국 본성적 기질로 인해 비극에 이른다고 논평한다.

514) 장두영, 앞의 책, 236-239면.

515) 김주리, 앞의 글, 49면; 김학균, 「〈이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516) 춘경과 창호의 학창시절의 애정 또한 순수한 호감에서 시작되었으나, 학교와 가정에서의 고정관념과 폐쇄적 태도로 그들의 관계는 그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보다는 반동적으로 비약된 경우에 해당된다.

517) 염상섭, 「이심」, 『염상섭 전집 3: 二心』, 민음사, 1987, 277면.

518) 홍덕구는 서사 내 커닝햄의 장소를 분석하여, 그가 경성에 “잠시 머무르는

또한 행복하지 않다. 춘경은 거기서도 ‘서양인 첩인 조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고립감을 느낀다. 커닝햄 또한 춘경이 ‘조선 사람’이란 이유로 사교계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쾌해 한다. 요컨대, 일본 국적을 지닌 조선인 춘경이 서양인과의 결합은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춘경과 커닝햄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고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한편 춘경의 죽음 앞에서 가장 서럽게 울며 슬퍼하던 인물이 커닝햄이라는 사실은 사기결혼이라는 거짓된 형식을 넘어선 의미를 전달한다. 그의 모습은 서술자에 의해, 이성을 잃을 정도의 감정 상태인 “여광여취”⁵¹⁹⁾로 묘사될 정도로 강렬하다. 춘경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축출된 결정적 계기가 된 커닝햄이야말로 그녀를 온전히 추억하며 기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춘경과 커닝햄이라는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은, 주변의 시선을 통해 국경을 넘은 진정한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기는커녕 춘경은 타민족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은 오염된 조선인으로 낙인찍힌다. 이렇게 볼 때, 춘경의 파오는 아이러니하게도 커닝햄과의 관계를 민족 간의 결합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비조선인과의 결합에 망설이지 않는 춘경은 사회적으로 타자화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춘경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인물이 그녀의 남편 창호라는 사실이다. 창호는 춘경을 단도로 찔러 죽이려다가,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보다는 벌을 주기로 결심하고, 춘경을 유곽으로 유인하여 팔아넘긴다. 그러나 춘경은 창호의 의도와 다르게 절곡을 하다가 죽게 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춘경과 창호가 민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부로, 사실상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⁵²⁰⁾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은 염상섭이 당대 가족법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될 수 없다.⁵²¹⁾

자”이며, 그와의 결합은 춘경에게 “재조일본인 사회를 포함한 조선사회로부터 탈주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홍덕구, 「염상섭 『이심』 다시 읽기」, 『상허학보』42, 2014, 284면.

519) 염상섭, 『이심』, 앞의 책, 297면.

520) “민적은 이뻐졌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도리어 다행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 일은 누구더러 알은체 하라는것은 아니나, 나는 모르겠소. 다만 장차 나올 자식에 대하여는 당신의, 그래도남은 양심에 맡기거니와, 건전히 나오는 날 응당 내가 책임지리라. 태평이 조심하여 행복스럽게 지내시오.” 위의 책, 145면.

521) 이에 대해서는, 본론의 IV장 2절 참조.

창호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됨을 알면서도, 남편된 자의 사회적 도의를 내세우며 춘경을 공창(公娼)에 팔아넘긴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커닝햄에게는 간통죄 운운하여 춘경의 본부(本夫)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⁵²²⁾ 이러한 맥락에서 춘경은 민족의 동일성을 위협하는 존재인 동시에, 법률과 관습적 도덕 모두에게서 보호받을 수 없는 여성이다. 또한 합법적이지 않은 남편 개인에 의한 처참한 처벌 행위는, 심판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불신하게 한다. 따라서 춘경은 민족의 경계를 넘은 오염된 여성으로 조선 사회에서 타자화된 인물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그와 같은 단죄에 동참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심』에 나타난 순혈적 민족공동체를 상대화하는 시도는, 염상섭의 『모란꽃 필 때』(『매일신보』, 1934.2.1.-7.8)와의 대조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소설에는 춘경과 여러모로 인물 설정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문자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녀는 여러 남성과 교제를 일삼으며 성적 타락함을 보이고, 춘경이 커닝햄과 교제를 했듯 문자는 서양인 하아디와 만남을 이어간다.⁵²³⁾ 그러나 춘경과 문자는 작가에 의해 전혀 다른 성격을 부여받는다. 춘경의 내면 묘사가 풍부하게 그려짐에 따라 그의 번민을 독자가 통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반면, 문자는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고민도 망설임도 없는 인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내면성이 부재한 인물에 가깝다. 춘경과 커닝햄의 관계가 서로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는 면이 있다면, 문자와 하아디의 경우 상호간의 감정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문자가 남편인 영식과 이혼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 또한 서양인과의 교제로 나타난다. 영식은 동경생활을 계속하다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직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영식은 창호와 달

522) “커닝햄군! 군과는 아직 형식(荊識)이 없으나 성화는 이미 들었노라. 군은 사람의 안해를 일만오천원에 샀다 하나 시장의 그 실가는 팔백원에 불과하기로, 팔백원을 송정하는 바이니, 그 실물은 생에게로 돌려 보냄이 당연한줄로 믿노라. 만일 이에 불응하는때는 귀하를 유인, 간통죄로 고소함을 미리 통고 하노라. 또한 만일 팔백원을 제한 일만 사천이백원의 결손을 운위코저 하거던, 좌야 수원려 관주부, 박춘서 라고 사칭(詐稱)하는 강찬규 등에게 대하여 청구함이 가하다고 사유하노라.” (밑줄: 인용자) 염상섭, 『이심』, 앞의 책, 297면.

523) 이경훈, 「문자의 전성시대-염상섭의 『모란꽃 필 때』에 대한 일 고찰-」, 『사이』 14, 2013, 462-463면.

리 문자를 단죄하지 않으며,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 사람을 만들든지 동경에 머물겠다고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춘경과 달리 문자는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로 그려지지만, 사실상 그의 정체성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에 가깝다. 춘경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타민족과의 관계로 인해 축출되어야 했다면, 문자는 조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과 같은 사적인 조율을 거쳐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녀를 문자보다 ‘후미코’라는 이름이 더 적절한, 일본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본 이경훈의 지적은 타당하다.⁵²⁴⁾

(가) 「가나이노 옥상이란 누구야?」

하고 슬쩍 떠보았다.

「왜 모르세요? 요기 사시는 조선서 오신 양반—이 댁 서방님하고 한 회사에 다니시는 양반의 부인이시지요」

「응—」

하고 신성이는 더 말을 끄내지 않았으나 이 집에서는 그 남편의 성을 부르지 않고 모친의 성을 부르는 것이었다.⁵²⁵⁾

(나) 여기가 자기 집이라는 말에 신성이는 문자가 내다보지나 않는가 하는 겁도 났지마는 영식이 집이라면서 문패에는 가나이(金井)이라고 써어 있다. ⁵²⁶⁾

(가)는 신성이 문자와 결혼한 영식이 그의 성이 아니라 문자의 모친의 성을 따라 불리는 점을 보고 놀라는 대목이다. “가나이노 옥상”이란 호칭이 사회적으로 불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나)에서 영식의 집의 문패에 “가나이(金井)”라고 써 있다는 점에서 확실해진다. 소설 내에서 영식이 문자의 집안의 서양자가 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지만, 영식이 아내의 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그와 비등한 의미를 환기한다.⁵²⁷⁾ 남성 인물이 성(姓)을

524) 위의 글, 464면.

525) 염상섭, 「牡丹꽃 필 때」, 『염상섭전집』 6, 민음사, 1987, 209면.

526) 위의 글, 244면.

527) 조선과 변별되는 일본 가족제도의 ‘서양자(壻養子)’ 제도는 일제말기에 들어 시행될 때 큰 반감을 불러왔을뿐더러, 일찍이 서사화되면서 조선의 혈통을 버리는 일로 그려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채만식의 처녀작 『과도기』(1923)이다.

바꾼다는 것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는 부계혈통의 계승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영식은 문자와 결혼하면서 유사 일본인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동경의 향락에서 벗어나 문자의 집에서 벗어남으로써 조선인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자와 영식의 부부관계의 파탄은 춘경과 달리 비극적이지 않다. 이는 문자가 민족의 테두리에서 배제된 인물이 아니라, 애초에 민족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던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태준의 『청춘무성』(박문서관, 1940)은 미국 국적을 지닌 조선인과의 결혼 문제를 그리고 있다. 처음부터 민족 문제를 염두에 두고 결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고은심은 연인관계인 원치원과 헤어진 후, 미국 유학을 떠난 사촌오빠의 주선으로 조오지·함파와 약혼을 하게 된다. 그는 조선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 미국에 입적한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은심이 조오지와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그를 한 개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떠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구경은 하고 싶어두 서양 그 자젠 그리 존경하지 않지요.”

“왜요? 선생님 신봉하시는 예수교도 서양 사람들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고 은심은 날카롭게 치원을 쳐다본다. 자기가 조오지·함파와 결혼을 하면 국적상으로 미국민이 되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인식을 소중히 가지고 싶은 때문이다.

... (중략) ...

“인제 하와이나 로스앤젤리스 같은데 가보심 대뜸 느낄겁니다. 난 전에 상해(上海)가서 거기서 조선사람들의 반 서양식 생활을 보구 그 모두가 임시생활 같구, 모의생활 같구, 찬바람이 돌구, 군물이 도는 부조화의 고민을 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형식과 일본 여성 문자와의 혼인 문제의 장애물은 단지 ‘조선’과 ‘일본’이라는 민족적 차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외동딸인 문자는 데릴사위 양자를 들여 ‘가(家)’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에게 서양자로 가는 것은, 피가 섞이는 문제를 넘어 혈통의 영속성의 표지인 성(姓)을 바꾸며 가문의 외부자로 나서는 일은, “아주 일본 사람이 되어버린단 것”(채만식, 「과도기」, 『채만식 전집』 5, 창작사, 1987, 223면)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문자와 결혼을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임없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자의 모친인 천대부인 또한 형식이 조선인인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양자를 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혼인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은심은 조오지·함 생각을 얼른 한다.

‘제가 아무리 미국서 나 미국말을 잘하고 미국음식과 미국옷에 열려버렸다 치자, 조오지·함의 영혼속에 동양에의 향수가 영영 없을 수 있는 것일까? 없을 수 없는 것이길래 국적은 미국이면서도 조선처녀에게 청혼한다는 게 아닌가? 난 그럼 조오지·함의 동양에의 향수를 위로하러 가는 한낱 동양의 「미아게」노릇이 아닌가? 내 자신 미국생활에 부조화될 건, 조오지·함 이상일게 아닌가?’⁵²⁸⁾ (밑줄: 인용자)

은심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일본에 들렀다가 원치원과 재회하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인용된 대목은, 조오지와함의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고서 은심과 치원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흥미로운 점은 은심이 조오지와함의 결혼을 하면 국적이 미국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양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결혼의 문제가 단순히 호적상의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바뀔 때 따라 그 곳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다시 키워나가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은심의 이러한 마음은 치원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바뀐다. 치원은 아무리 조선인이 서양식의 생활을 하더라도 조화롭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때 은심은 조오지가 자신과 같은 조선 처녀와 혼인을 바라는 것이 동양의 향수를 충족하고 싶은 심리가 투영된 것이 아닌지 반문한다. 또한 미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생긴다. 그 결과, 은심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미국 생활에 회의하게 되고, 그녀는 조오지와함의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치원과함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 국적을 따는 일에 대한 거리를 확보한 인물은 그 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민족공동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 대목이 지니는 문제성은 미국의 문화가 서양을 상징하게 되고 그 대척지점으로 동양의 정신문화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 소설이 창작된 시기를 고려할 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인으로 제시된 서양문화는 그 반대항인 동양의 정신문화를 강조하는 가족 문화를 상기시킨다. 이는 결국 일본 제국이 상정하고 있는 동양 정신과 상통하면서 그에 걸맞은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528) 이태준, 『청춘무성』, 깊은샘, 2001, 215-28면.

지금까지 살펴본 소설에서 조선인과 비조선인, 다시 말해 민족 간의 결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이해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내선결혼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아닐 경우로 그 문제성의 범주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이효석 소설의 국제연애가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과 대조적이다. 작가마다 추구하는 주제의식이 상이함을 전제하더라도, 남성이 혼인 이후에 여전히 완전한 조선인일 수 있는 반면 여성은 혼인에 따라 다른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문제는 간과하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인다. 특히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식민지 시기에는 쉽게 조선을 떠날 수 있는 여성의 존재는 불온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VI. 결론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당대 가족법과의 관련 속에서 구명하고자 했다.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사적영역을 새롭게 규율해 나갔던 가족법을 비판적으로 성찰했고, 그에 대한 문학적 응전 차원에서 당대 가족에 생겨난 제 문제를 서사적으로 구현해냈다. 그간 식민지 시기 가족 연구는 주로 근대 가족제도의 수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가족법의 변화에 따라 일상에서 유동하는 가족 개념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사건들을 작가들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법질서 안과 밖에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권리와 새로운 가족상을 모색해나갔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민족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이자 공동체의 원형이다. 식민지 시기 근대 민법의 차원에서 도입된 가족법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재편해 나갔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작가들은 가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직접 겪었고, 그 속에서 생겨난 고민을 서사적으로 구현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발화를 시도하려 했다.

예비적 차원의 논의로, II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의 변화를 주도했던 근대 민법의 도입으로 인해 가족이 재편되는 양상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선총독부 가족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제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호적제도와 조선민사령 제11조는 근대성과 통치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서, 조선 사회에 해방과 억압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특히 식민 당국은 이것이 봉건적인 조선의 가족보다 진보된 제도임을 지속적으로 선전했는데, 이때 가장 부각되었던 것이 여성 인권 문제였다. 총독부의 선전 논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가족법에 해방적 속성뿐 아니라 전근대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가족 개혁을 위한 법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국가가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경계의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 여성의 법적 지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혼의 권리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질곡에서 여성의 삶을 해방시켜주는 수단으로 옹호되었다. 한편 공인된 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 간주

됨에 따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배제된 존재들이 출현했다. 첩과 제2부인, 사생아, 창시개명 정책으로 인한 여성 문제 등은 당대 지식인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배경적 고찰 하에, 이 논문의 Ⅲ-V장은 부부, 가족, 민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주제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을 공식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조선인 간의 결합, 조선의 가족과 이를 규율하는 국가, 조선인과 비조선인의 가족 구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 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개인과 개인, 가족과 국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내포되어 있다.

Ⅲ장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달라진 부부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1910년대는 법적 이혼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명문화된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근대적 결혼 개념은 합리적 계약 정신과 문명한 법의 정신이라는 속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인 사이에서 주요한 담론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10년대 문학은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타자로 그려졌던 구여성의 목소리를 문학 속에 재현해 낼 수 있었다. 이는 계약의 합리적 정신이 강조되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던 현실과 조응하여 나타난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1920년대는 일부일처제가 법률혼으로 정착됨에 따라 결혼과 이혼의 분계선이 더욱 고정되었고, 그리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이들은 정상가족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불평등한 간통죄 조항으로 인해 여학생 첩이 양산되었던 현실을 직시하고, 법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내면을 서사화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을 분석하였다. 1930년대는 신가정 담론이 확산되었던 시기이지만, 동시에 부부 관계에 내포된 젠더불평등의 요소가 첨예하게 문제시되던 때이기도 했다. 계약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상화된 현실에 대해 폭넓은 문제제기를 시도하고 있는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Ⅳ장에서는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을 법률을 매개로 통제하고자 했던 국가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을 살펴보았다. 가족은 관습법의 영향력이 강하게 살아있는 집단이다. 국가법을 향한 비판은 전근대적 가족의 법인 관습적 규범 속에 내포된 감정과 인정의 윤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와 동시에 전근대적 법에서 용인된 사적 처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그 의미에 대한 성찰이 나타났다. 한

편 식민지 시기 가족법은 전통가족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을 무화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염상섭의 소설은 전근대적 가족이 식민 권력에 의해 해체되고 변질되는 모습과 식민지공권력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문제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설적 구현을 통해 작가가 어떠한 전망을 타진해보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 창작된 채만식과 심훈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법률로 귀속되지 않는 대안적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 내재된 자유와 평등의 한계를 표면화하는 민족 경계를 넘는 가족 구성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내선결혼의 불가능성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이 법의 개정과 맞물려 시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적의 이동이 자유로운 여성인물이 오히려 민족의 경계를 뒤흔드는 불온한 존재로 재현되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학 속에서 민족 경계를 넘어선 가족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났는지 규명하는 동시에, 순혈주의적 가족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상대화하려고 했던 시도를 해명하고자 했다.

이처럼 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식민지 시기의 가족을 법의 문제와 나란히 놓고 살펴보고 있다. 이는 문학에 재현된 근대가족 형성 문제가 협력과 저항, 전근대와 근대, 개인과 가족, 젠더불평등과 같은 어느 한 틀만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양상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식민지 시기 가족법이 해방 이후 민법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문학에 재현되는 가족법적 현실의 근원은 이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가족법적 현실 속에서 문학을 통해 보여준 더 나은 삶과 권리를 향한 풍부한 가능성의 지표들은 문학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 신문, 잡지 (영인본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 포함)

『개벽』, 『대동학회월보』,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동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장』, 『별건곤』, 『삼천리』, 『서광』, 『서우』, 『신가정』, 『신여성』, 『여성』, 『영대』, 『조광』, 『조선문단』, 『조선일보』, 『청춘』, 『학지광』, 『황성신문』, 『현대』

『(대한제국) 관보』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조선총독부관보』 (<http://gb.nl.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國譯)慣習調査報告書』(정공식 편역, 한국법제연구원, 1992)

『형법대전』 (융희2년 4월5일 발행)

(2) 작품집 및 총서류

『광분』(염상섭, 프레스21, 1996)

『김동인 전집』(조선일보사, 1988)

『김명순 문학전집』(서정자·남은혜 엮음, 푸른사상, 2010)

『김사랑 작품집』(임헌영 엮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김일엽 선집』(김우영 엮음, 현대문학, 2012)

『나도향 전집』(주종연 외 엮음, 집문당, 1988)

『나혜석을 말한다』(나혜석학회 엮음, 황금알, 2016)

『만세전』(염상섭, 고려공사, 1924)

『삼대』(정호웅 편, 문학과지성사, 2004)

『심훈 전집』(김종욱·박정희 엮음, 글누림, 2016)

『재조일본인이 본 결혼과 사회의 경계 속 여성들』(양지영 편역, 역락, 2016)

『염상섭 전집』(권영민 외 편, 민음사, 1987)

『염상섭 문장 전집』(한기형·이혜령 편, 소명출판, 2013)
 『이광수 초기 문장집』(최주한·하타노 세츠코 엮음, 소나무, 2015)
 『이광수 전집』(이광수, 삼중당, 1971)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이효석 전집』(이효석 문학재단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채만식, 방민호 편, 예옥, 2009)
 『채만식 전집』(창작사, 1987)
 『청춘무성』(이태준, 깊은샘, 2001)

2. 단행본

(1) 국내논저

강명관,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휴머니스트, 2016.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권용혁, 『한국 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 이학사, 2012.
 권태억 외, 『일제 강점 지배사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0.
 김정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김복순, 『“나는 여자다” :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김열규 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76.
 김윤선,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2, 솔, 1999.
 ———,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김재문,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김재용 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2010.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출판, 2007.
 김진균 · 정균식 외,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 표상』, 예옥, 2009.
 류종렬,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박병호 외, 『가족법학총론』, 박영사, 1991.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2005.
 변광배,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 살림출판사, 2007.
 서연호, 『한국 근대 희곡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4.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송기섭, 『근대소설의 서사 윤리』, 태학사, 2008.
 송명희,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해부하다』, 지식과 교양, 2015.
 심헌섭박사 75세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법문사, 2012.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까치, 1995.
 양 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0, 250면
 양승국, 『한국 현대 희곡론』, 연극과인간, 2001.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창비, 2011.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편,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 2006.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1.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2.
-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 편역, 『친일논설선집』, 실천문학사, 1987.
- 임현영, 『임현영 평론 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내적 형식과 탈식민성』, 태학사, 2013.
- 전경옥 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1,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 정광현, 『한국 가족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정혜영, 『환영의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6.
- 조 은 외,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최계화, 『가족사소설과 근대성: 1930년대 한·중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 최동호 외, 『나혜석, 한국 문화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5.
-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1997.
-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 최재석,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 최주한,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 최흥기,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하용출 편, 『한국 가족상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 한상범,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2001.

(2) 국외논저 및 번역서

- 中川 淳·小川富之 編, 『家族法』, 法律文化社, 2013.
- 千田有紀, 김복순 역, 『일본형 근대가족』, 논형, 2016.
- 宮田節子 외,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 학민사, 1994.

- 水野直樹, 정선태 역, 『창씨개명』, 2008.
- 甲斐道太郎, 강금실 역, 『소유권사상의 역사』, 돌베개, 1984.
- 谷口知平, 『民法要設』(全), 有斐閣, 1951.
- 福澤諭吉, 표세만 외 역, 『후쿠자와 유키치의 젠더론』, 보고사, 2014.
- 上野千鶴子, 이미지문화연구소 역,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 당대, 2009.
- 西川祐子, 임미진 역, 『문학에 나타난 생활사』, 제이앤씨, 2012.
- Althusser, Louis, 이진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 백의, 1991.
- Arendt, Hannah,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Aristotle, 천병희 역, 『정치학』, 숲, 2009.
- Bebel, August, 이순예 역, 『여성론』, 까치, 1995.
- Bruner, Jerome Seymour, 강현석·김경수 역,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2010.
- Butler, Judith,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 Chakrabarty, Dipesh, 김택현·안준범 역, 「누가 고통을 증언하게 하는가?」,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 Derrida, Jacques,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 Deuchler, Martina,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 Engels, Friedrich,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6, 박종철출판사, 1991.
- Foucault, Michel,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_____, 오토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2.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임석진 역, 『법철학』, 한길사, 2008.
_____,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2, 지식산업사, 1988.
- Hauptmann, Gerhart, 윤순호 역, 『외로운 사람들』, 양문사, 1960.
- Hunt, Lynn, 전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 Jhering, Rudolf von, 심재우·윤재왕 역, 『권리를 위한 투쟁: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새물결, 2016.
- Spivak, Gayatri Chakravorty, 태혜숙 역, Rosalind C. Morris 엮음, 『서발턴

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Morton, Stephen,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앨피, 2005.

Nussbaum, Martha Craven,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 2013.

Rousseau, Jean Jacques, 김중현 역, 『에밀』, 한길사, 2003.

Taylor, Charles, 정대성 역, 『헤겔』, 그린비, 2014.

Unger, Roberto Mangabeira, 김정오 역, 『근대사회에서의 법: 사회이론의 비판을 위하여』, 삼영사, 1994.

Watt, Ian P., 강유나·고경하 역, 『소설의 발생』, 강, 2009.

3. 논문

강유진, 「근대 주체로서의 성장과 가족로망스」, 『어문론집』 39, 2008.

공종구, 「채만식 소설의 기원-『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4, 2010.

공주은, 「이효석 소설관과 내선연애라는 소재」, 『한민족어문학』 72, 2016.

구인모, 「근대 한국여성의 서양인식, 서양체험과 문학: 한일(韓日)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12, 2004.

권 미, 「20세기 초 한·중·일 가족사소설 비교사(比較史) 연구-『이에(家)』, 『삼대(三代)』, 『자(家)』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권보드래, 「열정의 公共성과 個人性: 신소설에 나타난 ‘一夫一妻’와 ‘二妻’의 문제」, 『한국학보』 26-2, 2000.

권철호, 「沈熏의 長篇小說 『織女星』 再考」, 『어문연구』 43, 2015.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0, 2012.

김경수, 「근대법의 수용과 신소설」, 『서강인문논총』 43, 2015.

——, 「김동인 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구보학보』 16, 2017.

——,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38, 2008.

김경연, 「내선일체의 멜로드라마와 식민주의의 균열: 이광수의 내선 연애·결혼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14, 2011.

- 김기영, 「나도향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현실인식」,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신소설과 계몽적 논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 2001.
- _____,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사회』 14, 2001.
- 김명인, 「한국 근현대소설과 가족로망스: 하나의 시론(試論)적 소묘」, 『민족문학사연구』 32, 2006.
-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여성에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 글』 41, 2007.
- 김미지, 「〈인형의 집〉 '노라'의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30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용된 '노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2.
- _____,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민정,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4, 2005.
- 김병구, 「염상섭의 『이심』론」, 『시학과 언어학』 24, 2013.
- 김상훈, 「祭祀用財産의 承繼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성연, 「염상섭 가족사 소설 연구: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와 가족제도의 변화」,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승민,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가족로망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승환, 「염상섭소설에 나타난 가족중심의 인간상고 (攷): 중기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17, 2012.
- 김양선, 「『광분(狂奔)』 자세히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 2001.
- 김영민, 「『개척자(開拓者)』 다시 읽기」, 『사이』 18, 2015.
- _____,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근대 초기 신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5, 2016.
- 김영선, 「결혼·가족담론을 통해 본 한국 식민지근대성의 구성 요소와 특징」, 『여성과 역사』 13, 2010.

- 김예리, 「법과 문학, 그리고 '위반'으로서의 시적 정의」,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
- 김윤정, 「식민지 시대 관습(慣習)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 2014.
- 김재석, 「〈규한〉의 자연주의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26, 2007.
-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 김정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의 문제-남충서, 유진, 조준석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4, 2015.
- 김주리, 「동화, 정복, 번역: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다문화 콘텐츠연구』 8, 2010.
- 김진구, 「1940년 전후 가족서사의 정치적 상상력 연구: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의 『탑』, 김사랑의 『낙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창록, 「법에 있어서의 '근대」, 『법학논총』 21, 2014.
- 김학균, 「〈이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 김 향, 「식민지배와 민족국가/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에 대하여: 『만세전』 재독해」, 『대동문화연구』 82, 2013.
-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38, 2010.
- 김형목, 「위자료 청구소송을 주도한 소완규와 나혜석 인연」, 『나혜석연구』 7, 2015.
- 김혜경·정진성,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 35-4, 2001.
-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텍스트 확정과 대항담론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 2010.
- 류진희, 「한국의 입센(Henrik Ibsen) 수용과 노라이즘(Noraism)의 역학」, 『나혜석연구』 2, 2004.
- 劉惠瑩,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광석, 「‘제국헌법’과 明治天皇」, 『일본역사연구』 26, 2007.
- 박성우, 「윤리와 정치의 통합으로서의 법의 지배」, 『21세기 정치학회보』 19, 2009.
- 박용규,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 언론학보』 46-1, 2001.
- 박정희, 「‘家出한 노라’의 행방과 식민지 남성작가의 정치적 욕망」, 『인문과학연구논총』 39, 2014.
-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헌호, 「30년대 후반 ‘가족사연대기’소설의 의미와 구조」, 『민족문학사연구』 4, 1993.
- _____,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 『상허학보』 6, 2000.
-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우리말글학회, 2009.
-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0, 2006.
- _____,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31, 2010.
- _____,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서경희, 「구여성의 소설 <고씨효절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서동인, 「성주 사도실마을의 창씨 실태와 김창숙의 반대 논리」, 『한국 근현대사 연구』 70, 2014.
- 서영인, 「서발턴의 서사와 식민주의의 구조- 일제말 김사량의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57, 2014.
- 서지영, 「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 1920-30년대 연애의 장(場)」, 『여성문학연구』 19, 2008.
- 소산산,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와 『부인론』의 관련양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6, 2014.
- 소영현, 「근대소설과 낭만주의」, 『상허학보』 10, 2003.
- _____, 「정열의 근대적 배치-최찬식의 『능라도』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2004.

-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손병희, 「나도향의 소설에 안동이 등장하는 까닭」, 『안동문화』 16, 1995.
- 송명희, 「“규한(閨恨)”과 1910년대의 혼인관」, 『여성문제연구』 18, 1990.
- ,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문학』 20, 1995.
- 신상성, 「1930년대 한국 가족사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신혜수, 「김명순의 하우스프트만 문화번역 연구-「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2016.
-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 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심수영, 「나도향 소설 연구: 「청춘」, 「환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내선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8, 2005.
- , 「‘모성’의 탄생-최정희의 「지맥」, 「인맥」, 「천맥」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2015.
- ,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7-1, 2006.
- 안미영, 「한국 근대소설에서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 『비교문학』 30, 2003.
- 안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3, 2000.
- 오양진, 「낭만적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나도향의 경우」, 『우리어문연구』 19, 2002.
- 오윤호, 「염상섭 소설의 이중플롯 연구: 초기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2002.
- 원은영, 「가족사연대기소설연구: 김남천의 『대하』, 이기영의 『봄』, 한설야의

- 『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9, 2012.
-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김명순·나혜석·김일엽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경림,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信義)”의 형상화 방식에 관하여」, 『인문논총』 73-2, 2016.
- 이경훈, 「문자의 전성시대-염상섭의 『모란꽃 필 때』에 대한 일 고찰-」, 『사이』 14, 2013.
-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숭실사학』 26, 2011.
- 이상돈, 「법문학이란 무엇인가-법문학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 『고려법학』 48, 2007.
- 이상돈·이소영, 「법문학비평의 개념, 방법, 이론, 실천」, 『안암 법학』 25, 2007.
- 이상욱, 「일제 강점기 상속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민족문화논총』 33, 2006.
- 이소영, 「법문학비평과 소수자의 내러티브-박민규, 윤성희, 김애란의 단편소설에 대한법문학비평-」, 『법철학연구』 14, 2010.
- 이승엽, 「녹기연맹의 내선일체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소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승희, 「한국 사실주의 회곡 연구: 1910~1945년 시기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영아, 「이은(李垠)-나시모토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결혼 서사를 통한 ‘내선(內鮮)결혼’의 낭만적 재현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17, 2011.
- 이원택, 「개화기 ‘禮治’로부터 ‘法治’로의 사상적 전환: 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와 그 성격」, 『정치사상연구』 14-2, 2008.
- 이재선, 「한국 가족사소설의 전개」, 『한국문학의 해석』, 한국학술정보, 2003.
- 이재승,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비평』 103, 2013.
- 이정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선전과 현실」, 『역사문제연

- 구』 33, 2015.
- _____, 「가족사, 가장 오래된 새로운 역사」, 『역사비평』 104, 2013.
- _____,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한국 근대 “호적제도(戶籍制度)”의 변천- “민적법(民籍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009.
- 이정숙, 「〈규한〉의 근대의식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9, 2004.
- 이지훈,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2, 2014.
- _____,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 연구: 근대 주체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태훈, 「유교적 가족관과 시민적 가족관」, 『사회사상과 문화』 2, 1999.
- 이행미, 「두 개의 과학, 두 개의 문명」,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 _____,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
- 이형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혜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0, 2003.
- _____,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아의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18, 2003.
- 이혜선, 「1920~30년대 新女性 ‘第二夫人’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임경택, 「일본가족의 근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가족」, 『일본사상』 9, 2005.
- 임 용,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 연구』 1, 1998.
- 임정연, 「근대소설의 낭만적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48, 2011.
- 임형모, 「가족사 연대기소설에 나타난 저항성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 『어문논집』 49, 2012.
-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2003.
- 장용경, 「일제 말기 內鮮結婚論과 조선인 육체」, 『역사문제연구』 18, 2007.
- 전은경, 「‘창씨개명’과 『충동원』의 모성담론의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 26, 2008.
- _____, 「1910년대 지식인 잡지와 ‘여성’: 『학지광』과 『청춘』을 중심으로」, 『어문학』 93, 2006.
-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2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전훈지, 「식민지시기 혼혈인의 자아 정체성 연구-염상섭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3, 2015.
- 전희진·박광형, 「“제2부인”이라는 근대적 긴장」, 『사회이론』, 2016.
- 정구선, 「한국 중세사회의 여성과 성」, 정태섭 외, 『성 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 정미숙, 「나혜석 소설의 “여성”과 젠더수사학-「경희」, 「원한」, 「현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010.
- 정선태, 「『인형의 집을 나와서』: 입센주의의 수용과 그 변용」, 『한국근대문학연구』, 2003.
- 정실비, 「일제 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의 변전(變轉)」,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 정인숙,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화자의 자아인식: <식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 2010.
- 정종휴, 「日本民法典의 編纂」, 『법사학연구』 36, 2007.
-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9, 2008.
-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 2010.
- 정혜영, 「김동인 문학과 간통: 단편 <遺書>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7, 2006.
-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조미숙, 「여성의 상태와 나혜석의 글쓰기 - “경계”와 “아브젝트” 체험의 표현」, 『한국문예비평연구』 42, 2013.
- 조세형·정인숙, 「일반 논문: <시골여자 슬픈사연>과 <녀자의 설움>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구여성의 위기와 목소리」, 『국어교육』 133, 2010.
- 조유경, 「신문매체로 유포된 1940년대 경성 여성의 이미지」, 『미술사논단』 43, 2016.

- 조운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
- 조 은 · 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한민족어문학』 50, 2007.
- 조형래, 「근대계몽기, 범죄와 신소설」,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혜란, 「한성신보 소재 <조부인전> 연구-구여성의 자기각성과 현실대응양상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2014.
-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2012.
- 진영복,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담론과 균열 -이석훈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8, 2011.
- 최기숙, 「'사건화'된 일상과 '활자화'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2014.
-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결혼' 장려 문제」, 『일본학연보』 9, 2000.
- 최시한, 「가족 이데올로기와 문학 연구: 최서해의 「해돋이」를 예로」, 『돈암어문학』 19, 2006.
- 최윤정, 「김명순 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2013.
- 최은아, 「1930년대 가족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종고, 「나혜석(1896-1948)의 이혼과 고소사건-한국여성인권사의 한 단면」, 『아세아여성법학』 14, 2011.
- 최진석, 「데리다와 (불)가능한 정치의 시간」, 『문화과학』 75, 2013.
-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묘지와 “신석현(新瀉縣)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7, 2001.
- 최현식,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23, 2003.
-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하신애, 「최정희 문학의 모성 주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한만수, 「「만세전」과 공동묘지령, 선산과 북망산: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39, 2010.

- 허병식, 「교양소설과 주체 확립의 동력학: 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 2001.
- 허 윤, 「193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모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호 미, 「염상섭과 빠진(巴金)의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홍순애, 「근대계몽기 윤리학적 사유와 식민지 법의 길항-이해조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4, 2017.
- _____, 「법률이야기(legal story)의 정치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최찬식 신소설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8, 2014.
- 홍양희,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식민지시기 “간통죄”와 성(Sexuality) 통제」, 『법과사회』 51, 2016.
- _____, 「朝鮮總督府의 家族政策 研究: ‘家’制度和 家庭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31, 2014.
- _____, 「고아와 혼혈, 근대의 잔여(殘餘)들」, 『역사와 문화』 24, 2012.
- 홍인숙, 「‘첩’의 인정투쟁-근대계몽기 매체를 통해 본 ‘첩’ 재현과 그 운동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2009.
- 황국명, 「1930년대 가족사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8, 1994.

■ Abstract

Research on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the Dynamics of Family Law - Centered on the literature of 1910-1940 -

Lee, Haeng-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purposed to find the meaning of the family reflected in Korean modern literature through its relationship with contemporary family law. For this purpose, the phenomenon of family reformation shown in colonial Chosun's literature is critically analyzed, and the effort of finding better lifestyle inside and outside of legal order is observed through the imageries of literature.

The family law that influenced colonial Chosun's family is a policy that embodies complex characters of the conflict between modern and traditional values, gender inequality, and disciplinary authority. The law of family registry and the law of domestic relation, which laid foundation for family law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ttempted with best effort to normalize the families in Chosun with both modernity and governmentality. On the other hand, the traditional regulations that controlled the family order (which the family was important unit of the ethnic community) still had enormous influence, thus, created dynamic scenes as it competed and cooperated with modern law. The authors of

colonial Chosun directly faced the nature of independence and repression within the national law through the experiences in the daily lives, and epically realized the rights and the new image of family that were yet to be legalized/formalized. This is why the questions created by the tensions and conflicts of enforcing the family law are the essential stimuli to observe the individuals' lives, and the meaning of the community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about the progress of the family law's development on how it brought fundamental changes to the families in colonial period, and the changes that were made in family relationships and status. First,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law of family registry and the law of domestic relation, which built bases for the family law under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ere traced. As the families were reformed around the family law, the historic and holy community of family transformed into the gathering of individuals who can combine and dismantle through the contracts. Moreover,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herently addressed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family law was to bring civilized order to the families in Chosun, hiding the colonizing strategy and out-dated elements of the policy. Especially, as the family law emphasized the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under the suppression of feudal order, the conflict and tension around the women's rights within the contemporary family tradition became the vital elements that present the unstable reality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family law.

Although the intellectuals of Chosun recognized the efficiency of family law for the reformation of family, they took closer look at both sides of liberty and suppression in the people's daily lives caused by the law. The center of discussion was the legal status that was necessary for women's autonomy. While the interest on women's rights in 1910's was just an abstract focus on the individuals, the literature in 1920's and 1930's focused more on detailed problems within the realm of family law, such as divorce, concubine, and the second wife. Concerning the change

of the women's family name under the 'Changshigaemyung' policy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discussions focused on the women's rights in the society for their independence in life. In contrast to the nominal purpose of the law add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the focus of discussion was on the problem caused by the absence of authority on the borderline of legal system, which could not protect or restrict some of the people in the margin. Likewise, the development of the law in the early 1900's, and the emotions and ideas produced by the arguments on the law became significant important motivation and resource of literature for the writers in the colonized Chosun.

On the bases of these preparatory discussions,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3 to 5 categorizes the literary works by their synchronicity for analysis. It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problems of family law that were not only reflecting the background of the time period, but also forming the sense of independence, and observed the problems that are caused by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into 'legal family' in three different dimensions of spouse, family, and ethnic group.

The third chapter of main discussion contains the observation of how the women's rights were formed within the family through the literatures that deal with marriage and divorce in the society that only accepts legally approved spouses. The most distinctive chang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modern civil law was the fact that marriage was transformed into a private contractual matter. It was a necessary step to establish the meaning of modern family, but on the other side, it had produced the group of people who we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is legal system; thus, created minority group.

The literature meaningfully dealt with the raised voices from the women who were abandoned by the legal system, and this phenomenon appeared by the development of family law and the intimate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ies. The legal idea of divorce appeared in 1910's, but it was before the stipulation of detailed process, and the intellectuals firmly

believed in rationality of the concept of modern contracts. In this atmosphere of the time, the contemporary literature appeared to have concerns for the rights of wives as the traditional feminine figure. In 1920's, concubines became illegal by the legalization of monogamy. However, the social tradition contradictorily accepted concubines, so there was a great number of concubines in the time period; and the social criticism was merely on those individuals. The literary works of Kwang-su Yi and Myeong-sun Kim had depicted the internal characters of concubines who were separated from the society, and criticized the systematic problems, unlike the understanding of the mainstream discussion.

As the discussion on a new family model had dispersed in 1930's, several novels were created approaching a problem from the wives' viewpoints. These literatures had revealed that the family was built upon the unstable foundation unlike the mainstream discussions, which transfixed the gender roles within the family. Moreover, the concept of contract was examined and reinterpreted to bring up the issues on the gender inequality in the family law.

Chapter 4 observes the literatures that presented the critical views on the broad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law on the family orders and the fo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The family law of the time was one of the instruments for efficient control of the colony, and the family law which formed the families' autonomous order should have been included under systematic national law. As a response to this reality, the writers of this time period critically depicted destruction and dismantling of the family, and distorted family that does not follow the model of traditional form of family in order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family and individual that are not converged under the national law.

Chapter 4 also focuses on the value of fiction literatures that agreed to old-fashioned traditional rules to criticize the national law, defending the private punishment on the bases of personal emotion and instinct by epically narrating the family as the unsystematic space. On the

other hand, Sang-seop Yeom critically observed the reality of the families that were tangled with modern law and traditions by catching the scenes of changes that the families in Chosun had to experience into the form that can be easily controlled with the legal system. Especially, he epically narrated the problem of inheritance with repetition, depicting the individual's viewpoint that observes the people who lose the rights of inheritance and break the law, and being arrested by colony's authority. Mans-sik Chae and Hoon Shim critically depicted the limitation of legal system in supporting the families in colonized Chosun, under the influence of Bebel and Engels' discussions of women's legal rights, which were widely accepted in the time period. Furthermore, they seek for the alternative model of family in order to deliver the meaning of the family that does not belong to the legal system of the time period.

Chapter 5 focuses on the literature pieces that deals with the problems of ethnic unification that bring the limit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under colonial family law to the surface. The problem caused by Korean-Japanese intermarriage, which consistently increased after Japan had colonized Chosun, clearly shows the logic of assimilation and exclusion. The difficulty of realizing Korean-Japanese intermarriage was brought by the family registry system which restricts transfer between families, and there was no improvement on this issue until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families in colonial period was the indicator that helps the imagination of ethnic people. The traditional concept of valuing paternal line was negatively viewed by the family formed beyond the ethnic boundary. The modern literature depicted the exclusive character of family form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modern law and the traditional norms as problems. The meaning of home was formalized outside of the family register system and blood line, and the problems from the international love-relationship and formation of family by the women, who were comparatively easier to transfer between families than men, were epically narrated. In here, the writers included the meanings of family beyond the single-ethnic nation, and the criticism

on traditional model of pure-blood family.

Based on the fact that number of small and big events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around the families have close relation with the problems of the family law, this dissertation has proved the value of literature pieces that widely dealt with the problems of individual rights within the family and the nation from the dimension of feelings of law. This dissertation is also meaningful to provide a viewpoint to consider literature and society by discerning through the changes from the colonial family law and observing through the tendency of responses in modern literature that produced meaningful awareness of problem.

The problems of modern family's formation realized in modern Korean literature cannot be approached through any of the single frame of coordination and resistance, old and new, individual and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only the comprehensive view on complex aspects can identify the complete meaning. Concerning the fact that the family law succeeded after Korean independence,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at the writers in colonial Chosun provided ample possibilities of life from the family, which are valuable historic resources and important hints to understand the family in Korean society.

Key words: family, family law, legal emotion, human rights, civil law, customary law, family registration system,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monogamy, concubinage, divorce, adultery, contract, inheritance,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Korean-Japanese intermarriage

Student Number: 2011-30010